

한국전쟁전투사

백마고지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머 리 글

본 전투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1952년 10월에, 철원·금화·평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철의 3각지대에서 그 좌변 일각에 위치한 395 고지를 중심으로 하여, 국군 제9사단과 중공 제38군의 주력 2개 사단이 정면으로 대결한 혈전의 기록을 수록한 것입니다.

이 무렵의 전선은 대체로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된 채로 상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여기에서 351 고지를 비롯한 854 고지와 단장의 능선, 수도고지, 지형능선, 저격능선, 포크 찹(Pork Chop) 고지, 불모고지 등 거의 전 전선에 걸친 국지적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는 당시에 추진되고 있던 휴전 회담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피아 총력을 집중했던 전투이며, 특히 한국군으로서는 자신의 방어능력을 시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의의를 지닌 전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투사를 통하여 국지전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 실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전투에서 산화하신 호국영령 앞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1984년 12월 1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윤 석 우

일 러 두 기

1. 이 전투사의 문장은 평이한 한글로 서술하고, 인명과 지명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낱말에는 () 안에 한자나 영문자를 첨부하여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2. 본문의 장, 절, 항, 목 편성은 공문서식 양식을 피하여 항까지만 차례로 구분하고, 그 이하는 전투 내용에 따라 흑점으로 구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요도는 전개된 내용을 요약하여 본문에 삽입하고 종합상황도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4.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문교부 제정 표기법(편수자료집)에 따르고, 외국인 인명의 표기는 일률적으로 성만을 표기하되, 원명을 () 안에 첨부하였다.
5. 군사용어는 「합동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발행, 1983년도판)을 기준으로 하고, 군대부호는 국군의 독도법 교범(야전교범21—26, 육군본부)에 의거하여 표기하였다.
6. 작전명령과 작전지시는 양식과 문장에 관계 없이 당시에 하달한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되 한문만은 한글화 하였다.
7. 기후 및 기상은 당시 중앙 관상대의 기록에 따르고, 지역별 전투지대의 기상 상태는 본문에서 취급하였다.
8. 방향은 남북을 축으로 하여 표기하고 온도는 섭씨로 통일하

였다.

9. 중요지형이나 지점은 군사지도의 6계단 좌표를 첨가하여 보다 정확히 표시하였다.

10. 연·월·일·시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연·월·일 : 1952년 10월 6일

시간 : 오전 3시 20분—03 : 20

오후 6시 30분—18 : 30

단, 작전명령과 () 안의 표기는 (1952. 10. 6. 18 : 30)

과 같은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11. 본문중에 나오는 제급은 전투 당시의 제급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차 례

제 1 장 전투의 배경.....	(7)
1. 백마 고지 전투란 ?	(7)
2. 명칭의 유래	(8)
3. 전선의 고착과 휴전 회담.....	(10)
제 2 장 전투 전의 상황.....	(17)
1. 일반 상황	(17)
(1) 기후 및 기상	(17)
(2) 광명제원	(18)
(3) 작전지역의 특징.....	(18)
(4) 장애물과 주요접근로.....	(20)
2. 피아의 상황.....	(22)
(1) 제 9 사단의 진출 경위	(22)
(2) 395 고지 전투의 효시	(24)
(3) 적정탐색	(26)
(4) 배속전환과 인사 이동	(26)
(5) 중공 제38군의 출현	(28)
(6) 적의 배치 상황	(31)
(7) 적의 기도.....	(33)
(8) 사단의 대비.....	(36)

제 3 장 제30연대의 서전.....(45)

1. 중공 제340연대의 선제공격.....(45)
 - (1) 적의 공격준비사격.....(46)
 - (2) 아군의 대포병사격.....(49)
 - (3) 적의 공격.....(51)
 - (4) 아군 지원부대의 활동(55)
2. 제30연대의 초전 상황.....(60)
 - (1) 전초지키 ~~않~~ 교수.....(61)
 - (2) 제 1 차 공격의 격퇴(65)
 - (3) 적의 파상공격.....(67)
 - (4)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역습(76)
 - (5) 3 시간의 혈투와 진지 교수.....(82)
3. 전초중대 구출작전(91)
 - (1) 제 3 대대(一)의 초월공격.....(93)
 - (2) 제11중대의 파탄.....(96)
4. 중공 제334연대의 진출(98)
 - (1) 적의 반격.....(98)
 - (2) 제 1 중대의 395 교지 상실(99)
 - (3) 부대교대(102)

제 4 장 제28연대의 공격과 방어(105)

1. 제28연대 제 2 대대의 역습(107)
2. 중공 제334연대의 반격(111)
3. 제28연대 제 3 대대의 역습(117)
 - (1) 초반의 고전.....(118)

(2) 증강되는 적세.....	(120)
(3) 아군의 전력 증강	(121)
(4) 395 고지 재탈환.....	(123)
4. 새로운 예비대.....	(127)
5. 중공 제342연대의 출현	(134)
(1) 밀집방어의 득실.....	(136)
(2) 제일파의 격퇴.....	(139)
(3) 백마산의 위기.....	(140)
(4) 저지진지의 급편.....	(145)
(5) 제28연대 재편성부대의 역습 실패.....	(147)
 제 5 장 제29연대의 출동.....	(150)
1. 사단 작전명령 제87호.....	(150)
2. 제29연대(一)의 반격	(156)
(1) 목표 A의 탈환.....	(158)
(2) 제 1 대대의 최초 공격 상황.....	(161)
(3) 전투지경선 조정.....	(162)
(4) 목표 B의 탈환.....	(165)
(5) 사단장의 결의.....	(168)
3. 적 역습의 격퇴	(169)
4. 정상의 혈투와 특공대의 수훈	(174)
5. 사단의 계획.....	(176)
6. 중공 제335연대의 반격	(184)
(1) 전황의 급변.....	(185)
(2) 연속되는 혈투.....	(186)

7. 계획의 수정과 새로운 공격.....	(190)
(1) 계획의 수정.....	(190)
(2) 제29연대의 395 고지 재탈환	(192)
(3) 제30연대의 공격과 철수	(195)
8. 중공 제335연대의 역습	(197)
9. 사단의 동정	(199)
(1) 병력 보충.....	(200)
(2) 진지교대	(202)
(3) 국내외에 보도된 백마 고지 전투	(203)
 제 6 장 사단의 결전	 (205)
1. 사단 작전명령 제88호.....	(205)
2. 제30연대 제 1 대대의 395 고지 탈환	(209)
3. 제30연대의 임무 전환.....	(213)
(1) 진지 교대간의 전투	(217)
(2) 야간방어의 성공.....	(218)
4. 제28연대의 초월공격	(224)
(1) 제 3 대대의 초전 상황	(227)
(2) 장송 고지의 격돌	(231)
(3) 제 3 대대의 철수.....	(235)
5. 391 고지의 상황.....	(237)
(1) 391 고지의 상실	(238)
(2) 제29연대 제 7 중대의 역습 좌절.....	(242)
6. 대통령의 부대 방문.....	(243)
7. 마지막 결전.....	(245)

(1) 제29연대 제 1 대대의 고전	(248)
(2) 주저항선의 정비	(252)
(3) 제29연대 제 3 대대의 목표 A 탈환	(253)
(4) 제29연대 제 2 대대의 목표 B·C 탈환	(257)
8. 전투 후 피아의 상황	(258)
제 7 장 전승의 의의	(260)

부 록

1. 전투 일지	(269)
2. 피아 전투 서열	(284)
3. 각종 통계	(287)
4. 증언자 인명록	(291)
5. 색 인	(295)
6. 상황도	(301)

요 도

요도 제 1 호	백마산 지형도	(19)
요도 제 2 호	395고지 방어 화력 계획도	(42)
요도 제 3 호	장애물 설치도	(47)
요도 제 4 호	포병의 화력대 할당표.....	(49)
요도 제 5 호	중공 제340연대의 제 1 차 공격 상황	(53)
요도 제 6 호	제53전차중대의 활동 상황.....	(58)
요도 제 7 호	제30연대 제 3 대대의 철수 상황	(71)
요도 제 8 호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역습 상황	(79)
요도 제 9 호	제 1 차 395 고지 철수 상황	(101)
요도 제10호	제28연대 제 2 대대의 공격 상황	(109)
요도 제11호	10월 8일 22 : 00 현재의 상황	(122)
요도 제12호	10월 8일 24 : 00 현재의 상황	(126)
요도 제13호	10월 9일 02 : 00 현재의 상황	(135)
요도 제14호	제53전차중대의 10월 9일 활동상황.....	(146)
요도 제15호	10월 9일 09 : 00 현재의 상황	(154)
요도 제16호	10월 10일 00 : 30 현재의 상황.....	(167)
요도 제17호	10월 10일 07 : 00 현재의 상황.....	(172)
요도 제18호	10월 10일 13 : 20 현재의 상황.....	(176)
요도 제19호	10월 11일 07 : 00 현재의 상황.....	(189)
요도 제20호	10월 11일 13 : 00 현재의 상황.....	(194)
요도 제21호	10월 12일 16 : 50 현재의 상황.....	(216)
요도 제22호	10월 13일 01 : 30 현재의 상황.....	(222)
요도 제23호	10월 15일 18 : 00 현재의 상황.....	(257)

제 1 장 전투의 배경

1. 백마고지 전투란?

백마고지 전투, 백마산 전투 또는 395 고지 전투 등으로 불리는 이 전투는 3년 동안의 한국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전개했던 시기인 1952년 10월에, 철원(鐵原) 부근의 효성산(曉星山) 기슭에서 해발 고도 395 m밖에 되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작은 고지를 놓고 한국 보병 제 9 사단과 중공 제 38 군이 전력을 기울여 쟁탈전을 벌인 끝에 제 9 사단의 승리로 매듭지은 전투를 말한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에 걸쳐서 전개된 이 전투에서 국군 제 9 사단의 3개 연대와 중공 제 38 군의 7개 연대가 오직 395 고지 하나를 빼앗기 위한 혈전을 벌이는 사이에, 적측에서는 전사자 8,234 명을 비롯한 추정 살상 6,098 명과 포로 57 명 등 누계 14,389 명의 인적 손실을 보게 되고, 아군측에서도 장교 117 명과 사병 3,299 명 등 3,416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작전기간중, 피아간에 발사한 포탄 수만 보더라도 적군측이 55,000 발에, 아군측은 219,954 발을 기록하여 도합 274,954 발이라는 포격이 이 작은 고지 일대에 집중되었다. 항공지원에 있어서도 미 제 5 공군과 동해의 함재기 편대가 총 754 회를 출격 지원하였으며 그중 야간 출격만도 76 회에 달하였다. 그리고 산악 지대

8 제1장 전투의 배경

임에도 불구하고 피아간에 전차까지 동원하여 보·전·포 협동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전투 규모와 그 결과 등을 헤아려, 마치 미군이 한국전쟁의 고지 쟁탈전에서 대표적인 지명으로 포크 찹(Pork Chop) 고지를 손꼽듯이, 우리는 이 백마고지 전투를 한국전쟁에서의 대표적인 고지 쟁탈전의 전례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2. 명칭의 유래

철원 북서쪽 12 km 지점에 위치한 이 고지는 추가령 지구대(楸哥嶺地溝帶)의 한 줄기인 고암산(高岩山)과 효성산이 잇달아 남쪽으로 떨어 내려 오다가 철원 평야에 이르러 남동향으로 돌출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전투가 있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던 조그마한 야산으로, 보는 이가 일컬어 산명리(山明里) 앞산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무명고지였으나 전선(戰線)이 고착된 뒤로 “철의 3각 지대”를 감제하는 중요한 지형지물로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백마고지는 행정 구획상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江原道 鐵原郡 敎長面 山明里)에 위치하고, 군사 지도상으로는 CT 381 ~ 399 지점에 솟아오른 표고 395 m의 주봉을 중심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능선이 떨어 내려 약간 긴 구릉을 이룬 독립고지이다.

이 고지의 전술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7장에서 상술할 것이므로, 우선 백마고지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유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제 9 사단이 철원 지역으로 진출하여 미 제 3 사단으로부터 작전 지역을 인수한 1951년 10월 이후, 줄곧 이 지역의 작전을 “395 고지 수색전”, 또는 “395 고지 전초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1년이 지나 본 전투가 개시된 이후에도 10월 10일까지는 모두 395 고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가 본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10월 11일에 갑자기 백마고지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다. 이 때부터 395 고지, 백마고지, 또는 백마산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백마고지라는 명칭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 곳에 백마고지라는 명칭이 붙여진 유래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작전기간중 포격에 의하여 고지의 수림이 다 쓰러져 버리고 난 후에 나타난 산의 형태가 마치 누워 있는 백마처럼 보였기 때문에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당시 참전했던 어느 연대의 부연대장이 외신 기자의 고지 명칭에 대한 질문에 화이트 호스 힐(White Horse Hill)이라고 대답하여 비롯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설로는 외신 기자들이 수많은 조명탄 투하로 말미암아 하얀 낙하산 천에 뒤덮인 산의 지세를 보고 이를 형용하여 별명을 붙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등 구구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고지 주변에는 본사부터 상마산(上馬山), 중마산(中馬山), 하마산(下馬山)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고, 말 고삐를 여며 매었다는 약산동(約山洞)과, 붉은 안장을 의미하는 가단동(加丹洞) 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특유의 지세에 따른 명칭,

10 제 1 장 전투의 배경

즉 천마(天馬), 용마(龍馬), 백마(白馬) 등의 관념적인 명칭이 오래 전부터 전해 오다가 이 전투를 계기로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자들의 예리한 시각이 작용하여 고도(古都)의 설화에 얹힌 옛 이름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 모두가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1952년 10월 11일부터 국내외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 “백마고지의 혈투”라는 표제와 속보가 등장하면서 철원의 395 고지는 마침내 백마산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이 명칭은 조선 시대의 광해군조(光海君朝; 1608~1623)에 임경업(林慶業) 장군이 평북 의주군(義州郡)의 백마산에서 산성을 쌓고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일으킨 오랑캐에게 저항하였던 옛 싸움터와 같은 이름으로서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전승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고지 명칭이 역사적 감정으로 느낄 때에는 일말의 감회가 없지 않지만 작전과는 하등 무관한 일이며, 이보다도 먼저 이 전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왜, 피아간에 작전을 극도로 제한하여 사방(四方) 2 km 내외의 백마고지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군단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가며 혈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전선의 고착과 휴전 회담

흔들리는 시계추가 멈추듯, 밀고 밀리던 한국전쟁 초기의 기동전(機動戰)도 1951년 6월을 고비로 끝이 났다. 이 때가 국군 및

UN군이 1951년 봄에 중공군의 전력투구에 의한 춘계공세를 격퇴하고 즉각 반격으로 진환하여 캔사스-와이오밍(Kansas-Wyoming)선으로 재진격한 시기이다. 이 때부터 한국전쟁의 양상은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의 참호전이 재현된 듯한 진지전(陣地戰)으로 변모하였다.

국군 및 UN군은 일단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재진출하였지만, 여기에서 계속 전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전쟁을 종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 우군은 확전을 우려한 미 합참(合參)의 지시로 캔사스-와이오밍 선을 넘어 진격할 수가 없다는 제한(1951. 6. 1의 미 합참 지시)을 받고 있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결국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협상에 의한 전쟁 종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중공군도 그들로서는 전력을 다하여 최후공세(중공군의 1951년도 춘계공세)를 강행해 보았지만 UN군의 막강한 화력과 맞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국의 분단을 전제로 한 현상 유지, 즉 38도선 이북 지역에 북괴라는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완충 지대를 확보한 선에서 전쟁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당시, 포로 심문에 의하면 중공군 내부에서는 대규모 집단 이탈이 일어날 정도로 중공군의 전력이나 사기가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국내의 반전 여론과 동맹국들의 38도선에서 휴전하자는 압력, 그리고 거

의 무한에 가까운 인적 자원이 뒷받침된 중공의 강력한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군사력에 의한 목적 달성(UN의 1950. 10. 7. 통한 결의의 이행)을 포기하고 정치 협상으로 한국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산측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할 능력이 없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은 이를 추구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하튼 전선의 상황은, 개전 초나 중공군의 개입 당시와 같이 적이 우위에 선 것도 아니요, 반대로 압록강을 향한 북진 때처럼 우군이 우위를 확보한 것도 아닌, 상호의 전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상황은 타협뿐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주 UN 소련 대사 말리크(Jakov A. Malik)가 6월 23일자의 방 송 연설을 통하여 휴전 협상을 제의해 왔다. UN군 측은 즉각 이를 받아들였고,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휴전 회담의 진행은 곧 암초에 부딪혔다. 적은 휴전 회담을 자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대의 재편, 전투력 증강 및 진지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UN군은 교착된 휴전 회담을 진척시키고자 “지면의 확보보다는 현 방어선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제한된 공격을 재개하여, 적에게 협상 타자로 복귀하도록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압력을 가하는 한 방법으로서 서부 전선의 주저항선을 10 km 전진시킨 콤맨도(Commando) 작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중부 전선에서는 금성(金城) 부근까지 밀고 올라갔다.

UN군의 압력으로 절렬 상태에 있던 휴전 회담이 1951년 10월 22일 재개되기에 이르고 전선은 또 다시 고착되었다. 이 때부터 전체적인 전국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의 정찰전, 포로 획득을 위한 습격과 이를 저지하려는 매복전, 그리고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려는 국지전인 고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소규모의 국지적 충돌은,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부수적으로는 “장병들에게 화약 냄새를 맡게 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의 155 마일 전선에 전개되고 있는 이들 전투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종의 양값음인, “네가 한 대 치니까 나도 한 대 쳐야지.” 하는 보복의 성격이 농후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적은 주로 야간에 인해전술로 아군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여 점령하면, 화력과 기동력에서 우세한 아군은 보·전·포의 협조된 주간공격으로, 잃었던 전초진지를 탈환하곤 하는 것이 일상의 전투 양상이었다. 또한 전 군단내의 수백 문의 포가 한 작은 고지의 쟁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만 발의 포탄을 집중하고, 투입 병력의 규모도 분대에서, 소대, 중대, 대대로 확대되어 결국은 전투 공간이 확대되어 더 이상의 부대 전개가 곤란하게 될 때까지 병력을 투입하여 결전을 벌이곤 하였다. 이는 전투가 벌어진 전초진지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다. 충돌이 점차 확대되어 사상자가 늘고, 막대한 양의 탄약을 소모하게 됨에 따라 결코 진지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부대의 명예”를 걸게 되었으며, 특히 사단장이나 군단장과 같은 상급 지휘관들이 이와 같은

14 제 1 장 전투의 배경

고지 쟁탈전에 앞장을 섰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형지물의 확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투쟁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월에 재개된 휴전 회담에서는 비록 1개월간(11월 27일부터)으로 한정된 것이지만 현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는데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른바, “1개월 간의 잠정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UN군 사령관 릿지웨이 대장은 미 제 8군 사령관 벤 플리트 대장에게, 그의 허락 없이는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는 공격을 실시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하달하여 더욱 제한 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1개월 간의 잠정 휴전은 공산국 측에게 숨들릴 틈을 주었을 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이 났다. 그들은 이 기간을 종심이 20여 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견고한 방어 지대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였다. 적은 지원포병의 각종 포를 요새화한 지하 엄체에 배치함으로써 야에 기동전을 포기하고 진지전에 대비하였다. 이리하여 이 때부터 대진 양군은 그 어느 쪽도 큰 손실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소규모의 정찰전이나 고지 쟁탈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빈번히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휴전이 조인되던 날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동안 결전의 빈도가 잦았던 전초진지와 고지 등에는 각기 특이한 별명이 붙여져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즉 서부로부터 불모고지(일명, Old Baldy), 포크 찹(Pork Chop), 백마고지, 저격능선, 수도고지, 단장의 능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지 쟁탈전의 특징은 본 전투가 일어나기 5개월 전인 1952년 5월 12일에 릿지웨이 대장의 후임으로 UN군 사령관에 부

입한 클라크 대장이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적은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대병력을 집결시켜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이 인명 피해를 개의치 않고 인해전술로 파상공격을 가하여 오면 아군은 고지를 사수하다가 유린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감행하였으며, 그 때마다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고, 당시의 막대한 물량 소모전의 양상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고지 쟁탈전에서 입은 UN군의 병력손실은 전쟁 초기에 입은 8만의 피해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매년 3만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여, UN군이 최상의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산—철의 3각 지대—간성 선을 확보하면 큰 병력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빚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휴전 회담은 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UN군 측이 주장하는 “자유 의사에 의한 송환” 원칙과 공산측의 “무조건 전원 송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여 타협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동안 전선 도처에서 고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전선 상황과 휴전 회담이 다같이 교착되자, UN군 측은 이를 타개하고자 포로 교환 문제를 포함한 “일괄 타결안”을 제안(1952. 4. 28.)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그들의 상투 수법인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는 데 열중하였으며, 이 무렵에 그 유명한 “세뇌 교육”, “세균전 선전”,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켜 서방 세계의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선전 공세에 광분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군은 동원 가능한 해·공군력을 총동원하여 적의 병참선 차단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들 해·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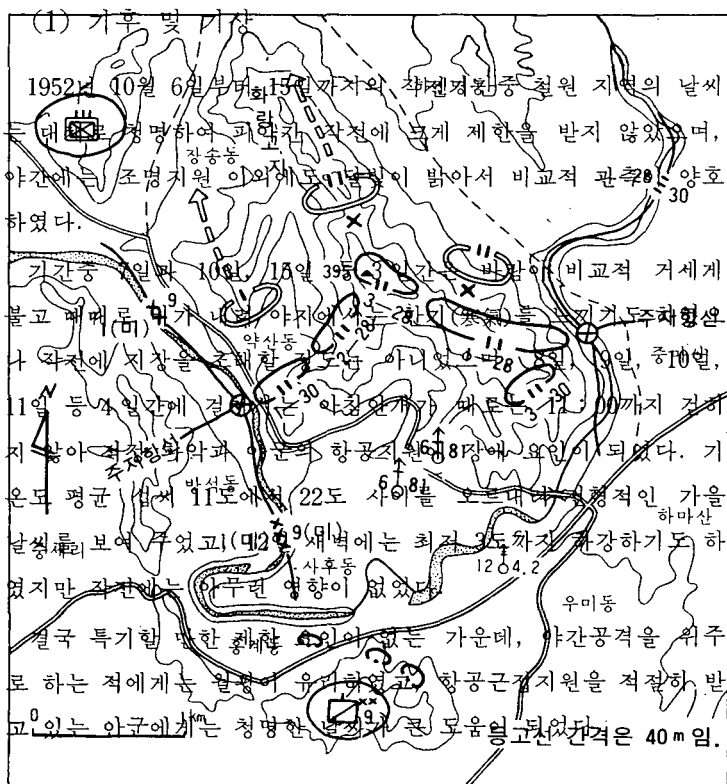
16 제 1 장 전투의 배경

의 스트랭글(Strangle), 사투레이트(Saturate), 또는 에어 프레쥘러(Air Pressure) 작전은 작전 명칭이 뜻(목조르기, 집중폭격, 대공습)하듯이 적의 주 보급로 및 보급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과 함포사격, 그리고 원산, 홍남 및 진남포와 같은 주요 항구의 봉쇄에 역점을 두었다. UN 해·공군의 압력은 1952년 6월 말에 이제까지 자제해 왔던 수봉, 부전 및 장진호 등에 대한 발전 시설 폭격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지상전에 있어서도 6월로 접어들면서 전선은 여전히 고착된 가운데 고지 쟁탈전이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중에 미 제45사단이 철원 서측방의 역곡천변에 위치한 11개 목표를 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Counter)작전을 23일간(6. 6. ~6. 28.) 전개한 끝에 이를 모두 점령하였다. 7월에 접어들어서는 서부 전선의 불모고지와 동부 전선의 351 고지에서 공방전이 있었을 뿐 때마침 닥쳐온 장마와 홍수로 거의 접전이 없었다. 다만 7월 11일 UN 공군기 1,234대에 의해 처음으로 평양 대폭격이 실시되었다. 8월의 상황은 여전히 장마의 영향을 받아 소강 상태의 전황이 이어져 오다가 한 차례 서부의 미 제2사단이 불모고지에서, 중부의 수도사단이 수도고지에서 각각 고지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되기 한 달 전인 9월 6일에 개시된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를 필두로 불모고지, 켈리(Kelly) 고지 및 575 고지 등에서 격렬한 고지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10월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전선 제일의 요충지인 “철의 3각 지대” 좌변각의 철원과 우변각의 금화를 각각 감제하는 백마고지와 저격능선에서 일대 격전이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점과, 바로 이 제114사단이 서전에 제340연대를 투입했다가 실패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사단장의 인책 문제도 강론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그야 어찌되었든, 이제 선후태가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공 제342연대가 연대 정면에 새로이 나타나 독전의 최적일반두상황 백마산으로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요도 제13호 10월 9일 02:00 현재의 상황



(2) 광명 제원

(1) 밀집방어의 특질
기간중의 주야간 광명 제원은 다음과 같다.

직속대서는 먼저 공격에 앞서 전과 다름없이 대대적인 공격준

구분	연제	후	아군	고지
비상경계 실시하였다.	연제	후	아군	고지
전한 6 (18) 아군의 재편성	33나	부대	중원을 방위하기 위해	포격
을 재속해 (19) 전 적은	23062034터	이 불	대쪽 증	공격
8 (20)	06:35	18:06	21:02	11:46
전인 9 일 (00:20)까지	1 시간 동안에	결치	집 중	사격
원을 0 다치 (22) 전으로	뒤 06:37	하 였	18:03	22:56
11 (23)	06:38	18:02	23:57	14:11
12 (24)	06:39	18:00	23:27	14:44
의 전 지진 (25) 지대에	06:39	18:00	23:27	14:44
전인 4 (16) 아군의 발	달 06:40	동시	집 중	사격
15 (27)	06:41	17:56	02:55	16:02
원이 개시되기도 전에	상당한	사상	자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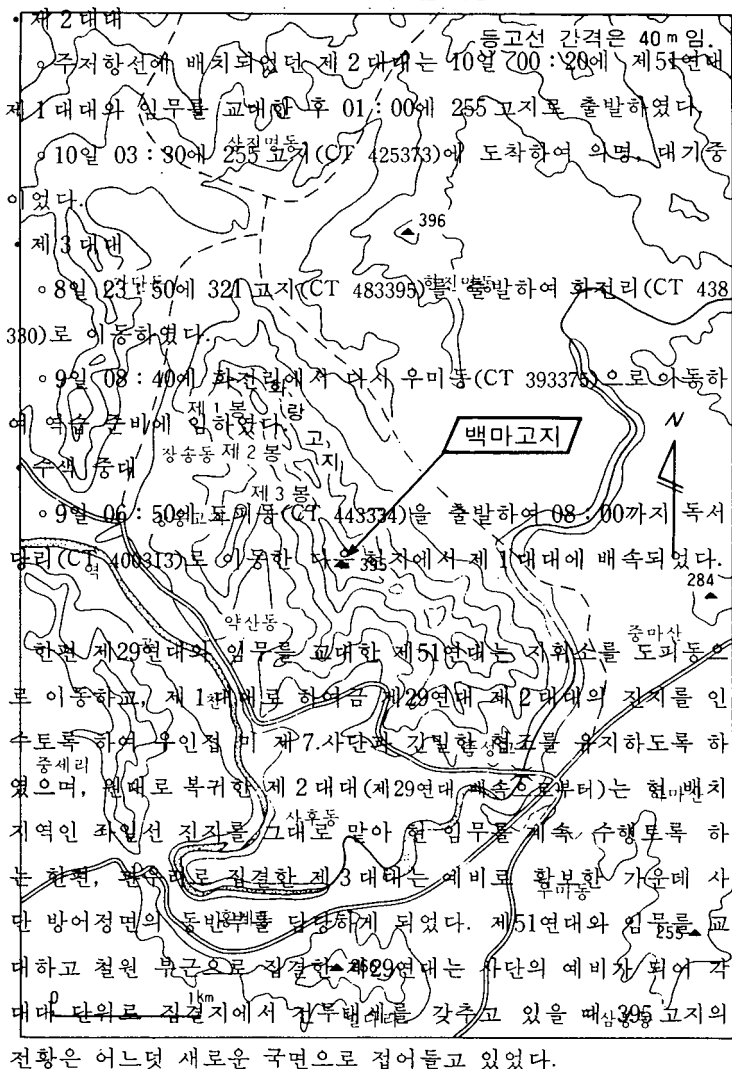
* 자료: 육군 정기 정보보고

이 무렵인 10월 8일 24:00 현재, 제28연대의 병력배치 상황을 보면, 주저항선에는 좌로부터 제30연대 제1대대(배속), 제28연대

(3) 작전지역의 특징
제2대대, 제3대대, 제1대대 등 4개 대대가 일선에 배치되어 있다. 군백수류사상선전30연대부분제3개 대대와 공화관개철외색이연반 해되어있었다. 95 고지만이 유일하게 구릉으로 이어진 반면에, 적 진은 해발 610m의 울 상산을 각기에서 526.5m (543.5)와 459.1고지(CT가9148)와빛방396 점전(CT가351232)등00연대외로 전문 전면표대, 900m에배배채를 갖게 해전제대형상조표 마라외 면처를 배치되어온아군대세 불리하였다.

특히쳐 북면반복려 형화하고요과적으로활용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산재한 데 비하여, 아군은 적의 직사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요도 제 1 호 백마산 지형도



20 제2장 전투 전의 상황

134 제4장 제28연대의 공격과 방어

단한 은폐와 엄폐물이 없었으며 관측과 사계에도 제한을 받아 이
죽, 제28연대(+)가 8일 23:05에 395 고지를 탈환한 후 전열을
를 인위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군의 전지 가운데
재정비하고 진지를 보강하며 방어태세를 취하던 중, 적측에서 또
395 고지는 비교적 고지대가 되어 적으로서도 위협을 받는 지형이
다시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다섯 번이나 실패했던 395 고지 공
기 때문에 회야간 생활의 초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격전을 재개함으로써 백마산의 공방전은 당 몇 시간의 여유도 허
적에게 감제되기는 바뀔까치였다. 밤마다 당 몇 고지마저도 해후에
용되지 않은 채 피나는 격전이 반복되고 있었다.

는 넓은 벌판이 4 km 가까이 이어지고 천향에는 적진과 작은 구

름으로 연결한 까닭에 아군은 지원부대의 활동과 예비대의 운용에
크게 제한을 받았다. 특히 아군은 역습부대의 집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삼봉동(三峰洞)의 255 고지로 한정된 불리한 점을 안
고 있는 데 반하여, 적은 병력 분용이 용이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많은 통행 간에 융통성이 있었다. 그리고, 아군
은, 395 고지에서 물러선 지 1시간 30분도 못 되는 9일 00:20에
다시, 제342연대를 투입하여 적을 향해 이 고지에 대한 공격을 받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제한 요인이 작용하여 역곡천변으로
분적으로 시도해 왔다.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만일 아군이 제공권마저 장악하
지 못했다면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지
역이었다.

에 연대 통신대에서 적의 무선 교신을 직접 청취하였는데, 오늘

밤(4) 양에 395 고지를 탈취한지 못하면 사단장을 총살하겠다는 엄

명과 함께 제342연대를 즉각 투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술
평강 지역에서 발원하여 395 고지를 남쪽으로 간돌아 다시 서쪽
회한 다음, 그 이전까지는 적측에서도 암호를 사용하였으나 상
으로 흘러대리는 역곡천은 작전지역을 횡단하는 유일한 하천으로
황이 워낙 급한 탓인지 직접 구두로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이 떨
서, 그 하폭이 20~50 m까지 미치는 곳도 있으나 수심이 얕기 때
어진 직후에 적의 대대적인 포격이 개시되는 것을 보고 재공격
문에 정상시에는 대부분 도성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기에 봉
이 압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술회하였다.

대호의 수문을 모두 개방할 경우에는 급류가 제방까지 넘쳐 흐르
그리고 제9사단 전투상부에 의하면, 제6차 공격을 감행한 적
는 까닭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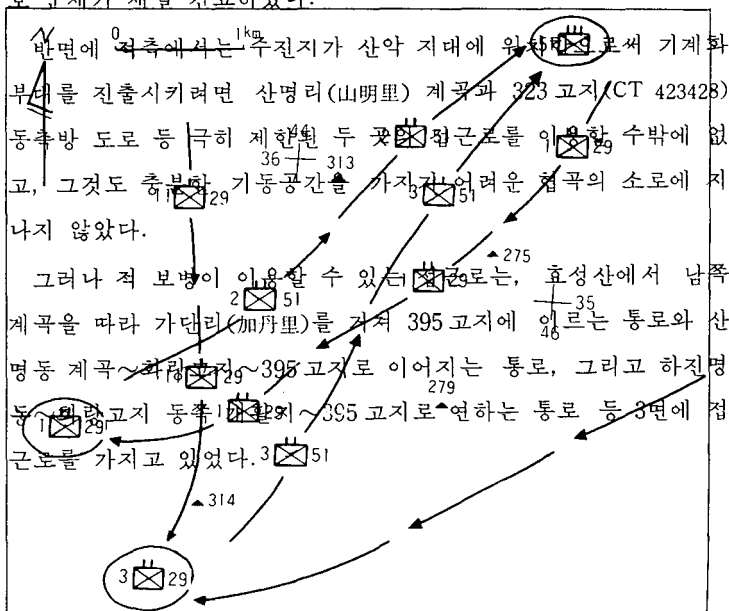
은 중공 제114사단 예하 제342연대로서 병력이 2,331 명에 불과한

4285. 10. 9. 08:00부터 제5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395 고지(가림산)의 평야 지대는 대부분 수답 지역으로서 우기가 아니면 고지(가림산)를 비롯하여 철계를 부대(가림산) 등에도 지장이 없었으며, (2) 부대(가림산) 상(가림산)을 무(가림산) 3월 한도로와 464번 도로가 종횡 4.0km 정도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현 군사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산명 호별곡주치(CT 4138)는 전투 후에 농업 용수를 저장하기 위하여 5개 팔각 뿔(가림산) 당시에는 실개울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보 부대(가림산) 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 밖에 작전에 영향을 새할 작함(가림산) 장애(가림산)이 존재(가림산) 없으므로 아군에게는 역곡천의 범람에 대비한 충성교(M-2 보판교)의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가림산)하였다.

작전명령 제86호 별지 투명도



이 지시에 대한 사단의 준비명령은 문서명령 하달 시간보다 8 시간 전인 12 : 00에 이미 구두로 하달되었으며, 교대부대인 제51연대은.벌피 9월 10일 00시 00분으로 이동 개시하였고, 피교대부대인 제29연대는 예비대대를 먼저 출발시킬 계획 아래 이동태세를 갖추(제9사단과 작전지역을) 집결 장소도 또한 백마산과 가까운 독서당리와 화전리 및 266 고지 일대로 지정하여 한시라도 빨리 제9사단이 철원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리 제29연대의 주력을 철원 부근으로 철수, 전투태세를 갖춘 다 되기 만 1년 전인 1951년 10월 17일에 현지 담당 부대였던 미 제5음 장차 백마산으로 진출시킬 예정이었던 것이다.

3 사단의 작전 지역을 인수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제29연대는 제28연대 제3대대가 395 고지 탈환전을 본시 제9사단은 전쟁 초기인 1950년 10월 25일에 충청도 출신 전개하는 동안 철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 장병을 기간으로 한 제28연대와 제29연대 및 제30연대를 모체로 하던 중, 다시 전황이 급변하여 두 번째로 탈취했던 395 고지에서 창설된 부대로서, 창설 직후에 2개월 동안을 전북과 경북 등 후 재차 물려서게 되자 곧 그 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역습부대로서 방의 공비 출몰 지역에서 공비 토벌 작전에 임하다가 이 해 12월 출동하게 되는바, 이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 때 사단장의 이 갈 말에 최초로 일선에 나선 부대이다.

은 사전 조치는 시기 적절하고도 대담한 용단이었다고 하지 않을 당시는 38도선 부근에서 한국 전사상 두 번째로 대대적인 공방 수 없다. 참고로 제29연대 각 대대의 이동 시간과 집결지를 살 전을 전개하던 시기로서, 이 때 제9사단은 전방으로 진출한 후, 췌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동부 전선의 산악 지대에서 작전에 임하였으며, 그 동안 1951년 제1대대 한때 한계령(寒溪嶺) 부근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바로 그(개월)후인 5월 중순에 이른바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 3대대 원리(縣) 후 21에 3개 회전전을 출발하였다.

9월 04 : 00 독서당리(CT 405313)에 도착하여 군장 검사를 위 망을 돌려, 철수하면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었다.

마침 다음 08 : 00에 다시 266 고지(CT 382373)로 이동, 09 : 30까 이를 계기로 부대를 재편, 강화하여 심기 일전한 사단은 다시 지 집결 완료하고 역습 준비에 임하였다.

서부 전선으로 이동, 1951년 6월 2일부터 미 제1군단에 배속과 단 제2중대는 10일 19 : 30에 제5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11 동시에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진출중인 동 군단의 진격작전에 일 23 : 00에 255 고지(CT 415374)로 집결 완료하여 대기하였다. 가담하여 철원 남쪽의 보개산(寶蓋山)과 고대산(高臺山)에서 중공

1. 상 황

제165사단을 격파한 다음, 동년 6월 하순에는 다시 금화(金化) 북
 가. 적정: 정보부록 참조
 쪽의 계웅산(鷄雄山)에서 중공 제20군 예하 제59사단을 격퇴하고,
 나. 군단 및 좌측 미 제2사단은 계속 현 미조리 선을 확보중,
 철의 3각 지대로 진출하였다. 그 후 1951년 8월 2일 사단의 작전
 다. 미 제49보병대대와 제73전차대대는 계속 사단을 지원함.
 지역을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富

2. 임 무

坪里)에 있는 제1 야전훈련장(FTC#1)으로 철수하여 그 동안 미
 사단은 우제일선 연대를 제51연대로 하여금 전투임무를 교대
 흡했던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케 하고 제29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보유하려 함.

제7대 사단장 박병권(朴炳權) 준장의 지휘 아래 여기에서 8주
 이동개시 일시: 4285. 10. 8. 19:00
 간의 교육 훈련과 함께 인원과 장비를 보충하고 부대를 재정비 강
 이동완료 일시: 4285. 10. 9. 06:00
 화한 사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10월 17일 08:00를 기하
 교대개시 일시: 4285. 10. 9. 20:00(우제일선 대대)
 여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 미 제1군단의 우익인 철원
 교대완료 일시: 4285. 10. 9. 23:00(우제일선 대대)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동 집결 지점: 별지 투명도 참조

당시에 아군은 공산군 측에서 고의로 휴전 회담을 지연시키는

이동 방법: 도보이동

데 대한 압력 수단으로 제한공격을 단행하여, 10월 초부터 약 2
 3
 일 동안에 걸친 공격 끝에 서부 전선에서는 10km를 전진, 제

가. 제28연대
 임스 타운(James Town) 선을 확보하고, 중부 전선에서는 금성 부
 현 임무를 수행하라.
 근의 노마드~폴라(Nomad Polar) 선으로 진출하는가 하면, 동부

나. 제29연대
 전선에서는 단장의 능선과 가칠봉(加七峰), 그리고 남강(南江) 부

(1) 4285. 10. 8. 12:00부터 4285. 10. 9. 06:00간에 있어서
 근까지 진출하는 등 3개 전선에서 대체로 지금의 휴전선 부근까
 예하 예비대대(2개 대대)를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지시된 집
 지 진출하였다.

결지로 이동 집결하여 사단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이 때 서부 전선에서 제임스 타운 선으로 10km를 전진한 콤

(2) 4285. 10. 9. 20:00부터 4285. 10. 9. 23:00간에 우제일
 맨도(Commando) 작전에서, 미 제3사단이 중공 제42군을 철원 평
 선 대대의 전투임무를 제51연대의 1개 대대와 교대시킨
 야에서 격퇴하고 효성산 남쪽의 돌출 고지인 395 고지와 281 고지
 후, 별지 투명도에 제시된 집결지로 이동 집결시켜 사단
 를 탈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제9사단이 이 곳으로 진출할 당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시에는 이미 아군이 문제의 395 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지를

(3) 4285. 10. 9. 08:00부로 우제일선 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51연대장에게 인제함과 동시에 우측 대대(제2대대)는 교 육본 작전지시 제110호에 의거, 10월 15일 06:00부로 미 제1 대원료시까지 제51연대에 배속하라.

군단에 배속된 사단은, 10월 17일 08:00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다. 제30연대

에 걸쳐서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여, 미 제1군단의 우 현 임무를 수행하라.

일선 사단으로서 군단의 방침에 따라 제30연대를 우, 제29연대

라. 제51연대

를 좌, 제28연대를 예비로 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중강리~유정 리~284 고지(CT 406396)~395 고지(CT 381399)~281 고지(CT 3533

예하 주력(2개 대대)을 별지 투명도에 제시된 집결지로 이동

85)를 연하는 주저항선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집결하라.

이 주저항선은 철원 평야의 북단(北端)과 적의 주진지인 효성산

(2) 4285. 10. 9. 20:00부터 4285. 10. 9. 23:00간에 있어서 남쪽의 작은 고지들을 횡으로 연결한 야산 지대로서, 그 중에도

예하 1개 대대로 하여금 우제일선 연대 우측 대대(제29연

특히 395 고지와 281 고지는 평강~철원~의정부로 이어지는 3번

대 제2대대)의 전투임무를 인수케 하라.

도로와 철원 일대를 감제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피아간에 이 곳

(3) 4285. 10. 9. 08:00부로 제29연대장으로부터 우제일선 연

을 중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우측 대대(제29연대 제

(2) 299)를 교대원료지까지 통합지휘하라.

(4) 우측 CT 480~417에서 미 제7사단과 진밀히 접촉을 유

제9사단이 철원 지역으로 진출했을 당시인 1951년 10월 20일

지하라.

현재, 사단 정면에는 오서림(吳瑞林)이 지휘하는 중공 제42군이 철

마. 제1포병단

원 평야를 잃고 효성산 부근으로 갓 밀려난 데다 특히 철원 일원

(1) 현 임무를 수행하라.

을 감제하는 395 고지와 281 고지까지 상실하여 새로운 위협을 받

(2) 4285. 10. 9. 08:00부로 미 제49포병대대는 제29연대 직

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적의 반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대

접지원으로부터 해제와 동시 제51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부분의 지휘관들이 예견한 바이었다.

바. 제53전차중대

더구나 11월에 접어들면서 휴전 회담이 재개되어 현 접촉선을

현 임무를 수행하라.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이게 되자, 이

사. 공병대대

양 고지에 대한 전술적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사단에서는 이

하여금 적진 배후에 대하여 제압사격을 가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예비대를, 즉 제29연대의 투입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비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연대나 사단의 각 참모부에서도 초비상 상태로 돌입하여, 예상했던 바와 같이 중공 제42군을 1951년 11월 3일 판정 281공지를 1개 대대, 군공의 병력으론 공격할만 집조를 원장치를 돌파한 전장을 밝히기 위해 전출항행통제반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가 하면, 군수참모는 노무대원(KSC)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탄약을 재보급하고 제29연대는 각 대대의 집결지에 병력 이동 차출을 대가 세우는 한편 적투할수 전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림자키는 등 다 각 1월 5일 21:00를 기하여 촉각된 대대, 군공의 병력으로 이번에는 395고지를 공격하여 왔다. 동 고지를 방어하던 제29연대 제1대대가 이를 저지하였으나 적의 파상공격으로 끝내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였고 사단의 참모 활동을 독려하였다.

못하고 물려서게 되고, 이어 사단에서는 예비대인 제28연대의 2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은 채 개 대대를 투입하여 교전 하루 만에 이 고지를 탈환하였다. 적의 압력은 시시각각으로 가중되어 제28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이것이 백마고지(395고지) 쟁탈전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이 대장병들이 무질서하게 역곡천까지 철수하는가 하면, 우측의 제 같은 소규모의 고지 쟁탈전은 전선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1대대 진지에서는 돌출 능선상의 제3중대가 03:40에 육박전까지 벌이면서 한 차례 적을 물리친 데 이어 05:00에 적이 또 한 차례의 돌격을 감행해 옴으로써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혼전을 벌이고, 이 가운데도 395고지는 철원 평야를 감제하는 요지이고 보고 있었으며,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도 인접 대대의 철수로 인하여 전면방어태세로 진지를 축소한 가운데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단에서도 11월 10일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서 395고지 북쪽의 적 진지인 396고지(CT 385422)와 500고지(CT 395438) 병력을 수습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나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를 기습공격하여 적 방어선의 균형을 교란하였다. 그러나, 11월 27일에 현 전추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는 1개월간의 잠정 휴전 2대대장 윤영모 소령도 충성교 서쪽 개활지(CT 385385)에서 병이 성립된 데다가 뒤이어 찾아온 혹한기를 맞아 쌍방간에 거의 접전이 없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아군 포병들의 계속적인 진내사격과 제압사격으로 적의 움직임을 막아, 395 고지를 비롯한 그 남쪽 계곡과 그 북쪽 적의 접근로 일대를 강타함에 따라 적의 시체가 계곡을 매우고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1951년 겨울이 지나고 1952년 5월에 이 부상자가 도처에 산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증원 수단까지도 마비되기까지 큰 변동이 없이 주색과 청찰로 일관한 가운데 오직 적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정 수집에 주력하였다. 그 동안 적은 281 고지를 한 차례 기습하러 갔다가, “미군의 거대한 포격을 받아 공격이 둔화되었다.”고, 아군은 396 고지를 비롯한 323 고지(CT 413428)와 343 고지(일명 고 자인한 점이나 제 9 사단의 전투상보에서 이 날 밤 33 127 발을 신희산) 등 다섯 차례에 걸친 기습전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발사하였다는 기록이 말해 주듯이, 사단을 지원하는 7개 포병대 모두가 고지를 탈취하기보다는 적정을 탐색하고 포로를 획득하는 데 124 문의 각종 포와 인접 사단의 포병, 그리고 2개 전차중대의 대 목적을 둔 일종의 위력주색에 지나지 않았다.

90 mm 전차포는 물론 모든 편제상의 전 화기가 한세하여 집중사격을 가하는 그 위력은 가히 상상만 하여도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1951년도의 열세를 회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아군측에 하였을 것이 분명했다.

에서는 1951년 10월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수세 일변도 그 결과 적은 더 이상 전과를 확대하지 못하고 탄막지대를 험로 치우쳐 있어 전력 증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매다가 06:00를 전후하여 공격을 중지한 듯, 점차로 접촉이 끊어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대한 정책을 변경



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국군 제 2군단을 창설하여 <일제사격을 가하는 안군 포병들> 참모 포병 훈련을 시켜 오

고 말했다.

던 군 당국에서 1952년 4월 5일부로 이를 정식 발족시켜 금성(金城) 396 고지가 1 m를 내려앉아 395 고지가 되었다는 일화도 바로 이 같은 포격의 결과물 놓고 비유된 표현이지만, 실로 생물체가 살래호를 기점으로 설정하였던 미 제 1 군단과 미 제 9 군단 간의 전아남을 것 같지 않은 이 집중포격은, 산허리를 무너뜨리고 초목투지경선을 395 고지 서쪽으로 조정함에 따라, 제 9 사단은 현 위을 쓸어 버려, 마땅히 이용할 만한 지형지물이 있을 리 없었으며 치에서 미 제 9 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것이다.

어렵게 복구해 놓은 교통호와 참호마저 형태도 없이 사라질 뿐만이 조정으로 말미암아 제 9 사단은 종래에 맡고 있던 좌단의 281 아니라 말목까지 빠지는 모래와 먼지 속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고지를 통일부로 미 제 2 사단에 인계하고 동쪽의 중강리 지역 일없는 월투를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부름 새로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 이 포격이 틈해진 것은 새벽 02:00이며, 적이 진전에 나타남으로 큰 변함이 없었으며 395 고지는 여전히 사단의 좌일선 연 것은 바로 5분 후인 02:05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인해전술이라 대가 말고 있었다.

고 하는 그들 특유의 수법을 또 다시 구사하여 이번에는 증강된 이로부터 제 9 사단은 국군 제 2 사단 및 미 제 7 사단과 함께 마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밀어붙였다. 공격 목표는 역시 395 고지인 제 9 군단의 미조리(Missouri) 방어선의 일익을 말아, 본 전투에 압듯,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이를 공격해 오다가, 중국에는 하게 되었다.

양측방의 제28연대 제 1 대대 지역과 제30연대 제 1 대대 지역 정 들째는, 인사 문제로서 사단장을 비롯한 3개 연대장의 인사 이 면에도 각각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연속적인 파상공격을 동이 있었다. 그 동안 실전 경험과 부대 훈련으로 사단을 정상 가해 오면서 측방 위협을 가중시켰다.

체도에까지 끌어올려 놓았던 제 7 대 사단장 박병권 준장이 도미 이 때 395 고지에 위치한 제28연대 제 3 대대는 되풀이되는 격전 을학차 이입하고, 1952년 5월 30일부로 제 8 대 사단장 김중호(金鐘 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역량을 기울여 맹렬한 사격을 가하

된) 송자에 분류한은 아에 상자째 가져다 놓고 어깨가 저리도록 던 지틀쳐 깎삭삭치 부러를나, 부활터도 또 무필려도 연속 밀려드는 익혀 박 위는 창설공로자로 사단의 기간(基幹)을 이룬 충청도 출 신 장병과 함께 충청도 출신 사단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예비대로 대기하는 기간에 3개 소총중대장이 모 두 휴가차 떠나서 부재중이었으므로, 선임장교들이 중대를 지휘 1951년 12월 10일부로 이주일(李周一) 대령이 부임하여 이 전투를 하게 되어 한층 더 많은 고충을 겪는 데다, 그 동안 과반수의 병 지휘하였으며, 제29연대는 1952년 5월 1일부로 김봉철(金鳳喆) 대

력을 상실하여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보니, 려이 조원영(趙原英) 중령과 교대하여 지휘권을 인수하였고, 제30대 큰 위국이 아닐 수 없었다.

연대는 동년 6월 20일부로 임익순(林益淳) 대령이 조연표(趙淵表) 이러한 가운데에도 제 3 대대는 전과 다름없이 제30포병대대와 중령과 교대, 제 9 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4. 2^중 중박격포중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지를 지탱하고 있던 결국 제 9 사단이 1951년 10월에 철원 지역으로 진출하여 1년 었으나, 교전이 시작될 지 1시간이 지난 새벽 03:00에 이르러 전 가까이 현지에서 머무르는 동안,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대부분 측에서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집중적으로 395 고지를 공격하게 되 상위 계급자로 교체되고 병력도 계속 보충되어 편제상 96%의 수 자, 끝내 제10중대의 진지가 돌파되면서 도처에서 육박전이 전개 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되다가 역부족으로 밀리게 되었으며, 뒤를 이어 우측의 제11중대 와 좌측의 제 9 중대간 또한 큰 압력에 밀려 철수하게 됨으로써 (5) 중공 제38군의 활동현 전장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무렵, 양측측에서도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무렵, 양측측의 제28연대 제1대대와 제30연대 제1대대는 제 9 사단이 철원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1952년 6월 초순까지 현 진지를 유지하면서 분전중에 있었고 지원부대들도 최대발사속 계속 배치해 오던 중공 제42군이 현 작전지역을 중공 제38군에게 도로 계속적인 사격을 가하였지만, 395 고지를 넘어선 적의 압력 인해향파로 6월 14일을 전후하여 사립원(沙里院) 지구로 일단 물러 섰다가 그 후 제28연대 제2대대마저 탈퇴하게 되자 돌파구가 크게 확 전면의 흥성 산과 골악산 및 평강 일대에는 제38군이 활동중인 것 대되었으며, 본 전투가 개시된 이래 최초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판명되었다. 육군 본부의 적정 판단에 의하면, 이 중공 제

38군은 중공군이 최초로 한국 전선에 참전한 시기인 1950년 10월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양 측순에 만포진(滿浦鎭)으로 입한(入韓)하여 초산(楚山)으로 진격한 측방의 2개 대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고수하도록 강조한 다음, 자군이 제7연대와 첫 교전을 치른 부대로서, 그 이하에는 제112사 단과 제113사단 및 제114사단 등 3개 보병사단이 있으며, 이들이 탈파나 봉상교 남쪽의 구릉으로 나아갔다.

참전 초기에는 자못 기세 높게 진출한 결과, 강계(江界)~회천(熙 韓), 사단에서도 전황이 급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제1포병단 으로 덕천(德川)~강동(江東)~연천(漣川)~의정부를 거쳐서 한강 남쪽의 양평과 수원 부근까지 진출한 바 있었다. 그 후 육군 및 조치하는 동시에, 일반지원포병과 인접 사단의 화력중위포병으로 UN군의 재반격으로 큰 타격을 받고 1951년 4월 중순에 우방으

로 빠져 예비대로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전선에 나선 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제1일과의 격퇴

그러나, 적군측 자료를 인용한 중공군인지(中共軍人誌, 黃震遐 編著, 홍콩 소재 當代歷史研究所 出版, 1970.)에 의하면 이것은 곧 그들 보병부대가 돌격선 가까이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시 육본에서 분석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예부대인 것으로 3인조로 편성된 수류탄 공격조를 앞세워 침투 작전을 전개하는 기록되어 있다.

중공군은 통상 그 선두부대가 돌격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포격 즉 이 처서에서는 강동회(江擁輝)가 지휘하는 제38군은 1945년 을 계속하며, 이른 말미에 자군의 피해를 자초하는 경유가 빈 에 중국 길림성(吉林省)에서 창설된 부대로서, 1950년 10월에 갑 한 다하지만 이와는 상관 없이 밀접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정의 연신 하여 회천에서 한국군 제8사단을 격파하고 다시 청천강(淸川江) 과 거의 동시에 진전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상례이다. 이 같은 을 건너 비호산(飛虎山)에서 미 제1군단의 배후를 공격하였으며, 수범은 이번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어 군우리(軍隅里)에서 미 제9군단의 1개 연대를 격파, 400명

395 고지 주봉에 배치된 제28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포격이 멈 의 포로를 획득함으로써 도박동으로부터 만세군(萬歲軍)이라는 영 추는 것과 패를 같이하여 대피호를 뛰어나와 전투태세를 갖추고 응징호를 받았다.

있을 때, 바로 직전방에서 중공군이 나타나 북을 치고 피리를 불 그 뒤로 이 만세군은 1951년 3월, 한강(漢江) 유역에서의 미 제 며 새까맣게 밀려들었다. 이 시각이 9일 00:20으로, 이 때부터 1기갑사단 및 미 제25사단과의 접전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 바 다시 공방전이 전개되어, 즉각적으로 최후저지사격 신호가 오르 있었으나, 연속적인 전투의 피로를 씻기 위하여 일단 후방으로 철 면서 대대의 전 화기가 동시에 불을 뿜을 뿐만 아니라 아군 포병 수, 평양과 진남포 간의 서해안에서 해안 경비에 임하다가 다시 들은 협조된 화력 계획에 따라 탄막사격을 실시하고 4.2"중박격 전력을 보강한 다음 1952년 6월에 전선으로 나와 한국군 제9사 포 중대와 대대의 81mm 박격포 중대도 모두가 최후저지사격에 단 정면으로 진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담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적은 어느덧 진전으로 육박하여 수류 그리고 백마고지 천역에 대해서는, "군단의 전 장비를 소련식 탄전이 벌어지고 아울러 측방 대대 지역에서도 교전이 시작되 장비로 교환하고 화력을 증강하여 1년여의 훈련을 마친 다음, 었다.

1952년 10월에 출동, 군단의 전 병력으로 한국군 제9사단과 미 이렇게 00:40까지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 판명된 적의 공격 구 제2사단이 고수하고 있는 백마고지 및 화살머리고지를 공격하 모는 395 고지 전방에 대대 규모의 적이 공격해 온 것을 비롯하여 었다. 그러나 미군의 우세한 화력에 직면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 우측의 제28연대 제1대대 정면에 2개 중대 규모와 좌단의 제30연

30 제 2 장 전투 전의 상황

140 제 4 장 제 28연대의 공격과 방어

고 공격이 돈좌되었다. 이 전역에서 한국군 제 9사단(김종오)은 죽대 제 1대대 정면에 1개 중대 규모 등 도한 2개 대대 규모의 적을 무릅쓰고, 물러서지 않고 춘토를 다투는 투혼을 발휘하여 후삼면에서 파상공격을 감행해 오고 있었다.

일 백마사단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이 사단은 전후에도 월남전 그중에도 395 고지 정면의 적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가해 와에 참전한 바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분의 한문으로 된 원문은 세 차례에 걸친 수류탄 투척전을 치르는 동안, 제 11중대 제 2소 다음과 같다.

대장 김장하(金章河) 소위가 전사하고 제 9중대 제 1소대장 김선

주(金善柱) 소위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全軍改換俄裝. 充實火力. 練兵年餘. 一九五二年 十月 出動. 全입시 고지를 치르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직지를 고수하였다.

軍進攻 南韓軍 第九師 美 第二師 一部 固守의 白馬山 箭頭山戰線이 때 제 28연대의 직접지원포병인 제 30포병대대는 대대장 권오受美軍 優勢火力의 巨大殺傷. 攻擊頓挫. 是南韓 第九師(金鐘五)명(權五明) 대위의 지휘하에 18문의 포를 모두 395 고지 북쪽 등死戰不退 寸土必爭. 戰役後 白馬師稱號 該師後參加越戰선으로 지향케 하여 시한 신포에 의한 집중포격을 가해 적의 활

동 지역을 살상지대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 때에 사격 지휘를 지어들은 이 부대가 6월 중순에 철원 북방에 출현한 뒤로 계속 그접 통제한 전주식(全珠植) 중위는 적시의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동정을 살펴 온 육군 본부 정보국에서는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인으로써 공훈을 세웠다.

10월 2일자 정보보고에서 9월 30일 현재, 이 부대의 병력 규모이와 같이 포격과 사격 및 수류탄 투척으로 연속적인 타격물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하자 점차로 기세가 꺾인 적은 교전 40분 동안에 다수의 사상

중공 제 38군의 병력 판단

자만을 남긴 채로 01:00를 전후하여 마침내 물러서고 말았다.

구분		9월 16일 현재의 추정병력	9월 30일 현재의 추정병력	8군 추정병력	종합판단	비 고
군	(3) 백마사의 위기					
	군 본부	4,500	4,500	4,200	4,500	
제 38군	제 112사단	10,500	10,500	10,500	10,500	이 지 않은
	제 113사단	10,500	10,356	6,900	10,500	
제 점점	제 114사단	10,500	10,494	9,700	10,500	을 받고
물러선 뒤	제 115사단	36,000	35,850	31,300	36,000	다 더 격렬

한 사격으로 395 고지 일원을 강타함에 따라 1시간 동안의 낙탄
* 자료: 1952년 10월 2일자 육군 정기 정보보고

수만 하여도 1,780여 발을 해야 했으며, 이에 맞선 아군의 제압사그리고 이 밖에도 단대호 미상의 포병단이 이를 지원할 뿐 아니격이 또한 그 배를 능가하게 되어 또 다시 전장은 초연에 뒤덮이

2. 피아의 상황 31

5. 중공 제342연대의 출현 137

라 전차부대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사기도 또한 왕성하고 보급도 양호하여 전진적으로 표는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분	장 교	사 병	계
제28연대 제1대대 (6) 중대	32	692	724
제28연대 제2대대 상 황	31	713	744
제28연대 제3대대	30	712	742
제30연대 제1대대 제38군이 출현한 뒤로, 점령을 수집하기 위하여 6월30일부터 9월 하순까지 23개월 동안에 11번쳐서 일곱4차례나	30	718	748
소대 또는 중대 규모의 병력을 55투입, 그 배, 350황과 3, 3, 09 위치			

등을 10월 7일 17:00부터 9일 18:00까지 3일간 6개사단의 손실병력을 함포, 항공, 사병

죽, 제38군은 대천덕반 서쪽의 금계록(CT 2534)에서 철원 평야 북반의 북풍동(CT 4543) 부근까지 도상 거리로 24 km에 달하는 전	제28연대 제30연대(-) 계		
투정병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1/17/364 독점리(焦德里: CT 3542)를 기	5/15 11/172	5/26 28/536	
점으로 한 서반부(西半部)를 제113사단이 맡아 17/118 그 동반부(東半部)에는 제114사단이 배치되어 있어 17/373인데, 17/118사단은 34/680만 북			

서쪽의 대천덕반 부근까지의 예비로 집결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병력배치상상의 거의 모든 진지를 지하로 연결하여

③ 10월 9일 16:00 현재의 병력 판단	중공화하고 지철을 두루 후방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연결하였다. 또 한시와 주철에 3중으로 연결된 철조망을 가설하고 지뢰를 매설하		
는 총 검침이 창에 물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3, 205대진	34 680 714		
기간중에 나타난 피아간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특히 저군측의 진			
지손 이구의 중포(重砲) 화력에 능히 견딜 만큼 훨씬 더 강고도	121 2,870 2,991		

넓게 상공을 활약 중인 것이었다. 손실병력의 집계가 16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오후 24:00 현재와 직후병력의 상황에 의해서 더욱 달라졌을 것이며, 더구나 제28연대 수색중대가 누락된 점을 감안한다

진지를 확인한 결과, 22개소의 야포진지와 19개소의 대공포진지면 적어도 3,000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 41개소의 포진지가 골짜기와 능선마다 거의 빠짐없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포진지도 역시 보병들의 진지와 마찬가지로 유개대 자체의 예비대도 없이 1개 대대만을 제2선에 배치하여 방어화하였거나 포구만 내밀고 사격할 수 있도록 튼튼히 구축되어 있고 중심도 미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방어를 배치하는 의문점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단순한 일직선 개념으로 헤아린다면(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1인 불구하고 중공 제38군이 사단 정면에 나타난 뒤로는 이렇다 할 당 구간 거리가 1m도 못 되는 협소한 지역에서 이렇듯 밀집방어도발이 없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이 시대세를 취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기는 거의 전 전선에서 고지 쟁탈전이 개시되어 수도고지와 지형이 이곳 지형상의 특수성 때문인지, 고지 쟁탈전 과정에서 나타난 능선 및 351고지 등 중동부 전선의 산악 지대에서 연일 고지를 특이한 현상인지, 아니면 병력의 숫자는 있으나 대부분 전투력을 소모내리며 쟁탈전이 반복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좌인접지 상설한 이유인지, 작전상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인 미 제2사단(미 제45사단과 7월 18일부로 교대) 지역에서는 불모 그 까닭은 분명치 않으나, 이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가중된 것만 고지와 포크 잡고에서 연속적인 혈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며, 특히 전사자보다도 적의 포격에 의한 부상자가 많고, 피아간에 중시한다고 하는 이곳 철원 지역에서는 오히려 중전보라도 더 평온한 가운데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각급

지휘관들의 신경이 가장 심했던 395고지의 경우를 보면, “제10중대가 적의 포격을 가장 끈기있게 참을 수 없었다. 철원과 금화 지역이 포격을 탈취한 후 재편성 단계에서 적의 포격을 받아 사상자가 가중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가 박병권 장군과 교대할 때 적의 공격이 심한 곳이니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대대적인 포격을 받게 되자, 병사들이 소대장과 선임 하사가 백색도 없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거 필시 무슨 목적이 있구나 하는 포격의 사정이 연신되는 틈을 타서 전투태세를 갖추려고 하려 하니 수족이 마비된 것처럼 한동안 정신을 가다듬지 못했다.”라 적정 수집에 주력하여 포로를 잡기도 하였지만 적이 그렇게 대공포의 당시 중대를 지휘했던 이정훈 소위는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9월 00:20을 전후하여 적의 포사정이 연신되면서 중의 제9사단장 김중오 소장은 긴장이 감돌던 그때의 상황을 이 공 제342연대의 선공부대가 진전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렇게 회고하였다. 사단장의 증언과 같이, 적정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후 3개월 동안 외풍동과 내풍동 및 500 고지 등 적의 전초진지를 기습, 포로 획득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9월 13일에는 사단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특공대를 투입하였다. 전투 경험 2년 이상을 가진 분대장급으로 3개 연대에서 3명씩 9명을 선발하고, 직할대에서 1명을 뽑아 10명 1개 분대로 편성한 특공대를 조직하여, 박경희 일등중사(현 하사)의 지휘하에 395 고지 북쪽의 적진인 396 고지에 투입, 기습공격을 가한 끝에 5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 포로들의 진술에서도 적의 병력과 화력의 배치 상황과 방어태세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이상의 첩보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395 고지 북쪽의 적은 중공 제114사단으로서, 그 예하의 제341연대가 산명리 계곡을 분계로 하여 그 서쪽에 위치하고, 제342연대는 그 동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제340연대는 사단 예비로 백학산(CT 384470)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특기할 만한 첩보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사단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단에서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적정 수집에 주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지의 보강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이렇듯 9월이 지나고 10월로 접어들면서 돌연 적의 군판 1명이 귀순하여 뜻하지 않게 적의 기도를 밝히는 중대한 첩보를 입수하였다.

(7) 적의 기도

이 해의 10월 3일은 개천절이자 음력으로는 8월 추석이 겹쳐,

34 제 2 장 전투 전의 상황

사단에서는 장병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하여 각 연대 대항 운동 대회를 개최, 경기를 진행하던 중, 395 고지 동쪽의 제30연대 제 6 중대 지역으로 중공군 제114사단 제340연대 제 7 중대 소속의 군관인 ‘곡중교’라는 자가 귀순하여, “적이 금명간 395 고지를 공격하려 한다.”는 내용의 중대한 첩보를 제공하였다.

중공 제340연대의 정치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계획을 청취하였다고 하는 곡중교의 이 진술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중공 제340연대는 상부로부터 10월 4일 24:00를 기하여 395 고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② 조공인 제339연대는 미 제 2 사단 정면의 281 고지를 동시에 공격하려고 한다.
- ③ 이 공격부대와는 별도로 제112사단 예하의 1개 연대가 증원차 대기중이다.
- ④ 395 고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340연대는 제114사단의 예비연대로서, 이 작전을 위하여 지난 6월 이래로 3개월 동안 특수 훈련을 받은 부대이다.
- ⑤ 이들은 평강 북서쪽의 상갑리와 하갑리 일대에서 395 고지와 유사한 지형을 택하여 주로 야간에 목표 점령 훈련을 실시한 부대이다.
- ⑥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 포병단이 증원되었으며 포탄도 충분히 비축하였다.
- ⑦ 보병부대는 각 중대마다 철조망과 지뢰를 파괴하기 위한 파괴통을 60개씩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실탄을 충분히 지

급받았다.

- ⑧ 395 고지를 점령하면 장기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월동용 피복과 장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예고하여 사기를 고무하고 있다.
- ⑨ 특히, 공격 직전에 평강 서쪽의 봉래호(蓬萊湖) 수문을 개방하여 395 고지를 감돌아 흐르는 역곡천(驛谷川)을 범람시켜 이를 고립시킨 다음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라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자신이 소속했던 연대 및 사단의 정확한 위치와 포병의 배치 상황 등을 진술받아 적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책자도 획득하여 이를 모두 필요한 부처에 전파하였다(문서와 책자는 그 후의 행방이 불분명하다.).

이상의 진술에 의한다면, 적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음날인 10월 4일 24: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려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군으로서는 적의 기도를 사전에 파악하였으니, 우선 첩보 획득에서 적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한참 열기를 내뿜던 운동 경기를 중단하고 긴급히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투항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 검토한 끝에, 그 신빙도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즉각 군단에 보고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8) 사단의 대비

우선 사단의 대비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제 9 사단이 평소에 대비하고 있던 부대 배치 상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즉 395 고지로부터 중강리에 이르는 12 km 정면에 2개 연대를 배치하여, 좌일선인 제30연대는 395 고지를 포함한 중마산과 흐를내까지의 6 km 정면을 담당하고, 우일선인 제29연대(+)는 그 동쪽의 유정리와 중강리를 포함한 6 km 정면을 맡았으며, 제28연대는 예비로 철원 부근의 양촌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경보병연대인 제51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산론리(山論里)에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 실시하면서 1개 대대씩 일선연대에 배속 운용하여 전기를 연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10월 3일 현재 4개 보병연대를 보유한 셈이었다. 포병은 종래 사단의 배속포병이던 제30포병대대를 비롯하여 제51포병대대와 제52포병대대 등 3개 포병대대를 통합 지휘하는 제 1 포병단이 사단을 직접 지원하고, 미 제213포병대대와 미 제955포병대대가 36문의 155 mm 야포로써 화력증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반지원포병인 미 제49포병대대의 화력증원을 받을 수 있고, 전차는 국군 제53전차중대가 사단에 배속되고, 상황에 따라 미 제73전차대대의 C 중대가 증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제 9 중박격포중대(4.2")가 사단에 배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미 제 5 공군의 근접지원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이 기간중에도 진지의 보강과 적정 수집 등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5 주간의 자체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특

히 사격술 향상에 교육 중점을 두고 각 연대를 순차적으로 교대해 가며 보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중공 제38군이 395 고지(백마고지)를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긴급히 그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4일 08:00부로 사단 작전명령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죽)

취급구분 군사 비밀

작전명령 제85호

참조 : 지도대환 1:50,000 4285. 10. 4. 08:00

1. 상 황

가. 적정 : 정보 개요 참조.

나. 군단 및 좌측 미 제2사단은 계속 현 미조리 선을 확보중임.

다. 미 제49포병대대 및 제73전차대대는 사단을 지원함.

2. 임 무

가. 사단은 예상되는 적의 395 고지 공격에 대비하여 침투하는 적을 섬멸하려 함.

나. 부대 배치 및 이동 지점 : 별지 투명도 참조.

3. 실 시

가. 제28연대

(1) 역습명령 하달과 동시에 사단 역습 계획에 의거하여 강력히 실시할 수 있는 반격태세하에 대기하라.

(2) 예하 2개 대대를 4285. 10. 4. 19:00까지 CT 427~298

38 제 2 장 전투 전의 상황

지점으로부터 CT 403~320 지점으로, CT 433~338 지점으로부터 CT 404~372 지점으로 각각 이동 집결하여 별명 있을 때까지 숙영하라.

- (3) 공병 1개 중대를 4285. 10. 4. 17:00부터 별명 있을 때까지 통합지휘하라.

나. 제29연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다. 제30연대

- (1) 별지 투명도와 같이 부대를 배치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 (2) 4285. 10. 4. 17:00부터 별명 있을 때까지 제53전차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 (3) 4285. 10. 4. 12:00부터 별명 있을 때까지 제75전차대대 C 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 (4) 연대 낙오선을 설치하라.

라. 제51연대

별명시 예하 2개 대대 병력을 CT 435~315 부근으로 이동 집결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

마. 제 1 포병단

별도 포병 부록에 의한다.

바. 제53전차중대

별지 투명도와 같이 배치하고 4285. 10. 4. 17:00부로 제 30연대장의 작전 지시를 받아라.

사. 헌병중대

별지 투명도와 같이 낙오자 선에 현병을 배치하여 낙오자를 수집하라.

아. 협조 지시

(1) 각 단위부대장은 항상 좌일선 연대장과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유지하라.

(2) 각 단위부대장은 식량, 탄약, 차량을 정비 확보하라.

(3) 각 부대는 적시적절한 진지 구축 작업을 계속 실시하라.

4. 행정 및 군수

가. 각 역습부대 전원에게 비상 식량으로 간빵 1 일분과 백미 1 일분을 휴대시켜라.

나. 각종 탄약을 현 자대 보유량으로써 충당하라.

다. 제28연대 예하 2개 대대의 이동은 도보행군으로, 제51연대 예하 2개 대대의 이동은 차량행군으로 함. 단, 제51연대 1개 대대의 수송은 자대 차량으로써 담당하고 다른 1개 대대의 수송은 사단에서 지원 담당함.

지원 차량 대수 : 20 대

소 속 : 사단 수송중대

수송 책임관 : 육군 소위 운영은

5. 지휘 및 통신

가. (1) 사단 통신중대장은 사단 관측소(OP)에 교환대 BD-72 (12회선) 1대와 SCR 609 3대를 장치하여 사단 CP 및 연대 OP간의 유·무선망을 확보하라.

(2) 주파수(F.M.)

사단 대 제28연대 OP : 28.5

40 제 2 장 전투 전의 상황

사단 대 제30연대 OP : 34.8

사단 대 제53전차중대 : 27.6

(3) 제30연대장은 각 전차부대와의 신호탄 및 무선 제원에 관하여 협의하라.

나. 지휘소 위치

사단 사령부 CP	이강죽 (CT 442~278)
사단 OP	254 교지 (CT 430~378)
제28연대 CP	약천동 (CT 430~295)
제28연대 OP	255 교지 (CT 403~372)
제29연대 CP	도피동 (CT 443~332)
제30연대 CP	철 원 (CT 435~342)
제30연대 OP	255 교지 (CT 403~372)
제51연대 CP	산론리 (CT 461~245)
제51연대 OP	약천동 (CT 434~312)

다. 통신 축선

사단 사령부 CP(CT 442~278)~철원(CT 435~342)~사단 OP (CT 430~378)

사단 OP~제28연대 OP(CT 403~372)

사단 OP~제30연대 OP(CT 403~372)

사단 OP~제29연대 CP(CT 443~332)

사단 OP~제30연대 CP(CT 435~342)

사단 CP(CT 442~278)~제51연대 OP(CT 434~312)

사 단 장 육 군 소 장 김 종 오

이 작전명령은 당시의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 명령의 개요는 395 고지를 담당한 부대인 제30연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보강하고 2개 전차중대를 통합지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 점과, 예비연대인 제28연대의 2개 대대를 독서당리와 255 고지로 각각 북상시켜 역습에 대비한 점, 그리고 예하 각 부대로 하여금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30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전투태세에 임하도록 조치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단장은 이 밖에 적이 봉래호 수문을 개방하여 역곡천을 범람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395 고지의 제30연대에는 1주일분의 비상 식량과 탄약을 미리 추진하도록 지시할 뿐만 아니라 공병 1개 중대와 노무대원(KSC) 300 명을 지원하여 진지를 더욱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30연대는 예비로 255 고지(CT 405374)에 대기중인 제3대대를 395 고지로 진출시켜 그 동쪽 능선의 일부 진지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백마고지에는 사실상 2개 대대를 배치한 셈이 되었으며, 그중 제3대대는 제10중대만을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다른 2개 중대 중 제11중대는 전초로 395 고지 북쪽의 화랑고지로 추진 배치하고, 제9중대는 예비로서 남쪽의 충성교(忠誠橋; CT 390384) 부근에 대기시켰다. 따라서 백마고지의 주저항선에 배치된 병력은 제1대대와 제3대대 제10중대뿐이었다. 결국 제30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백마고지에 배치하고 제2대대는 그 동쪽의 284 고지(CT 406397)와 흐를내 간에 배치함으로써 연대의 예비대는 제9중대 1개 중대밖에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병력을 더욱 보강한 제30연대는 다시 공병과 노무대

제30연대가 이렇듯 스스로 대비책을 강구하는 동안 사단의 예비인 제28연대는 2개 대대를 작명상에 명시된 지점으로 이동 완료하고, 제51연대의 2개 대대도 화전리로 집결하였으며, 기타 지원부대들도 백마고지 부근으로 속속 이동하였다.

먼저 포병부대의 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 포병단(본부 : CT 427337)—사단 직접지원
 - 제30포병대대(제28연대 직접지원) 본부 : 율지리(CT 418337)
 - 3개 포대 : 소이산(CT 418348) 동쪽과 남쪽
 - 제51포병대대(제29연대 직접지원) 본부 : 화전리(CT 436336)
 - A 포대 : 321 고지 남쪽(CT 396358)
 - B·C 포대 : 관우리 일대
 - 제52포병대대(제30연대 직접지원) 본부 : 용담(CT 395338)
 - 3개 포대 : 봉양동 일대
- 증원포병(화력증원)—사단 일반지원
 - 미 제213포병대대(일반지원) 본부 : 독서당리(CT 405325)
 - A 포대 : 화전리 남쪽
 - B 포대 : 외선리(CT 425385)
 - C 포대 : 학저수지 부근
 - 미 제955포병대대(일반지원) 본부 : 관우리(CT 452342)
 - 3개 포대 : 학저수지의 동쪽과 북쪽

이 포병부대들의 위치는 백마고지에서 대체로 4~8 km의 거리를 두고 지원태세를 갖추으로써 어느 부대라도 당장 화력지원이

44 제 2 장 전투 전의 상황

가능하였고, 이 밖에도 사단에 배속된 4.2" 중박격포 1 개 중대가 백마고지 남쪽에 사격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 1 포병단에서는 395 고지 일원에 화력대를 할당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화력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포탄도 기준량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였다.

그리고 제53전차중대도 소속된 3 개 소대 가운데 2 개 소대를 395 고지 남쪽의 판교리(CT 380365)로 추진하고 1 개 소대는 사단 관측소(254 고지 : CT 433376) 부근에 예비로 대기시켰으며, 상황이 전개되면 사단을 지원하기로 한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인점 미 제 7 사단 지역에서 집결,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미 제 5 공군에 상황을 통보하여 항공근접지원 및 야간조명 등에 관하여 사전 협조를 취하고, 미 제86공병대 소속의 조명중대와 군단 및 좌우 인접 사단과도 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미 제 5 공군에서는 벌써 3일 밤부터 전술폭격을 개시하여 적의 포진지와 예상집결지 및 접근로 등을 강타, 그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기 시작하였다.

B-29 중폭격기를 비롯, B-26 경폭격기와 F-86, F-82, F-80, F-51, F9F, FAU 전투기 등 우군 항공기들이 3일 22:30부터 6일 12:00까지 연 19 회(31대)를 출격하여 적진을 강타하였다. 이와 아울러 포병부대들도 효성산 계곡의 적의 예상집결지와 예상포진지에 대한 집중사격을 가하는 한편 야간에 적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실시되는 요란사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제 3 장 제30연대의 서전

1. 중공 제340연대의 선제공격

1952년 10월 6일.

이 날은 북동풍이 가볍게 불고 오후 한때 흐리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청명한 날씨였다. 음력으로는 추석(秋夕)이 갓 지난 8월 18일로서, 09:27에 달이 떠오르는 날이다.

이렇듯, 한국 교유의 맑은 가을 날씨가 철원 평야(鐵原平野)에 따사롭게 퍼 오른 이 날 08:00에 적의 포병 기점사격이 개시되었다. 06:30부터 산발적으로 포격을 가하던 적은 08:00에 이르자, 돌연 395 교지 서쪽의 무명 능선을 비롯한 그 북쪽의 암석 지대와 돌출 능선 등 7~8 군데의 험저한 지형지물 주변에서 탄착지점을 수정해 가며 20~30 분 동안에 걸친 기점사격을 실시하였다.

그 뒤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적은 다시 10:00를 전후하여 연막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목표를 지시하는 듯, 백마산의 정상인 395 교지와 그 남동쪽의 제10중대 진지, 그리고 서쪽의 제1중대 진지는 물론, 병력배치선 후방의 충성교(忠誠橋)와 역곡천(驛谷川) 부근에 이르기까지 일대의 요지에 연막탄을 투하함으로써 사면에서 연막이 피어오르자 제30연대 장병들은 초긴장리에 즉각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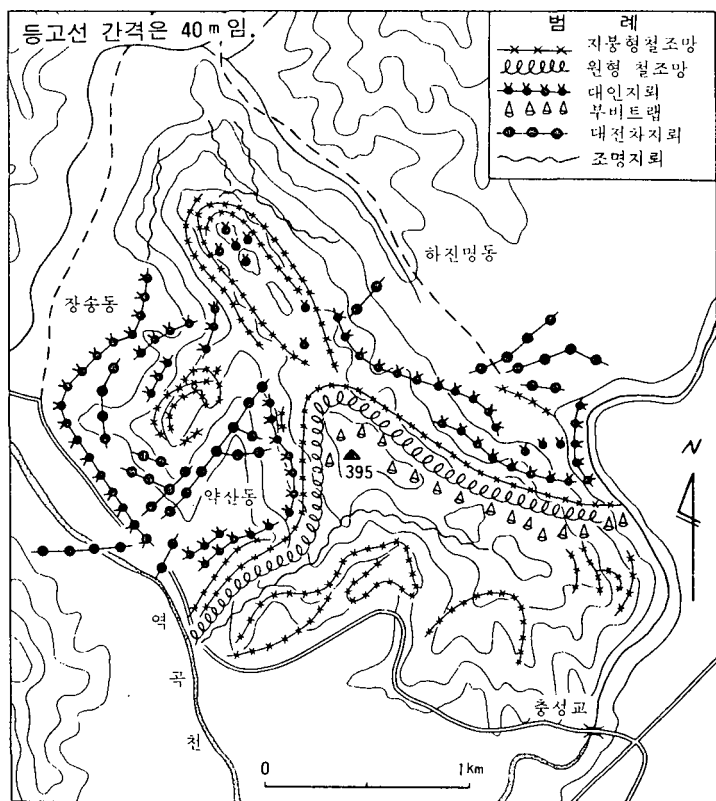
〈역곡천과 충성교〉

(1) 적의 공격준비사격

야전 경험을 가진 장병이라면 누구라도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공격 징후를 보인 적은 이 날 12:00부터 서서히 포격을 개시하더니, 15:00를 기하여 이를 대폭 증강,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였다. 122 mm 야포를 비롯한 120 mm 박격포와 76.2 mm 곡사포 등 종래에 항용하던 포종(砲種)뿐만 아니라 직사화기까지 동원하여 사방(四方) 2 km 내외의 백마산 일원을 조밀(稠密)하고도 가열(苛烈)하게 강타하였다.

주진지와 보조진지 및 예비진지는 물론, 진지 전방의 장애물 지대와 교통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군테도 빠짐없이, 화력군(火

요도 제 3 호 장애물 설치도



力群)과 화력대(火力帶)로 이어 가며 간단없는 포격을 퍼부었다.

통상적인 공격준비사격과는 달리 장시간 동안 계속된 이 포격은 13개월 간의 대전기간(對陣期間) 중에 강화시켰던 방어진지를 여지없이 파괴하면서 백마산 일원을 초연으로 뒤덮어 버렸다. 이렇듯 전례 없이 치열한 포격이 석양(夕陽)까지 이어지는 동안 아군

48 제 3 장 제30연대의 서전

이 해아린 포탄 수만 하여도 2,067 발을 기록하였고, 포화가 뒤덮인 능선과 계곡 그 어디에도 피해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특히 공격 직전인 18:30부터 19:00 사이에는 적의 포격이 395고지로 집중하여 제3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를 뱅타함으로써 연대의 모든 진지가 초토(焦土)에 묻히는 듯하였다.

이 포격으로 말미암아 키 높이 이상으로 파 놓았던 교통호가 크게 무너져 그 형태만 남은 채로 노출되고 미리 비축해 놓았던 실탄과 수류탄이 땅에 묻히고 말았으며, 150여 개나 구축해 놓았던 엄체호(掩體壕)도 태반이 파괴되어 마땅히 은폐할 만한 지형지물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적의 예상접근로 일대에 매설했던 지뢰와 부비트랩이 폭발하는가 하면 조명지뢰까지 폭발하여 일몰(日沒)과 더불어 산야를 밝히고 있었으며 일곱 겹(七重)으로 가설한 철조망까지도 파괴되는 등, 미리 설치해 놓았던 장애물이 온통 무위로 변하고 말았다(요도 제3호 장애물 설치도 참조).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 제30연대 제1중대 제1소대장 허만위(許萬位) 소위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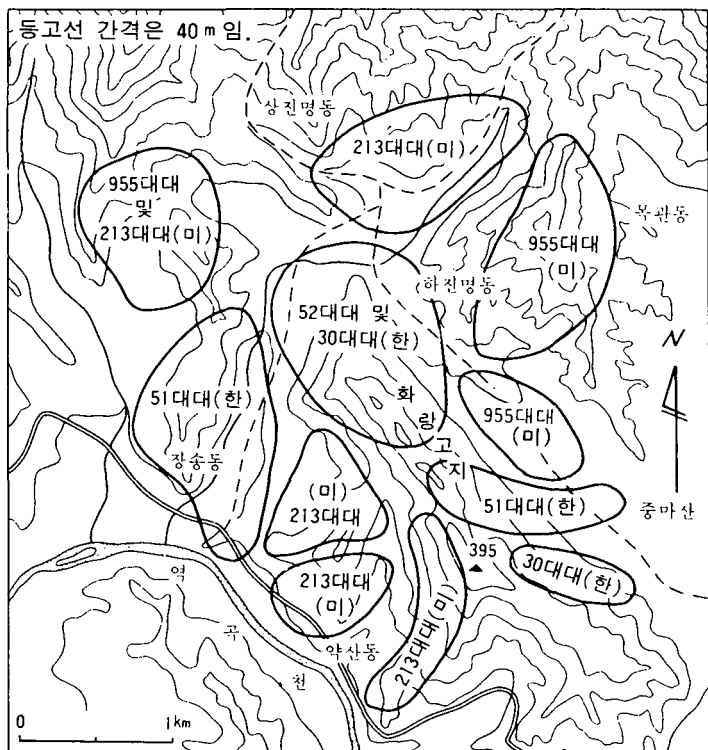
“내 키가 174cm인데, 양손을 들어도 보이지 않도록 파 놓았던 교통호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L자형으로 구축한 소대장호의 출구가 훤히 트이면서 정신없이 파편이 날아들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호마저 내려앉아 땅에 묻히게 되자 전령의 도움으로 헤치고 나와, 함께 있던 선임하사와 향도 등 4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후사면의 중대 통신병호로 대피하였는데, 천우신조로 피해를 보지 않고 이 곳에 이르러 미군 관측장교 및 통신병 등과 함께 그 위기를 모면했다. 마치 소나기를 동반한 우뢰와 같이 쏘

아지는 이 포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2) 아군의 대 포병사격

이상과 같이 적이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는 동안, 사단에서도 제30연대를 직접지원중인 제52포병대대를 비롯한 제30포병대대 및 제51포병대대 등 제1포병단 산하의 3개 포병대대와 화력증원

요도 제4호 포병의 화력대 할당표



중인 미 제213포병대대 및 제955포병대대 등 도합, 5개 포병대대가 일제히 포문을 열어 대 포병사격(對砲兵射擊)을 실시하였다(요도 제4호 포병의 화력대 할당표 참조).

이 때 사단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적의 포진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던 까닭에, 각 포대별로 할당된 목표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적의 포진지

지 명	지 점	목표 성질	비 고
산명리 계곡	CT 371433	야포진지 4개	395고지 북쪽 4km
"	CT 371461	"	
362고지 부근	CT 368471	야포진지 6개	395고지 북쪽 7km
"	CT 366472	"	
효성동 부근	CT 358459	야포진지 6개	395고지 북쪽 6km
효성산 동쪽 계곡	CT 365436	야포진지 2개	395고지 북쪽 5km
내문지 남쪽 고지	CT 359471	대공포진지 2개	395고지 북쪽 7km
"	CT 356473	대공포진지 2개	395고지 북쪽 7km
"	CT 353472	대공포진지 2개	395고지 북쪽 7km
"	CT 352471	대공포진지 2개	395고지 북쪽 7km
금폭리 계곡	CT 351468	야포진지 4개	395고지 북쪽 7km
백학산 부근	CT 375472	대공포진지 7개	395고지 북쪽 7km
"	CT 365473		
"	CT 375468		

* 자료 : 제 9 사단 전투상보

그리고 적의 포격이 개시되면서 탄흔분석(彈痕分析)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목표 즉, 495 고지(CT 391448) 서쪽 계곡과 상진명동(CT 382424) 골짜기의 적 포진지에 대하여도 강력한 제압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외학리(外鶴里 : CT 402457) 부근의 적 예상집결지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포격을 가하였다.

한편,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소속의 B-26 경폭격기 2대가 출격하여 13:15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에 걸쳐 사단에서 제시한 목표인 상진명동(上眞明洞) 골짜기의 적 포진지에 대하여 폭탄 세례를 가하는가 하면, 그 뒤를 이어 14:30에 출격한 미 제5공군 소속의 F-84 전투 폭격기 1개 편대가 다시 상공에 나타나 효성산과 산명리 일대의 적 포진지를 강타하였다. 그리고 14:50에 출격한 F-84 전투기 편대는 산명리 삼차로(CT 373425) 부근에서 적의 전차 2대를 발견하고 이를 반파(半破)시켰으며, 15:10에 출격한 또 다른 편대는 효성산 남쪽 계곡에서 이동중인 적을 포착하여 이를 격멸하는 동시에 3개의 적 참호를 폭파해 버리는 등 공지협동으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의 포격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어느덧 지하에 동굴화된 야포진지를 마련해 놓고 포구(砲口)만 내밀어 사격함으로써 아군의 이 같은 포폭(砲爆)으로도 이를 능히 제압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善防者는 藏於九地之下” 한다는 준칙을 여기에서도 준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저들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지만 계획대로 공격준비사격을 완료한 다음, 이윽고 19:00를 기하여 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3) 적의 공격

적의 포격 사정이 연신되고 이어서 보병들이 진전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19:15에 최초로 395 고지 북쪽의 화랑고지(花郎高地)

에서 일단(一團)의 적을 포착하였다.

이 날은 일몰 시간이 18:09인 데다, 가을날의 해상박모(海上暮暮)가 빨리 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미 조명탄을 발사하여 대낮같이 산야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곧 이 적을 포착하여 지체 없이 제압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아군의 조명지원은 이 작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시종일관 만족할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이 때부터 치밀하고도 적절하게 이어져 나갔다. 조명지뢰의 폭발은 차치하고라도 81 mm 박격포와 105 mm 야포가 상호 교대로 쉴 사이 없이 조명탄을 발사하는가 하면, 교전이 있을 때마다 항공조명이 철야로 이어지고 또한 미 조명중대의 탐조등(探照燈) 조명까지 공백을 메우면서 간단없이 산야를 밝혀 주었다. 특히 미 제86공병대 소속의 조명중대 제1소대가 탐조등을 설치한 소이산(所伊山: CT 417348)은, 철원읍 사요리(四要里)에서 철원 평야로 돌출한 표고 362 m의 한 작은 고지이나 적진을 한눈에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요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명소로, 일명 봉의산(鳳儀山)이라고도 불리는 명산이다. 멀리 고려 시대로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 년(千年) 세월을, 동북계(東北界)에 외침(外侵)이 있을 때마다 봉화를 연결하여 위급한 사실을 고한 봉수대(烽燧臺)가 위치했던 곳으로서, 이 전투 당시에도 예나 다름없이 이 곳에 탐조등을 설치하여 철원 평야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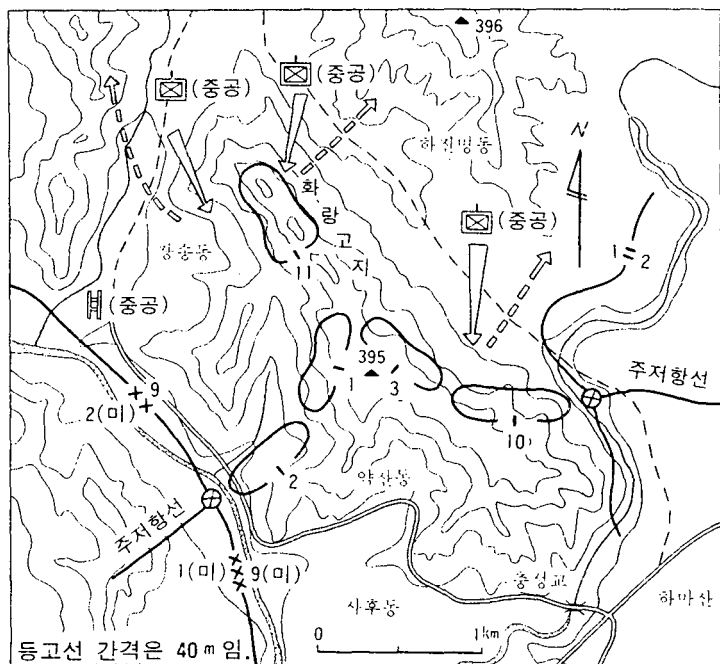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조명지원으로 아군은 처음부터 적의 움직임을 낱낱이 헤아림으로써 그 기도를 간파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제압사격을 가하였다.

● 침투 양상

최초로 공격에 나선 적의 선공부대(先攻部隊)는 예상했던 대로, 관구명(寬具明)이 지휘하는 중공 제340연대였다. 제114사단의 예하부대인 이 연대는 이미 공격 예행연습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부대로서, 이들은 처음부터 백마산의 주봉인 395 고지(일명, 백마고지)를 목표로,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양면공격을 시도하였다.

19:15부터 40 분까지 25 분 동안에 걸쳐서 확인된 적은 상진명

요도 제 5 호 중공 제340연대의 제 1 차 공격상황



동(上眞明洞) 부근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제30연대의 전초진지 지대인 화랑고지로 세도하였고, 또 다른 중대 규모의 적은 396 고지(CT 386422) 동쪽 계곡에서 철원 평야로 직면한 동측방으로 침투하여 395 고지의 측후방을 공격하려 하였다(요도 제 5 호 중공 제340 연대의 제 1 차 공격상황 참조).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장송동(長松洞) 계곡에 출현한 적 진차 1 대가 화랑고지의 제11중대 진전으로 침투하는 병력을 엄호하는가 하면, 396 고지의 적진에서도 직사화기가 출현하여 395 고지 남동쪽의 제10중대 진지 전방으로 침투하는 적을 엄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양공작전을 병행하여, 우인접인 제29연대 제 3 중대 지역(중강리 부근 : CT 457423)에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좌인접인 프랑스대대 진지 정면에서도 2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281 고지(CT 354386)로 투입하여 마치 전면공격을 개시한 듯 기만하면서 인접부대의 병력과 화력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획책(劃策)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의 병력과 화력이 395 고지로 집중하여 그 기도가 명확히 판명되었으며, 특히 아군의 치밀한 포격에 의하여 격심한 타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395 고지로 밀려들었다.

● 무자비한 독전

이들은 병력을 산개하지도 않고 6~9 열 중대로 열을 지어 무작정 전진하고 있었으며, 화랑고지에서는 양측방으로 세도하는 12 개 이상의 적 대열이 확인되었다.

전투 후에 포로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적은 국부군(國府軍) 출신들에게 도수 높은 배갈(白酒)을 먹여 지뢰지대나 탄막지대나 아랑곳없이 선두에서 무작정 전진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하며, 특히 이들에게는 소총도 지급하지 않고 수류탄만을 휴대시킨 채로 장애물지대를 통과하도록 독전하였다고 한다.

그 비인도성이야 저들이 개의하는 바 아니지만, 어떻게 총부리앞에 전진을 강요한 적은 아군의 탄막지대에서 과반수의 병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아지경(無我之境)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었으며, 전방과 측방에서 거의 동시에 소총 사정권내로 들어온 19:40에 다시 적진에서 피리와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는 등 전의를 고취하며 진전으로 육박하였다.

(4) 아군 지원부대의 활동

이상과 같이 적이 침투하는 동안, 아군 지원부대들은 간단없는 제압사격을 가하여 적에게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였다. 포병부대를 비롯하여 전차중대와 4.2" 중박격포중대는 물론, 공군의 야간출격까지 단행하여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포병의 제압사격

대 포병사격으로부터 제압사격으로 전환한 아군 포병은, 5개 포병대대의 야포 86 문과 제9 중박격포중대(一)의 4.2" 박격포 8 문 등 도합 94 문의 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제52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FDC)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대하여 간단없는 포격을 가했으며, 특히 원거리에 화집점(火集點)을 선정한 155 mm 2개 포병대대는 적이 출현한 직후부터 예상되는 적 접근로 일대를 집중적으로 강타하였다. 즉, 상진명동 일대에 탄막을 구성한 미 제213

56 제 3장 제30연대의 서전

포병대대와 하진명동 부근의 개활지를 제압키로 한 미 제955포병대대는, 적이 공격을 개시한 직후부터 이 양 지역에 포격을 집중하여 그 공격제대(攻撃梯隊)를 분쇄함과 아울러 격심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 뒤로 적이 제일선 화력지대를 통과하여 진전으로 쇄도하기에 이른 19:30에는, 제30연대의 직접지원포병인 제52포병대대를 비롯하여 제51포병대대 및 제30포병대대 등 3개 대대가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송동 계곡에 적 전차 1대가 출현하였을 때에는 직접지원대대의 요청에 의한 일제사격(TOT)으로 이를 격파해 버렸다. 이어서 적이 능선으로 근접하자 제9중박격포중대(一)가 4.2" 특유의 위력을 발휘하여 보병의 작전을 밀접히 지원하였으며, 이 때 중대 관측병들은 제일선의 소총소대 지역에까지 나아가 적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하고 화집점 번호를 제시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포병의 제압사격은 19:30경 최고조에 달하여 마치 천지를 무너뜨릴 듯 맹위를 떨쳤는데,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 제30포병대대의 관측장교 윤진(尹珍) 소위는,

“내 평생에 이처럼 굉장한 포격을 목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쿵쿵 하며 떨어지는 포 소리가 아니라 위—— 하며 전신을 마비시키는 어떤 소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속에서는 어떠한 생물체도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았고 마치 하늘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국군 포병으로서는 최초로, 제1포병단에서 화력지원 통제소(FSCC)를 운영하며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이 협조된 화력은, 사단

의 직접지원포병과 화력지원포병뿐만 아니라 인접 사단의 포병까지 동원하여 그 위력을 더욱 높였으며, 그중에도 제30연대의 직접지원포병인 제52포병대대는 이 날 밤에 6,214 발을 발사하여 대대 창설 이래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 전차중대의 활동

사단에 배속중인 제53전차중대는 적이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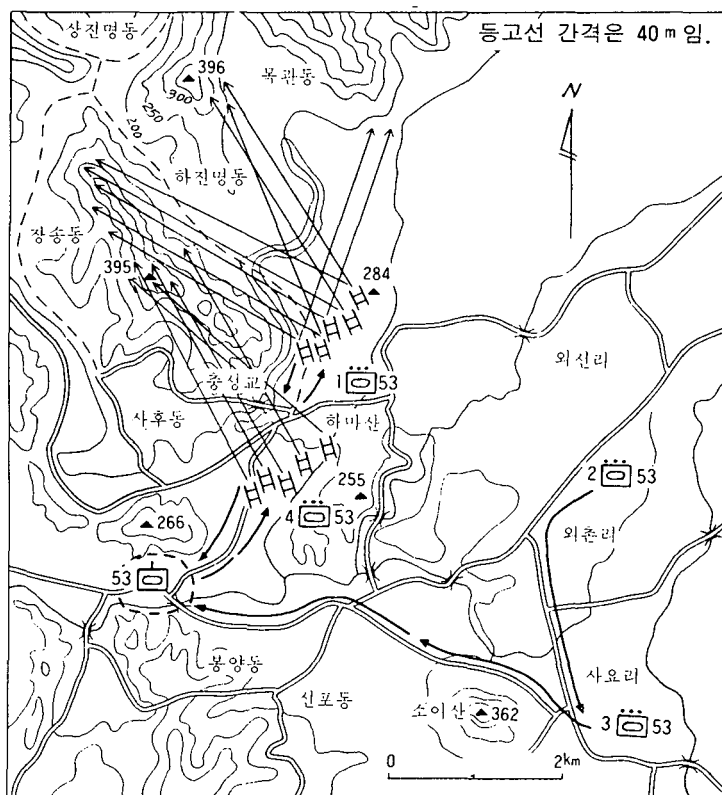
최초에 1개 소대는 사단 관측소(254 고지 : CT 433376) 부근의 외촌리(外村里)에 위치하고 3개 소대는 395 고지 남쪽 2 km의 널다리(CT 382363)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되자 18:20에 먼저 제1소대와 제4소대가 출동하여 백마산 남동쪽의 중마산 부근으로 진출, 하진명동 일대의 적진에 제압사격을 가하였다.

그 뒤로 19:00에 적이 공격을 개시하자 현지에서 90 mm 전차포와 Car 50 중기관총으로 395 고지 동쪽 개활지에 나타난 적 대열을 연파할 뿐만 아니라 그 후방의 적 엄호화력을 제압하여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 동안에 외촌리의 제2소대가 합세하자, 이로부터 제53전차중대는 2개 소대씩 상호 교대하며 그 특유의 직사화기 위력과 엄호사격으로 제30연대의 작전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었다(요도 제6호 제53전차중대의 활동상황 참조).

당시에 국군은 기갑부대를 육성하는 단계로서, 아직 7개 독립전차중대만을 보유하고, 이를 일선사단에 배속, 운용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제53전차중대도 역시 창설된 지 반 년도 채 못 되는 과

요도 제 6 호 제53전차중대의 활동상황



정에 있었으나 어느덧 전기를 연마하여 그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군단에서는 적이 백마고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를 추출하여 이 날 15:00부로 사단에 배속하는 동시에, 동 중대를 좌인접인 미 제1군단과의 전투

지경선 부근에서 운용하여 군단의 좌측방을 방호(防護)하면서 백마고지 작전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15:00부터 C중대를 장악한 사단은 17:30에 이를 백마산 서쪽의 중세리(中細里) 부근으로 진출시켜 제30연대와 프랑스 대대와의 접경지대를 방호토록 조치함으로써, 이 때부터 사후동(CT 370384)에 위치한 C중대는 395 고지 서쪽의 장송동 계곡을 화력으로 제압하며 적의 서측방 통로를 봉쇄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계곡은 역곡천을 연하여 그 좌우측에 아직 발달되지 않은 소로가 있을 뿐, 기동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으며, 이 서측방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제9사단의 작전에 크게 기여한 바 되었다.

● 공군의 지원

10월 3일부터 사단을 근접지원하기 시작한 UN 공군은, 그 날 밤 22:30에 단행된 B-29 중폭격기에 의한 한 차례의 야간폭격을 효시로, 4일에는 8회, 5일에는 7회에 걸친 전폭기의 출격이 이어져 적의 기세를 꺾어 놓았으며, 공격 당일인 이 날 주간에도 B-26 경폭격기 2대와 전폭기 12대 등 연 14대가 출격하여 적의 포진지 및 집결지 등을 강타하였다.

이어서 이 날 야간에도 역시 사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일몰 직후부터 백마산 전방의 상공에 조명탄을 투하할 뿐 아니라 교전이 고조에 달한 20:40부터 7일 03:30 사이에는 거의 연속적으로 항공조명을 지원하여 산야를 밝혀 주었다.

UN 공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7일 04:00에 다시 B-26 경폭격기 2대가 출격하여 백마산 북쪽 3km의 산명리 계곡과 396 고지

의 적진을 폭격, 그 진지 및 집결지 등을 강타함으로써 적의 후속 수단을 마비시켜 버렸다.

이상과 같이 아군 지원부대들의 입체적인 지원은 적이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한 단계로부터 마지막 격퇴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 세력에 있어서도 적측 역량의 배를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단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실상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원 아래 전투태세로 돌입한 제30연대의 상황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2. 제30연대의 초전상황

적의 공격이 개시되고, 이어서 아군 지원부대들의 제압사격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제3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곧 전열(戰列)을 가다듬었다.

예상보다도 훨씬 강력했던 적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능선과 계곡이 온통 초토로 뒤덮이게 되었으나 양 대대의 장병들은 곧 대피호(待避壕)에서 뛰어나와 병력을 재전개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무너진 진지를 보수하고 땅에 묻힌 실탄과 수류탄을 파 내는가 하면 사격구역을 재확인하여 그 일부를 조정하는 등 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소대장과 중대장은 물론 대대장까지도 진지를 순회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당시의 정경을 회고한 제1중대 제1소대장 허만위 소위는,

“다 죽는 줄 알았으나 2명의 부상자를 제외하고 전 소대원이 전재했다. 이 때 나는 적진에서 파란 신호탄이 오르는 것을 보고 무심결에 호 밖으로 뛰어나와 전투배치! 전투배치! 하고 외쳤더니 신기하게도 마치 모래 속의 가재처럼 바위틈과 흙더미 속에서 병사들이 빠져나와 각각 자기 위치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정신 없이 이를 보수하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중대장과 대대장이 차례로 순시하자, 이 같은 경황중에서도 병사들이 받들어 총 자세로 경례하는 모습을 볼 때 실로 감격스러웠다. 이 때부터 사기가 부쩍 오르는 것을 보고 나는 보병 지휘관들의 제일선 순시는 천 마디 말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와 같은 광경은 제30연대의 각 중대마다 대동소이하여 지체 없이 방어태세로 돌입하였으나 최초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된 전초진지의 제11중대 상황은 알 길이 없었다.

(1) 전초진지의 고수

우선 백마고지를 중심으로 한 제30연대의 병력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주봉인 395 고지를 포함한 방어정면의 3/4 을 제1대대가 맡고 그 남동쪽의 1/4 을 제3대대 제10중대가 맡았으며, 제11중대는 전초로서 395 고지 북쪽의 화랑고지로 추진 배치되어 있었다(요도 제5호 중공 제340연대의 제1차 공격상황 참조).

따라서 작전상 유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3대대의 2개 중대를 당연히 제1대대에 배속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연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동쪽 일각에 위치한 제3대대장으로

하여금 예하 2개 중대를 직접 지휘토록 조치함으로써 양 대대가 각각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전투지휘의 일원화된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화랑고지의 제11중대는 처음부터 적의 집중포격을 받아 유선이 모두 두절된 데다 19:15에,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산명리 제곡에서 나타나 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무선교신마저 끊기고 말았으며, 또한 이 무선보고마저도 제3대대장에게 직접 보고되었으므로 직전방의 상황을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제1대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제3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다. 통신병이나 전령을 파견하더라도 제1대대의 진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으려니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상황 아래 보고가 끊긴 지 20분도 채 못 되어 적이 대대의 주저항선까지 밀려들게 되자 제11중대에 대한 후속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목전의 상황을 처리하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제11중대는 제3대대나 제1대대는 물론 중대 자체에서도 그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전초진지에서 적의 집중공격을 받게 되자, 전면 방어태세로 고립된 방어전투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본시 화랑고지의 이 전초진지는 미 제45사단이 카운터 작전(1952년 6월에 전개한 전초진지 탈환작전)을 전개할 당시에 제9사단이 보조를 같이하여 확보한 뒤로, 1개 소대를 추진 배치하여 경계부대로 운영하다가 적이 백마고지를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10월 3일에 제30연대 제11중대를 현지로 진출시켜 제

1 중대 제 1 소대의 진지를 인수케 한 다음 이를 대폭 보강하여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전초진지를 편성하였던 것이다.

즉, 제11중대장 손월용(孫月用) 대위는 진지를 인수한 직후에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주저항선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200 m 간격으로 봉우리진 3 개의 연봉(連峰) 가운데 북쪽에 돌출한 제 1 봉에 병력과 화력의 중점을 두고 제 2 소대와 제 3 소대를 그 좌우로 배치하여 6 부 능선상에 전면 방어태세로 진지를 구축케 하는 한편, 중앙의 제 2 봉에는 제 1 소대를 배치하여 좌우의 측방 경계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남쪽의 제 3 봉에는 중대 관측소를 설정하여 이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공병과 노무대(KSC)의 지원을 받아 전방과 좌우측방 등 3 면에 지붕형 철조망과 망형(網型) 철조망을 다섯 겹으로 에워싸고 대인지뢰를 비롯한 각종 지뢰와 부비트랩을 배설하는가 하면 참호와 중화기 진지까지도 급조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렇듯 통상적인 전초의 운용과는 달리 장애물까지 설치하여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까닭은 당시 대진전선(對陣戰線)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서, 휴전협정을 예견하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전 전선에 걸쳐서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특히 국군의 책임 지역내에서는 그 의지가 더욱 강하였다.

따라서 전술적 운용면에 있어서도, 적이 침공하면 기본 임무인 경고는 물론이려니와 현지에서 강력한 타격전을 전개하여 최대한

으로 출혈을 강요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임의 철수의 시기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에 한정하여 무단 철수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신마저 두절된 제11중대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

이로부터 34 시간이 지난 8일, 06:00에 사선(死線)을 뚫고 복귀한 중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 때 제11중대는 전면 방어태세로 적의 제1차 공격을 물리친 다음 계속 제1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적의 포격이 끝난 뒤로 진지를 정비할 겨를도 없이 2개 중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양측방에서 집중공격을 받게 된 중대는,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격퇴하는 동안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한동안 고전을 치르게 되었으나 전 병력을 제1봉으로 집결시켜 전면 방어태세로 완강히 버티자, 적은 20:00를 전후하여 산명리 골짜기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제1봉을 확보한 중대는 진지를 재편성하여 고수태세를 취한 가운데 전황이 호전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 통신병의 전사와 함께 안테나가 달아난 무전기마저 파괴됨으로써 교신 수단을 잃고 말았으며, 더구나 후방의 395 고지 부근에서 철야로 교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직감, 현지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전초진지를 고수한 중대는 395 고지의 전황이 고조에 달한 7일 01:50에 수 미상의 적으로부터 동측방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으나 교전 20분 만에 이를 격퇴하였으며, 그

뒤로 적이 전면 철수하기 시작한 05:10에 또 한 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소대 규모의 적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으나 이들은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는 듯, 기관총을 난사하다가 교전 10분 만에 스스로 병력을 거두어 상진명동 계곡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렇듯 중대는 고립된 상황하에서도 끝까지 전초진지를 고수하고 본대와의 연결을 고대하며 이 날 밤을 현지에서 밝히게 되었다.

(2) 제 1 차 공격의 격퇴

한편 주저항선의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는 전초진지에서 교전이 이어지는 동안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태세로 돌입하여 적의 제 1 차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화랑고지에서 교전이 개시된 직후인 19:20에 그 동쪽의 개활지를 횡단한 중대 규모의 적이 395 고지 남동쪽의 측후방으로 침투하여 배후를 찌르려 하자 하였으나 이 지역을 담당한 제 3 중대와 제 10 중대가 동시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이를 여지없이 격파해 버렸던 것이다.

이 곳으로 침투한 적은 아군의 탄막지대와 제 53 전차 중대의 화망 속에서 과반수의 병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독전대의 총부리 앞에 밀려, 19:30에는 마침내 제 1 대대와 제 3 대대(-) 간의 협조점 부근인 동측방 계곡(395 고지 남동쪽 400 m)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 때 제 3 중대장 김정식(金鼎植) 대위가 M-2 카빈소총 연속사격으로 최후저지사격 신호를 올리자, 외지선에서 계곡으로(비교적 공간이 넓은) 들어서던 적은 중대의 화망에 묻혀 숨돌릴 여유도

없이 무수히 쓰러지게 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 남쪽 능선의 제10중대 제 2 소대가 또한 소대장 서호윤(徐虎潤) 소위의 지휘 아래 동시 집중사격을 가하자 이들은 진지 부근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비명과 함께 지리멸렬되어 갔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4.2" 중박격포를 비롯한 81 mm 박격포와 60 mm 박격포 등 중화기의 철퇴까지 맞게 된 적은,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고 동료의 시체마저 버린 채로 역곡천 상류의 개울을 따라 396 고지 동쪽 골짜기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맹목적으로 수류탄을 던지거나 다발총을 휘두르던 적의 총성이 차차 멈추면서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시각이 20 : 15이니, 대체로 40분 동안에 걸친 이 교전에서 적은 격심한 타격을 받고 그 일부가 겨우 목숨을 건져 철수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 3 중대와 제10중대는 고무된 사기를 북돋아 다음 전투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395 고지를 포함한 그 서쪽의 제 1 대대 제 1 중대와 제 2 중대 지역에서는 특기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화랑고지의 전초중대가 완강히 저항함에 따라 이 정면으로 지향할 적의 진출이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측방에서의 분단 돌파작전(分斷突破作戰)이 실패한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이 곳에는 20 : 15 현재까지 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화랑고지 서쪽의 장송동 계곡에 출현한 적의 전차 1대를 제 1 포병단의 일제사격으로 격파해 버린 일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공 제340연대의 제 1 차 공격은 막대한 출혈만을 강요당한 채 무위로 끝나고 말았으며, 반면에 국군 제30연대는 비록 전초중대의 상황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일단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그 특유의 방식 그대로, 여기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이른바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파상공격으로, 제 1차 교전이 끝난 지 30분도 채 못 된 20:40에 재공격을 감행해 오기 시작하였다.

(3) 적의 파상공격

적은 제 1차 공격을 실패한 직후인 20:20에 다시 대대적인 포격을 재개하여 이번에는 395 고지를 비롯한 그 좌우측 능선과 적 후방의 포진지 등 주로 주진지 일원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더니, 이윽고 20:40을 기해 제 2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대낮처럼 밝힌 항공조명지원 아래 맨 먼저 하진명동 부근에 나타난 중대 규모의 적을 발견한 제 3중대장 김정식 대위는, 즉각 대대에 적 출현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중대 관측소에 같이 있던 제52포병대대의 관측장교에게 요청하여 포격을 유도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 남쪽 능선의 제10중대 관측소에서도 중대장 방석호(方碩鎬) 대위와 화기소대장이 이 적을 확인하고 역시 포격을 긴급요청하였다.

이 때부터 아군 포병들의 협조된 화력이 적 밀집지대로 집중하면서 하진명동 일대의 개활지를 화력장벽으로 에워싸는 동안, 제 53전차중대의 제 1 소대와 제 4 소대가 다시 출동하여 중마산 부근의 역곡천변(CT 398392)으로 진출, 동시에 제압사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제52포병대대는 적의 선단이 진전 300 m 전방에 이를 때까지 간단없는 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적은 제 1차 공격 때와는 달리 무수한 사상자를 내면서

도 병력을 계속 투입하여 증강된 대대 규모 병력으로 점증(漸增)하면서 밀물처럼 달려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격 방법도 전과는 달리 병력을 한곳으로 집중 투입하여 서전에 통격(痛擊)을 받은 바 있는 제 3 중대와 제 10 중대 간의 협조점(CT 387397) 동쪽에서 서측방으로 몰아세우며 집중돌파를 시도하는가 하면, 제 30 연대의 진지를 남북으로 양단해서 전방중대의 철퇴를 강요하려는 듯하였으며, 침투 양상도 또한 수류탄 공격조에 이은 다발총 사격조와 장총 돌격조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파상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 제 10 중대 진지의 와해

이로부터 제 3 중대와 제 10 중대가 다시 이와 맞서게 되자, 전과 다름없이 중화기중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최후저지사격에 이은 수류탄 투척으로 연속 격파하였으나, 무찔려도 또 무찔려도 한없이 밀려드는 적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제 10 중대 제 2 소대의 기관총 진지가 폭파되고, 제 3 중대 57 mm 무반동총 사수가 전사하는가 하면 양 중대간의 협조점 서쪽에 위치한 합동 근무 초소가 파괴되는 등 혼란 속에 떨어지면서 드디어 백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간이 21 : 30으로, 적이 공격을 재개한 지 1 시간도 채 못되는 시간이니, 그 속도도 급박하려니와 적은 병력을 끊임없이 투입하여 특히 제 10 중대의 좌제일선 소대인 제 2 소대 정면에서 돌격을 가함으로써 소대의 선전도 보람 없이 그 압력에 밀리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중대장 방석호 대위는 예비소대인 제 3 소대 소대장 최순영(崔順榮) 소위에게, “즉시 병력을 좌전방으로 전개하여

돌파구를 봉쇄하라.”고 긴급 지시하는 한편, 중대의 가용한 모든 화력을 이 곳으로 지향케 하여 이를 저지코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한번 기울기 시작한 전황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이 때 적측에서는 전과를 확대하려는 듯, 다시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중대를 집중공격함으로써 급기야는 전 중대의 진지가 와해되면서 후방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분산 병력이 대대 관측소 부근으로 몰리며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제 1 대대와 접축이 끊어지고 돌파구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제 3 중대는 아직도 전재하였다. 소대장 1명과 57 mm 무반동총 사수가 전사하고 또 다른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 제일선 진지 일부를 남향(南向)으로 급조정하여 진지를 축소한 가운데 이를 고수하였으며, 특히 적이 제 10 중대 지역으로 쇄도할 뿐, 제 1 대대 지역 전방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교전이 없었으므로 대대 중화기중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가며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주력(注力)하였다.

결국 백마산의 주봉인 395고지는 오히려 무사한 가운데 그 남동쪽의 우전부(右肩部)를 돌파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제 3 대대장 조남국(趙南國) 소령은 불과 300 m 후방의 대대 관측소(CT 389393)에서 이렇듯 급전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제 10 중대장에게 대대 관측소 좌우측으로 이어진 능선상에 저지진지를 급편하도록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연대장에게 전황 보고와 아울러, 대대의 예비이자 연대의 유일한 예비대인 제 9 중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신의 복안을 전의하였다.

● 제 9 중대의 역습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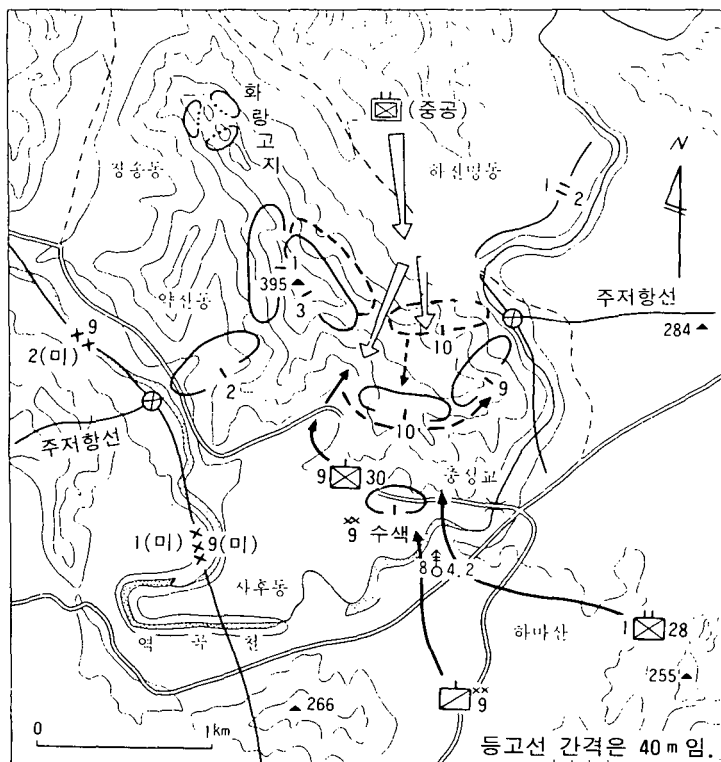
일선 양 대대장으로부터 전황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이 때 이미 제 9 중대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던만큼 이 건의는 곧 승인되었다. 이어서 대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제 9 중대장 박길원(朴吉遠) 대위는 충성교 부근에 대기중인 중대병력을 지휘하여 급거 제일선으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21 : 50에 제 3 대대의 저지진지선에서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중대는, 촌각(寸刻)을 다투는 역습 임무의 긴박성에 비추어 일로 약진하다가 급경사로 이어진 서쪽 계곡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고 이 때부터 각 소대별로 산개하여 포복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제 3 중대의 엄호사격과 중화기중대의 지원을 받아 가며 포복과 약진으로 한발 한발 진출하던 중대는, 1시간 전까지 제10중대가 위치했던 바로 그 능선 후사면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둔 좌되었으며, 특히 지형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게 되자 사상자가 속출할 뿐 좀처럼 이를 타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적측에서는 이 진지를 고수하려는 듯, 피아를 가리지 않는 중공군 특유의 무차별 사격으로 능선과 계곡을 포화로 뒤덮으니, 노출된 상태에서 고전을 치르게 된 중대는 끝내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진전 50 m 전방에서 혈전을 반복하다가 연대장의 철수명령에 의하여 제10중대 진지로 철수, 이들과 합세하게 되었다(요도 제 7 호 제30연대 제 3 대대의 철수상황 참조).

이 무렵 연대에서는 사단으로부터 제28연대 제 1 대대를 배속받아 대대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새로운 역습을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

요도 제 7 호 제30연대 제 3 대대의 철수상황



에 제 9 중대의 병력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철수시키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며, 배속된 대대는 이미 255 고지(CT 4053794)를 출발하여 하마산(下馬山) 개활지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적측에서는 제 9 중대의 역습을 저지한 뒤로 그 여세를 몰아 전과를 더욱 확대하려는 듯, 다시 능선을 넘어서 제 10 중대의 저지진지 직전방까지 세도하여 왔으므로, 이 때부터 전 연대의

사정이 미치는 소화기화력과 진원화력이 이 곳으로 집중하여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고, 특히 4.2" 중박격포중대의 밀도 높은 집중포화가 그 맹위를 떨쳤다.

● 제 9 중박격포중대의 활동

보병의 교전 지역 직후방에서 근접지원하는 박격포의 위력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이 날 밤 제10중대 진지가 돌파된 과정에서 제 9 중박격포중대의 밀접한 지원은 실로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 진지가 돌파된 직후에 적의 재편성을 방해하고 아군이 철수시에는 이를 엄호할 뿐만 아니라, 적이 돌파구를 확대하려 하자 이 일대를 살상지대로 만들어 화력으로 저지하는 등 4.2" 중박격포 특유의 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적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시켰다.

물론, 연대 3개 중화기중대의 81 mm 박격포와 인접 중대의 60 mm 박격포, 그리고 연대를 직접 지원중인 제52포병대대의 적 배후에 대한 사격도 동시에 가해졌지만, 돌파구를 뚫고 나오는 적의 선단에 대한 중박격포중대의 제압사격은 가장 주효(奏効)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포탄의 효력 범위도 어느 화기보다 위력 있게 사면으로 퍼지면서 이들을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이 날 밤, 2개 전포대(제 3 전포대는 이 시간 현재 391 고지 남쪽에 위치)에서 보유한 8문의 4.2" 중박격포로 3,597 발을 발사하였고, 그것도 최초로 진지가 돌파된 단계에서 가장 치열한 사격을 가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고 지원부대나 피지원부대의 참전장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였다.

당시 사격 지휘소에서 사격 지휘를 맡았던 장한기(張漢基) 중위



〈제 9 중박격포중대 포진지〉

는 그 때를 회고하며,

“제일선에 나가 있던 관측병들이 울면서 호소하던 일이 생각난다. 중대장은 무작정 사격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 정확한 번호(선정된 화집점 번호)를 대라고 호통을 치고, 관측병들은 보병과 꼭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표적을 제시하다 보니 지쳐서 교대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우리도 몇 사람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여하튼 첫날 밤에 얼마나 포를 쏘았는지 포신이 벌겋게 달아서 물을 퍼다가 끼었어야 했고 지반이 내려앉아 나무토막으로 포상을 고정시키면서 밤새도록 쏘아댔다. 진지가 돌과될 때나 역습시에는 언제나 밤을 꼬박 새웠으며, 보병부대들은 부대를 교대하여도 우리는 시종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현 위치에서 지원했던 것이다.”

라고 술회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중대장 문일수(文逸秀)대위는 첫날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고 회고하면서, “제10중대 진지가 돌파된 단계에서 보병들은 물러났으나 중대 관측병 1명이 현지의 동굴 속에 남아 무전으로 적이 침투한 위치를 정확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진내사격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고, 이 날 밤의 포격에서 너무 무리하여 8문의 포 가운데 6문이 망가져 버린 관제로 장비 보충을 건의했던바, 48시간 이내에 신형 포 12문을 춘천에서 헬리콥터 편에 공수해 와 8일부터는 16문의 포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원하였다.”라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전투 후에 중대장에게는 미 동성훈장을, 장 중위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수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화력지원과 제3대대(一) 및 제1대대 제3중대 장병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단 적을 현지에 고착시킬 수는 있었으나 주저항선의 일부를 적 수중에 넘겨 주고 말았으니, 이를 격퇴해야 하는 문제는 시급하기 이를 데 없었다.

● 사단장의 조치

한편 사단장 김종오(金鐘五) 소장은 21:30에 주저항선의 일각이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구두로 사단의 예비연대인 제28연대의 제1대대를 제30연대에 배속하는 동시에 즉각 역습을 단행하여 진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문서명령은 사단 작전지시 제64호로서 추후에 하달되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사단 수색중대를 동시에 배속시키면서 적의 차후 진출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제28연대장에게는 철원 부근의 양촌(CT 453313)에 위치한 동 연대의 제2대대를 신속히 255

고지로 이동시켜 출동태세를 갖추어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255 고지란, 395 고지 남동쪽 3.5 km의 삼봉동(三峰洞)에 자리잡은 3개의 연봉 가운데 중앙에 솟아오른 고지로서, 백마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단 작전지역내의 북단 고지이자 철원 평야의 야지 위에 우뚝 솟아 상류천(上流川)을 감아돌며 남서향으로 뻗어 내린 하나의 구릉이다. 좌우의 두 봉우리와 함께 마치 삼 자매처럼 솟아오른 이 고지는, 적의 화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사각지역이 있고 2개 대대병력을 동시에 수용할 만한 공간이 있는 전술적 요지이기 때문에, 본 작전기간중 시종여일하게 사단의 예비대를 대기시켰던 곳이다.

제30연대에 배속된 제28연대 제1대대도 작전이 개시되기 2일 전인 4일 22:00에 이 곳으로 이동시켜 대기하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에 즉각 출동이 가능하였으며, 동 대대가 전방으로 진출하자 다시 제2대대를 끌어올려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단장은 군단에 화력증원을 요청하여 국군 제50포병대대와 미 제49포병대대(8")의 화력증원이 7일 12:00 이후부터 가능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공군에도 야간출격을 요청하여 사단장이 희망하는 장소에 전술폭격을 실시하는 동시에, 병사들이 야지에서서 어둡고 한기(寒氣)가 오면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밤새도록 조명을 밝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 고문관들이 탄약 기준량 운운한다는 보고를 받고 군단장 제킨스(Reuben E. Jenkins) 소장(11월 8일부로 중장 승진)에게 토로한 결과, 바로 다음 날인 7일부로 사단 수석 고문관을 교체하여 대령 고문관을 포함과 동시에 군단의 차량 1개 중대까지 지원하며 사단장의 희망에

따라 무제한으로 탄약을 보급하라는 군단장의 특별지시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좌우 인접사단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인접인 미 제 7 사단의 사단장 스미드(Wayne C. Smith) 소장과 좌인접인 미 제 2 사단장 프라이(James C. Fry) 소장 등이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스스로 물어 올 정도였으며, 군단의 포병단장 콜컨(Colkern) 준장은 포병 연락장교 1 명을 아예 사단장 짝차에 동승시켜 포병 계통과 또 다른 지휘관의 요망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 전투는 개전 당일부터 각급 제대 지휘관과 참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원만한 협조와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고 사단 참모들도 철야로 제30연대를 지원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특히 부사단장 김동빈(金東斌) 대령은 헌병중대장을 대동하고 충성교[백마산 남쪽 역곡천에 가설된 M-2 보판교(步板橋)] 부근까지 나아가 전투 경험에 부족한 일부 분산병력의 수습에 힘쓰며 독려하던 중, 교전 첫날 좌측 손에 파편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장의 지휘 조치와 참모들의 보좌가 신속히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상실한 진지를 회복하기 위한 역습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4)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역습

제30연대장 임익순(林益淳) 대령은 사단장으로부터 21 : 30부로 제28연대 제 1 대대와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받게 되자, 우선 사단 수색중대를 북상(北上)시켜 충성교 부근에서 차후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28연대 제 1 대대장에게는 즉

각 병력을 전방으로 진출시켜 늦어도 22 : 50까지 충성교 북쪽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23 : 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추어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도록 제52포병대대에 요청하는 동시에 전차중대와 4.2" 중박격포 중대 등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부대에도 차질 없이 지원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이로부터 각 부대는 임무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속속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사단 수색중대는 철원 서쪽의 용담(CT 396337)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의하여 266 고지 남쪽의 판교리(板橋里: 일명 널다리)까지 차량 기동한 다음 여기에서 충성교까지의 가까운 거리를 도보 기동함으로써 22 : 00에 맨 먼저 충성교 부근에 당도하였으며, 역습부대인 제28연대 제1대대는 255 고지에서 북서쪽으로 펼쳐진 우미동 개활지를 횡단하여 도보로 기동함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이보다 40분 뒤인 22 : 40에 공격대기지점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사단 수색중대는 연대장으로부터 제30연대 제10중대 지역의 현 돌파구가 서측으로 확대되어 위협을 받을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제28연대 제1대대는 255 고지를 출발하기에 앞서 대대장 김삼증(金三曾) 대위가 바로 동 고지 정상에 위치한 제30연대 관측소에서 투명도식 약식 명령으로 공격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대대 자체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제2중대를 선두로 하여 23 : 00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되, 중대 단위로 축차 진출하여 제1중대가 바로 그 뒤를 따라 후속하

78 제 3 장 제30연대의 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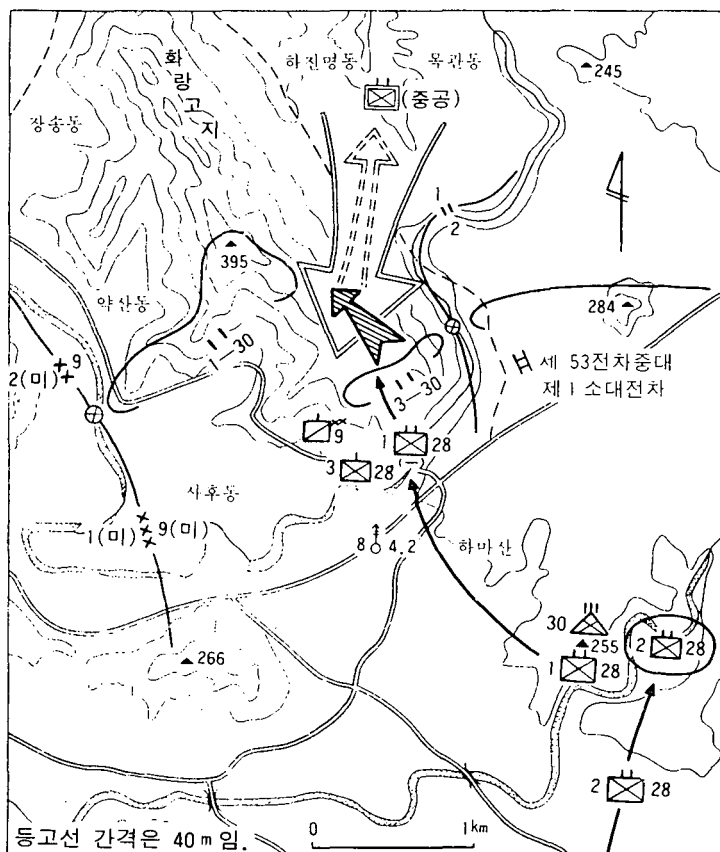
고 제 3 중대는 예비로서 현 위치에서 대기토록 하였다. 공격개시선은 제30연대 제 3 대대의 현 저지진지 선단이며, 공격축선은 395 고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정상을 따라 북서쪽으로 진출, 적의 측방을 공격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의 중화기중대는 아직도 당도하지 않았으므로 제30연대 제 4 중대가 충성교 서쪽 와지선에서 대대를 지원하며 제 9 중박격포중대의 1 개 소대가 공격간 대대를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공격이 개시되면 제53전차중대의 2 개 소대가 대대의 진출을 엄호하고, 제30연대 제 1 대대와 제 3 대대(-)가 현 위치에서 대대의 공격을 지원한다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대에서 2 개 중대를 중대(縱隊)로 투입하여 적의 측방을 공격하려 한 까닭은 이 곳 지형상의 특이성(特異性) 때문이었다.

만일 서쪽에서 적의 정면으로 공격하려 한다면 계곡이 깊고 경사가 급한 데다 마땅히 이용할 만한 지형지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 1 차 역습에 실패한 제 9 중대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으므로 능선의 정상을 따라 측방공격을 가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 공격축선은 기동 공간이 협소하여 1 개 소대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전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2 중대와 제 1 중대를 축차로 투입하려 하였던 것이다(요도 제 8 호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역습상황 참조).

그런데 대대의 이 날 출동 실병력은 중화기중대가 제외된 상태에서 장교 26 명에 사병 562 명이었으며, 그중 선두중대인 제 2 중대의 경우는 장교 4 명과 사병 155 명이었다. 일보상 중대병력은 장교 6 명에 사병 185 명이었으나 행정요원과 파견병력 등 일

요도 제 8 호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역습상황



부 병력이 불요불급한 위치에 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초전에는 중대의 단결을 해치는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전투가 가열되면서 모두 복귀하여 역습 대열에 가담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

혀 두고자 한다.

어떻든, 이상과 같이 공격준비를 완료한 대대(一)는 제52포병 대대에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는 동안, 제 2 중대를 선두로 공격개시선까지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충성교 부근의 공격대기지점에서 맨 먼저 출발한 제 2 중대는, 김영준(金永俊) 소위가 지휘하는 제 1 소대를 참병소대로 하여 북쪽으로 뻗어 오른 소로를 따라 제30연대 제 3 대대의 저지진지선으로 전진하던 중, 공격개시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군 진지 직후방의 능선 돌출부(CT 389390)에서 적의 포격을 받아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포격이 가해진 장소는 적진과 불과 500 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니, 근거리에서 대치한 상황을 말해 주기도 하려니와 이 포격이 제 3 대대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측에서는 다시 새로운 공격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제 2 중대는 예정대로 정시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제 1 소대, 제 3 소대, 제 2 소대 순으로 구간전진(區間前進)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제30연대 제 3 중대와 제10중대가 북쪽과 남쪽에서 일제히 엄호사격을 가하였고, 아군 지원부대들도 또한 적의 거점(據點)인 두 개의 봉우리 위에 포격을 집중하여 적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상대방 측에서도 포격과 기관총 사격으로 맞섬에 따라 23 : 10부터 치열한 사격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특히 적진의 남쪽 봉우리(CT 389394)에 유개호로 보호된 특화점(特火點)에서 난사하는 기관총 사격으로 말

미암아 선두 소대의 진출이 지연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바로 이 무렵 또 다른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제3대대 진지 우단 역곡천 부근에 위치한 제9중대 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23:20에 진지 일각이 무너지면서 일부 분산 병력이 역곡천까지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곧 아군은 정상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위에서 북쪽으로 공격하고 적은 아래에서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배후를 치려는 작전이 동시에 전개되어 먼저 아군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돌파 지점은 역곡천 서안(西岸)으로서, 바로 제53전차중대 제1소대와 마주보는 장소였기 때문에 동 소대의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에 의하여 엄호된 제9중대 장병들이 극력 저항함으로써 적은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제28연대 제1대대가 정상의 적을 압박함에 따라 이들은 병력을 거두어 물러서고 말았다. 반면에 아군 공격부대는 제1중대가 후속하여 화력으로 엄호하는 가운데 제2중대가 중간 목표인 남쪽 봉우리를 계속 공격하던 중, 동 중대 제1소대의 소총수인 곽효재(郭孝再) 일병이 동료의 죽음을 보고 분발하여 단독으로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적의 기관총 진지를 폭파해 버리자, 이를 계기로 일제히 돌격을 가한 끝에 중간 목표를 탈취하였다. 곽 일병은 이 수훈으로 전투가 끝난 직후에 소대장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이 날 전투에서 첫번째로 공을 세워 더욱 칭찬을 받았다.

중간 목표를 탈취하자 대대장은 제2중대장에게 이 진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한 다음, 후속한 제1중대로 하여금 초월공격을 실시하여 최종 목표인 북쪽 봉우리(CT 388396)를 탈취하라고 명령

하였다.

이로부터 김두식(金斗植) 중위의 지휘하에 초월공격을 단행한 제 1 중대는, 200 m 전방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사격과 기동으로 이어 가며 신속히 진격하고 전후방의 아군 진지에서 사격으로 이를 동시에 협격(挾擊)하니, 적의 저항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철수의 징후를 보였으며, 이 호기를 포착한 중대는 더욱 압력을 가하여 사격을 집중하다가 돌격을 감행, 산병호의 적을 무찌르며 정상으로 뛰어올라 휩쓸어 버린 끝에 24 : 00를 기하여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20 : 40에 재개된 적의 제 2차 공격은 무위로 끝나고, 아군은 본래의 진지를 회복하였으며 이후 곧 재편성에 착수, 진지를 보강하기에 이르렀다.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역습 성공으로, 증강된 대대 규모(5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일단 진지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적을 전초진지 북쪽으로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화력으로 제압하고 있을 때, 적측에서도 철수 직후에 포격을 재개하여 대대적인 포격으로 맞섬에 따라 다시 백마산 일원이 초연으로 뒤덮인 가운데 한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풍운이 감돌았다.

(5) 3 시간의 혈투와 진지고수

3개월 간이나 예행연습을 실시했다고 하는 중공 제340연대의 집념도 집요하기 그지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격에서 막대한 출혈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에서 물러선 지 1 시간도 채 못 되는 7일 00 : 40에 제 3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우선 본문의 서술에 앞서 제30연대가 진지를 회복한 직후인 00:10 현재의 병력 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마산의 주봉인 395 고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서쪽의 약산동(約山洞)으로 떨어 내린 능선에 제1대대의 제1중대와 제2중대를 북서향(北西向)으로 배치하여 최초의 진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동쪽의 주봉 바로 우측에는 제3중대가 축소했던 진지를 다시 확장하여 본래의 진지를 회복하였고, 그 남동쪽의 역곡천까지 떨어 내린 돌출 능선에는 배속부대인 제28연대 제1대대가 제1중대와 제2중대로서 제30연대 제3대대(-)가 위치했던 장소에 진지를 재편성하였다.

한편 진지를 인제한 제30연대 제3대대(-)는 충성교 서쪽으로 집결하여 제9중대와 제10중대를 재편성중에 있었으며, 바로 그 우측에 위치한 제28연대 제3중대는 아직도 현지에서 예비로 대기하였다.

결국 최초의 병력배치 상태에서 제30연대 제3대대(-)와 제28연대 제1대대가 임무를 교대한 셈이었으며, 다만 병력이 증강되어 3개 중대의 예비병력을 보유한 점이 다를 뿐이었다.

이 때 사단의 예비인 제28연대(-)는 사단장의 명에 의하여, 양촌에 위치한 제2대대를 255 고지로 이동한 끝에 교전이 재개되기 20분 전인 00:20까지 집결 완료하고 출동태세로 대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중공 제340연대의 제3차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심야(深夜)의 공격에서도 이들은 중전과 다름없이 1,000여 발의 포격으로 또 한 차례 백마산 일원을 강타한 다음,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거의 동시에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395 고지, 즉 백마고지를 공격하였다.

통상 중공군은 전반야(前半夜)에 공격을 개시하면 24 : 00 이전에 목표를 탈취하도록 강요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후반야(後半夜)에 제 2 계대(第 2 梯隊)를 투입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작전에서도 초전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 그들의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여 직접 백마고지를 공격하려 하였다.

00 : 40에 맨 먼저 출현한 중대 규모의 적은 395 고지의 우측 능선에 위치한 제 3 중대 정면으로 침투하고, 이어서 또 다른 중대 규모가 바로 그 남쪽의 제 28 연대 제 1 중대 지역으로 쇄도하는가 하면, 395 고지 서쪽의 제 30 연대 제 1 중대 정면에는 이보다 50분 후인 01 : 30에 증강된 대대 규모의 적이 약산동 계곡에서 출현하여 역시 395 고지의 측후방으로 공위(攻圍)하는 등 삼면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양측방의 적 부대간에 공격 시차가 1 시간 가까이 되는 점으로 볼 때, 새로 투입한 부대가 아군의 포격에 의하여 진출이 지연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측방의 무리들이 우회 기동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된 것인지?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삼면공격이 가해지면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어 가히 필살을 절하는 혈전으로 이어졌다.

● 제 3 중대(+)의 전황

우측방의 제 3 중대 지역에서 맨 먼저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을 때에는 포병 제 30 대대의 탄막사격과 중대의 화력으로 이를 가볍게 격퇴하였으나, 01 : 30경에 이 적이 다시 대대 규모의 병력

으로 증강되어 제3중대와 제28연대 제1중대 지역 정면에서 파상공격을 가함에 따라, 01:40과 02:00 그리고 03:20 등 세 차례에 걸친 격돌 속에 피차간 사상자가 한없이 늘어만 갔다.

더구나 적측에서는 병력 손실은 개의치 않는 듯, 3인조로 떼를 지어 수류탄을 던지면서 밀려들다가, 쓰러지면 다시 또 다른 부대가 다발총을 휘두르며 그 뒤를 따르고, 이 계파(梯波)가 물려서면 또다시 장총 돌격대가 함성을 지르며 사지(死地)로 뛰어드는 등 연속공격을 시도하다가 무수히 쓰러져 갔으며, 이 같은 와중에서 아군측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함으로써 능선과 계곡이 온통 시체로 뒤덮이고 초연(硝煙)과 성풍(腥風)이 산허리를 에워쌌다.

그러나 제3중대와 제28연대 제1중대 장병들은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고 혈투에 이은 사투로써 때로는 육박전으로 이를 연속 무찔렀으며, 이 과정에서 수류탄 투척 효과는 그 위력이 으뜸이었다. 포화로 대부분의 진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소총수들은 거의 노출된 상태에서 수류탄을 던져야 했고, 제3중대의 경우에는 20시간 가까이 탄약과 식사의 보급을 받지 못해 허기진 상태에서 싸워야 하였지만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생사를 같이한다는 위로와 격려 속에 이를 극복해 나가며 죽음으로써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당시 현지에서 직접 중대를 지휘했던 제3중대장 김정식 대위는 이 때를 회고하며,

“포격이 연신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적이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4중대장 하길룡(河吉龍) 대위에게 조명탄을 우리 중대 지역에 더 쏘아 달라고 부탁하여 확인해 보니 정말 새까

땅게 밀려들고 있었다. 이 때부터 기관총, 자동소총, M-1 소총, 박격포, 수류탄 할 것 없이 마구 쏘고 던지고 하며 정신 없이 새벽 04:00까지 싸웠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서로 의지하며 단결되었던 모습이다. 훈련도 잘 되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육박전이 벌어져도 물러서지 않았다. 소대장도 싸우고 나도 수류탄을 직접 던지고 있으니 감히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날 밤에 우리 중대에서도 7명이 전사하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아침에 확인해 보니 적은 200여 구의 시체가 준비하게 널려 있었다. 특히 통역으로 따라다닌다는 북괴군 1명을 포로로 잡아 대단히 칭찬을 받았던 일이 있다. 이 전공으로 나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희생된 전우들 앞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와 같이 단결된 협동과 투혼 서린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여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 제 1 중대의 전황

한편 395 고지의 전방과 좌측방으로 이어진 제30연대 제 1 중대 지역 정면에서는 이보다 50분 늦은 01:30에 약산동 계곡에서 증강된 대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다.

바로 395 고지 정상에 위치한 제 1 중대 관측소에서 중대장 구분원(具本源) 대위가 제 3 소대장 강봉우(康鳳宇) 소위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과연 5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판단되는 적이 휘황한 조명 아래 약산동 북쪽 골짜기에서 나타나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그 한 무리는 395 고지의 북서쪽 능선으로 뛰어들

고 다른 한 무리는 남서쪽 능선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에 중대장은 곧 포격 요청과 함께 대대에 적 출현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고지 후사면에 위치한 60 mm 박격포소대로 하여금 이를 제압토록 독려하다가 적이 300 m 전방으로 근접하자 최후저지사격 신호를 올렸다.

이로부터 보병과 포병의 협조된 화력이 이 곳에 집중되어 화망으로 뒤덮어 버렸다. 진지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 곳을 적의 주요 접근로로 예상하여 화력의 중점을 두고 있던 까닭에 최저표척(最低表尺)으로 겨누 기관총 교차사격과 박격포 사격, 그리고 포병의 탄막사격 등이 일시에 가해지면서 적에게 격심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북쪽 능선 전방에 탄막을 구성한 제52포병대대의 105 mm 야포와 남쪽의 개활지 두 곳에 탄막을 구성한 미 제213포병대대의 155 mm 야포가 동시에 포문을 열고 이를 강타함으로써 제공과 야지가 온통 화염으로 뒤덮이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제 1 중대의 중화기는 물론 좌단에 위치한 제 2 중대의 기관총소대 화기까지 합세하여 교차사격을 가함으로써 적의 타격은 막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밀물처럼 밀려들어 제 3 중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1 : 40과 02 : 00, 그리고 03 : 35 등 세 차례에 걸쳐 파상공격을 가함에 따라 여기에서도 역시 혈투에 이은 사투로 점철되었다.

그리하여 포격과 사격 및 수류탄 투척으로 이를 격퇴하는 동안 02 : 10에 남쪽 능선의 제 3 소대 진지 일부가 돌파되어 한때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동 소대장의 침착한 행동으로 중화기중

대의 지원을 받으며 극력 저지하고 동시에 제 2소대의 역습이 뒤따라, 교전 20분 만에 이를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뚫리지 않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류탄과 실탄이 떨어지면 흙 속에 묻힌 탄약상자를 파 내어 쓰기도 하고, 부상당한 전우의 탄머를 끌어당겨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초토로 변한 흙과 모래 속에 발목이 빠지면 아예 노출된 상태에서 적과 맞서기도 하였다.

적은 집요하게 달라붙고 아군은 연속 이를 격파하는 치열한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포병부대들은 간단없는 포격으로 적의 증원병력을 제압하고 보병의 중화기들은 진전의 적을 쉴 사이 없이 강타함으로써 빗발치는 소화기 사격과 난무하는 수류탄 및 포탄 파편 속에 3시간 동안을 헤매며 상처받은 적은, 점차로 위축되는 듯하더니 마침내 04:30을 넘으면서부터 그 기세가 현저히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부터 적은 철퇴하는 듯, 더 이상 큰 도발이 없이 일부 엄호 부대가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점차로 총성이 잦아들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05:10에 제 2중대 진지 정면에서 한 차례의 기관총 사격이 끝난 뒤로 완전히 그치고 급기야는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 약산동 북쪽의 장송고지(CT 373399)로 한걸음 후퇴하여 아군 진지와 500m의 거리를 두고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대대에서 포격을 유도하여 이를 강타하였지만 쉽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제 1 대대장 김영선(金永先) 소령이 두 번째로 일선 중대를 순시하여 제 1 중대와 제 3 중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현 진지를 기필코 사수하자.”고 격려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연대에 보고하는 한편 포격을 요청하여 이를 격퇴하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연대에서는 만일 이를 격퇴하지 않는다면 화랑고지의 전초중대가 완전히 고립될 뿐만 아니라 장차 큰 화근이 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구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 현 진지를 시급히 보강하도록 지시하였다.

● 진지의 보강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일단 적의 공격을 물리친 연대는 우선적으로 현 진지를 재편성하여 다음 작전에 대비하였다.

적의 포격에 대비하여 분대 단위로 대피호를 깊게 파고 산병호와 교통호를 보수하는 동시에 유선을 가설하고 장애물을 다시 설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지를 재정비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탄약과 식사를 추진 공급하였다.

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단 공병대대 제 3 중대가 연대에 파견되고 노무대원(KSC)들이 자재를 운반할 뿐 아니라 행정요원까지 총동원되어 작업을 도왔다. 그리고 전사자와 부상자를 후송하고 전장을 정리하는 등, 전후 처리에도 일부 병력을 할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식수 문제로서, 교전중에 노무대원들이 식사와 식수를 운반하다가 전투원 못지않는 희생도 있으며니와 일부 대원들이

현지까지 운반한다 하더라도 황망중에 겨우 주먹밥만을 거두어
음으로써 기갈이 자심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사단에서는 당일로서 5 갤런 들이 철제 물통
(Spare Can)을 이용하여 식수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방어전에 있어서 수류탄은 가장 유용한 탄약으로서, 이
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비록 땅에
묻힐지라도 지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 기준량 운운 하지 말
고 충분히 보급하라는 사단장의 특별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세째, 통신 문제로서,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유·무선이 모
두 원활히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선을 깊이 매설
해야 하며, 무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안테나를 노출시킴으로 말미
암아 파편에 절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 때에는 철조망선에
연결하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전
투기간중 유선 매설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이전에 매설해 놓았던
유선은 이미 끊어지고) 교전이 반복됨으로써 우선 조치로 늘어놓은
통신선이 외가닥으로 합하여 그 끊기가 한 아름이나 되었다.

네째, 전장을 정리하면서 중공군이 방독면을 휴대하고 있는 사
실을 발견하고 내심 놀랐다. 보급과 장비가 보잘것없는 무리들
이라고 여겨 왔던 장병들은 복장과 신발도 신품이려니와 특히 아
군도 아직 휴대하지 않은 방독면까지 장비한 것을 보고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떻든, 초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연대에서는 그 보완대
책을 강구하며 다음 전투에 대비하는 한편, 피로 물든 전장을 정
리한 결과 이 첫날 전투에서의 전과가 다음 표와 같이 밝혀졌다.

전과(10. 6. 19 : 00~10. 7. 17 : 00)

대 별		제30연대	제28연대 제1대대	계
종 별	인	534	52	586
	정	110	30	140
포 로		15	8	23
노 회	60 mm 박 격 포	2	1	3
	57 mm 무 반 동 총	2	2	4
	중 기 관 총	1	0	1
	경 기 관 총	7	3	10
	3.5" 로 켓 포	1	1	2
	자 동 소 총	5	1	6
	다 발 총	35	14	49
	아 식 장 총	26	6	32
	방 독 면	6	12	18

* 아군측 손실은 작전 전 기간을 통한 사단 종합으로 별도 명시.

자료 : 제 6 사단 전투상보.

3. 전초중대 구출작전

전후 3 차에 걸친 공방전에서 중공 제340연대를 격퇴하는 데 성공한 제30연대(-)는 진지의 보강과 함께 전열을 정비하여 일단 방어태세를 확고히 굳힌 다음, 곧 전초중대의 구출작전에 착수하였다.

이때 화랑고지에 전초로 배치된 제11중대는 7일 12 : 00 현재까지 북쪽의 제 1 봉(CT 375410)에서 전면 방어태세로 버티고 있었으나, 그 동안 주저항선에서 일진일퇴를 벌이며 격전이 반복됨에

92 제 3 장 제30연대의 서전

따라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다 아직까지도 교신이 두절되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구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395 고지 바로 북쪽에서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진지를 구축하여 그 퇴로마저 차단함으로써 연대에서 이를 구출하지 않는 한 제11중대 단독으로는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대에서 7일 아침에 구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을 파악하였을 때는, 약산동 북쪽의 장송고지에 1개 중대 규모의 적이 진지를 구축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09:00에 사단에서 L-19 정찰기에 의한 공중정찰을 실시한 결과, 395 고지 바로 북쪽의 화랑고지 제3봉 즉, 제11중대의 중대 관측소가 위치했던 장소 일대에 또 다른 2개 소대 규모의 적이 진지작업중인 것을 확인하여 연대에 통보함으로써 전초진지와와의 중간지대에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적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지원부대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격퇴하여 전초중대의 퇴로를 타개하기로 하였다. 즉, 전초중대의 소속대대인 제3대대의 2개 중대를 투입하여 제10중대를 우, 제9중대를 좌로 한 병행공격으로 직전방의 적을 동시에 공격토록 하되, 제53전차중대의 1개 소대가 동측방에서 이를 엄호하고, 포병은 화랑고지 북쪽의 하진명동, 상진명동, 가단골(加丹谷) 등 적의 예상접근로 일대를 제압하여 그 후속 수단을 봉쇄하기로 하였으며, 4.2" 중박격포와 81mm 박격포는 장송고지의 적을 우선적으로 제압하여 공격부대와 함께 지역내의 적을 포착, 격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격준비사격은 실시하지 않는 반면에 미 제5공군에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여 396 고지와 산명리 일대의 적 포진지 및 예상집결지 등을 제압하기로 하였으며, 공격부대가 일단 공격을 개시하면 주저항선상의 각 중대는 가용한 화력으로 이를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퇴로를 타개하여 전초중대를 철수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연대는, 공격개시시간을 14:00로 결정하는 동시에 공격개시선을 제1대대의 현 진지 선단으로 설정하여 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1) 제3대대(一)의 초월공격

이 작전의 주임무를 맡은 제3대대장 조남국 소령은 대대의 제9중대와 제10중대를 12:10부터 충성교 서쪽의 집결지에서 395 고지 남쪽 제곡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진출시켰다.

이에 앞서 연대에서는 이 날 아침 07:15에 사단 수색중대를 사단장의 명에 의하여 원위치인 용담으로 철수시킨 바 있으므로, 제3대대(一)가 출동하는 이 시점에서 연대의 예비인 제28연대 제3중대가 유일하게 충성교 부근에 대기한 셈이었고, 기타 지원부대와 배속부대는 하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다만 첫날 역습 과정에 참전하지 못했던 제28연대 제4중대가 합세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그야 어쨌든, 공격대기지점으로 진출한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13:30까지 이동 완료하여 최종적인 점점을 하고 있을 때, F-84 전폭기 1개 편대가 북쪽 상공에 나타나 산명리 일대의 적진에 베이팜탄 공격과 기총소사를 가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이동중에

도 1개 편대씩 두 차례나 출격하여 효성산과 500고지 능선 일대를 강타하더니, 이번에는 바로 화랑고지 북쪽의 산명리 계곡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53전차중대 제1소대가 중마산 북쪽으로 진출, 지원태세를 갖추는가 하면 제4소대는 우미동에서 언제라도 이와 교대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다. 그러나 공격준비사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공격개시 이전에 무선통신을 허용하지 않았고, 포병은 여전히 요란사격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공격준비를 마친 제3대대(一)는 이윽고 14: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의 진지를 초월하여 정시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대대(一)는, 우일선인 제10중대가 395고지 북쪽 능선에서 화랑고지 제3봉을 목표로 진출하고, 좌일선인 제9중대는 제1중대 제3소대 진지 선단에서 약산동 북쪽의 장송고지를 목표로 병행 진출하였다.

일단 공격이 개시되자 전차소대와 주저항선상의 각 중대가 화력으로 이를 엄호하고, 4.2" 중박격포를 비롯한 연대 중화기중대의 박격포사격이 장송고지로 집중하여 작렬하는 가운데 속속 전진한 양 중대는, 14:50 현재 제10중대는 목표 전방 200m의 돌출능선(CT 379402)까지 진출하고 제9중대는 약산동 개활지를 횡단하여 장송고지로 돌입, 그 5부 능선(CT 374396)까지 육박하였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이 때부터 현지에서 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맞선 가운데 아군의 공격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적은 어느덧 8부 능선상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에 밀착하여 사격과 수류탄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적진

에서 노출된 양 중대의 공격대열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야포와 직사화기로 맹렬한 사격을 가함에 따라, 양 중대는 2~3 m를 전진하는 데도 사상자가 속출하여 더욱 위축되기만 하였다.

이 때 대대장은 이들 직사화력을 제압하지 않는 한,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포격과 항공지원을 긴급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응한 포병의 제압사격과 90 mm 전차포사격 및 항공근접지원 등이 곧 이어 뒤탈지만 속 시원히 이를 제압하지 못하였다. 특히 15:35에 출격한 F-84 전폭기 1개 편대와 16:20에 출격한 F-80 전폭기 1개 편대가 차례로 적의 포진지를 강타하였으나 11시 방향의 효성산 부근에서 날아오는 직사포화는 끝까지 제압하지 못하였다.

이 무렵 제53전차중대에서도 제4소대가 제1소대와 교대하여 역시 동일한 장소인 중마산 북쪽의 역곡천변에서 적의 화력을 제압하던 중, 16:30에 22호 전차가 적의 직격탄에 명중되어 전차의 파괴와 함께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대에서는 다시 제1소대와 교대시켜 동 소대로 하여금 계속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역시 지형상의 제약으로 만족할 만한 지원이 뒤탈지 못했다.

이에 즈음하여 보병들의 공격도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연대장과 대대장이 진출속도가 늦다고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이 마의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방과 좌우측방 등 삼면에서 날아드는 적의 포격과 사격으로 말미암아 병력손실만 가중되었다.

이 같은 와중에서 제9중대 제2소대장 신일도(申一道) 소위가 전사하고, 제10중대 제1소대의 자동소총 사수와 부사수가 395고

지 북쪽 돌출 능선에서 전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출된 능선으로 포복전진하던 장병들이 대부분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만 늘어가고 2시간이 경과한 17:00까지도 이를 타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적측에서는 이 무렵 다시 새로운 병력을 투입한 듯, 화랑고지 제 2 봉의 남쪽 골짜기에 일단(一團)의 적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점차로 증강되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포격으로써 이를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제 3 대대(一)는 공격을 중지하고 17:15에 철수 개시, 충성교 부근으로 일단 집결한 다음 21:30에 충성교 북쪽의 S자형 능선상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여 연대 방어진지의 종심(縱深)을 증가하였다.

이로써 전초중대 구축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적의 위협이 가중된 가운데 전초중대인 제11중대는 적중에도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2) 제11중대의 파탄

제11중대는 교전 개시 이후 22 시간 동안 화랑고지 제 1 봉에서 전면방어태세로 버티며 전초진지를 고수하였으나, 보급이 두절되고 교신마저 끊긴 데다 퇴로까지 차단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후 4 차에 걸친 교전과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포격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여기에 실탄의 부족과 급수 문제까지 겹쳐 더 한층 고충을 받았다.

그러나 잔여 병력이 한 군데로 모여 서로 의지한 가운데 전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며 7일 14:00 현재까지도 제 1 봉을 확보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3대대의 구출작전이 개시된 이후에 적의 포격이 다시 이 곳으로 집중하여 또 한 차례의 파란을 겪고, 이어서 15:30에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정면공격을 받게 되자 진퇴유곡에 빠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적의 대병력이 좌우측방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00 이후에는 아군의 공격마저 중단됨으로써 절망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현저하게 전의를 상실하여 사격의 손질이 둔해지면서 진지 이탈자가 늘어 가고 방어진용(防禦陣容)에 균열이 생기려는가 하면 급기야는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이 상황은 삼시간에 중대의 전 진지로 번져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돌변사태로 변하고 말았다.

고군분투의 보람도 없이 허무하게 진지가 와해되자 중대장은, “각자 최선을 다하여 395 고지 남쪽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다음, 자신도 본부요원 몇 명과 함께 퇴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전 중대원이 사면의 적중에 휘말려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19:00 이후부터 전초진지는 완전히 적의 독무대로 변하고, 제11중대의 분산병력은 각기 혈로를 뚫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일 아침에 아군 진지까지 찾아온 병력은 중대장을 포함하여 2개 분대 병력밖에 되지 않았다. 전초진지까지라도 고수하겠다는 집념이 너무 강해서 이 같은 결과를 빚고 말았던 것이다.

4. 중공 제334연대의 진출

(1) 적의 반격

한편 중공 제38군은 제340연대가 최초 공격에 실패하자 제112사단 예하의 제334연대를 다시 투입하였다. 이들은 국군 제30연대가 전초중대 구출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화랑고지 북쪽으로 이동하여 먼저 전초진지를 유린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반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 제30연대는 새로운 적이 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대대(一)를 철수시키는 동시에 이 적을 포착 격멸하려 하였으며, 저들은 이미 탈취한 화랑고지를 발판으로 하여 직접 395고지를 공격하려 하였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제30연대장 임익순 대령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제1대대장 김영선 소령으로부터,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병력이 화랑고지 제3봉까지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전초진지에서 총성이 멈추고 그 일원에 적이 출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11중대는 이미 철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포격을 요청하는 동시에 휘하 대대장들에게 전초의安危(安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40부터 화랑고지 일대에 아군의 포화가 작렬하고 395고지 직전방의 돌출 능선(CT 378406)에는 제1대대의 중화

기 화력이 집중하여 적의 예기(銳氣)를 꺾어 놓았다.

그러나, 일시 발길을 멈추었던 적은 20:00를 기해 또다시 주저항선으로 침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으로 적은 제4차 공격을 감행한 셈이 되었다.

(2) 제1중대의 395고지 상실

리창핑이 지휘하는 중공 제334연대는 최초 공격단계에서부터 그 기도가 분명하였다. 종래의 공격부대와는 달리 오직 백마산의 주봉인 395고지만을 노리는 듯, 화력과 병력을 이 곳으로 집중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해 왔다.

공격 직전 10여 분 동안에 걸친 집중포격으로 395고지에 위치한 제30연대 제1중대의 진지를 강타한 다음,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파상공격으로 동 중대 제1소대 진지를 집중공격하는 한편 다른 일부의 병력을 좌우 양측방으로 투입하여 연대의 주의력을 분산시켰다.

먼저 조곡의 침투 양상을 보면, 395고지 서쪽 능선의 하단부에 위치한 제30연대 제2중대 정면으로 소대 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약산동에서 사후동(寺後洞)으로 통하는 측방통로로 진출하려는 듯 측후방을 위협하자, 중대 소화기의 일제사격과 60mm 박격포 사격으로 타격을 가하여 21:20에 이를 장송동 쪽으로 격퇴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2중대장 서두수(徐斗守) 중위가 갖 전입한 신병에게 수류탄 투척 요령을 직접 지도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뜻밖에 중대장을 잃고 이 때부터 선임장교인 임익룡(林翼龍) 소위가 중대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395 고지 남동쪽 능선 하단부에 위치한 제28연대 제2중대 지역에서도 역시 소대 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20:05에 돌연 역곡천변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기관총 사격으로 중대의 산병호선을 어지럽히자 교전 10분 만에 이를 격퇴해 버렸다.

이렇듯, 양측방으로 침투한 적은 가볍게 물리쳤으나 395 고지로 밀려든 적은, 병력도 증강된 대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공격수법도 강인하여 교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치열한 격전이 반복되었다. 이들은 화랑고지 제3봉에서 능선을 따라 축차적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395 고지 북사면의 제1중대 제1소대 진지를 집중공격하고, 이와 맞선 소대의 장병들은 중화기중대의 지원하에 이를 연속 격파하였으며, 그 동안 제53전차중대 제4소대와 제30포병대대는 적의 측방과 배후를 강타하는 등 21:20까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격전이 되풀이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이 바닥이 나고 일주야(一晝夜)에 걸친 격전으로 체력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적은 신진의 예기와 병력의 우세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마침내 22:00를 전후하여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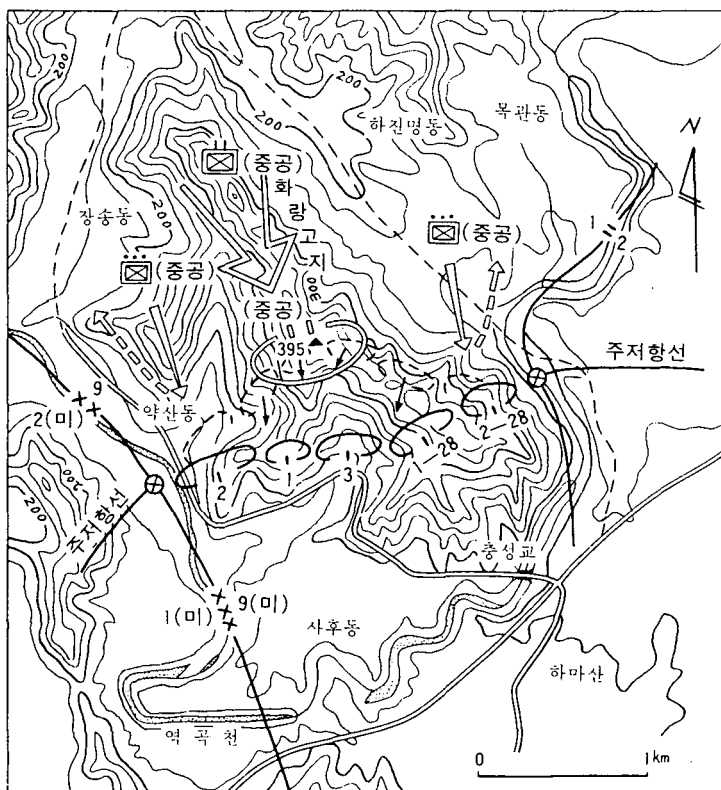
이에 중대장은 395 고지 주변에 대기중인 제2소대로 하여금 이를 저지토록 하였으나 한번 밀리기 시작한 국면은 기세에 압도되어 건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었으며, 이를 계기로 적측에서 다시 새로운 병력을 투입함에 따라 끝내 제1중대의 진지가 와해되고 백마산의 주봉인 395 고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4. 중공 제334연대의 진출 101

이로써 본 작전이 개시된 이후 최초로 백마고지를 상실하게 되었거니와,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대장과 연대장은 물론 사단장 까지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진두에 나섰다.

제1대대장 김영선 소령은 전방에 돌출한 제3중대를 남서쪽으로 300m쯤 철수시켜 좌일선인 제2중대와 함께 적의 돌파구 확

요도 제9호 제1차 395고지 철수상황



대를 극력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 1 중대의 분산병력을 수습하여 이 양 중대 진지간의 제곡을 막아 “사수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고 연대장 임익순 대령은 제 1 대대로 하여금 현 저지진지를 고수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충성교 북쪽에 위치한 제 3 대대(一)를 즉각 출동시켜 역습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의 복안은 이와 달랐다. 제30연대가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대를 교대시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우선 제30연대로 하여금 전열을 정비하여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한편 제28연대(一)를 진출시켜 진지를 회복한 다음, 이 양 연대를 현지에서 교대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30연대는 23:00까지 진지를 재조정하여 대체로 395 고지 남쪽 500 m의 거리에서 좌로부터 제 2 중대, 제 1 중대, 제 3 중대, 제28연대 제 1 중대, 제 2 중대의 순으로 지형의 기복에 관계 없이 재배치한 다음, 포격을 요청하여 적의 재편성을 방해하던 중, 23:30에 또 한 차례 중앙의 제 3 중대 지역에서 적의 도발이 있었으나 이를 격퇴하고 이 저지진지를 고수하였다(요도 제 9 호 제 1 차 395 고지 철수상황 참조).

(3) 부대 교대

한편 사단에서는 상실한 진지의 회복과 함께 부대를 교대하려는 사단장의 결심사항을 사단 작전지시 제65호로서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65호

참조 : 지도 대한 1 : 25,000 4285. 10. 8. 02 : 00

1. 사단은 예비연대의 일부병력으로써 395 고지에 침투한 적에 대하여 역습으로 격퇴하는 동시에 주저항선 부대의 작전지휘권을 이관시키려 함.

2. 가. 제28연대

(1) 예하 1개 대대(제2대대) 병력으로써 4285. 10. 7. 23 : 00에 255 고지(CT 405~374)에서 행동개시하여 395 고지(CT 382~401)에 침투한 적을 역습으로 격퇴하고 주저항선을 확보하라.

(2) 예하 제2대대(역습부대)가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별명 있을 시까지 제30연대 제1, 2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3) 4285. 10. 6. 21 : 30부로 제30연대장 작전지휘하 배속된 예하 제1대대는 제2대대가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휘하에 복귀된다.

(4)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시간부터 좌 제일선부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

(5) 제30연대장으로부터 제53전차중대 작전지휘권을 4285. 10. 7. 23 : 00부로 인수, 통합지휘하라.

나. 제30연대

- (1) 역습부대(제28연대 제 2 대대)가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시간부터 예하 제1, 2대대는 제28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하라.
- (2) 예하 제 3 대대는 CT 453~313 부근에 이동집결하여 재편을 완료하고 별명에 대기하라.
- (3) 제53전차중대 작전지휘권을 4285. 10. 7. 23 : 00부로 제28연대장에 인계하라.
- (4) 역습부대의 주저항선 확보와 동시에 좌 제일선부대의 작전지휘권을 별명시까지 제28연대장에 이관하라.

다. 제53전차중대

4285. 10. 7. 23 : 00부로 제30연대장의 작전지휘로부터 해제와 동시에 제28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아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중 오

이 작전지시에 의거 이제 제28연대장이, 제 2 대대를 진출시켜 역습을 단행하고 이어서 양 연대가 교대하며 이와 아울러 제30연대 제 1 대대와 제 2 대대까지 통합 지휘하여 사단 주저항선의 좌반부(左半部)를 맡아 백마고지 전투를 이어 받게 되거니와, 이 사항은 다음 제 4 장 제28연대의 작전 편에서 소상하게 서술하게 된다.

이로써 제30연대의 서전은 일단 종결을 짓고 제 1 대대만이 제 28연대의 역습 대열에 가담하게 되며, 기타 병력은 삼봉동(CT 398364)으로 집결하여 다음 전투에 대비하기에 이르렀다.

제 4 장 제28연대의 공격과 방어

제28연대장 이주일(李周一) 대령이 사단장으로부터, “395 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7일 23:00 현재, 연대의 3개 대대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6일 23:30부로 제30연대에 배속된 후 이 시간 현재까지 동 연대의 방어편성에 가담하여 395 고지 남동쪽 진지를 방어중에 있었고, 제2대대는 255 고지에서 사단으로부터 직접 역습명령을 받고 전방으로 이동중에 있었으며, 제3대대는 제2대대가 떠난 후 다시 사단의 예비로 대기하기 위해 20:30에 현 집결지인 독서당리(讀書堂里: CT 405319)를 출발, 1시간 30분 동안의 도보 기동 끝에 22:00에 255 고지에 도착하여 군장을 정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의 3개 대대 중 연대장이 본 작전에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제1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이며, 그 중 제2대대만이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명령을 하달한 시간에 벌써 사단으로부터 사전지시를 받고 이동중에 있는 대대가 있는가 하면, 또 사단장이 직접 특정대대를 지정하여 역습을 단행하도록 일일이 지시하는 등, 지휘 계통을 무시한 지휘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작전기간 중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며, 이와 같은 건

급조치를 취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곧, 한정된 지역에서 대대 단위급 작전이 연속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적시에 역습을 단행하고 또 이 부대들을 신속히 교대하기 위하여 사단장은 시간 절약상 수시로 직접명령을 하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대 단위까지 직접 지정하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일이 지시하는 등 예외적인 지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예하 지휘관들이나 참모들은 부대의 실정과 지역 사정에 정통해 있었던 관계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리 없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 395 고지의 역습명령을 직접 하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사단장이 관계참모를 대동하고 255 고지에 위치한 제30연대 관측소를 방문하여 전황을 청취하던 중 돌연 395 고지가 돌파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사단장은 현지에서 직접 구두로 255 고지에 대기중인 제28연대 제2대대장에게 역습을 단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28연대로 하여금 목표를 탈취하는 즉시 임무를 교대하도록 명령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2시간 이내에 이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문서 명령은 3시간 후인 8일 02:00에 전달되었다. 또한 사단 작전참모는, “항상 1개 대대 병력을 255 고지에 대기시키라.”는 사단장의 지침에 따라 제28연대 제2대대의 출동명령이 하달되자 즉각 제28연대 작전주임에게, 독서당리에 위치한 제3대대를 255 고지로 이동시켜 새로운 예비대로 대기하도록 우선 조치한 다음, 사단장의 결심사항을 성문화하는 절차를 취했던 것이다.

1. 제28연대 제 2 대대의 역습

제28연대 제 2 대대장 윤영모(尹永模) 소령이 역습명령을 받고 전방으로 진출하는 동안, 제 3 대대가 255 고지로 이동하고 이어서 연대 지휘부가 이동하여 동 고지에 관측소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255 고지에는 제28연대와 제30연대의 관측소가 나란히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제28연대 지휘부가 본 작전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 아래, 22 : 45에 255 고지를 출발한 제28연대 제 2 대대는 우미동 개활지를 횡단하여 1 시간 동안의 강행군 끝에 23 : 40에 충성교 북쪽의 공격대기지점에 당도하여 이 곳에서 최종적인 점검과 아울러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 이주일 대령은 제 2 대대가 역습을 개시할 경우,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 수색중대를 즉시 현지로 진출시켜, 충성교 북쪽에서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 시각에 연대 수색중대는 제 3 대대와 함께 독서당리에서 255 고지로 이동하여 대기중에 있었으므로, 이 명령을 받은 수색중대는 제 2 대대가 진출한 경로를 따라 충성교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 동안 제 2 대대는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병력을 제30연대의 저지선 직후방까지 일단 이동한 다음 8일 00 : 40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 5 중대를 우, 제 6 중대를 좌, 제 7 중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

을 개시한 대대는, 우일선 중대가 능선을 따라 395 고지 정면으로 공격하고 좌일선 중대는 계곡을 따라 병행 진출하였으며, 예비인 제 7 중대는 제 6 중대의 뒤를 따랐다.

이 공격은 제30포병대대가 공격준비사격을 담당하여 395 고지 일원에 맹포격을 가한 데다, 적이 395 고지를 점령한 직후부터 재편성의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포격을 가해 오고 있었으므로, 고지 정상 상의 동굴화된 일부 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공격 초반에는 비교적 진출이 용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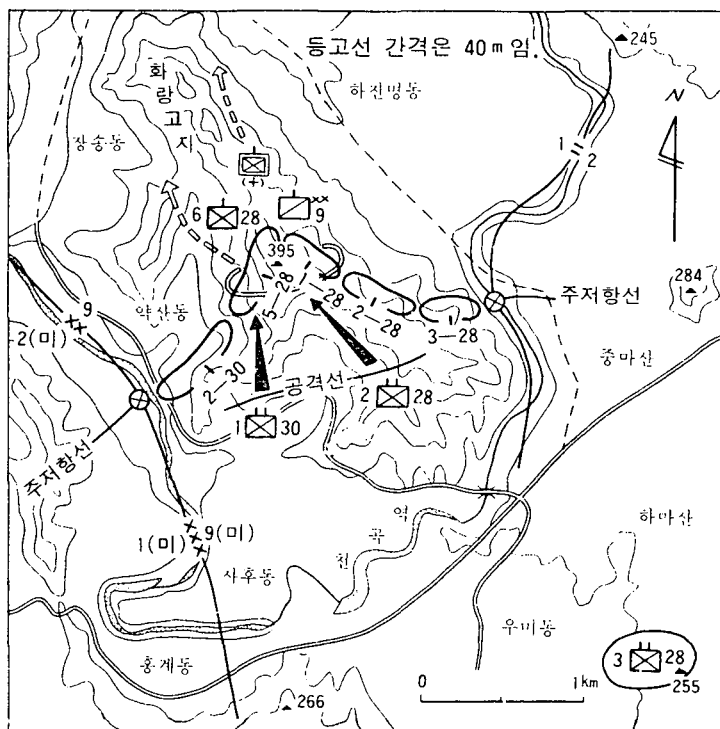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공격부대가 395 고지 8부 능선에 이르자 적의 저항이 완강해져, 능선으로 진출한 제 5 중대가 돌격선에서 세 차례나 돈좌되면서 제 1 소대장 심창섭(沈昌燮) 소위가 전사하고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던 중, 좌측 능선으로 진출한 제30연대 제 1 대대가 측방에서 제 2 대대를 지원하자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8일 02:40에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 때 제 2 대대를 측방에서 지원한 제30연대 제 1 대대는 좌측 능선을 따라 공격진출중인 제28연대 제 6 중대와 395 고지 서측방에서 상호 공격 대열이 맞부딪혀 일시 혼란을 빚었으나, 곧 수습이 되어 제 6 중대는 395 고지 남쪽 계곡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고, 제30연대 제 1 대대는 계속 서측방에서 공격한 끝에 약산동 일대의 좌측 능선을 먼저 탈환하고 395 고지의 측방을 위협함으로써 적의 철수를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단 작전지시 제65호에는(전장 제 4 절 참조), 제28연대가 목표를 탈취함과 동시에 제30연대 제 1 대대와 제 2 대대를 통

합 지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제30연대는 제28연대가 역습을 실시하는 동안은 현 진지를 확보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제30연대 제1대대는 누구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았는지? 혹은 대대장 단독으로 본래의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동일 축선상의 이와 같은 병행 공격의 결과로 제28연대가 목표를 탈취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통제되지 않은 병력 운

요도 제10호 제28연대 제2대대의 공격 상황



용에 따른 공격간의 혼란이 빚어졌던 것이다.

어떻든 이로써 사단은 395 고지를 상실한 지 3시간 40분 만에 주진지를 회복하여 백마고지를 다시 장악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양 연대는 임무를 교대하여 03 : 00부터 제28연대장의 책임하에 395 고지를 포함한 사단 작전지역의 좌반부를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임무를 교대한 03 : 00 현재의 부대 배치 상황을 보면, 395 고지의 주저항선에는 좌로부터 제30연대 제2중대, 제28연대 제5중대, 제1중대, 제2중대, 제3중대 등 5개 중대를 배치하여 사실상 3개 대대의 병력을 이 고지에 투입한 셈이 되었으며, 그 동쪽의 야지에는 제30연대 제2대대가 종래의 진지를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제28연대에 배속되었다(요도 제10호 제28연대 제2대대의 공격 상황 참조).

한편 제30연대는 2개 대대를 제28연대에 배속하고 남은 1개 대대 즉 제3대대를 255 고지 부근의 삼봉동으로 일단 철수시켰다가, 사단의 지시에 의하여 다시 동 대대를 04 : 10에 철원 부근의 양촌으로 이동, 여기에서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 정비에 주력하여 전력을 회복시키면서 다음 명령에 대기하였다.

이 무렵, 목표를 탈취한 제28연대는 재편성을 완료한 후 다시 지역내의 적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제6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395 고지 전방으로 진출시켜 제2대대장 윤영모 소령의 지휘하에 추격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제2대대에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는 중대장 이영조(李永朝) 중위의 지휘하에 제5중대 진지를 초월하여 직전방

의 화랑고지 제 3 봉을 공격하고, 제 6 중대는 중대장 김운기(金雲機) 중위의 지휘하에 제30연대 제 1 대대 진지를 초월하여 좌전방의 장송고지(CT 373398)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395 고지에서 일단 물러선 적은 멀리 후퇴하지 않은 채 300 m 거리의 양쪽 능선을 점령, 어느덧 엄체호까지 구축해 놓고 아군의 포격을 피하면서 완강히 저항할 뿐 아니라, 특히 화랑고지 제 3 봉의 적은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자동화기와 대구경 직사화기까지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함에 따라 그 8부 능선상에서 또 다시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심야의 사격전이 2 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제 6 중대 제 2 소대장 김규섭(金奎燮) 소위가 중상을 입고 11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여명이 가까워진 05 : 30에는 오히려 적측에서 반격을 가해 옴으로써 상황이 돌변하고 말았다.

2. 중공 제334연대의 반격

중공 제334연대는 전날 395 고지를 점령했다가 아군의 맹렬한 포격에 의하여 격심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주봉을 탈취하려는 듯, 재공격을 감행해 왔다. 더구나 이들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해상 박명 시간이 가까운 05 : 30에 여명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이제는 피아간에 기상 조건과 주야의 관계 없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반복하게 되었다.

공격 양상은 피아간이 대동소이하여, 일단 고지를 빼앗기면 포

격으로 초토화시킨 다음 새로운 공격부대를 투입, 집중적으로 395 고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일관되었다.

재공격을 감행한 중공 제334연대도 역시 그들의 저지진지인 화랑고지 제 3 봉과 장송고지를 발판으로 하여, 증강된 대대 규모의 새로운 공격부대를 투입, 삼면에서 395 고지를 공격하였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적의 반격 사실을 확인한 연대에서는 즉각 제 6 중대와 수색중대의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양 중대는 05 : 35에 철수개시, 제 6 중대는 395 고지 서쪽 능선에서 제 5 중대와 합세하고 수색중대는 백마고지 우단의 제 2 중대 진전 정면으로 철수하였다.

이 때 적이 노리는 목표는 오로지 395 고지로 한정된 듯, 병력과 화력을 모두 이 곳으로 지향시켜 집중공격을 가해 옴에 따라 제 2 대대 제 5 중대와 제 6 중대가 이들과 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전이 개시된 이후 적측에서 연속적인 파상공격을 가해 옴으로 인해 양 중대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06 : 50 현재까지 진지를 굳게 지키고 완강히 버티었다.

그 동안 제53전차중대 제 4 소대는 05 : 00부터 중마산으로 진출하여 공격부대를 엄호하다가 적이 반격을 개시하자 포구를 돌려, 하진명동과 화랑고지 제 3 봉 간에서 이동중인 적을 강타하는 동시에 395 고지 동측방으로 쏘아대는 적에 대해서도 화력으로 이를 제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0포병대대를 비롯한 아군의 5개 포병대대와 4.2" 중박격포중대도 전과 다름없이 제압사격을 가하여 적의 후속부대를 차단함과 아울러 지대내의 적을 화력으로 격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날 따라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시계

가 흐린 데다 적측에서 연막차장까지 실시함으로써 지원부대들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상황 아래 제 5 중대가 395 고지 정상 가까이 육박한 적과 근접전을 전개하던 중, 08:10에 우군 전폭기 1개 편대가 상공에 나타나 화랑고지 일대의 적진을 한 차례 휩쓸고 다음, 이번에는 395 고지 정상의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여 기총소사와 베이팜탄 공격으로 오폭의 참화를 빚어 냈다.

이 전폭기는 동해의 프린스톤(Princeton) 호 함상에서 발진한 F9F 함제기 편대로서,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근접지원으로 아군을 크게 도운 바 있었으나 이 날은 돌연히 오폭사고를 일으켜 환호하던 아군의 머리를 강타하니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 5 중대 장병들이 395 고지 남쪽의 9부 능선으로 뛰어내리고, 반면에 적은 이 공백을 틈타 정상으로 쇄도함으로써 어이없게도 우군기에 의하여 고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러, 전열이 흩어진 제 5 중대로서는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 저지진지를 급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대대장은 상황 보고와 함께 즉각 포격을 요청하여 우선 화력으로 이 적을 제압하면서 제 5 중대와 제 7 중대로 하여금 역습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포병의 사정연신과 더불어 역습을 감행한 양 중대는 11:00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거듭하였으나, 암석과 사토로 뒤엉킨 이 고지는 방자에게 유리한 반면에 공자에게는 불리하여 피해만 가중되고, 사기마저 떨어져 끝내 이를 탈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395 고지 주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지를 아직도 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까닭에 적으로서는 불안한 정상의 점령이었으며, 아군으로서도 주봉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제 2 대대가 역습에 실패하고 보니, 새로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증강되고 있는 적의 동태를 중시하여 사단에 예비대의 투입을 건의하였던바, 바로 이 무렵 사단에서도 두 번째로 395 고지를 상실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255 고지에 대기중인 사단 예비대(제28연대 제 3 대대)의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곧 이 건의를 승인함과 동시에, 제28연대로 하여금 395 고지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2 : 00부로 사단 작전지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66호

참조 : 지도대한 1 : 25,000 4285. 10. 8. 12 : 00

1. 사단은 연대 전투지경선을 변경하고 예비연대 병력으로써 395 고지에 침투한 적을 역습으로 격퇴하여 주저항선을 확보하려 함.

전투지경선 : 별지 투명도 참조

역습방향 : 별지 투명도 참조

역습목표 : 별지 투명도 참조

2. 가. 제28연대

- (1) 예하 1 개 대대(제 3 대대) 병력으로써 4285. 10. 8. 17 : 00

를 기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이 공격하고 주저항선을 확보하라.

- (2) 4285. 10. 8. 12 : 30부로 제30연대 제 2 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제30연대장에게 인계하는 동시에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지시된 전투지경선내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라.

나. 제30연대

- (1) 4285. 10. 8. 12 : 30부로 예하 제 2 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제28연대장으로부터 인수하라.
- (2) 4285. 10. 8. 12 : 30부로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지시된 전투지경선내에 있어서 일체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라.
- (3) 예하 제 3 대대를 4285. 10. 8. 13 : 30을 기하여 CT 453~314 부근으로부터 255 고지(CT 405~373) 부근으로 이동 집결시켜 사단 직접 지휘하에 임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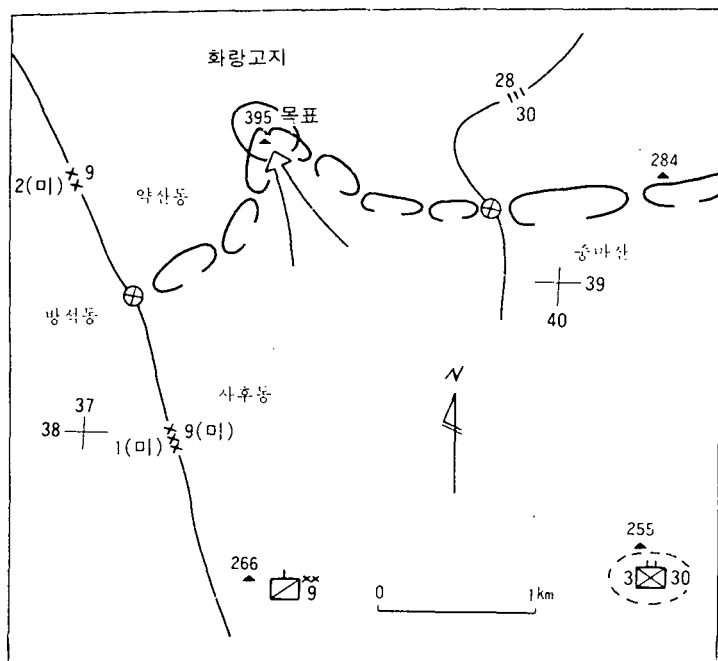
다. 사단 수색중대

- (1) 4285. 10. 8. 14 : 00부터 행동 개시하여 별지 투명도에 지시된 지점으로 이동 집결하라.
- (2) 예하 1개 분대병력을 별지 투명도와 같이 배치하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이 작전지시의 요지는, 제28연대로 하여금 제 3 대대를 투입하여 395 고지를 탈환토록 하되, 연대에 배속중인 제30연대 제 2 대대를 현 배치 상태에서 원대로 복귀시켜 연대에서 담당하고 있는 395 고지 동쪽의 주저항선을 제30연대에 인계하고, 제28연대는

작전지시 제66호 별지 투명도



오직 395 고지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양촌에 집결중인 제30연대 제3대대를 255 고지로 이동시켜 사단의 예비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사단 수색중대를 256 고지(CT 381372)로 진출시켜 판교리에서 활동중인 제53전차중대를 위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명령에 대기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28연대 제3대대의 공격개시 시간인 17:00를 앞두고 각 부대는 저마다 임무에 입각한 전투태세를 갖추

는 동시에 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 간에 긴밀한 협조를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제28연대 제2대대는 395고지 공격을 중지하고 그 남쪽으로 500m쯤 물러서서 저지진지를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아군 포병들이 다시 대대적인 포격을 재개하여, 395고지 정상을 비롯한 그 북쪽의 적진 일원에 격렬한 제압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이윽고 제28연대 제3대대의 역습이 개시되었다.

3. 제28연대 제3대대의 역습

제28연대가 임무를 교대한 후 두 번째로 역습에 나선 제3대대는, 대대장 최창룡(崔昌龍) 중령의 지휘하에 14:00에 255고지를 출발하여 역시 이전 역습부대들이 진출한 바 있는 동일한 경로를 따라 우미동 개활지를 횡단, 충성교 부근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한 대대는 다시 16:50까지 삼자로 부근의 S자형 능선상에 병력을 전개하여 17:00에 일제히 공격개시선을 통과할 예정으로 잠시 대기하였다.

그 동안, 사단 수색중대도 14:00에 용담(龍潭: CT 394344)을 출발하여 266고지 북쪽의 홍계동으로 이동한 다음, 15:30까지 3개 분대 병력을 역곡천 남안에 배치한 가운데 장교 4명과 사병 118명의 병력이 현지에서 대기하였으며, 또한 255고지에서 사단의 예비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30연대 제3대대도, 14:10에 양촌을 출발하여 16:00까지 현지로 이동한 다음 언제라도 전투대열에 가담할 수 있는 태세로 대기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가 역습에 실패한 이후 줄곧 제압사격을 가하던 아군 포병은, 16:

40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전환하여 17:00까지 20분 동안에 걸친 집중포격으로 395 고지 일원을 초토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제53 전차중대도 2개 소대를 진출시켜 제2소대는 14:00에 284 고지 서쪽에서 제4소대와 교대한 후, 하진명동 일대의 적 접근로 일대를 제압하고, 제3소대는 명에 의거, 언제라도 제2소대와 교대할 수 있도록 하마산 부근에 대기하였다. 이 밖에도 미 제5공군 소속의 전폭기 편대가 12:40부터 공격개시 직전까지 10회에 걸쳐서 연 40대의 출격으로 사단을 근접지원하여, 적의 집결지와 포진지 및 효성동 계곡(CT 367467)에 출현한 적 전차를 강타하는 등 적으로 하여금 가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예정대로 17:0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제3대대는 약 1 km 전방에 바라보이는 395 고지를 목표로 드디어 공격을 개시하였다.

(1) 초반의 고전

공격대형은 제11중대를 우, 제10중대를 좌, 제9중대를 예비로 한 통상적인 대형을 취하였으며 중화기중대인 제12중대는 제4중대와 함께 충성교 서쪽의 와지선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 곳 지형상의 특이성 때문에 우일선인 제11중대는 능선을 따라 북서향으로 진격하고, 좌일선인 제10중대는 계곡에서 교통호를 따라 395 고지 직남방으로 진출하였으며, 예비인 제9중대는 제10중대의 후미와 500 m 거리를 두고 후속할 예정으로 아직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선에 나선 양 중대가 축차적으로 구간전진해 나가자, 이와 때를 같이하여 4.2" 중박적

포중대와 제53전차중대 제2소대가 화력으로써 대대의 진출을 엄호하고, 후방의 포병들은 사정을 연신하여 적의 배후를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적측에서도 포격을 점차로 증강하더니, 공격 선단이 300 m 쯤 전진한 17:20경부터는 이를 대폭 증강하여 공격부대뿐만 아니라 백마산의 주저항선 일원을 초연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그 동안 적은 일일 평균 4,000~5,000 발의 포격을 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날의 포격은 그 배를 능가하였으며, 특히 제3대대의 공격이 개시된 이후에 가해진 이 포격은 가장 치열한 것이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항공근접지원과 포병의 제압사격을 긴급 요청하였던바, 17:35에 전폭기 1개 편대가 출격한 것을 비롯하여 17:45에는 F-84 1개 편대, 그리고 18:10에는 F-51 1개 편대 등 연 12대의 전폭기가 출격, 적의 포진지를 연속 강타하는 한편, 아군 포병들의 대포병사격이 또한 불을 뿜고 있었지만 속시원히 적의 포화를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대대는 공격을 강행하여 포연 탄우를 뚫고 구간전진을 계속한 끝에 19:20에 능선상의 제11중대가 먼저 목표 200 m 전방으로 다가서고, 그 뒤를 이어 제10중대가 직남방의 8부 능선까지 육박하여 집중공격을 가하였으나, 여기에서 다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공격은 돈좌되고 말았다. 결국 제3대대는 적의 집중포격과 진지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사상자만 속출할 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반면에, 인명 자체를 경시하는 적측에서는 이와 같은 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

로 병력을 증강시켜 극력 저지함으로써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2) 증강되는 적세

특히 중공 제38군은 제334연대를 투입하여 395 고지를 탈취한 후, 이제 결전을 감행하려는 듯, 전술한 바와 같은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는 동시에 다시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제3대대의 공격을 저지함은 물론, 제2^{연대}가 방어중인 백마산 일원을 전면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 무렵 연대에서는 좌인접 미 제2사단의 통보에 의하여 395 고지 북서쪽의 가단동(加丹洞) 골짜기에 2개 대대 규모의 적이 집결중이라는 적정을 입수하고 즉각 포격을 유도하여 이를 격멸하던 중, 20:00에 이르러 제2대대장으로부터 바로 가단동 남쪽의 장송동 개활지에 증강된 대대 규모의 적이 나타나 395 고지 서쪽 능선으로 쇄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거의 같은 시각에 하진명동 계곡에서 출현한 또 다른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동측방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보고가 제1대대로부터 들어오는가 하면, 이어 20:15에는 주저항선 우단의 제2중대 정면에서도 어느덧 진전으로 침투한 중대 규모의 적과 교전이 개시되었다는 속보가 답지하는 등 공방이 엇갈린 가운데 적의 공세가 시시각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1:10에는 하진명동 계곡에서 돌연 적 전차 3대가 출현하여 중마산 부근에 위치한 아군의 제53전차중대 제3소대와 대전차전을 벌이는가 하면, 지금까지 비교적 적정이 경미하였던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제28연대에 배속) 진지 정면에서도 중대 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도발해 옴으로써, 급기야

는 백마산을 위요한 전면적인 공방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3) 아군의 전력 증강

한편 사단에서는 제28연대 제3대대가 역습을 개시한 이후 적의 저항이 고조에 달한 데다, 20:00를 전후하여 오히려 적측에서 증강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반격의 징후를 보이자, 255고지에 대기중인 제30연대 제3대대를 제28연대에 배속하는 동시에,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제28연대 제1대대 진지 직후방에 제2선의 저지진지를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시달된 사단 작전지시 제67호는 다음과 같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67호

참조 : 지도대환 1:25,000 4285. 10. 8. 22:00

1. 사단은 부대작전권을 일부 변경하러 함.

2. 가. 제28연대

4285. 10. 8. 20:30부로 제30연대 제3대대를 별명 있을 시까지 통합지휘하라.

나. 제30연대

4285. 10. 8. 20:30부로 예하 제3대대를 사단 작전지휘로부터 해제와 동시에 제28연대장 작전지휘하에 배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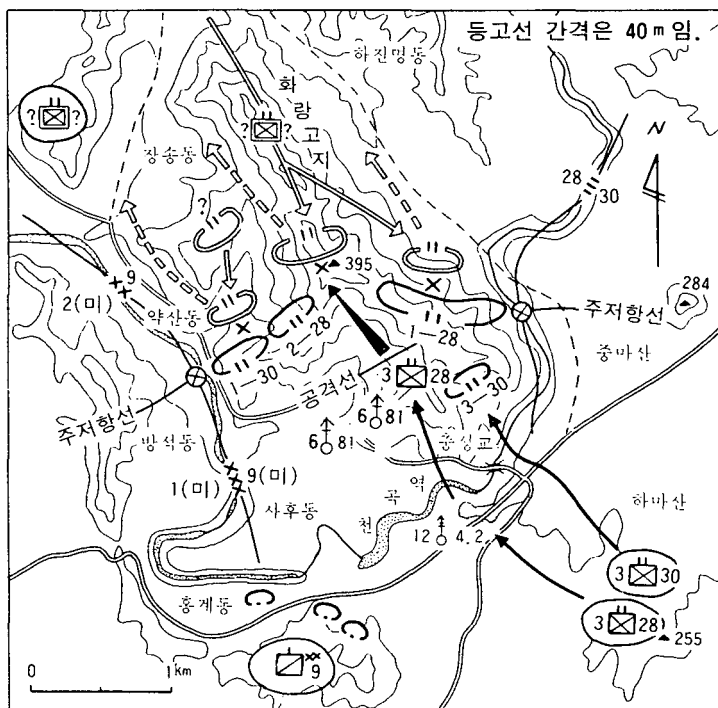
사 단 장 육군 소 장 김 종 오

122 제 4 장 제28연대의 공격과 방어

이 작전지시에 따라 20 : 30부로 제28연대에 배속된 제30연대 제3대대는 20 : 35에 255 고지를 출발한 후, 종래 다른 예비대의 진출 경로와는 달리 하마산 개활지를 직접 횡단, 역곡천을 건너 다음 22 : 00에 현지에 도착하여, 제28연대 제1대대 진지의 직후방에서 300 m 거리를 두고 저지진지를 급편하였다(요도 제11호 10월 8일 22 : 00 현재의 상황 참조).

그리고 사단장은, 1개 대대밖에 남아 있지 않던 예비대마저 투

요도 제11호 10월 8일 22 : 00 현재의 상황



입하고 나자 새로운 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 작전명령 제 86호로써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본장 제 4 절 참조),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지원사격을 가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좌우 인접사단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화력증원을 꾀하였다.

(4) 395 고지 재탈환

이로부터 휘황한 항공조명 아래 4 개 105 mm 야포대대(7일 이후 포병 제50대대 증강)와 2 개 155 mm 야포대대, 그리고 미 제49포병대대의 8"포는 물론 인접사단의 포병까지 가담하여 사격 지휘본부의 목표 제시에 따라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또한 2 개 전차중대와 1 개 중박격포중대, 그리고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까지 이에 합세하여 적의 밀집 지대와 접근로 일대를 강타하니 하늘도, 땅도, 능선도, 계곡도 모두 포화로 뒤덮였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이 화력인바, 미리 계획되고 협조된 이 포격은 노출된 적에게 발불일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제30포병대대의 경우, 7일과 8일 이틀 사이에 13,807발을 사격하였고, 미 제213포병대대는 같은 기간중에 12,999 발을, 제53 전차중대는 8일 하루 동안에 90 mm 전차포 1,790 발과 Car 50 중기관총 12,600 발을 소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포격하에 표적이 된 적의 전차는 30분도 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 1 대의 전차를 버린 채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제28연대 제1대대 정면으로 공격해 온 대대 규모의 적도 대대의

최후저지사격에 의하여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하고 그 일부만 22 : 00경, 하진명동 쪽으로 후퇴하는가 하면,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 정면의 적도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장송동 쪽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러나 중앙의 395 고지에 도사리고 있는 적은 그토록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굴화된 기설 진지를 이용하여 아직도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완강히 버티면서 제28연대 제3대대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그리하여 22 : 00부터 재공격을 감행한 제3대대는, 제2대대 제7중대의 측방지원을 받아 가며 1시간 동안에 걸친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던 중, 중앙의 제10중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무릅쓰고 과감한 돌격을 가한 끝에 23 : 05을 기하여 마침내 목표를 탈취하게 됨으로써, 사단은 두 번째로 395 고지를 빼앗긴 지 15시간 만에 이를 재탈환한 셈이었다.

이 공격에서 수훈을 세운 제10중대는 지난 예비대 기간중 중대장이 휴가차 떠나 부재중이었으므로 선임장교인 임필훈(林必勳) 소위가 중대를 지휘하여 공격하던 중, 적의 수류탄 공격에 의해 중상을 입게 되자, 이를 지켜본 이정훈(李正勳) 소위가 장병들의 분발을 촉구하여 일제히 돌격을 감행한 끝에 적을 제압했던 것이다.

이 전공으로 임 소위와 이 소위는 각각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고 제2소대장 김영장(金寧章) 소위도 은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다른 장병들도 공로에 상당하는 서훈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대의 손실도 연대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정훈 소위는 훗날 증언에서, “목표를 점령한

직후에 재편성을 완료하고 인원을 점검해 보니 8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술회하고 있었으며, 출동 당시의 병력이 장교 5명에 사병 158 명으로 합계 163 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 날 공격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 된다. 이 작전 전 기간을 통하여 제10중대의 총 손실 병력이 172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중 반수가 이 날의 공격에서 발생한 숫자라고 판단되니, 그 치열했던 양상과 장병들의 강렬한 투혼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떻든 목표를 탈취한 중대는 이제 이정훈 소위의 지휘하에 곧 재편성에 착수하여 395 고지를 중심으로 병력과 화기를 배치하고 사격구역을 지정하는 등 적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근접전투시에 제일 중요한 공용화기가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공격간에 사수와 부사수 및 탄약수 등이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게 됨에 따라 기관총 몸통과 삼각대 및 실탄을 휴대한 병사들이 서로 분산되어 버렸다. 그리고 60 mm 박격포의 경우에는 포탄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었고, 다만 포판과 포신 및 포다리를 동시에 운반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흩어지지 않는 잇점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둘째는 모래와 흙으로 뒤덮인 진애(塵埃) 속에서 장애가 많은 소화기에 비하여 자동소총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요지요부에 적절히 배치 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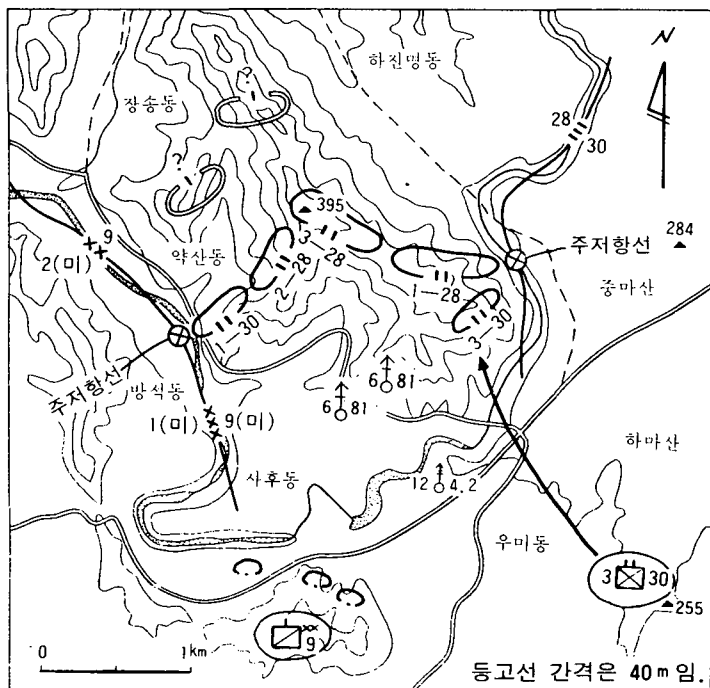
세째는 통신 문제로서, 포격으로 말미암아 유선은 물론이요 무선마저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 탈취 후 상황 보고가 지

연되고, 목표 점령 신호를 적시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포사격지원에 차질을 빚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네째는 탄약의 재보급 문제였다. 장시간 동안의 교전중 개인이 휴대한 실탄과 수류탄은 바닥이 나고 신속한 재보급이 뒤따르지 않아 매우 초조해했으며, 특히 병사들이 “기관총보다는 수류탄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제10중대에서 이상과 같은 제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며 재편

요도 제12호 10월 8일 24 : 00 현재의 상황



성을 실시하는 동안, 제11중대가 23:30에 그 우측으로 진출하고
이어서 예비이던 제9중대가 또한 좌측 능선으로 진출하여 방어
진지를 편성하게 됨으로써, 이제 제3대대가 다시 395고지를 중
심으로 한 백마산의 중심부를 맡아 진지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연대에서는 제3대대의 목표 탈취를 계기로 종래의 진지
를 모두 회복하여 요도 제12호와 같이 좌로부터 제30연대 제1대
대, 제28연대 제2대대, 제3대대, 제1대대(수색중대 배속) 순으
로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고, 일부 진지를 조정 배치하는 동시에
20:30부로 연대에 배속된 제30연대 제3대대는 500m 후방의 제
2선에 배치하여 방어중심을 강화하고, 지원부대들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예상되는 적의 역습에 대비한 제압사격을 가하였다.

4. 새로운 예비대

이상과 같이 제28연대가 395고지 탈환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사단에서는 다시 새로운 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후속 조
치를 강구하였다.

즉 이 날 12:00에 사단의 마지막 예비대인 제30연대 제3대대
마저 일선에 투입한 사단장은, 제28연대 및 제30연대의 전력정비
문제와 당장에 시급한 새로운 예비대의 확보 문제를 놓고 고심하
던 끝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제9사단은 제28연대와 제29연대 및 제30연대 등 이하의
3개 연대 이외에 제51연대가 작전상 배속되어 있었으나, 제51연
대는 경보병연대로서 중화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훈련 단계

에 있는 까닭에 기성 연대 수준의 전투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계속 숙달 훈련을 시키면서 1개 대대씩 전방 연대에 배속 운용하여 전기를 연마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제30연대와 제28연대가 차례로 백마산에서 격전을 거듭하게 되자 주저항선에 배치된 제29연대를 철수, 새로운 예비대로 확보할 계획 아래 이 경보병 연대를 주저항선에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사단 방어정면의 1/2에 해당하는 철원 평야의 동반부(東半部)를 제51연대에 맡기고, 숙달된 3개 연대를 모두 백마산 작전에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뒤따르는 문제이기는 하나, 제30연대와 제28연대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더구나 “열 명의 신병보다는 한 명의 고병이 더 긴요하다는 점과 예비대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비추어 더 주저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당시의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그 날의 어려웠던 실정을 회고하였다.

어떻든, 이와 같이 단안을 내린 사단장은 제28연대에서 395고지 탈환전을 전개하는 동안, 우일선 연대를 교대하여 제29연대를 새로운 예비대로 확보하라고 명령하였고, 이 명령은 사단 작전명령 제86호로 성문화되어 8월 20:00부로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명령 제86호

참조 : 지도대환 1 : 25,000

4285. 10. 8. 20:00

1. 상 황

가. 적정 : 정보부록 참조

나. 군단 및 좌측 미 제 2 사단은 계속 현 미조리 선을 확보중.

다. 미 제49포병대대와 제73전차대대는 계속 사단을 지원함.

2. 임 무

사단은 우제일선 연대를 제51연대로 하여금 전투임무를 교대
케 하고 제29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보유하려 함.

이동개시 일시 : 4285. 10. 8. 19 : 00

이동완료 일시 : 4285. 10. 9. 06 : 00

교대개시 일시 : 4285. 10. 9. 20 : 00(우제일선 대대)

교대완료 일시 : 4285. 10. 9. 23 : 00(우제일선 대대)

이동 집결 지점 : 별지 투명도 참조

이동 방법 : 도보이동

3. 실 시

가. 제28연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나. 제29연대

(1) 4285. 10. 8. 12 : 00부터 4285. 10. 9. 06 : 00간에 있어서
예하 예비대대(2개 대대)를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지시된 집
결지로 이동 집결하여 사단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2) 4285. 10. 9. 20 : 00부터 4285. 10. 9. 23 : 00간에 우제일
선 대대의 전투임무를 제51연대의 1개 대대와 교대시킨
후, 별지 투명도에 제시된 집결지로 이동 집결시켜 사단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라.

130 제 4 장 제28연대의 공격과 방어

- (3) 4285. 10. 9. 08 : 00부로 우제일선 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제51연대장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우측 대대(제2대대)는 교대완료시까지 제51연대에 배속하라.

다. 제30연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라. 제51연대

- (1) 4285. 10. 8. 19 : 00부터 4285. 10. 9. 06 : 00간에 있어서 예하 주력(2개 대대)을 별지 투명도에 제시된 집결지로 이동 집결하라.
- (2) 4285. 10. 9. 20 : 00부터 4285. 10. 9. 23 : 00간에 있어서 예하 1개 대대로 하여금 우제일선 연대 우측 대대(제29연대 제2대대)의 전투임무를 인수케 하라.
- (3) 4285. 10. 9. 08 : 00부로 제29연대장으로부터 우제일선 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우측 대대(제29연대 제2대대)를 교대완료시까지 통합지휘하라.
- (4) 우측 CT 480~417에서 미 제7사단과 긴밀히 접촉을 유지하라.

마. 제1포병단

- (1) 현 임무를 수행하라.
- (2) 4285. 10. 9. 08 : 00부로 미 제49포병대대는 제29연대 직접 지원으로부터 해제와 동시에 제51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바. 제53전차중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사. 공병대대

4285. 10. 9. 08 : 00부터 제5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아 협조지시

(1) 교대간 행동비닉에 철저를 기하라.

(2) 교대완료시까지 무전사용을 금한다.

4. 행정 및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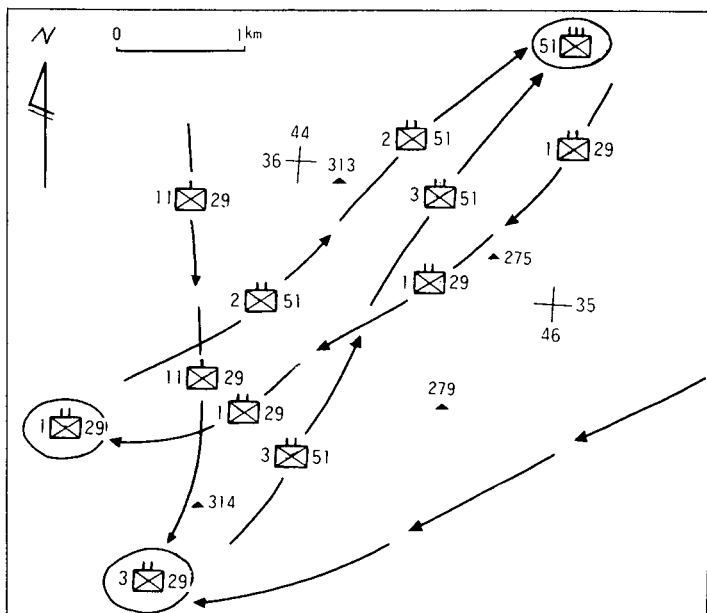
별도지시

5. 지휘 및 통신

별도지시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작전명령 제86호 별지 투명도



이 지시에 대한 사단의 준비명령은 문서명령 하달 시간보다 8시간 전인 12:00에 이미 구두로 하달되었으며, 교대부대인 제51연대는 벌써 19:00에 전방으로 이동 개시하였고, 피교대부대인 제29연대는 예비대대를 먼저 출발시킬 계획 아래 이동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집결 장소도 또한 백마산과 가까운 독서당리와 화전리 및 266 고지 일대로 지정하여 한시라도 빨리 제29연대의 주력을 철원 부근으로 철수,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장차 백마산으로 진출시킬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9연대는 제28연대 제3대대가 395 고지 탈환전을 전개하는 동안 철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던 중, 다시 전황이 급변하여 두 번째로 탈취했던 395 고지에서 재차 물러서게 되자 곧 그 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역습부대로서 출동하게 되는바, 이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 때 사단장의 이 같은 사전 조치는 시기 적절하고도 대담한 용단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제29연대 각 대대의 이동 시간과 집결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대대

○대대(-)는 8일 21:00에 300 고지(CT 461383)에서 제51연대 제3대대와 교대한 후 21:30에 현지를 출발하였다.

○9일 04:00, 독서당리(CT 405313)에 도착하여 군장 검사를 마친 다음 08:00에 다시 266 고지(CT 382373)로 이동, 09:30까지 집결 완료하고 역습 준비에 임하였다.

○단 제2중대는 10일 19:30에 제5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11일 23:00에 255 고지(CT 415374)로 집결 완료하여 대기하였다.

- 제 2 대대

-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던 제 2 대대는 10일 00 : 20에 제51연대 제 1 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01 : 00에 255 고지로 출발하였다.

- 10일 03 : 30에 255 고지(CT 425373)에 도착하여 의명, 대기중이었다.

- 제 3 대대

- 8일 23 : 50에 321 고지(CT 483395)를 출발하여 화전리(CT 438330)로 이동하였다.

- 9일 08 : 40에 화전리에서 다시 우미동(CT 393375)으로 이동하여 역습 준비에 임하였다.

- 수색 중대

- 9일 06 : 50에 도괴동(CT 443334)을 출발하여 08 : 00까지 독서당리(CT 400313)로 이동한 다음 현지에서 제 1 대대에 배속되었다.

한편 제29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제51연대는 지휘소를 도괴동으로 이동하고, 제 1 대대로 하여금 제29연대 제 2 대대의 진지를 인수토록 하여 우인접 미 제 7 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원대로 복귀한 제 2 대대(제29연대 배속으로부터)는 현 배치지역인 좌일선 진지를 그대로 맡아 현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한편, 판우리로 집결한 제 3 대대는 예비로 확보한 가운데 사단 방어정면의 동반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5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철원 부근으로 집결한 제29연대는 사단의 예비가 되어 각 대대 단위로 집결지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395 고지의 전황은 어느덧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즉, 제28연대(+)가 8일 23 : 05에 395 고지를 탈환한 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진지를 보강하며 방어태세를 취하던 중, 적측에서 또 다시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다섯 번이나 실패했던 395 고지 공격전을 재개함으로써, 백마산의 공방전은 단 몇 시간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은 채 피나는 격전이 반복되고 있었다.

5. 중공 제342연대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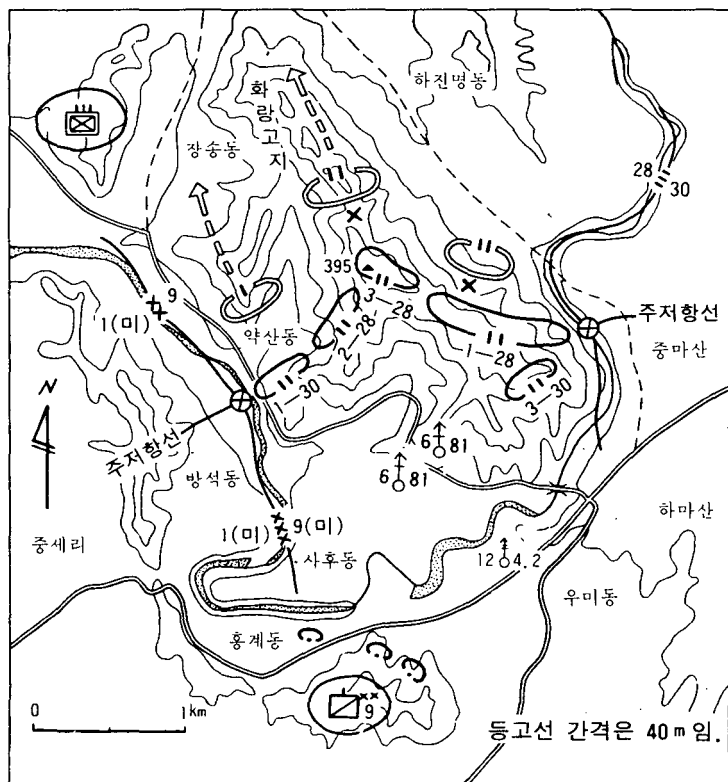
중공 제38군은 2개 연대의 병력을 투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적 손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395 고지에서 물러선 지 1시간 30분도 못 되는 9일 00 : 20에 다시 제342연대를 투입하여 집요하게 이 고지에 대한 공격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왔다.

당시 제30연대 군수주임이었던 김상근(金相根) 대위의 증언에 따르면, “중공군 제334연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물러선 직후에 연대 통신대에서 적의 무선 교신을 직접 청취하였는데, 오늘 밤 안으로 395 고지를 탈취하지 못하면 사단장을 총살하겠다는 엄명과 함께 제342연대를 즉각 투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술회한 다음, “그 이전까지는 적측에서도 암호를 사용하였으나 상황이 워낙 급한 탓인지 직접 구두로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이 떨어진 직후에 적의 대대적인 포격이 개시되는 것을 보고 재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술회하였다.

그리고 제 9 사단 전투상보에 의하면, 제 6차 공격을 감행한 적은 중공 제114사단 예하 제342연대로서 병력이 2,331 명에 불과한

점과, 바로 이 제114사단이 서전에 제340연대를 투입했다가 실패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사단장의 인책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그야 어찌되었든, 이제 선호태가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공 제342연대가 연대 정면에 새로이 나타나 독전의 채찍을 휘두르며 백마산으로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요도 제13호 10월 9일 02:00 현재의 상황



(1) 밀집방어의 득실

적측에서는 먼저 공격에 앞서 전과 다름없이 대대적인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아군이 395 고지를 탈환한 직후에 아군의 재편성이나 부대 증원을 방해하기 위해 포격을 계속해 오던 적은 23 : 20부터 이를 대폭 증강하여 공격개시 직전인 9일 00 : 20까지 1 시간 동안에 걸친 집중사격으로 백마산 일원을 다시 초연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이 포격은 395 고지를 비롯한 그 좌우의 주저항선 지대와 배후의 저지진지선 지대에 이르기까지 제28연대 병력배치지역 거의 전역을 1,100여 발에 달하는 동시집중사격으로 강타함에 따라 교전이 개시되기도 전에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무렵인 10월 8일 24 : 00 현재, 제28연대의 병력배치 상황을 보면, 주저항선에는 좌로부터 제30연대 제1대대(배속), 제28연대 제2대대, 제3대대, 제1대대 등 4개 대대가 일선에 배치되어 있고, 배속부대인 제30연대 제3대대는 그 직후방의 제2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때의 부대배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본다면, 통상적인 경우 1개 대대의 방어 정면에 불과한 2,500 m 내외의 전투정면과 1,000 m 이내의 종심을 가진 전투지대내에 5개 대대의 병력을 배치한 셈이 된다.

당시의 부대별 병력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① 10월 7일 17:00 현재의 병력현황(출동 직후)

구 분 대 별	장 교	사 병	계
제28연대 제 1 대대	32	692	724
제28연대 제 2 대대	31	713	744
제28연대 제 3 대대	30	712	742
제30연대 제 1 대대	30	718	748
제30연대 제 3 대대	32	715	747
계	155	3,550	3,705

* 자료: 제 9 사단 전투상보

② 10월 7일 17:00부터 9일 16:00까지의 손실병력 범례:장교/사병

구 분 대 별	제28연대	제30연대(-)	계
전 사	/11	5/15	5/26
부 상	17/364	11/172	28/536
실 종		1/118	1/118
계	17/375	17/305	34/680

* 자료: 제 9 사단 전투상보

③ 10월 9일 16:00 현재의 병력 판단

신분 구분 시차 구분	장 교	사 병	계
출 동 직 후	155	3,550	3,705
손 실 병 력	-34	-680	-714
손 실 후 병 력	121	2,870	2,991

이상의 산출 근거는 손실병력의 집계가 16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8일 24:00 현재의 전투병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며, 더구나 제28연대 수색중대가 누락된 점을 감안한다

면 적어도 3,000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병력의 대부분이 주저항선에 배치되어 있는 점과, 연대 자체의 예비대도 없이 1개 대대만을 제2선에 배치하여 방어 중심도 미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방어배치는 의문점을 남겨 두고 있다.

단순한 일직선 개념으로 헤아린다면(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1인당 구간 거리가 1m도 못 되는 협소한 지역에서 이렇듯 밀집방어 태세를 취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이 곳 지형상의 특수성 때문인지, 고지 쟁탈전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인지, 아니면 병력의 숫자는 있으나 대부분 전투력을 상실한 이유인지, 작전상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까닭은 분명치 않으나, 이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가중된 것만은 분명하며, 특히 전사자보다도 적의 포격에 의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적의 포격이 가장 심했던 395 고지의 경우를 보면, “제10중대가 목표를 탈취한 후 재편성 단계에서 적의 포격을 받아 사상자가 가중되고, 다시 일시의 소강 상태를 틈타서 진지를 재조정하던 중 두 번째로 대대적인 포격을 받게 되자, 병사들이 소대장과 선임하사가 위치한 대피호로 몰려들면서 또 한 차례 집중피해를 받았으며, 그 후 적 포격의 사정이 연신되는 틈을 타서 전투태세를 갖추려고 하였으나 수족이 마비된 것처럼 한동안 정신을 가다듬지 못했다.”라고 당시 중대를 지휘했던 이정훈 소위는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9일 00:20을 전후하여 적의 포사정이 연신되면서 중공 제342연대의 선공부대가 진전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2) 제일파의 격퇴

일반적으로 중공군이 포사정을 연신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그들 보병부대가 돌격선 가까이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인조로 편성된 수류탄 공격조를 앞세워 침투 작전을 전개하는 중공군은, 통상 그 선두부대가 돌격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포격을 계속하며, 이로 말미암아 자군의 피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와는 상관 없이 밀집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정의 연신과 거의 동시에 진전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상례이다. 이 같은 수법은 이번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395 고지 주봉에 배치된 제28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포격이 멈추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피호를 뛰어나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바로 직전방에서 중공군이 나타나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새까맣게 밀려들었다. 이 시각이 9일 00:20으로, 이 때부터 다시 공방전이 전개되어, 즉각적으로 최후저지사격 신호가 오르면서 대대의 전 화기가 동시에 불을 뿜을 뿐만 아니라 아군 포병들은 협조된 화력 계획에 따라 탄막사격을 실시하고 4.2"중박격포 중대와 대대의 81mm 박격포 중대도 모두가 최후저지사격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적은 어느덧 진전으로 육박하여 수류탄전이 벌어지고 아울러 측방 대대 지역에서도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00:40까지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 판명된 적의 공격 규모는 395 고지 전방에 대대 규모의 적이 공격해 온 것을 비롯하여 우측의 제28연대 제1대대 정면에 2개 중대 규모와 좌단의 제30연

대 제 1 대대 정면에 1 개 중대 규모 등 도합 2 개 대대 규모의 적이 삼면에서 파상공격을 감행해 오고 있었다.

그중에도 395 고지 정면의 적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가해 와 세 차례에 걸친 수류탄 투척전을 치르는 동안, 제11중대 제 2 소대장 김장하(金章河) 소위가 전사하고 제 9 중대 제 1 소대장 김선주(金善柱) 소위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일시 고전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 때 제28연대의 직접지원포병인 제30포병대대는 대대장 권오명(權五明) 대위의 지휘하에 18 문의 포를 모두 395 고지 북쪽 능선으로 지향케 하여 시한 신포에 의한 집중포격을 가해 적의 활동 지역을 살상지대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 때에 사격 지휘를 직접 통제한 전주식(全珠植) 중위는 적시의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훈을 세웠다.

이와 같이 포격과 사격 및 수류탄 투척으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자 점차로 기세가 꺾인 적은 교전 40분 동안에 다수의 사상자만을 남긴 채로 01:00를 전후하여 마침내 물러서고 말았다.

(3) 백마산의 위기

그러나 백마산의 공방전은 조금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점점 더 가열되기만 하였다. 중공 제342연대가 일격을 받고 물러선 뒤로, 적측에서는 다시 포격을 재개하여 전보다도 더 격렬한 사격으로 395 고지 일원을 강타함에 따라 1 시간 동안의 낙탄 수만 하여도 1,780여 발을 헤아렸으며, 이에 맞선 아군의 제압사격이 또한 그 배를 능가하게 되어 또 다시 전장은 초연에 뒤덮이

고 말았다.

396 고지가 1m를 내려앉아 395 고지가 되었다는 일화도 바로 이 같은 포격의 결과를 놓고 비유된 표현이지만, 실로 생물체가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이 집중포격은, 산허리를 무너뜨리고 초목을 쓸어 버려, 마땅히 이용할 만한 지형지물이 있을 리 없었으며 어렵게 복구해 놓은 교통호와 참호마저 형태도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빠지는 모래와 먼지 속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혈투를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이 포격이 뜸해진 것은 새벽 02:00이며, 적이 진전에 나타난 것은 바로 5분 후인 02:05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그들 특유의 수법을 또 다시 구사하여 이번에는 증강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밀어붙였다. 공격 목표는 역시 395 고지인 듯,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이를 공격해 오다가, 중국에는 양측방의 제28연대 제1대대 지역과 제30연대 제1대대 지역 정면에도 각각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연속적인 파상공격을 가해 오면서 측방 위협을 가중시켰다.

이 때 395 고지에 위치한 제28연대 제3대대는 되풀이되는 격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역량을 기울여 맹렬한 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수류탄은 아예 상자째 가져다 놓고 어깨가 저리도록 던지면서 극력 저지하였으나, 무찔러도 또 무찔러도 연속 밀려드는 적의 수적인 위력에 압도되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대는 예비대로 대기하는 기간에 3개 소총중대장이 모두 휴가차 떠나서 부재중이었으므로, 선임장교들이 중대를 지휘하게 되어 한층 더 많은 고충을 겪는 데다, 그 동안 과반수의 병

력을 상실하여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보니, 더 큰 위국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제 3 대대는 전과 다름없이 제30포병대대와 4.2" 중박격포중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지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교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새벽 03:00에 이르러 적 측에서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집중적으로 395 고지를 공격하게 되자, 끝내 제10중대의 진지가 돌파되면서 도처에서 육박전이 전개되다가 역부족으로 밀리게 되었으며, 뒤를 이어 우측의 제11중대와 좌측의 제 9 중대가 또한 그 압력에 밀려 철수하게 됨으로써 전장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무렵, 양측방의 제28연대 제 1 대대와 제30연대 제 1 대대는 현 진지를 유지하면서 분전중에 있었고 지원부대들도 최대발사속도로 계속적인 사격을 가하였지만, 395 고지를 넘어선 적의 압력이 예상외로 강력하여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던 중 03:30에 이르러 다시 제28연대 제 2 대대마저 밀리게 되자 돌파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본 전투가 개시된 이래 최초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양측방의 2개 대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고수하도록 강조한 다음, 자신이 직접 현지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255 고지의 관측소를 떠나 충성교 남쪽의 구릉으로 나아갔다.

한편, 사단에서도 전황이 급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제 1 포병단으로 하여금 이미 계획된 화집점에 대한 진내사격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일반지원포병과 인접 사단의 화력지원포병으로

하여금 적진 배후에 대하여 제압사격을 가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예비대, 즉 제29연대의 투입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대나 사단의 각 참모부에서도 초비상 상태로 돌입하여, 작전항공장교 이영규(李靈揆) 중위는 간단없는 항공조명으로 전장을 밝히기 위해 전술항공통제반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가 하면, 군수참모는 노무대원(KSC)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탄약을 재보급하고 제29연대 각 대대의 집결지에 병력 이동 차량을 대기 시키는 한편 식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등 각기 임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속속 진행되었다. 특히 부사단장은 헌병 중대장을 대동하고 충성교 부근으로 나아가 병력 수습에 힘쓰며 연대나 사단의 참모 활동을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은 채 적의 압력은 시시각각으로 가중되어 제28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장병들이 무질서하게 역곡천까지 철수하는가 하면, 우측의 제1대대 진지에서는 돌출 능선상의 제3중대가 03:40에 육박전까지 벌이면서 한 차례 적을 물리친 데 이어 05:00에 적이 또 한 차례의 돌격을 감행해 옴으로써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혼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도 인접 대대의 철수로 인해 전면방어태세로 진지를 축소한 가운데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제28연대 제3대대장 최창룡 중령은 분산 병력을 수습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나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계속 역곡천 북안에 머무르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윤영모 소령도 충성교 서쪽 개활지(CT 385385)에서 병력을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아군 포병들의 지속적인 진내사격과 제압 사격은 맹위를 떨쳐, 305 고지를 비롯한 그 남쪽 계곡과 그 북쪽 적의 접근로 일대를 강타함에 따라 적의 시체가 계곡을 메우고 부상자가 도처에 산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증원 수단까지도 마비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저들이 훗날, “미군의 거대한 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다.” 고 자인한 점이나 제 9 사단의 전투상보에서 이 날 밤 33,127 발을 발사하였다는 기록이 말해 주듯이, 사단을 지원하는 7개 포병대대 124문의 각종 포와 인접 사단의 포병, 그리고 2개 전차중대의 90 mm 전차포는 물론 모든 편제상의 전 화기가 합세하여 집중사격을 가하는 그 위력은 가히 상상만 하여도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이 분명했다.

그 결과 적은 더 이상 전과를 확대하지 못하고 탄막지대를 헤매다가 06:00를 전후하여 공격을 중지한 듯, 점차로 접촉이 끊어



〈일제사격을 가하는 아군 포병들〉

지면서 산발적인 총격으로 맞설 따름이었다.

결국 중공 제342연대는 최초로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 395 고지 남쪽 700 m 지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포격과 사격에 저지되어 역곡천 북안의 돌출 능선, 즉 아군의 저지진지는 끝내 돌파하지 못한 채 돈좌되고 말았던 것이다.

(4) 저지진지의 급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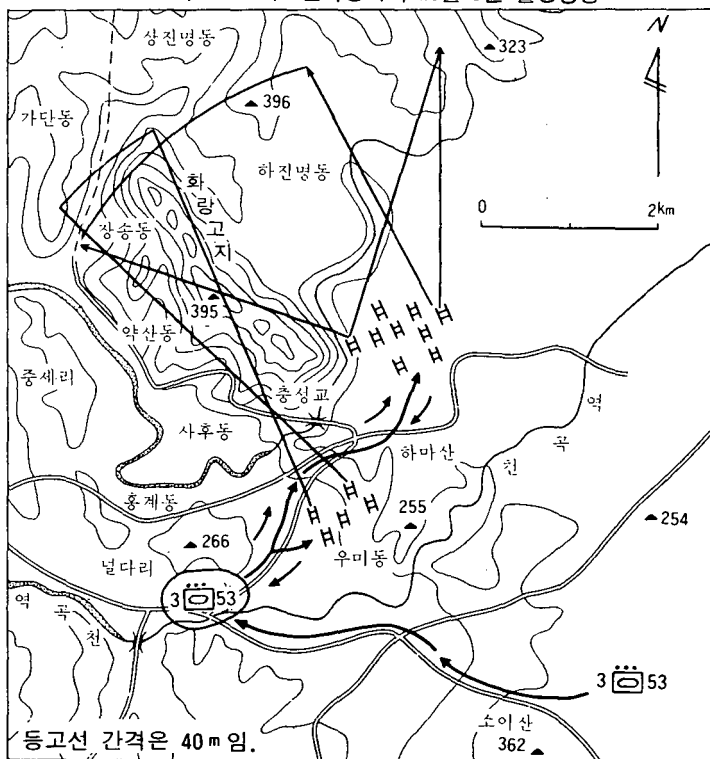
이 때 연대에서는 주저항선이 와해됨에 따라 우선 저지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배속중인 제30연대 제3대대가 역곡천 북안의 돌출 능선상에 편성한 저지진지(CT 389 393~CT 394394)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최초부터 대대는 능선으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동측방으로 치우친 방어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우선 동 대대로 하여금 능선을 장악하여 적이 능선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일부 수습된 제1대대의 병력을 충성교 북쪽의 S자형 능선으로 추진 배치하여 동 대대와 방어선을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는 현 위치에서 전면 방어태세를 취하여 적의 좌측방 침투를 저지하도록 조치하고, 계곡을 포함한 중앙 지대는 화력으로써 제압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 계곡 일대는 언제라도 진내사격이 개시되면 제30포병대대와 미 제213포병대대가 이를 담당하도록 화력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장의 긴급 요청 이후 이 시간 현재까지 간단없는 포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제28연대(+)는 배속중인 제30연대 제1대대와 제

3 대대로써 저지진지를 확보토록 하고, 지원부대의 화력을 이용하여 적의 진출을 제압하면서 자대의 분산병력을 수습하고 있었으며, 이 단계에서 제53전차중대와 제 9 중박격포중대는 전과 다름없이 맹활동을 전개하여 이를 엄호하였다. 즉, 제53전차중대는 중대장 조칠성(趙七星) 대위의 지휘하에 06 : 00에 제 2 소대를 중마산 부근으로 다시 진출시켜 적의 동측방을 강타한 데 이어, 제 3 소대

요도 제14호 제53전차중대의 10월 9일 활동상황



를 바로 그 남쪽의 하마산 교차로 부근으로 진출시켜 서측방을 엄호케 하였으며, 제 9 중박격포중대는 중대장 문일수(文逸秀) 대위의 지휘하에 우미동 일대에 포진한 3개 소대의 포문을 동시에 열고 4.2" 중박격포 특유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제28연대의 작전을 밀접히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저지선에서 일단 적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제28연대는 지체 없이 상실한 진지를 회복하기 위한 역습을 준비하였다.

(5) 제28연대 재편성부대의 역습 실패

이 무렵 낙오자선에서 병력을 수습하던 부사단장 김동빈(金東斌) 대령은 06:20 현재 400여 명의 병력을 낙오자 수집소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 병력의 대부분은 제28연대 제 1 대대와 제 3 대대 병력으로서 혼전중에 밀려 정신 없이 역곡천을 건너온 병사들이었다.

부사단장은 역곡천 남안에 설정된 낙오자 수집선에서 요소마다 현병들을 배치하고 이들을 적절히 수습한 결과 거의 누락자가 없이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 때는 이미 제28연대장 이주일 대령 역시 충성교 남쪽의 우미동에서 병력의 수습과 아울러 역습 준비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이 병력을 곧바로 현병 소대장 최동규(崔東奎) 소위의 인솔하에 우미동으로 복귀시켰다.

연대는 기존 병력과 복귀된 병력을 합하여 역습을 위한 재편성을 완료하고 아침 07:00를 기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즉, 제 1 대대는 충성교 북쪽에서 제30연대 제 3 대대의 저지진

지를 초월하여 395 고지 남동쪽 능선을 따라 공격하고, 제 3 대대는 아군 포병들의 사정 연신과 더불어 395 고지 직남방의 제곡을 따라 진격하도록 하였으며, 뒤늦게 재편성을 완료한 제 2 대대는 제 3 대대의 뒤를 이어 395 고지 서쪽 능선으로 진출할 예정으로 충성교 서쪽 개활지에서 공격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는 제 1 대대를 우, 제 3 대대를 좌, 제 2 대대를 예비로 하여 지역내의 적을 구축하기로 하되, 모두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지역으로 진출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습은 공격 직후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적측에서는, 다시 1,670여 발이라는 대대적인 포격을 가해 오는가 하면, 자체적으로는, 연속된 전투에서 제 1 대대와 제 3 대대가 그 동안 너무 큰 타격을 받아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2시간이 지난 09:00까지도 겨우 300 m 정도 진출한 후에는 고지 중북에서 공격이 돈좌된 채로 좀처럼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09:30에 다시 제 2 대대를 투입하여 제 3 대대와 함께 395 고지를 탈취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지만 이 역시 그 7부 능선에서 고착된 채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실상 이 때의 중공군 제342연대는 아군의 포격과 사격에 의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대대 규모의 병력만을 395 고지 일대에 남긴 채로 화랑고지와 장송동 부근으로 물러선 상태이었는데, 이와 같이 3 개 대대가 연속 공격을 가하면서도 이를 격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사기가 저하된 부대의 전투력이란 새로운 계기가 없이는 소망하는 수준의 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무렵 사단에서, 제29연대가 진출중이라는 통보와 함께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현 진출선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10:00를 기하여 일제히 공격을 중지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연대장으로서 제29연대가 이미 출동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필코 목표를 탈취한 후 임무를 교대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우선 현 전지의 확보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사단에서도 전황이 여의치 못하자 제29연대로 하여금 우선 목표를 탈취케 한 후 상황에 따라 대처한 방침 아래 먼저 현 전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8연대는 공격중이던 제1대대와 제3대대를 10:00부로 철수시켜 제30연대 제3대대의 저지전지를 인수, 우일선에 새로운 전지를 편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지를 인계한 제30연대 제3대대는 동 연대 제1대대가 위치한 최단의 약산동 고지로 이동하여 좌일선의 방어전지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철수한 제2대대는 충성교 북쪽의 S자형 능선에서 새로 저지전지를 편성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28연대는 사단 작전지시 제65호에 의거하여 10월 7일 23:00부로 백마고지 작전을 인수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395고지 탈환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수훈이 있기도 하였으나, 적의 집요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395고지를 다시 내놓고 우군의 역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골육을 맛보게 되었다. 이 무렵 제29연대는 사단 작전명령 제87호에 의하여 역습명령을 받고 백마산으로 진출중에 있었으며, 이제 전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 5 장 제29연대의 출동

1. 사단 작전명령 제87호

제28연대(+)의 전황이 극도로 악화된 9일 새벽에, 사단에서는 제29연대를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화전리와 독서당리로 집결중인 동 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출동 대기시키도록 준비명령을 하달한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단 작전명령 제87호로 성문화하여 9일 07:00부로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명령 제87호

참조 : 지도대환 1:25,000 4285. 10.9. 07:00

1. 상 황

가. 적정 : 정보개요 참조

나. 군단 및 좌측 미 제2사단은 계속 현 미조리 선을 확보중임.

다. 지원부대 상황 : 변경 무

2. 임 무

가. 사단은 예비연대 주력으로써 395 교지에 침투한 적을 공격

섬멸하고 주저항선을 확보하려 함.

나. 공격목표 : 별지 투명도 참조

다. 공격방향 : 별지 투명도 참조

라. 행동개시 일시 : 4285. 10. 9. 07 : 30

마. 공격개시선 : 별지 투명도 참조

3. 실 시

가. 제28연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나. 제29연대

(1) 예하 주력(2개 대대)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A, B
를 공격하여 주저항선을 확보하라.

(2) 4285. 10. 9. 08 : 00부로 제28연대로부터 제53전차중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여 통합 지휘하라.

(3) 공격간 제28연대와 긴밀히 협조하라.

다. 제30연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라. 제51연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마. 제1포병단

별도 포병 부록에 의한다.

바. 제53전차중대

(1) 4285. 10. 9. 08 : 00부로 제28연대장 작전지휘로부터 해제
와 동시에 제29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아라.

(2) 주저항선 확보 후는 별명에 대기하라.

4. 행정 및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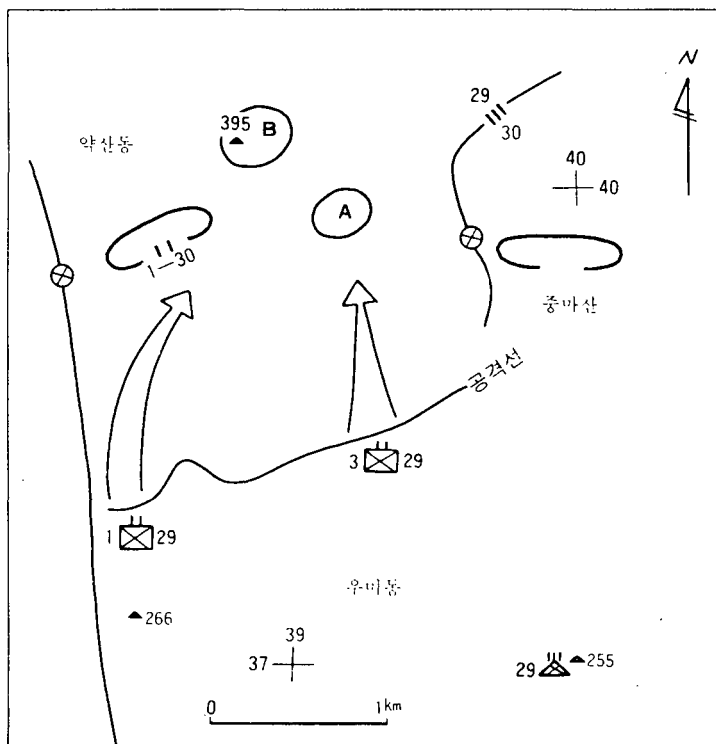
행정명령 18호 참조

5. 지휘 및 통신

별도 지시함

사단장 육군소장 김 종 오

작전명령 제87호 별지 투명도



이 작전명령에 의거하여, 제29연대가 목표 A(395 고지 남동쪽 500 m의 무명고지 : CT 388396)와 B(395 고지)를 공격하게 되고, 기타 부대는 현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제29연대로 하여금 9일 08 : 00부로 제53전차중대와 제 9 중박격포중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토록 하여 사실상 본 작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이 명령을 받은 제29연대장 김봉철(金鳳喆) 대령은 우선 병력을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철원 부근의 독서당리와 화전리에 출동 대기중인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를 백마산 남쪽의 266 고지(CT 382373)와 우미동(CT 393375)으로 각각 진출시키는 한편 연대 관측소를 255고지(CT 405373)로 추진 개설하고 당면한 적정을 파악한 결과 9일 09 : 00 현재의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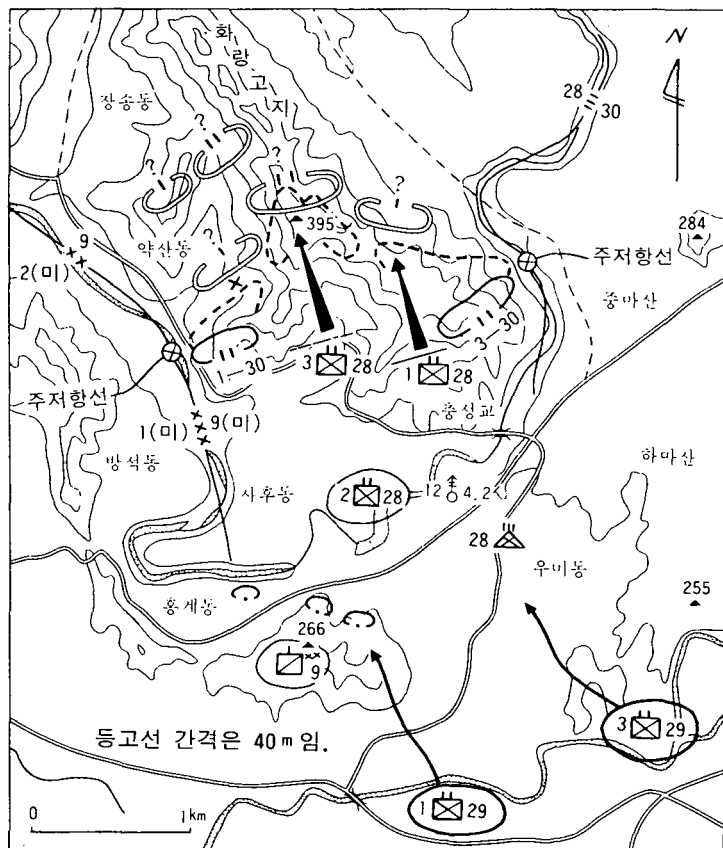
백마산 일대의 적은 중공 제342연대로서, 이들은 지난 새벽 03 : 00에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역곡천까지 전과를 확대하려 하다가, 아군의 포격과 사격에 의하여 저지당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시간 현재에는 목표 A와 B 일대에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 후방의 화랑고지와 장송고지에도 수 미상의 적이 제 2 선에 배치되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큰 타격을 받아 태반의 병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고지와 B 고지에서 제 28연대 역습부대와 지금 이 시간까지 치열한 수류탄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시간이 더욱 경과한다면 그들의 증원부대가 다시 투입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요도 제15호 10

154 제 5 장 제29연대의 출동

월 9일 09:00 현재의 상황 참조).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제29연대장은 먼저 제28연대장과 협의하여 연대의 기동로와 공격축선 및 공격간 상호 지원문제 등

요도 제15호 10월 9일 09:00 현재의 상황





〈명령을 하달하는 제28연대장 김봉철 대령〉

을 협조하는 동시에 그 동안 큰 공을 세운 바 있는 지원부대와 배속부대에 대하여도 종전과 다름없이 밀접한 지원을 기하도록 협조한 다음, 이동중인 제 1 대대와 제 3 대대에 대하여 사단에서 지시한 시간인 10 : 00 이전에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08 : 00에 독서당리를 출발한 제 1 대대는 09 : 30에 벌써 266 고지에 다다라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그 뒤를 이어 08 : 40에 화전리를 출발한 제 3 대대도 09 : 40에 우미동에 다다라 공격태세를 갖추으로써 차질 없이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참고로 출동 당일인 10월 9일 현재 제29연대의 병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제29연대의 병력 현황

10월 9일

구 분				장 교	사 병	계
대 별						
제 1 대	대	대		31	750	781
제 2 대	대	대		30	750	780
제 3 대	대	대		29	713	742
수 색 중 대	중	대		5	178	183
계				95	2,391	2,486

* 자료 : 제29연대 전투상보

이 병력 중 제 2 대대는 9일 24 : 00에 제51연대와 진지를 교대할 예정으로 아직도 중강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 대대는 진지교대 후 255 고지로 집결시켜 예비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며, 수색중대는 제 1 대대에 배속하여 공격대열에 가담하도록 조치한 가운데 제 1 대대와 제 3 대대가 먼저 공격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2. 제29연대(一)의 반격

백마산의 주저항선이 돌파된 지 7시간 만인 9일 10 : 00에 제29연대(一)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제 3 대대를 우, 제 1 대대를 좌로 하여 역곡천 북안(北岸)에서 공격개시선(LD)을 정시에 통과한 연대(一)는, 이 양 대대를 395 고지 좌·우측 능선으로 진출시켜 목표의 양측방에서 동시에 협공할 계획 아래 제28연대의 저지진지선으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에는 4 차례나 395 고지를 상실한 바 있었으나, 주저항선의 대부분을 아군이 장악한 가운데 백마산의 주봉만을 빼앗긴 까닭

에 공격개시선을 바로 그 남쪽의 돌출 능선으로 설정하여 역습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변하여 주저항선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그 양측방의 일부 진지만을 확보한 가운데 반격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이 저지진지를 초월하여 양측방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우일선인 제 3 대대는 충성교를 통과한 다음 제28연대 제 2 대대가 위치한 S자형 능선으로 진출하고, 좌일선인 제 1 대대는 홍계동 개활지를 횡단하여 제30연대 제 1 대대가 위치한 약산동 뒷산으로 전진하였다. 그리하여 양 대대가 아군의 저지진지선까지 진출하는 동안 적과 접촉은 없었으나 포격이 격심하여 축차로 전진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어, 제 3 대대는 12:00에 제28연대 제 2 대대 진지를 통과하고, 제 1 대대는 12:40에야 제30연대 제 1 대대 진지를 초월하여 비로소 공격대형으로 병력을 전개하였다.

그 동안 연대에 배속된 제53전차중대 제 2 소대는 중마산으로 진출하여 10:00부터 395 고지와 396 고지(CT 386423) 일대에 출현한 적의 화력을 제압하던 중, 396 고지 좌측 능선에서 사격을 가하는 적의 직사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하마산으로 진출한 제 3 소대는 A 고지 하단에 위치한 적 자동화기 진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직접지원포병인 제52포병대와 제 9 중박격포중대는 목표 A와 B에 대해 집중포격을 가하는 한편, 일반지원포병은 적측 화력의 배를 증가하는 위력으로 대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 제 5 공군에서도 공격개시 후 10~30분 간격으

로 연속 출격하여 사단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대한 적의 화력을 제압하던 중, 10:20에 출격한 AU 전폭기 1개 편대가 효성산 계곡(CT 365448)에서 집결중인 연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기총소사와 네이팜탄으로 집중공격을 가한 데 이어, 10:45에 출격한 또 다른 AU 1개 편대와 곧 그 뒤를 따른 FAU 1개 편대가 연속적으로 출격하여 맹렬한 공격을 가한 끝에 적의 태반을 무력화시키는 쾌거가 있었다.

전투 후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효성산 계곡에서 타격을 받은 적은 중공 제112사단 소속의 제335연대였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이 때 다시 새로운 부대의 투입을 시도하려다가 타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다.

(1) 목표 A의 탈환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제29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축차적으로 전진하던 중, 우일선인 제3대대가 14:05에 목표 A의 전방 300m 지점에 이르러 적의 사격을 받으면서부터 교전이 개시되었다.

이 때 제3대대는 능선상으로 전진함에 따라 기동 공간이 협소하여 제10중대를 선두로 축차 전진하던 중, 동 중대의 선두인 제1소대가 목표 A 남쪽의 무명고지를 넘어서다가 적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자, 이 때부터 높이가 거의 대등한 양쪽 고지에서 사격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로부터 양쪽 고지에서 서로 사격을 주고받으며 40여 분 간에 걸친 교전을 전개한 후, 14:50에 제10중대가 다시 무명고지를

넘어서려고 시도하였으나, 1개 중대 규모의 적이 완강히 저항하는 데다 특히 A고지 9부 능선에서 난사하는 적 자동화기의 화력을 제압하지 못하여 다시 돈좌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박찬강(朴燦剛) 중령은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특화점을 분쇄하도록 시도하는 한편, 제9중대와 제11중대를 좌·우측방의 경사진 능선으로 접근시켜 측방에서 엄호하도록 조치하고, 중앙의 제10중대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도록 독려했다.

그리하여 제10중대가 중대장 양정진(楊正鎭) 중위의 지휘하에 사선을 뚫고 다시 진출하는 동안 선두인 제1소대가 무명고지를 넘어선 직후, 적의 기관총사격에 의하여 소대장 이남석(李南錫) 소위를 비롯한 3명의 소대원이 일시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나, 선임하사관 왕봉석(王鳳碩) 이등상사(현 중사)가 대리로 소대를 지휘하여 포복 전진을 계속하고, 그 뒤를 이어 제3소대가 소대장 정석길(鄭錫吉) 소위의 지휘하에 능선 좌측의 교통호로 육박하는 등 일보 일보 전진하고 있을 때, 미 제5공군의 F-81 전폭기 2개 편대가 상공에 나타나 차례로 선회하면서 목표 A와 B에 대한 집중 사격을 가함으로써 전황이 크게 호전되었다.

15:30부터 40분까지 10여 분 동안에 걸쳐서 실시된 이 항공근접지원은, 적의 특화점을 파괴함은 물론 보병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압함으로써, 이에 힘입은 제10중대 장병들이 어느덧 목표 A의 100m 전방에 이르러 돌격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다시 2개 편대의 전폭기가 출격하여 백마산 북쪽의 하진명동 계곡(CT 398423)에 나타난 5대의 적 전차를 발견하고 집중공격을 가함에 따라 불기둥이 연속 하늘로 치솟

아 올랐다. 16 : 10부터 개시된 이 폭격은 8대의 전폭기가 교대로 선회하며 500 파운드 폭탄 12개와 250 파운드 폭탄 24개 등 36개의 폭탄을 연속 투하하여 적의 전차를 격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적진을 기총소사로 휩쓸자 현저하게 적의 사격이 움츠러 들었다.

이렇듯 적의 화력이 약화되고 있을 때, 제10중대는 돌격을 감행하여 16 : 25에 마침내 목표를 탈환하고 끝까지 저항하던 소대 규모의 잔적을 격멸한 다음, 곧 현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제10중대가 목표 A를 탈취하게 되자, 대대장은 지체 없이 제11중대를 제10중대 진지 우측으로 추진하여 양 중대로 하여금 긴밀한 협조하에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제9중대를 초월공격시켜 목표 B, 즉 395 고지를 공격중인 제1대대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제9중대가 서경선(徐慶善) 중위의 지휘하에 18 : 00에 395 고지 동측방으로 진출하여 제1대대와 함께 목표 B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3대대가 이 날 목표를 탈취한 후, 재편성을 위한 전장 정리중, 무참하게도 짐계 그을려 있는 적의 시체를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려 하다가, 쇠사슬로 묶인 채 기관총진지에 얹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비인도적인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것은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날 수훈을 세운 제10중대는 전투 후 이 작전에서의 공로가 높히 평가되어, 중대장 양정진 중위에게는 미 은성훈장이 수여

되고, 제 1 소대장 이남석 소위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2) 제 1 대대의 최초 공격상황

한편 제 1 대대는 제 30연대 제 1 대대 진지를 초월하여 395 고지 서쪽 능선을 따라 목표 B를 공격하였으나, 이 곳의 전황은 여의치 못하였다.

대대장 이대철(李大哲) 소령의 지휘하에 15:05에 목표의 7부 능선까지 진출한 대대는, 선두인 제 3 중대로 하여금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였으나 능선이 가파르고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현지에서 돈좌된 채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 뒤로 항공근접지원에 후속하여 또 한 차례의 돌격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 3 중대 제 2 소대장 우형진(禹亨鎭) 소위와 제 3 소대장 이춘성(李春成) 소위가 차례로 중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 후 제 3 대대 제 9 중대의 측방지원이 뒤따르자 다시 세 차례에 걸친 돌격을 거듭 감행하였으나 모두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사실상 395 고지에는 증강된 중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굴화된 진지에서 연속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항함에 따라, 가파른 능선을 오르려던 장병들은 번번이 실패하여 사상자만 가중될 뿐 좀처럼 이를 격파하지 못하였으며, 81 mm 박격포와 4.2" 중박격포의 집중사격에 의해서도 이를 제압할 수가 없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제 1 대대로 하여금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한 길을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제 52포병대대에 의한 집중포격을

가하는 동시에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여 395 고지의 동굴진지를 파괴하도록 하였던바, 18:20과 18:30에 각각 1개 편대씩 출격한 전폭기들이 또 한 차례 백마산 주봉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공격을 재개한 제 1 대대는 18:45에 제 1 중대를 진출시켜 공격케 함으로써, 다시 7부 능선으로 약진한 제 1 중대가 중대장 김석구(金錫具) 대위의 지휘하에 전후 4 차례에 걸친 돌격을 가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에서 또 다시 돈좌되고 말았다.

그러나 적측도 아군의 연속적인 타격에 의해 기세가 크게 꺾였으며 그 일부 병력만이 동굴진지에서 저항할 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점차로 위축되어 가고 있었다.

(3) 전투지경선 조정

이상과 같이 제29연대(一)의 공격이 진일보한 가운데 어느덧 일몰이 가까와지자, 사단에서는 일부 전투지경선을 재조정하고 배속 관계를 조정한 사단 작전지시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68호

참조: 지도매한 1:25,000 4285. 10. 9. 21:00

1. 가. 사단은 연대 전투지경선을 변경 확정하고 부대 배속을 변

경하려 함.

나. 전투지경선 및 부대배치 : 별지 투명도 참조

다. 전투지경선 변경 일시 : 4285. 10. 9. 20 : 00

2. 가. 제28연대

(1) 별지 투명도와 같이 획정된 전투지경선내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라.

(2) 4285. 10. 9. 20 : 00부로 제30연대 제 1 대대 및 제 3 대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3) 예하 제 2 대대는 4285. 10. 9. 20 : 00부로 행동개시하여 4285. 10. 9. 22 : 00까지 255 고지로 이동 집결하여 재편을 완료하고 별명을 대기하라.

나. 제29연대

(1) 별지 투명도와 같이 획정된 전투지경선내의 전투임무를 담당 수행하라.

(2) 4285. 10. 9. 20 : 00부로 제30연대 제 1 대대 및 제 3 대대를 별명 있을 시까지 통합 지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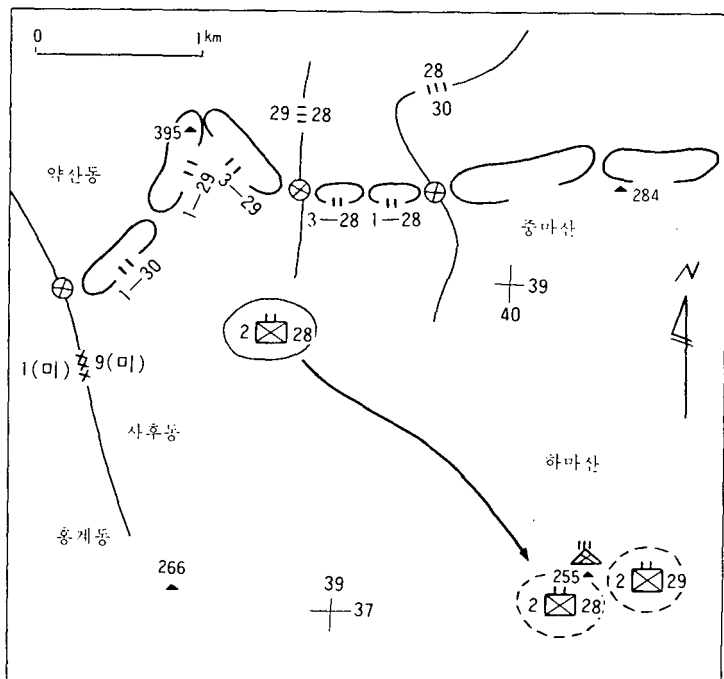
다. 제30연대

예하 제 1 대대 및 제 3 대대를 4285. 10. 9. 20 : 00부로 제 28연대 작전지휘로부터 해제하여 제29연대에 배속한다.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이 작전지시의 개요는, 백마산의 작전지역을 A 고지와 그 남쪽 무명 고지간의 요부(凹部 : CT 388395)를 기점으로 양분하여, 제29연대로 하여금 395 고지를 포함한 A 고지와 약산동 고지 등 주작

작전지시 제68호 별지 투명도



전지대를 담당토록 하되 제3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를 배속하여 단시간 내에 목표 B를 탈환하도록 하고, 우측의 동쪽 능선은 제28연대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뽑아 예비대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사단의 3개 연대 9개 대대 가운데 7개 대대가 이 협소한 지대내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그 임무를 명시하여 제29연대로 하여금 그 주임무를 담당, 395 고지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부대는 현 진지를 고수토록 하는 동시

에 남은 일부의 병력을 철수시켜 재편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 : 00부로 동쪽 진지를 인수한 제28연대(-)는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를 395 고지 남동쪽 능선에 배치하여 종래의 주저항선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 역곡천 동쪽의 제30연대 제 2 대대와 연결을 시도한 끝에 22 : 10에 협조점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좌단의 제30연대 제 1 대대도 진지를 재조정 한 다음 좌인접인 프랑스 대대와 연결하였으며, 그 동안 제28연대 제 2 대대는 21 : 00에 철수개시하여 21 : 50까지 255 고지로 집결,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제29연대 제 1 대대는 아직도 목표 B를 탈취하지 못하고 그 8부 능선에서 대치하다가 전선정비를 완료한 23 : 00를 기하여 다시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4) 목표 B의 탈환

이 때 제 1 대대는 이미 적진 가까이 육박하여 수류탄 투척거리 밖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돌격신호가 오르자, 제 1 중대 장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능선으로 치달아 수류탄 공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 395 고지(목표 B)의 지형은 북쪽에는 비교적 완만한 능선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양측방과 남쪽으로는 경사가 심하여, 언제나 아군측이 불리한 상황에서 공방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번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의 동굴진지 전방에서 수류탄 대결을 해 오다가 상황이 불리하여 다시 물러서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대대장 이대철 소령은 그의 굳센 성격 그대로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제 3 중대로 하여금 돌격을 감행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는 용감해야 한다. 비겁한 생각을 가지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과감히 돌격하라.

둘째는 교통호를 파 가며 일단 수류탄 투척거리내로 접근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라.

이 같은 명령을 받은 제 3 중대장 이효성(李曉星) 대위는, 정치영(鄭致永) 소위가 지휘하는 제 1 소대와, 소대장이 부상당한 후 선임장교인 이대환(李大煥) 소위가 지휘하는 제 2 소대를 좌우로 전개시켜 23 : 50까지 일단 8부 능선으로 진출하게 한 다음, 다시 교통호를 파헤치며 수류탄 투척거리 이내로 접근시켜 대체로 목표선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돌격신호를 울렸다.

이 때 양 소대의 장병들은 아예 소총은 어깨에 메고 양손에 안전핀을 뽑아 버린 수류탄을 거머쥔 채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정상으로 돌입하여 수류탄 세례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연속적으로 적의 동굴진지를 폭파하는 동시에 소대 규모의 적을 섬멸하고 목표 B를 탈취하니, 어느덧 시각은 자정을 지나 10월 00 : 30이 되었다.

이로써 제29연대(一)는 목표 A와 B를 모두 탈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395 고지를 상실한 지 실로 21시간 30분 만에 되찾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목표를 탈환한 제29연대(一)는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를 395 고지의 좌우측 능선과 그 북쪽 사면에 각각 배치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한편, 배속부대인 제30연대 제 1 대대가 점령중인 좌측 진지와 연결하여 전면적으로 진지를 재조정 강화하였다(요

제 1 대대의 손실병력이 장교 10 명에 사병 301 명으로 도합 311 명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날의 교전이 얼마나 치열했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5) 사단장의 결의

이상과 같이 제29연대(一)가 목표 A 와 B 를 탈환하는 동안, 사단사령부에서는 미 제 8 군 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이 부대를 방문하였다.

제29연대가 공격을 개시한 지 1시간 후인 9일 11:00에 미 제 9 군단장 젠킨스 소장과 함께 사단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장은, 백마산의 주저항선이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저이기 우려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사단장 김종오 소장에게 미 제 3 사단이 철원 남쪽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때 동석한 군단장도 사단의 3개 연대를 모두 투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신중히 고려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러자 사단장은 단호한 결의를 보이며, “사단 전 장병의 뼈를 백마산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사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지원만 잘해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밴 플리트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장을 열싸안으며 만족한 표정으로, “승리를 기대한다.”고 격려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군단장도 즉석에서 전차중대를 증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상 화력은 유감 없이 지원받고 있었으나 병력은 이 날 현재까지 장교 3명과 하사관 1명 등 4명밖에 보충되지 않아 병력

보충이 절실한 때인 데도 불구하고 31 세박에 되지 않은 젊은 사단장의 이 같은 의연한 결의표명은 상하간에 큰 감명을 주었으며, 이 소식은 곧 전 장병들에게 전파되어 부대의 전의와 사기를 크게 드높였다.

후에 참모총장의 자리에 오른 김종오 소장은 당시의 심정을 회고하며,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군의 위신과 제 9 사단의 명예를 위하여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이 같은 사단장의 결연한 의지는 각급 지휘관은 물론, 참모활동에도 반영되어 소정의 모든 지원이 신속히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각 부대의 구매관들이 서울까지 나와 특식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철원 읍내의 민간 음식점에서 특식을 운반해다가 255 교지의 재편성 부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마산의 공방전은 잠시도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었다.

3. 적 역습의 격퇴

제29연대(一)가 재편성을 완료한 10일 01:00 현재, 395 교지 북쪽에는 화랑교지 제 3 봉(CT 378405)과 장송교지(CT 374400)에 수 미상의 적이 있고, 그 남쪽의 무명교지(CT 379402)에 또 다른 일부의 적이 잠복한 가운데 산발적인 사격과 포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1연대와 진지를 교대한 제29연대 제 2 대대는 10일 01:00에 강산리(CT 473397)를 출발하여 255 교지로 급

거 이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한동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백마산 정상에 다시 적의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01:30을 전후하여 갑자기 증가된 적의 이 포격은 종전과 다름없이 395 고지로 집중되어 제29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를 파괴하였다.

약 30분 동안 계속된 이 포격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제1대대 정면의 청음초소에서 적 출현 신호가 올랐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화랑고지 제3봉의 적진에서 청색신호탄 7발이 오르며 피리를 불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날 따라 길은 안개가 계곡을 뒤덮고 있어, 항공조명이 상공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침투방향과 병력규모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다만 제1대대 제1중대 정면에서 교전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서쪽 능선으로 침투하는 듯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의 최후저지사격이 개시되고, 제52포병대대의 협조된 탄막사격이 동시에 불을 뿜고 있을 때, 다시 395 고지 동쪽 능선의 제3대대 제11중대 진지에서 잇달아 교전이 개시되었다.

이로부터 395 고지 전방의 적 예상접근로 일대에 아군의 격렬한 포격이 가해지고, 제29연대(一) 장병들은 사격으로 진전의 적을 격퇴하고 있던 중, 사각을 따라 침투한 적이 어느덧 진전으로 접근하여 03:30부터 수류탄전으로 화하였으며, 이 때부터는 시시각각으로 적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04:30에 이르러 395 고지 북쪽 능선에 위치한 제1대

대 제 3 중대 진지에서 백병전이 전개되고, 이어 대대 규모의 적이 집중적으로 과상공격을 가함에 따라, 마침내 제 3 중대 진지가 돌파되면서 제 3 중대는 배사면의 9부 능선으로 밀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29연대(一) 장병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정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제 2 중대와 제 3 중대가 다시 역습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 김봉철 대령은 03:30에 255 고지에 도착한 제 2 대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사단장의 승인을 받아 급거 출동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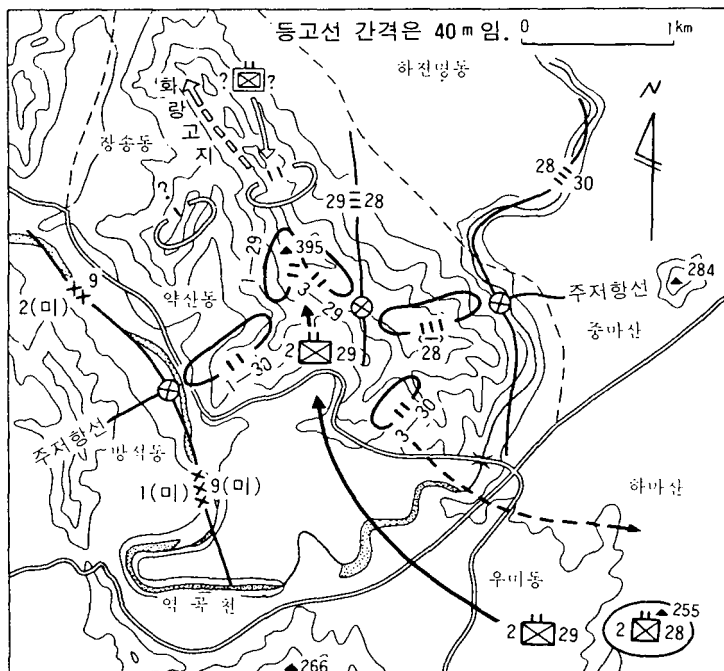
그리하여 잠시의 휴식조차도 허용되지 않은 채 곧바로 395 고지로 진출한 제 2 대대는 05:30에 제 1 대대 역습제대의 직후방에 다다라 대대장 김경진(金慶珍) 소령의 지휘하에 초월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제29연대는 제 1 대대와 제 3 대대가 엄호하는 가운데, 제 2 대대가 1시간 40분 동안의 공격을 가한 끝에 06:40에 다시 395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일곱 번째로 395 고지에 발을 들여놓았던 중공 제342연대는 또다시 사상자만 남긴 채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목표를 탈취한 제29연대는 3개 대대를 모두 395 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진지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요도 제17호 10월 10일 07:00 현재의 상황 참조).

이상과 같이 제29연대의 전황이 호전되자 사단장은 제29연대에 배속중인 제30연대 제 3 대대를 철수시켜 신속히 재편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지시는 곧 사단 작전지시 제69호로 성문화되어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

요도 제17호 10월 10일 07:00 현재의 상황



보병 제 9 사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69호

참조 : 지도대환 1 : 25,000 4285. 10. 10. 06 : 30

1. 사단은 부대배속을 일부 해제하려 한다.

2. 가. 제29연대

예하 작전지휘하에 있는 제30연대 제3대대를 4285. 10.

10. 06 : 30부로 해제하고 원대복귀시켜라.

나. 제30연대

(1) 제29연대장 작전지휘하에 배속된 예하 제3대대를 4285.

10. 10. 06 : 30부로 해제하고 원대지휘하에 복귀시킨다.

(2) 예하 제3대대를 4285. 10. 10. 09 : 00까지 CT 424~378
부근으로 이동, 재편 대기하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중 오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30연대 제3대대는 10일 06 : 40에 철수
개시하여 충성교를 통과, 외촌리(CT 424378)로 집결한 후 곧 부
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9일 밤에 열차편으로 올라온 보충병력이 이 날 아침에
사단에 도착하였다. 본 전투가 개시된 이후 최초로 장교 1명과
사병 889명 등 890명이 보충되자, 사단에서는 이 병력을 즉각 각
연대에 할당하여 손실병력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제3대대에도
새로운 병력이 전입되었다.

참고로 이 날 보충병력의 할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력 보충 현황

범 제 : 장교/사병

구 분 일 자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계
10월 10일	/438	1/96	/355	1/889

* 자료 : 제9사단 전투상보

4. 정상의 혈투와 특공대의 수훈

중공 제342연대는 그 동안 4 차례에 걸쳐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95 고지를 확보하려는 집념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상에서 물러선 지 2 시간도 채 못 되는 10일 08:00를 기하여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해 왔다. 서로 밀고 밀리는 혈투 속에 피아의 사상자가 산복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 어느 편에서든 한 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았다.

이번 공격에서도 통상적인 수법 그대로 395 고지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한 다음, 제29연대 제 2 대대와 제 3 대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북동쪽 능선으로 침투하여 곧 수류탄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 더구나 이 날은 지난 밤부터 산야를 뒤덮은 짙은 안개가 11:00까지 걷히지 않고 시계를 가림으로써 조기에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곧 수류탄전으로 연결되었으며, 여기에 항공근접지원과 전차의 지원마저 여의치 않고 보니 순식간에 백병전으로 변하여 혈투에 혈투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 무렵, 우군의 포인 듯한 155 mm 야포탄이 395 고지 북쪽 능선을 강타하다가 제 3 대대 진지까지 가격하게 되자, 일대 혼란이 야기되다가 급기야는 395 고지 남쪽의 9부 능선으로 밀리게 되었다.

이 오폭사고의 책임을 물어 미 제213포병대대장이 전투 후에 인책되었다고 할 정도이니, 이 와중에서 혈투를 벌여야 했던 제29연대 장병들의 참화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9부 능선으로 일단 후퇴한 제 7 중대와 제 9 중대 및 제

10중대 등 3개 중대는, 곧 병력을 수습하여 09:40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이후 50분 동안에 걸쳐서 세 차례의 역습을 감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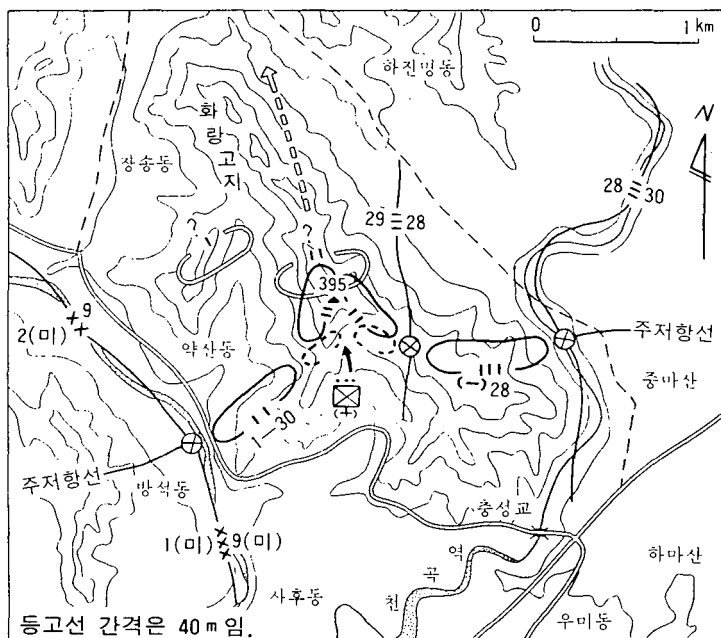
이로부터 300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일진일퇴를 되풀이하는 동안, 피로 물든 정상에는 돌격의 함성이 메아리쳤으나 끝내 이를 탈환하지 못하고 다시 물러서게 되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대장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각 중대에서 특공대를 선발하여 수류탄 돌격을 가하도록 하라는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 이 때 395고지 좌측 능선에는 제1대대와 제2대대 제5중대가 합세하여 현 진지를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중대, 즉 제6중대, 제7중대, 제9중대, 제10중대, 제11중대 등 5개 중대에서 각각 10명씩 자진 지원 형식으로 특공대를 선발하여 5개 분대로 구성된 특공소대(+)가 편성되고, 이 특공대가 12:00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적진으로 육박한 특공대원들은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하여 한동안 수류탄 세례를 가하다가, 제7중대 제3소대장 송용길(宋容吉) 소위의 신호하에 일제히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들고 육탄돌격을 감행하여 적의 기관총 진지를 여지없이 파괴한 다음, 13:20에 다시 395고지를 탈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29연대는 여덟 번째로 395고지 정상에 올라왔던 중공 제342연대의 대대 규모의 적을 완전히 격멸하고 본래의 진지를 회복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요도 제18호 10월 10일 13:20 현재의 상황 참조).

요도 제18호 10월 10일 13:20 현재의 상황



5. 사단의 계획

제29연대가 395 고지를 탈환한 직후, 그 북사면에는 증강된 중대 규모의 적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은 채 7부 능선에 바짝 붙어 산발적인 사격을 가해 가며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적의 포병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재편성을 방해하려는 듯, 395 고지 일대에 간단없는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다가 미 제 5 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이 활동을 개시한 14:00

를 전후하여 점차로 적의 포격이 줄어들면서 북사면의 잔적도 화랑고지 방향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오랜 장마 끝에 구름이 걷히듯, 이로부터 백마산 전선에 일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자 각급 제대마다 다음 작전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진지를 강화하고 보급을 추진하며 병력을 보충하는 등, 저마다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을 때, 사단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즉, 적이 화랑고지와 장송고지 등 본래 아군의 전초진지였던 백마산 북쪽 능선에 버티고 있는 한, 동일한 양상의 쟁탈전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완전히 격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기초 작업으로 우선 병력손실이 비교적 적은 제30연대를 집결시켜 병력과 장비를 더욱 보충한 다음, 장송고지와 화랑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단 작전지시 제70호와 제71호 및 제72호를 차례로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0호

참조 : 지도대환 1 : 25,000 4285. 10. 10. 11 : 00

1. 사단은 수색중대로 하여금 제30연대 제1대대와 임무교대를 시키려 함.

2. 가. 제29연대

- (1) 4285. 10. 10. 11 : 30부터 4285. 10. 10. 12 : 30간에 예하 작전지휘하에 있는 제30연대 제 1 대대를 사단 수색중대와 전투임무를 교대시켜라.
- (2) 4285. 10. 10. 10 : 30부터 사단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라.
- (3) 임무교대 완료와 동시 제30연대 제 1 대대는 제29연대장 작전지휘로부터 해제하여 원대복귀한다.

나. 제30연대

- (1) 제29연대장 작전지휘하에 있는 예하 제 1 대대는 4285. 10. 10. 12 : 30부로 배속해제하고 원대지휘하에 복귀한다.
- (2) 예하 제 1 대대는 제29연대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 255 고지로 이동 집결하여 재편을 완료하고 별명을 대기하라.

다. 사단 수색중대

4285. 10. 10. 10 : 30부터 별명 있을 시까지 제29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아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배포

이 작전지시는 제30연대 제 1 대대로 하여금 현 임무를 사단 수색중대에 인계하고 원대로 복귀하여 255 고지로 집결하라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곧 다음 작전을 위한 출동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잠시 제 1 대대가 지나온 상황을 돌이켜보면, 제30연대 제 1 대대는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될 당시 바로 이 작전지역을 담

당하였던 부대로서, 최초의 교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저항선을 떠나지 않고 3개 연대에 두루 예, 배속된 상태에서 좌측의 한 봉우리를 사수하고 있다가 이 날 비로소 전선에서 일시 물러나는 셈이었다.

이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제 1 대대는 10일 13:40에 사단 수색중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16:50에 255 고지 서쪽의 삼봉동으로 집결하여 다음 명령을 대기하며 부대를 정비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1호

참조: 지도대한 1:25,000 4285. 10. 10. 11:30

1. 가. 사단은 연대 전투지경선을 변경하는 동시에 주저항선 전투 임무를 교대시키려 함.

나. 전투지경선: 별지 투명도 참조

2. 가. 제28연대

(1) 4285. 10. 10. 18:30부터 4285. 10. 10. 20:30간에 예하 제 2 대대로 하여금 제30연대 제 2 대대의 주저항선 전투 임무를 인수케 하라.

(2) 별지 투명도와 같이 획정된 전투지경선 내의 전투 임무를 담당 수행하라.

나. 제30연대

(1) 4285. 10. 10. 18:30부터 4285. 10. 10. 20:30간에 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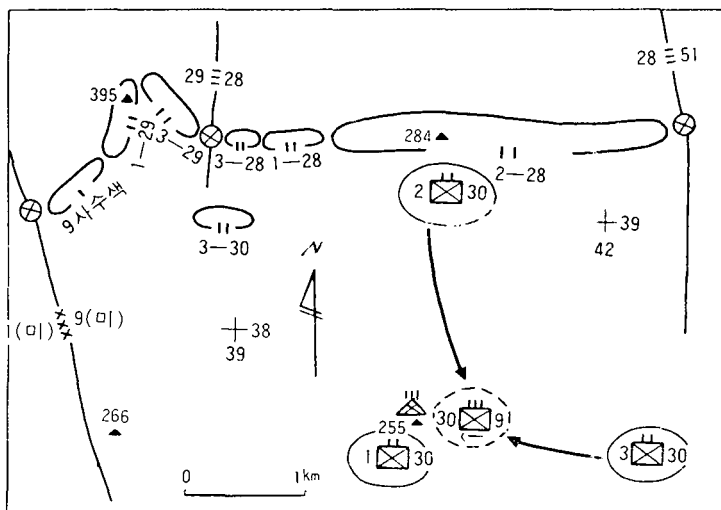
제 2 대대의 전투임무를 제28연대에 인계하고 4285. 10. 10.
21 : 30까지 255 고지에 집결하여 별명을 대기하라.

(2) 예하 제 3 대대를 4285. 10. 10. 19 : 00까지 255 고지에 집
결, 재편하여 대기하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배포

작전지시 제71호 별지 투명도



이 작전지시는 제30연대 제 2 대대로 하여금 현 주저항선 방어
임무를 제28연대 제 2 대대에 인계하고 255 고지로 집결하라는 내
용과, 이 미 이날 아침에 외촌리(CT 423378)로 철수하여 재편, 대
기중인 제 3 대대도 또한 255 고지로 다시 이동 집결하여 별도의
명령을 대기하라는 내용으로서, 동시에 2개 대대를 255 고지로 집

결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중에도 특히 제 2대대는 본 전투가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백마산 동쪽에 위치한 중마산—호를내 간의 주저항선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철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단 예하의 9개 대대 가운데 아직까지 공방전에 참전하지 않은 유일한 대대이자 이제 새로운 임무를 맡기 위하여 출동하는 대대이기도 하였다.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 3대대는 예정 시간에 집결 완료하였으나, 제 2대대는 진지교대 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후인 22:30에야 255 고지에 집결 완료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로써 제30연대는 3개 대대가 모두 한 곳에 집결하여, 이 날 16:00부로 하달된 사단 작전지시 제72호에 의거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작전을 위한 작전지시 제7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2호

참조 : 지도대환 1:25,000 4285. 10.10. 16:00

1. 가. 사단은 예비연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A, B를 공격 확보하여 395 고지 부근에 침입한 적을 완전 섬멸하려 함.

나. 공격개시 일시 : 4285. 10.11. 08:30

다. 공격목표 : 별지 투명도 참조

라. 공격방향 : 별지 투명도 참조

마. 보병 및 전차 집결지 : 별지 투명도 참조

2. 가. 제30연대

(1) 예하 1개 대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A, B를 공격 확보하고 지대내에 침투한 적을 완전 섬멸하라.

(2) 예하 1개 대대 병력을 별지 투명도와 같이 집결시켜 공격제대의 예비임무를 수행케 하라.

(3) 예하 1개 대대 병력을 별지 투명도에 지시된 위치에 집결시켜 395 고지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대기케 하라.

나. 제51연대

예하 1개 중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전차와 협동하여 전차의 사격임무를 엄호하라.

다. 제 1 포병단

별도 포병부록에 의한다.

라. 제73전차대대

(1) A 중대는 공격제대의 진출에 따라 사격방향을 우로 이동지향케 하라.

(2) 전차 부록에 의한다.

마. 공병대대

(1) 예하 일부 병력으로써 전차 진출 통로의 지뢰를 철거하고 전차를 유도하라.

(2) 대공포판 사용을 철저히 하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표 A는 395 고지 북서쪽의 장송고지(CT 374400)이며 목표 B는 화랑고지 제 3 봉(CT 378405)으로서, 이제 395 고지 북쪽에 위치한 원래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여 지대내의 적을 완전격멸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른 1개 대대를 공격부대의 후방인 사후동에 대기시키고, 또 다른 1개 대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395 고지의 역습부대로 대기시키도록 조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단장의 배려에 의하여 다시 미 제73전차대대의 A 중대와 B 중대가 증원되자, A 중대는 제30연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하고, B 중대는 철원 평야의 중앙에 위치하여 제51연대의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화력과 기동 및 충격력을 제공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동 A 중대가 제30연대의 공격전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30연대는 지금까지 전투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 2 대대를 주공으로 선정, 공격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제52포병대대 및 미 제73전차대대 A 중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11일 08:30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6. 중공 제335연대의 반격

이상과 같이 사단에서 새로운 공격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적측에서는 다시 395 고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중공 제38군은 그들 제342연대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자, 제112사단 예하의 제335연대를 다시 투입하여 기어이 395 고지를 빼앗으려 하였던 것이다.

1950년 10월에 청천강 부근에서 미 제 1 기갑사단을 공격하여 범천은단(范天恩團)이라는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제 335연대는, 창인동의 지휘하에 10일 오후 한때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은밀히 화랑고지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일몰이 가까워진 18:00를 기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1) 전황의 급변

그 동안 아군측에서도 전열의 정비와 아울러 새로운 공격 준비를 하는 사이에 포병들은 계속 요란사격을 실시하고, 미 제 5공군은 10회에 걸쳐 연 40대의 전폭기가 출격하여 적의 포진지와 집결지 등을 강타하였으며, 특히 이 전폭기들은 14:10에 가단동 제곡(CT 368418)에서 중대 규모의 적이 집결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15:30에는 화랑고지 제 3 봉에 출현한 소대 규모의 적을 기총소사와 네이팜탄 공격으로 제압하는 등, 적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채 이들은 어느덧 395 고지 북사면으로 침투하여 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공격에 앞서 의례적으로 30분 동안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이 포격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여 또다시 395 고지 일대가 초연으로 뒤덮이고, 제29연대 3개 대대의 진지가 거의 동시에 무너져 내려 정신을 가다듬기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18:00에 이르자 적의 포사정이 연신되면서 화랑고지 제 3 봉에서 녹색 신호탄 5발이 솟아오르고 피리 소리와 북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진 후, 15분이 지난 18:15에 다시 적진에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그 선두부대가 진전으로 밀려들어 395

고지 북사면에 위치한 제 2 대대 진지에서 교전이 개시되었다.

이 때 제 2 대대 장병들은 진지를 복구할 겨를도 없이 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이를 연속 격퇴하고, 포병들의 협조된 탄막사격이 연속적으로 가해지는 동시에 제 53 전차중대 제 2 소대와 제 3 소대가 중마산에서 근접지원하는 등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으나, 저들이 항상 구사하는 파상공격 수법으로 제 2 대대 진지를 집중 공격함에 따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격돌 속에서 제 7 중대 제 2 소대장 김학철(金學哲) 소위가 소대원의 전투를 독려하다가 현지에서 전사하고, 제 5 중대 제 1 소대장 윤공수(尹公洙) 소위가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사상자를 내며 혈투를 거듭하였으나 18:45에 이르러서는 제 7 중대 진지가 돌파되고 말았다.

이로부터 제 2 대대 각 중대의 병력은 서로 뒤섞이어 무질서하게 395 고지 남쪽 계곡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제 3 대대 진지에서 다시 교전이 전개되고, 19:30에 이르러서는 이 양 대대와의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면서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2) 연속되는 혈투

이상과 같이 전황이 급변하자 연대에서는 병력의 수습에 주력하며 당면한 상황을 파악한 결과 20:30 현재, 제 3 대대는 395 고지 남동쪽 500 m의 무명고지에서 저지진지를 급편중에 있고, 제 2 대대는 남쪽 계곡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으며, 제 1 대대는 서쪽의 사단 수색중대 진지로 내려와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황이 이렇듯 급전한 까닭은 적이 제 7 중대 진지를 돌파한 후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일시에 투입하여 좌우측 능선으로 전과를 확대하려 할 때, 제 1 대대와 제 3 대대가 이를 극력 저지하였으나 동일선상에서의 혼전으로 인해 피아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자, 상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되면서 병력통제의 방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로 하여금 일단 현 위치에서 저지진지를 급편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 52포병대대에 포격을 긴급 요청하여 395 고지 일대의 적을 제압하도록 협조하고, 이어 제 2 대대장에게는 신속히 병력을 수습하여 역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무렵 제 1 포병단장 박병주(朴秉柱) 중령은 제 52포병대대장 하영섭(河永燮) 소령으로부터 395 고지가 크게 돌파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화력의 증원을 요청받고, 휘하의 포병대대는 물론 화력지원포병인 미 제 213포병대대와 미 제 955포병대대에 지원을 요청하여 대대적인 사격을 가함으로써, 시한신판(VT신판)에 의하여 폭발하는 포연과 섬광이 또다시 395 고지 일원을 뒤덮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공 제 335연대는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무수한 사상자만을 남긴 채로 그 일부가 395 고지의 동굴을 파고들게 되었으며, 그 동안 제 29연대의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는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395 고지 양쪽 능선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2 대대는 예상외로 크게 분산되어 계곡 남쪽 하단에서 겨우 병력을 수습하게 된 것이 22:50이었으며, 이 병력마저도 뒤섞여 있어 제 6 중대와 제 7 중대를 기간으로 우선 재편성을 실시한 다음 23:00를 기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제 2 대대장 김경진(金慶珍) 소령은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한시라도 빨리 395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역습 중대의 진출을 독려하다가, 대대의 주력이 목표 전방 300 m 지점에 이른 23 : 20경 대대 관측소에서 적의 포격을 받아 통신병과 함께 현지에서 전사하고, 그 후 제 5 중대장 박돈채(朴敦燾) 중위도 병력을 수습하여 제 7 중대의 뒤를 따르던 중, 395 고지 좌측 능선에서 전사하는 등 불운이 겹쳤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제 6 중대와 제 7 중대는 계속 진출하여 23 : 30에 정상의 50 m 전방까지 육박, 대대 규모의 적과 일시 수류탄전을 전개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부득이 철수하여 제 1 대대와 합세하게 되었다.

그 후 적은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여 백마산 좌우측 능선의 하단으로 침투, 제29연대의 철수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연대는 양면에서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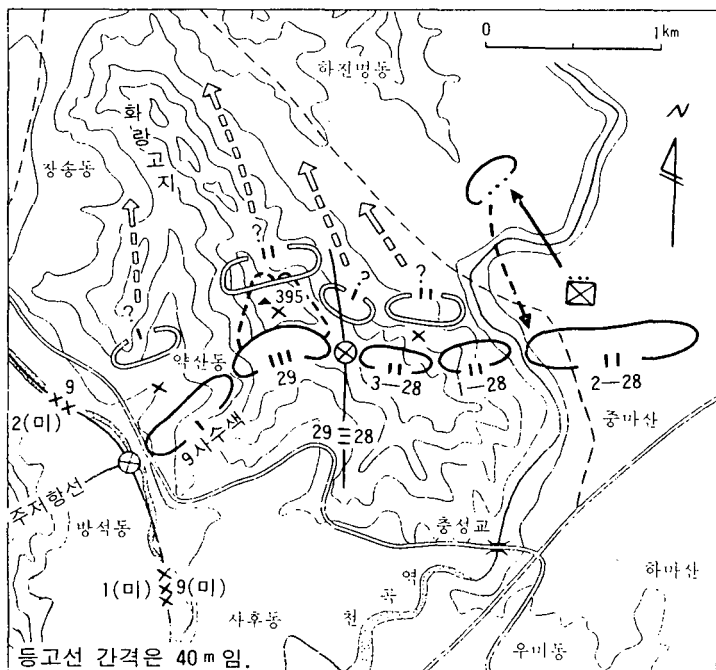
10일 24 : 00에 좌단의 사단 수색중대 정면에 출현한 수 미상의 적이 11일 01 : 00까지 1시간 동안에 걸쳐서 남서쪽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자 동 중대장 강장헌(姜章憲) 대위의 지휘하에 중대의 전 장병들이 화력으로 이를 저지하는 한편, 미 제213포병대대에 의한 탄막사격으로 이를 제압하였으며, 또한 미 제73전차대대 A 중대가 사후동에서 측방 통로를 봉쇄하고 보·전·포 협동으로 이 적을 격멸하였다.

그러나 우측 제28연대 제 9 중대 정면(CT 389397)에 출현한 대대 규모의 적은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침투를 시도함에 따라 11일 04 : 00까지 교전이 반복되던 중, 제53전차중대 제 4 소대가 야간

임에도 불구하고 중마산으로 진출하여 화력으로 적의 측방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04 : 30경에 이르러서야 이들은 하진명동 부근으로 후퇴하였다.

이로써 양측방의 적은 모두 격퇴되었으나 주봉인 395 고지에는 아직도 대대 규모의 적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아군 포병들은 이 시간 현재까지도 간단없는 포격으로 이를 고착시켜 놓고 있었다 (요도 제19호 10월 11일 07 : 00 현재의 상황 참조).

요도 제19호 10월 11일 07 : 00 현재의 상황



7. 계획의 수정과 새로운 공격

(1) 계획의 수정

10일 하루 동안의 전황이 이상과 같이 유동적인 데다 적의 침투 양상도 변모하게 되자 사단에서는 제30연대의 전초진지 공격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즉, 당초의 계획대로 제30연대의 1개 대대를 투입하여 장송고지와 화랑고지 제3봉에 대한 전초진지 공격작전을 계속 추진하되, 제29연대로 하여금 395고지 탈환전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화력의 우선권을 395고지 작전에 두고 먼저 주저항선을 회복하는데 주력한다. 그리고 이 양 연대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보·전 협동부대를 적진 깊숙히 투입, 그 배후에 대한 총격을 가하는 동시에 적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아군의 작전을 기만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방침을 세운 사단에서는 전날(10일) 16:00부로 하달한 바 있는 사단 작전지시 제72호에 대한 수정지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쪽)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2호 수정 제1호

참조 : 지도대환 1 : 25,000 4285. 10. 11. 04 : 00

1. 가. 사단 작전지시 제72호(4285. 10. 10. 16 : 00부) 중 하기와 같이 추가 지시한다.

나. 집결지 및 부대배치 : 별지 투명도 참조

다. 전차진출 지점(ROK 53) : 별지 투명도 참조

2. 가. 제28연대

(1) 예하 일부 병력[1개 중대(-)]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배치하여 08 : 00부터 396 고지 부근에 대하여 사격을 가하고 제29연대 및 제30연대의 공격을 기만하라.

(2) 양동부대는 책임 중대장을 지정하라.

(3) 예하 1개 대대 병력(제3대대)으로써 명령에 의하여 395 고지 우측방에서 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

나. 제30연대

공격 제대를 제외한 예하 2개 대대는 395 고지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동시에 공격제대 증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다. 제53전차중대

예하 2개 소대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배치하고 396 고지 에 대하여 사격을 가하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배포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28연대는 제5중대 1개 소대와 제7중대 2개 소대를 양공부대로 지정, 소정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제5

중대 제 3 소대는 소대장 이병문(李炳文) 소위의 지휘하에 04 : 30에 역곡천을 건너 395 고지 북동쪽 개활지로 진출한 후 하진명동 일대의 적진에 대한 요란공격을 실시하고, 제 7 중대(一)는 중대장 장병운(張炳雲) 중위의 지휘하에 05 : 00에 중마산 진지를 출발하여 제 53 전차중대 제 2 소대와 협동으로 적전방의 245 고지(CT 403413)까지 진출한 후 396 고지 일대의 적의 전초진지를 공격중인 전차 소대를 엄호하였다.

그 동안 제 30 연대는 04 : 30부터 3 개 대대를 차례로 사후동(CT 375538)까지 진출시켜 06 : 30까지 집결 완료한 다음, 제 2 대대는 예정대로 08 : 3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 목표 A 와 B 를 공격하도록 하고,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는 별명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 29 연대는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를 다시 투입하여 07 : 00부터 395 고지 탈환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사단은 비록 395 고지를 빼앗긴 상태에 있을지라도 일부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강력히 밀고 나갔던 것이다.

(2) 제 29 연대의 395 고지 재탈환

제 29 연대 제 2 대대와 제 3 대대가 공격을 개시한 07 : 00 현재, 395 고지에는 1 개 중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 주력은 아군의 간단없는 포격에 의하여 대부분 궤멸되거나 화랑고지로 후퇴하고 중대 규모의 병력이 고지 정상의 동굴진지에 버티고 있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좌측 능선의 제 1 대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계

속 확보하도록 조치한 가운데, 제 3 대대는 우측 능선에서 적의 동측방을 공격하고 제 2 대대는 남서쪽에서 공격토록 하여 일거에 이를 격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대대가 공격을 개시한 직후 또다시 적의 맹렬한 포격이 가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여 2~3m 를 전진하는 데에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각개병사들은 교통호를 따라 대피호를 파 가면서 약진과 대피의 연속으로 일보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 이 때 대피호를 파는 데 있어서는 굳이 야전삽이나 야전곡괭이가 아니더라도 철모와 맨손으로 손쉽게 파고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축차적인 진출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제 2 대대가 먼저 9부 능선에 다다라 정상의 50~80 m 의 거리로 육박하자, 이제 포격의 위협은 사라졌으나 방망이 수류탄이 계속 날아들어 다시 수류탄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 때 제 6 중대와 제 7 중대 장병들은 대대장을 잃은 분함도 있었지만, 전날의 진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며 계속 공격하는 사이에 어느덧 11 : 30에 이르자 적진에서 날아드는 일부의 물체가 수류탄이 아닌 돌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의 수류탄이 바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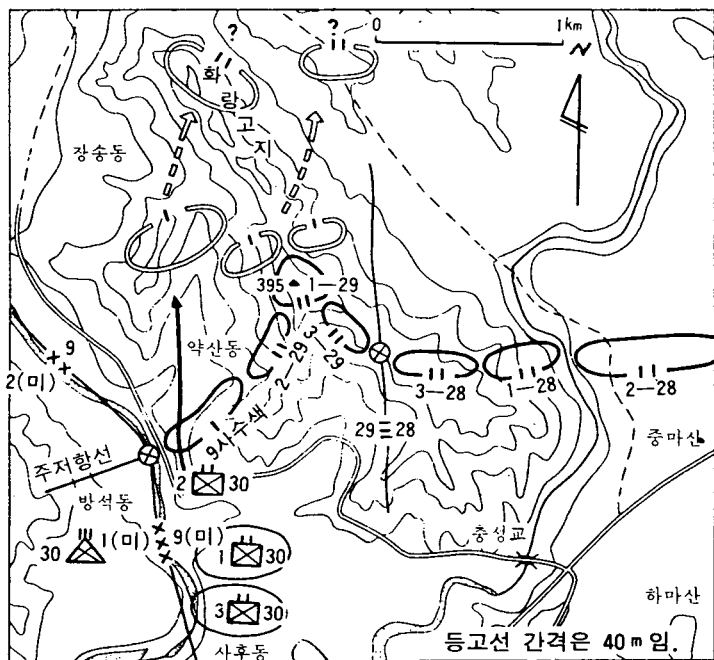
바로 이 무렵 제 6 중대 제 3 소대장 황정수(黃正秀) 소위가 적의 수류탄 파편에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동 중대장 원정봉(元貞鳳) 중위가 즉각 돌격신호를 울리고 함성을 드높여, “돌격 앞으로.”를 외치니 전 중대의 장병들이 일시에 정상으로 돌입하여 수류탄 투척에 이은 돌격사격으로 적을 격멸, 12 : 04을 기

하여 395 고지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제29연대는 아홉 번째로 395 고지를 점령하였던 적을 격퇴하게 되었으며, 예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중공군 제335연대도 아군의 포격과 공격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뒤로 연대는 곧 재편성에 착수하였으며, 그 동안 연전의 피로에 쌓인 제2대대를 제1대대와 교대, 제1대대로 하여금 395 고지 주봉을 맡도록 하는 동시에 제2대대는 좌측 능선의 기존진지에 배치하고, 제3대대는 종전대로 우측 능선을 담당토록 하여

요도 제20호 10월 11일 13:00 현재의 상황



진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요도 제20호 10월 11일 13:00 현재의 상황 참조).

(3) 제30연대의 공격과 철수

한편 제30연대는 이 날 06:30에 3개 대대를 사후동(CT 375389)으로 집결시킨 후, 사단 작전지시 제72호 수정 제1호에 의거하여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현지에 대기시키고, 제2대대는 예정대로 목표 A(장송고지)와 목표 B(화랑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대대장 김상옥(金祥玉) 소령의 지휘하에 제5중대를 우, 제6중대를 좌, 제7중대를 예비로 하여 08:30에 사단 수색중대 진지 선단을 연하여 설정된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후 곧바로 1km 전방의 장송고지(목표 A)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적은 예상 밖의 장소에서 허를 찔린 듯, 산발적인 소총사격만을 가할 뿐, 저항이 경미하므로 이렇다 할 교전이 없이 계속 진출하여 09:30에 장송고지의 남쪽 능선으로 접어들었다.

바로 이 때 적측에서 배후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교전이 전개되었다.

일단 교전이 개시되자 적은 포병화력을 총동원하여 집중포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삼면으로 둘러싸인 적진에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직사화기의 포격이 연속 가해지는 동시에, 특히 능선 하단부의 와지선 일대에는 적의 탄막이 구성된 듯, 조밀한 포격이 가해짐에 따라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대장은 신속히 탄막지대를 벗어나도록 독려하며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한 끝에 10:20에 그 7부 능선까지 접근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서 다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현지에서 돈좌된 채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이 고지는 최초로 아군의 전초진지였으나 전투가 개시된 첫날 적에게 빼앗긴 뒤로 적의 진지로 변하여 지금까지 공격의 발판으로 삼아 왔던 까닭에, 진지의 강도도 견고하려니와 확보하려는 집념 또한 강인하여 좀처럼 이를 격파하지 못하였다.

이 무렵 제30연대장 임익순 대령은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히 목표 A를 탈취한 다음 목표 B까지 밀어붙일 예정이었으나, 이렇듯 전황이 부진하자 제2대대장에게 현 위치를 계속 고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사후동에 대기중인 제3대대를 출동시켜, “제2대대를 초월, 목표 A를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11:40에 사후동을 출발한 제3대대는 조남국(趙南國) 소령의 지휘하에 12:4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후, 제9중대와 제10중대를 좌우로 전개하여 제2대대 진출선의 양측방으로 진출, 맹렬한 공격을 가한 끝에 15:45에 이윽고 목표 A의 탈취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의 역습이 곧 뒤따르게 되어 목표 B에 대한 공격으로 이행(移行)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다시 공방전을 전개하는 사이에 17:40, 연대에서 철수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철수명령은 사단장의 지시에 의하여 취해진 것으로서, 이 날의 전황이 돌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사단에서는 이 날 보·전 협동의 양동부대까지 동원하여 395고지 탈환전과 전초진지

탈취작전을 동시에 전개한 끝에 제29연대 제6중대가 395 고지를 탈환하고 이어 제30연대 제3대대가 목표 A를 탈취하게 되었으나, 16:00에 적이 다시 반격을 개시하여 395 고지가 또다시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주저항선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사단장은 제30연대의 전초진지 공격전을 중지하고 일단 부대를 철수시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계획 아래 제30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신속히 255 고지로 철수시키도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철수명령에 따라 전기 양 대대는 공격을 중지하고 적을 견제하면서 20:30에 255 고지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 시간 현재까지 사후동에 대기중인 제1대대는 395 고지의 전황에 따라 역습 부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계속 현지에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날 양동부대로 출동하였던 제28연대 3개 소대와 제53전차중대 제2소대도 임무를 마치고 17:10에 복귀하여 각각 본대와 합류함으로써, 이 시간 현재의 상황은 이 날 아침 07:00 현재의 상황으로 환원된 셈이 되고 말았다.

8. 중공 제335연대의 역습

제29연대 제6중대가 395 고지를 탈환한 12:04 현재, 그 전방에는 중대 규모의 적이 능선 하단에서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고 있었으나 역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제30연대 제2대대의 목표 A에 대한 공격이 가열되면서 이 적마저 화랑고지 방향으로 자취를 감추어 일시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 동안 연대에서는 제 1 대대와 제 2 대대를 교대시켜 395 고지 주봉에 제 1 대대를 배치하고 대대장을 잃어 버린 제 2 대대는 중화기중대장 구순섭(具淳燮) 대위의 지휘하에 그 서쪽 능선을 점령 방어케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1연대 지역의 391 고지(CT 476443)에서 철수한 제 2 중대를 395 고지로 진출시켜 본대에 합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제 1 대대는 제 2 중대가 복귀함에 따라 동 중대를 395 고지 북쪽 능선에 배치하여 동쪽 사면의 제 1 중대와 함께 적의 역습에 대비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선 정리를 마무리짓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적측에서는 395 고지를 상실한 데다 제30연대의 공격이 뒤따르자 방어 일변으로 치우치는 듯하더니, 15 : 30을 기하여 돌연 포격을 재개, 395 고지 일원을 또 한 차례 초연으로 뒤덮은 다음 16 : 00부터 진전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395 고지 전투의 양상이 시종 그러하듯이, 이들의 침투 방향과 침투 방법도 전과 동일하게, 예의 파상공격수법으로 395 고지 북쪽 능선의 제 2 중대 진지를 집중 공격함에 따라, 동 중대의 장병들은 중대장 문영운(文榮潤) 대위의 지휘하에 1시간 동안의 혈투를 벌이다가 17 : 00부터 진내의 백병전으로 화하여 사투 끝에 결국 물러서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측의 제 1 중대와 제11중대가 395 고지 남쪽 7부 능선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곳에서 돌파구의 확대를 극력 저지해야만 하였다.

이로부터 4.2" 중박격포중대의 진내사격이 개시되고 포병들의

적진 배후에 대한 제압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력을 수습한 제 1 대대는 20 : 00를 기하여 제 2 중대와 제 3 중대를 투입,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동료의 시체를 방패로, 인해전법을 쓰는 중공군과는 달리, 화력으로 일단 적을 제압한 다음 최소한의 희생으로 목표를 탈취하려는 아군의 전법은, 적에 비해 시간적으로 지연되며 여기에 지형상의 불리점까지 겹쳐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 1 대대가 세 차례에 걸친 돌격을 감행하는 동안 어느덧 자정을 지나 12일 01 : 50에 이르고 있었으나, 아직도 정상을 탈환하지 못한 채 9부 능선에서 수류탄 대결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 후 03 : 00경에는 적측에서 다시 우측 능선으로 침투를 시도해 오므로 최병찬(崔秉贊) 대위가 지휘하는 제 11 중대 장병들이 수류탄 세례를 가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 사단에서 08 : 00를 기하여 제 30 연대가 공격을 개시한다는 통보와 함께, 제 29 연대는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현 진지의 확보에 주력하라는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제 1 대대를 철수시키고 포격으로 395 고지 일대의 적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9. 사단의 동정

백마고지 전투의 전황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12일 새벽, 사단에서는 그간의 전투 경과를 분석한 끝에, 395 고지 쟁탈전이 동

일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데 대하여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화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기에 결전을 단행하여 백마산을 확보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전투를 종결짓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주저항선에 배치된 긴요한 병력을 제외한 모든 가용 병력을 255 고지로 집결시키는 동시에, 포병과 전차 및 항공부대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기하도록 협조하고, 또한 공격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간의 제 명령상에 표기된 목표를 모두 백지화하고 395 고지를 포함한 화랑고지와 장송고지 등 백마산 전반에 걸친 주요 고지를 목표 A, B, C, D로 구분, 이를 축차적으로 탈취하도록 하되, 공격부대에 공병중대를 배속하여 목표를 탈취할 때마다 장애물을 설치, 적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사단 작전명령 제88호로 하달하여 12일 08:00를 기해 결전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제 6 장 사단의 결전 편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우선 이 공격 직전까지의 사단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병력 보충

본 전투가 개시된 이후 최초로 10월 10일 아침에 장교 1명과 사병 889명이 보충된 내용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11일과 12일에 또다시 보충병력이 전입되어 다음 표와 같이 배정하였다.

이 보충병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본다면, 전력 발휘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우선 병력의 질적면에서 볼 때, 90%가 훈련소를 갓 수료한 신병이고, 10%가 고병이기는 하

병력 보충 현황

범례 : 장교/사병

부 대 일 자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계
10월 11일	3/98		11/200	14/298
10월 12일		/100	17/249	17/349
계	3/98	/100	28/449	31/647

* 자료 : 제 9 사단 전투상보

나 이 교병 가운데에도 훈련소의 교도대에서 차출된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는 이제 막 병원에서 퇴원한 병사들로서 당장 전투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리고 보충 방법과 시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공로로까지 수송해야 했던 일부의 장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력을 후방의 훈련소와 보충대에서 장거리 육로로 수송함에 따라, 전투가 개시된 4일 후인 10월 10일에야 그 선두가 현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현지에 방금 도착한 병력을 시간이 너무 급한 나머지, 바로 각 연대에 배정하여 교전 지역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행정조치가 곤란하여 대부분 실종자로 처리하게 되었고, 혼미를 거듭할수록 이 보충병력은 소대장이나 심지어 분대장도 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밀렸다 하면 신병들이 후방으로 물리기 일쑤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시에 소요로 할 경우에는, 개별 보충보다는 집단 보충을, 장거리보다는 근거리에서, 교병과 신병이 안배된 병력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행

정수속을 갖추어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제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2) 진지교대

사단에서는 395 고지 남동쪽 능선에 배치되어 있는 제28연대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를 철수시켜 재편성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차례의 진지교대를 실시하였다.

우선 백마산 동쪽의 주저항선에 위치한 제28연대 제 2 대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제51연대에 인계하고 255 고지로 집결하여 재편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사단 작전지시 제73호).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28연대 제 2 대대는 제51연대 제 3 대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12일 01 : 00까지 255 고지로 집결 완료하여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경보병연대인 제51연대가 백마산을 제외한 사단 주저항선의 전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 제73전차대대 B 중대가 작전상 배속되고, 제51포병대대가 직접 지원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 경장비연대가 전부일(全富一) 대령의 지휘하에 사단 주저항선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임무를 완수한 이 부대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본 전투의 치열성을 말해 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편성을 실시한 제 2 대대는, 다시 사단의 지시에 따라 12일 04 : 45에 255 고지를 출발, 395 고지 남동쪽 능선으로 진출하여 07 : 09까지 제 1 대대 및 제 3 대대의 진지를 인수, 임무를 교대하였다.

진지를 교대한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는 08:00까지 255 고지로 집결하여 재편성을 완료하고, 다음 명령을 대기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제30연대의 3개 대대와 제28연대의 2개 대대를 공격부대로 확보한 셈이 되었다.

(3) 국내외에 보도된 백마고지 전투

미 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대장이 사단을 방문하여 사단장과 주고받은 대담 내용과 제 9사단 장병들의 용전상을 그린 395고지 전투의 기사 내용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울려 퍼져 11일자 국내외 주요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그 일례를 들어 10월 11일(土)자 부산 일보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산혈하의 백마고지 전투(서울 9일발 AP합동)

한국군과 중공군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략고지 백마를 탈취하기 위하여 피비린내나는 전투를 전개하였다. 한국군 부대장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 진지를 고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 9사단은 9일 하루 동안에 3차례나 동 고지를 장악하였다. 한국군은 적의 침략요로를 장악하기 위하여, 지난 6일 이래 20회나 주인을 바꾸어 가면서 혈투를 벌였다.

미8군의 발표에 의하면, 백마고지를 점령하려는 중공군은 지난 6일 이래 8천 명 내지 1개 사단의 인명손실을 보았다고 하며, UN군 장교에 의하면 이 중공군은 “전선에 있는 최량부대”라고 한다.

한국군 제 9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우리 부대 장병들의 사기

는 지극히 왕성하나 피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 9 사단 장병들의 항전은 실로 용감하였으며 선혈로 물들인 육탄전을 감행하였다.

155 마일 각 전선의 전투는 산발적이었고 백마고지 옆의 화살머리고지에 있는 프랑스 군 진지에도 중공군은 포격을 가하여 왔으나 보병부대의 공격은 없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제히 보도된 후, 당시 판문점에 상주하던 내외신 기자들이 철원으로 운집하여 전황 속보를 계속 타전함에 따라 이제 395 고지는 백마고지로 이름이 바뀌고, 백마고지 전투는 단순한 작전 차원을 넘어서 한국군의 명예를 건 심리적 측면과 휴전 회담과도 연관된 정략적 의미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열화 같은 국민의 성원과 함께 연일 위문품이 답지하고, 지도층 인사들이 계속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하면서 이 전투는 꼭 이겨야 한다는 국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 이제 제29연대의 작전을 일단 마무리짓고 사단은 결전 단계로 접어들기에 이르렀다.

제 6 장 사단의 결전

1. 사단 작전명령 제88호

제 9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6 일 동안의 진전 없는 공방전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고심하던 끝에, 이제 더 이상 적의 책동에 맡겨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제30연대를 주공으로 선정, 12일 08 : 00를 기하여 공격을 단행키로 결정한 다음, 이를 사단 작전명령 제88호로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명령 제88호

참조 : 지도대한 1 : 50,000 4285. 10. 10. 02 : 30

1. 상 황

가. 적정 : 현 정기 정보보고 참조

나. 인접부대 상황 : 변동 무

다. 지원부대 상황 : 변동 무

2. 임 무

가. 사단은 제30연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395 고지

206 제 6 장 사단의 결전

의 전초진지를 공격 확보하려 함.

나. 공격개시 일시 : 4285. 10. 12. 08 : 00

다. 공격목표 : 별지 투명도 참조

라. 공격방향 : 별지 투명도 참조

3. 실 시

가. 제30연대

(1) 예하 주력으로써 4285. 10. 12. 08 : 00를 기하여 목표 A, B, C를 순차적으로 공격 확보하라.

(2) 목표 A, B, C를 확보 완료하면 계속하여 목표 D를 확보하라.

(3) 4285. 10. 12. 07 : 00부터 별명시까지 공병 1개 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나. 제 1 포병단

별지 포병부록에 의한다.

다. 공병대대

(1) 예하 1개 중대를 4285. 10. 12. 07 : 00부로 제30연대장 작전 지휘하에 두라.

(2) 배속된 공병은 공격제대가 각 목표를 점령 완료할 때마다 신속한 시간내에 진지구축 공사를 실시하라.

라. 제73전차대대

별지 전차부록에 의한다.

마. 협조지시

(1) 목표 A를 점령하면 좌측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

(2) 각 목표에 대한 공격을 A, B, C 순으로, 제 1 목표를 점령

- 확보하면 다음 목표로 이동 공격하되 각 목표를 각 대대별로 지정 배당하라.

(3) 각 목표를 점령하면 즉시로 호를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공격 점령하라.

(4) 각 연대는 담당지구내에 있어서 중심 깊이 강력한 전투정찰대를 파견하여 적을 소탕하라.

(5) 대공포탄의 사용을 철저히 하라.

4. 행정 및 군수

현재 공격명령이 유효함.

5. 지휘 및 통신

별도 지시

사단장 육군소장 김 종 오

이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목표 A, B, C, D는 본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까지 아군의 전초진지였던 주요 고지들로서 그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목표 A : 화랑고지 제 3 봉(CT 378405)

목표 B : 화랑고지 제 2 봉(CT 377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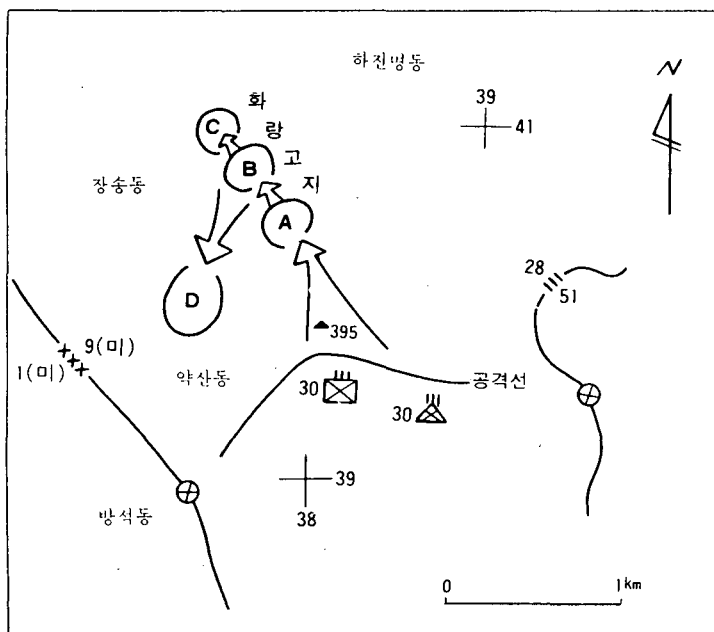
목표 C : 화랑고지 제 1 봉(CT 375410)

목표 D : 장송고지(CT 373400)

결국 이 작전명령은 제30연대로 하여금 공병 1개 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395 고지 북쪽의 전초진지를 모두 탈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이 하달된 12일 02:30 현재, 이 목표는 고사하고 목표 A 남쪽 700m의 거리에 위치한 395 고지마저도 적이 장

작전명령 제88호 별지 투명도



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니 우선 이 교지를 탈환한 다음, 사단에서 지시한 공격축선을 따라 축차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더구나 이 395 고지는 그 동안 사단의 3개 연대가 두루 격전을 치른 바 있는 백마산의 주봉으로서 이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전방진출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 고지를 탈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2. 제30연대 제 1 대대의 395 고지 탈환

이 때 395고지에는 증강된 중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30연대장 임익순(林益淳) 대령은 우선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제 1 대대를 먼저 출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주공대대의 선정 문제는 사단장의 의도에 따른 결정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연대의 3개 대대 중 제 1 대대의 병력상태가 제일 양호하다는 점도 있었지만, 최초에 이 고지를 담당했던 부대란 점이 더 크게 인식되어 결전단계에서 다시 본래의 진지를 되찾으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제 1 대대장 김영선(金永先) 소령이 출동하기에 앞서 사단장이 직접 대대집결지까지 방문하여 소주잔을 들어 장도를 빌고 격려하면서 잘해 보라고 당부하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 대화 속에서 이들은 이미 서로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대장도 공격명령을 하달하면서 각 중대장에게 자기 중대가 최초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진출하여 양측방에서 395 고지를 협공하도록 지시하고, 각개 병사에게는 본래의 자기 진지를 되찾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우일선이 된 제 3 중대는 395 고지 남동쪽 능선으로 진출하게 되고, 좌일선인 제 1 중대는 남서쪽 능선에서 그 정면으로 진격하게 되었으며, 중대장이 전사한 제 2 중대는 임익순 소위의 지휘하에 남서쪽 능선 하단부에서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게 되었다.

210 제 6 장 사단의 결전

이와 같이 공격준비를 완료한 제 1 대대는 05 : 30에 사후동 집결지를 출발하여 각 중대단위로 공격대기지점까지 이동한 다음, 08 : 00를 기하여 제 1 중대와 제 3 중대가 양측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제 30 연대의 직접지원포병인 제 52 포병대대는 20분 동안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제 53 전차중대 제 2 소대와 제 3 소대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중마산에서 엄호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우군 전폭기들은 벌써 07 : 30부터 적의 포진지와 탄약고 및 집결지 등에 대하여 연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 항공근접지원은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은 회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기록상에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월 12일 공군의 지원 사항

출격시간 : 07 : 30 ~ 18 : 35

출격회수 : 24 회

출격기종 및 대수 : F-51—12대, F9F 4대, F-80—12대, AU—40대, F-84—8대, AD—15대

공격장소 : 395 고지, 396 고지, 상진명동 계곡, 적 집결지 등

폭탄 종류 및 수량 : 1,000 파운드 51 개, 500 파운드 96 개, 250 파운드 97 개, 네이팜탄 51 개, 로켓탄 49 개

그리고 연대에서는 제 1 대대가 집결지를 떠난 직후에 다시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를 395 고지 남쪽으로 추진하여 별도 명령이 있

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제 2 대대는 07 : 10에 약산 동 부근(CT 374386)에 도착하고 제 3 대대는 07 : 50에 395 고지 남쪽 계곡 하단(CT 382392)에 이르러 언제라도 전투에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과 엄호, 그리고 대기 병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격을 개시한 제 1 대대는, 속속 진출하여 09 : 30에 어느덧 그 7 부 능선에 다다라 정상의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적측에서는 포격만을 가하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제 3 중대가 중대장 김정식(金鼎植) 대위의 지휘하에 395 고지 남동쪽 7부 능선으로 접근하여 그 직전방에 돌출한 무명고지를 넘어서려 하자, 소대 규모의 적이 기관총을 사격하고 방망이 수류탄을 일제히 던지며 저항하였다.

그로 인해 선두인 제 2 소대가 이 무명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소대장 이성덕(李成德) 소위가 전사하고 선임하사관까지 중상을 입는 등 악전을 되풀이하다가 끝내 이를 격파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었으며, 이어서 다시 제 3 소대가 공격하였으나 역시 소대장만 부상을 입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무렵 좌측 능선으로 진출한 제 1 중대도 중대장 구본원(具本源) 대위의 지휘하에 7부 능선으로 접근하여 사각지대로 파고들면서 정상돌입을 꾀하고 있었으나, 적의 수류탄 저항과 특히 9부 능선상에서 불을 뿜고 있는 기관총 화력을 제압하지 못하여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렇듯 양 중대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자 연대장은 10 : 00에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를 395 고지의 양측방으로 진출시켜 적의 철

퇴를 강요하는 동시에 화력으로 제 1 대대의 공격을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 2 대대는 좌측 능선으로, 제 3 대대는 우측 능선으로 각각 진출한 후, 10:50부터 양측방에서 엄호 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제 1 대대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능선이 가파르고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한정된 지역에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거기에 적의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여 제 1 중대와 제 3 중대의 각 소대들이 차례로 공격을 하는 사이에 또다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혈투가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13:00에 우측 능선의 제 3 중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돌격한 끝에 무명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바로 이 무렵 좌측 능선의 제 1 중대 제 3 소대는 육탄공격을 하고 있었다. 적의 기관총 화력을 제압하지 못하여 소대원이 연속 쓰러져 가는 광경을 목격한 제 3 소대장 강봉우(康鳳宇) 소위는, 오귀봉(吳貴鳳) 하사(현 계급 병장)와 안영권(安永權) 하사 등 2명의 소대원과 함께 수류탄을 뽑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기관총진지를 폭파하고 자신들도 현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로써 진로를 타개한 제 1 중대 장병들은 일제히 돌격을 가한 끝에 이윽고 13:20을 기하여 백마고지 정상을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상의 탈환을 마지막으로 적은 다시 395 고지 상봉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 날 수훈을 세운 세 사람은 후에 백마고지의 3 군신(三軍神)으로 추앙되어 청사에 길이 남을 호국의 별이 되었다.

이와 같이 목표를 탈취하자 대대장은 곧 제 2 중대를 진출시켜

제 1 중대와 교대, 395 고지 북쪽 능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제 3 중대는 그 우측의 지난날 중대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사단장은 이 공격 상황을 266 고지(CT 381371)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에 내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교전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백마산의 태극기”라는 표제로 제 9 사단 장병들의 용전상을 또다시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이 전투의 열기는 더욱 가열되었다.

3. 제30연대의 임무 전환

이상과 같이 395 고지를 탈환한 제30연대는 이제 목표 A를 공격하기 위하여 제 3 대대를 공격부대로 지정하고 공격준비사격을 요청하던 중, 사단장으로부터, “제30연대는 공격을 중지하고 제 29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현 주저항선을 방어하라.”는 구두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명령은 사단 작전지시 제74호로 14 : 00에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4호

214 제 6 장 사단의 결전

참조 : 지도 대한 1 : 25,000 4285. 10. 12. 14 : 00

1. 상 황

가. 적정 : 정보부록 참조

나. 군단 및 좌측방 미 제 2 사단은 계속 현 미조리선을 확보중임.

다. 지원부대 상황 : 변동 무

2. 임 무

가. 사단은 좌 제일선 연대를 제30연대로 하여금 전투임무를 교대하게 하고 제29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확보하려 함.

나. 이동개시 일시 : 4285. 10. 12. 15 : 00

다. 이동완료 일시 : 4285. 10. 12. 18 : 00

라. 교대개시 일시 : 4285. 10. 12. 15 : 00

마. 교대완료 일시 : 4285. 10. 12. 16 : 00

바. 이동 집결 지점 : CT 405~374(255 교지) 부근

사. 이동 방법 : 도보 이동

3. 실 시

가. 제28연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나. 제29연대

(1) 4285. 10. 12. 15 : 00부터 4285. 10. 12. 18 : 00간에 있어서 예하 주력을 CT 405~374(255 교지) 부근으로 이동 집결하여 재편성을 완료하고 별명에 대기하라.

(2) 4285. 10. 12. 16 : 00부로 좌 제일선 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제30연대장에게 인계하라.

(3) 사단 수색중대 작전지휘권을 4285. 10. 12. 16 : 00부로 제

30연대 장에게 인제 하라.

다. 제30연대

(1) 4285. 10. 12. 15 : 00부터 4285. 10. 12. 16 : 00간에 있어서 예하 주력으로 하여금 좌 제일선 연대(제29연대)의 전투 임무를 인수하라.

(2) 4285. 10. 12. 16 : 00부로 제29연대장으로부터 좌 제일선 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

(3) 제29연대장으로부터 사단 수색중대 작전지휘권을 4285. 10. 12. 16 : 00부로 인수, 통합 지휘하라.

라. 제 1 포병단

현 임무를 수행하라.

마. 공병대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바. 제53전차중대

현 임무를 수행하라.

사. 사단 수색중대

4285. 10. 12. 16 : 00부로 제29연대장의 작전지휘로부터 해제와 동시에 제30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아라.

4. 행정 및 군수

별도 지시

5. 지휘 및 통신

별도 지시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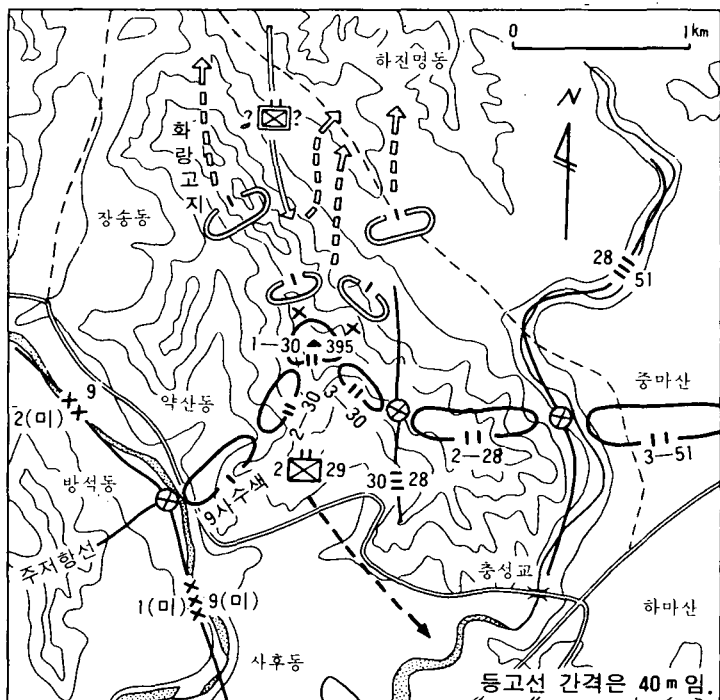
하달법 : 구달 후 인쇄 배포

216 제 6 장 사단의 결전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30연대는 공격을 중지하고 제29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방어태세로 전환, 16:00까지 진지편성을 완료하였다.

즉, 395 고지 주봉은 제1대대가 맡고 우측 능선은 제3대대, 좌측 능선은 제2대대가 맡아 각각 진지를 편성하는 동시에, 연대에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는 주저항선 좌단의 현 진지를 계속 확

요도 제21호 10월 12일 16:50 현재의 상황



보하도록 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임무를 인계한 제29연대는 17:30까지 255 고지로 집결 완료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다(요도 제21호 10월 12일 16:50 현재의 상황 참조).

(1) 진지 교대간의 전투

제30연대가 임무를 전환하여 진지를 교대하는 사이에 중공 제335연대의 역습이 뒤따랐다.

이들은 395 고지를 상실한 직후 화랑고지 제3봉(목표 A)에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엄호사격을 가하며 그들 분산병력을 수습하는 듯하더니, 이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14:40에 다시 역습을 시도하였다.

최초에 예의 공격준비사격이 있는 다음, 14:40에 화랑고지 제2봉(목표 B)에서 대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여 제3봉으로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이 때 제30연대 제2중대 관측소(395 고지)에서 이 적을 발견하고 즉각 포격을 요청하여 이를 제압하던 중, 이번에는 그 서쪽의 장송동 부근(CT 369412)에 2대의 적 전차가 출현하여 전차포를 쏘아대며 그들의 공격부대를 엄호하였다.

그리하여 피아간에 포격으로 응수하는 동안, 화랑고지 제3봉까지 내려왔던 적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반면에 적의 전차가 4대로 증가하여 연속사격을 가하였다. 아군 포병들이 일제사격(TOT)으로 이 전차의 화력을 제압하던 중, 15:40에 돌연 제3대대 진지 정면의 395 고지 북동쪽 능선 하단부(CT 385405)에서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또 출현하여 제9중대 진지 정면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제 3 대대는 공교롭게도 제 29 연대 제 3 대대와 진지를 교대하던 차였으므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양 대대는 즉각 진지교대를 중지하고 동시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의 침투를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제 29 연대 제 11 중대와 제 30 연대 제 9 중대는 진지교대중이었음에도 혼선을 빚지 않고 신속 긴밀한 협동으로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수훈을 세웠다.

그 결과 적은 1 시간 10 분 동안을 공격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16 : 50 을 전후하여 하진명동 방향으로 분산 후퇴하게 되었으며, 아군은 이 적에 대하여 또 한 차례 포격과 사격으로 궤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 무렵 적의 전차도 아군의 일제사격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고 산명리 계곡으로 철수함으로써 이 날 적의 주간공격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 동안 제 29 연대 제 3 대대는 진지교대가 지연되어 예정시간보다 1 시간 뒤인 17 : 00 에야 제 30 연대 제 3 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255 고지의 집결지로 향하였다.

(2) 야간방어의 성공

이상과 같이 이 날 주간공격에 실패한 중공 제 335 연대는 날이 어두워지자 또다시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야간공격은 12 일 19 : 30 부터 13 일 03 : 35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철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항한 제 30 연대 제 1 대대와 제 3 대대 장병들은 완강히 버티면서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고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한 끝에 이들 적을 막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상 지금까지 395 고지에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아군은 힘겹게 목표를 탈취한 다음에는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마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던 차에 제30연대가 결전에 즈음하여 적의 야간공격을 격퇴하였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장거가 아닐 수 없었다.

● 적 선공 제1파의 격퇴

맨 먼저 이들 적은 19 : 30에 395 고지 북동쪽 능선 하단부(CT 382405)로 증강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제3중대 진지를 돌파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3중대는 중대장 김정식(金鼎植) 대위의 지휘하에 연속적인 혈투를 벌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그 동안 4.2" 중박격포중대를 비롯한 81 mm 박격포중대와 60 mm 박격포소대가 밀접히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제52포병대대의 탄막사격이 동시에 실시되어 1 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특히 제3중대는 이 교전 당시 소대장이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선임 하사관들이 소대를 지휘하고 병력도 과반수가 신병으로 보충된 상태에 있었으나 적의 파상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던 것이다.

후에 고급장교가 되어 합참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정식 대위는 당시를 회고하며,

“395 고지를 방어하던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중대는 고참병이 50명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신병으로 보충된 상태에서 적의 파상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였으나, 방어진지를 편성하면서 고참병 1명당 신병 몇 명씩 책임제로조를 편성하여 배치한

것이 적중하여 방어에 성공하였다. 그 때 소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선임하사관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잘 싸워 주던 모습이나, 적의 포탄이 집중하자 신병들이 불과 10분도 못 되어 호를 파고 대피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술회하였다.

● 전투지경선상의 격돌

적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21 : 15이었다.

이번에는 395 고지 북동쪽 계곡(CT 386402)의 제 1 대대와 제 3 대대간 협조지점 전방으로 중대 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양 대대간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 계곡의 우측 능선은 제 9 중대 진지이고 좌측 능선은 제 3 중대 진지로서, 능선 하단부에서는 V자형으로 두 갈래를 이루고 있으나 고지 정상에서는 양 능선이 서로 잇대어 동일선상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이 계곡으로 접어들자, 양 중대가 거의 동시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이를 저지하는 한편 적 출현 장소를 보고하여 포격을 긴급요청하였다.

이처럼 포격과 사격으로 적을 격멸하던 중, 21 : 50에 다시 그 북동쪽 개활지 800 m지점(CT 393405)과 그 서쪽 소로 부근(CT 383414)에 각각 소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여 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양 중대에서 즉각 적 출현 사실을 보고하자 10 분도 못 되어 제 30 포병대대의 탄막사격이 개시되었다. 바로 이 지대는 제 30 포병대대의 협조된 탄막이 선정된 곳으로서, 사격요청을 받은 동 대대는 이미 계획된 대로 조밀하고도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어느 새 탄막지대를 통과하여 22 : 10에는 다시 진전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때 각각 중대 규모 병력으로 침투하고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이름없는 이 계곡에서 격돌하게 되어 양 중대 장병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지하던 중, 22:20에 제9중대 진지 일부가 돌파되면서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으나, 동 중대장 박길원(朴吉遠) 대위의 민활한 수습으로 진내에 뛰어들 적을 격멸하고 이어 연속적인 수류탄 투척으로 진전의 적을 격퇴한 끝에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적은 격심한 타격을 받고 23:00 하진명동 방향으로 후퇴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395고지 일대에 다시 적의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 심야의 혈투

야간 전투능력을 특기로 자랑한다는 중공군으로서도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이들은 또다시 대대적인 포격을 재개하여 끊임없이 395고지 일대를 강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30연대 장병들은 한때의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대피호를 파며 이를 극복하는 사이에 사상자가 누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저항선의 각 중대에 탄약과 식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탄통과 식판을 걸머지고 능선을 오르던 노무대원(KSC)과 인솔 병사들도 노출된 상태에서 기습적인 포격을 받아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적의 포격이 30분 동안을 계속되다가 잦아들기 시작한 23:30에, 다시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여 395고지 동쪽 능선의 제3대대 진지에서 교전이 개시되고, 이어 23:50에 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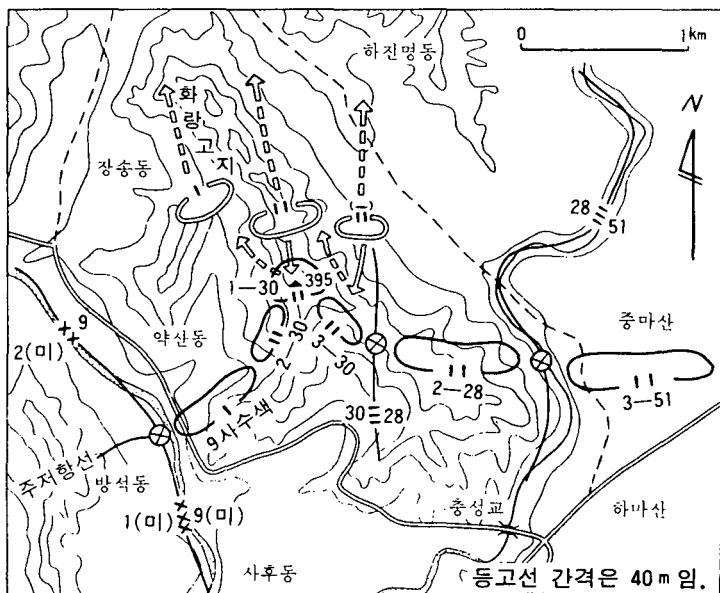
222 제 6 장 사단의 결전

른 1 개 대대 규모의 적이 395 고지 북쪽 능선의 제 1 대대 진전으
로 쇄도함으로써 심야의 격전이 전개되었다.

언제나 적측에서 대대적인 포격과 총격으로 심야의 돌격을 감
행하면 예외 없이 육박전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적은 탄막지대나 최후저지사격의 화망 속을 개의
치 않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연속적으로 침투해 오며 따라, 교
전개시와 동시에 양 대대 지역에서 격렬한 수류탄 투척전이 전개
되어 필사적인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자정을 지나 13일 00 : 30에 이르자 제 1

요도 제22호 10월 13일 01 : 30 현재의 상황



대대는 395 고지 100 m 북쪽(CT 380401)에서 형국을 가림할 수 없는 혈전을 벌이게 되었고, 반면에 제 3 대대는 제 9 중대 장병들의 분투와 박격포중대의 화력에 힘입어 점차로 적을 제압해 나가고 있었다.

그 뒤로 01 : 30이 되자 제 1 대대도 제 2 중대가 진전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대대의 화력을 총동원하여 진전의 적을 200 m 북쪽으로 격퇴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적측에서는 공격력을 상실한 듯,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면서 현지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후에 중공군이 그들 스스로 제 9 사단 장병들의 용전상을 그려 사전불퇴(死戰不退)하였다고 표현하였듯이, 이 날 밤 제30연대 장병들의 격전은 실로 필살을 절하는 것이었다.

특히 제 2 중대와 제 9 중대의 경우에는 1 개 중대 병력이 60~70 명밖에 남지 않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적의 파상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진지를 교수하였다.

그 이후에도 제 2 중대 정면의 적은 물러서지 않고 1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계속 현지에서 버티다가, 02 : 30과 03 : 35 등 2 차례에 걸쳐 재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상자만 더 많이 내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마침내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더구나 이 때에는 사단의 제28연대가 반격을 개시하여 제30연대 진지를 초월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전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요도 제22호 10월 13일 01 : 30 현재의 상황 참조).

4. 제28연대의 초월공격

이상과 같이 395 고지에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제30연대 관측소(255 고지)에서 시종 전황을 지켜보다가, 13일 02 : 00를 전후하여 제30연대가 방어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자 제28연대장에게, “03 : 00를 기하여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를 출동시켜 395 고지 전방의 목표 A, B, C, D를 공격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구두명령은 9시간 30분 후인 11 : 30에 사단 작전지시 제75호로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죽)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5호

참조 : 지도 대한 1 : 50,000 4285. 10. 13. 11 : 30

1. 가.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395 고지의 전초진지를 공격 확보하려 함.

나. 공격개시 일시 : 4285. 10. 13. 03 : 00

다. 공격목표 : 별지 투명도 참조

라. 공격방향 : 별지 투명도 참조

2. 가. 제28연대

(1) 예하 제 3 대대 주력으로써 4285. 10. 13. 03 : 00를 기하여

4. 제28연대의 초월공격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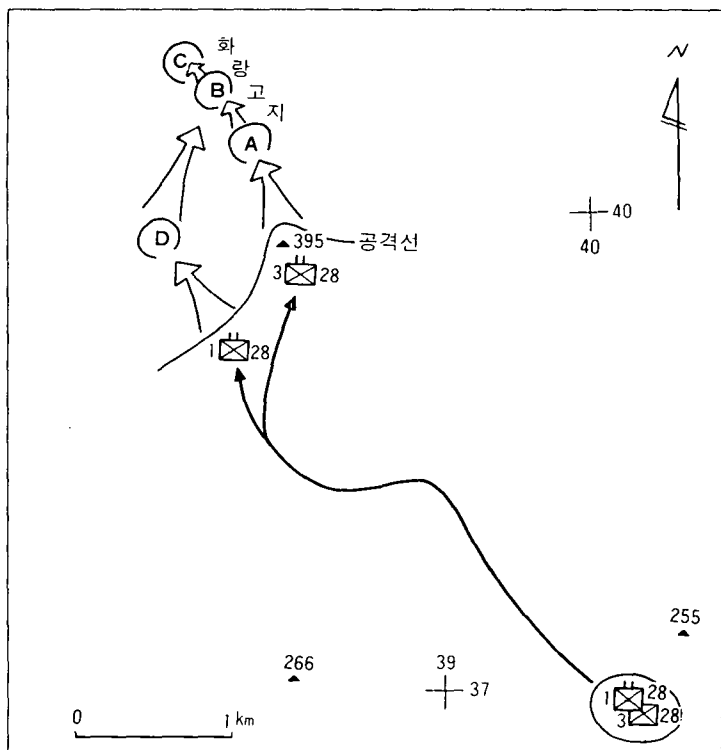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A, B, C를 공격 확보하라.

- (2) 예하 제1대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D를 공격 확보하고 목표 B를 주공과 협조하여 공격하라.

사단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배포

작전지시 제75호 별지 투명도



226 제 6 장 사단의 결전

이 작전지시에 의거하여 이제 대망의 전초진지 탈환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제30연대가 395 고지 방어전에 성공함에 따라 지난 날 사단의 전초진지였던 목표 A, B, C, D를 모두 탈환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제28연대장에게 이 공격명령을 하달하면서, 연대의 제 3 대대를 주공으로 하여 목표 A, B, C를 공격하게 하고 제 1 대대는 조공으로 목표 D를 공격하도록 하되, 목표 B의 공격 단계부터는 양 대대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라는 자신의 작전 개념을 명시하였다.

이 때 제28연대는 제 2 대대가 395 고지 남동쪽 능선의 일각을 담당하여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는 사단 예비대 집결지인 255 고지에 대기중인 상태에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제 3 대대가 단독으로 목표 A와 D를 동시에 공격하고 제 1 대대는 사단 수색중대 진지 후방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구두명령을 먼저 하달하고 후에 성문화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연대장의 판단 즉, 기동공간이 협소하다거나 기습효과를 노리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록상 제 3 대대가 먼저 단독공격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 제 3 대대의 초전 상황

제28연대 제 3 대대는 명령을 수령한 직후 255 고지를 출발하여 약산동으로 진출하였다. 바로 이 약산동에 위치한 사단 수색중대 진지 선단이 공격개시선(LD)이며, 이 선을 03 : 00를 기하여 통과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홍계동, 사후동을 거쳐서 약산동까지 강행군으로 속속 약진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30분 후에 255 고지를 출발한 제 1 대대도 동일한 통로를 따라 약산동으로 이동하였다. 그 동안 먼저 떠난 제 3 대대는 02 : 50에 현지에 다다라 정시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때 제 3 대대장 최창룡(崔昌龍) 중령은 지난 9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현지로 나와, 약산동 뒷산에 대대 관측소를 개설하고 대대를 직접 지휘하였다.

그는 공격에 앞서 대대 작전명령을 하달할 때, 제 9 중대로 하여금 목표 D(장송고지 : CT 373400)를 공격토록 하고 제 10 중대와 제 11 중대는 목표 A(화랑고지 제 3 봉 : CT 378405)를 공격토록 하되, 이 양 목표를 탈취하면 3개 중대가 목표 B(화랑고지 제 2 봉 : CT 377407)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는 동시에 지대내의 적을 섬멸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직후 제 9 중대는 직전방의 장송고지로 진출하고, 제 10 중대와 제 11 중대는 395 고지 북쪽으로 우회하여 목표 A의 직남방에서 공격할 예정으로 북동진(北東進)하였다.

그리하여 두 갈래로 분진한 3개 중대가 밤길을 헤치며 500~

700 m쯤 전진하고 있을 때, 아군 포병의 공격준비사격 사정이 연신되고 반면에 적의 포격이 점점 증강되고 있었으나 아직 적과 접촉은 없었다.

이 무렵 후속한 제 1 대대는 약산동에 도착하여 증원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 있었고, 연대 통신대에서 파견한 통신가설반도 최병용(崔秉鏞) 병장의 인솔하에 현지에 도착하여 유선을 소통시켰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에 공격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는 현황을 보고하였다.

그 이후에도 특별한 상황이 없이 각 중대가 속속 진출하다가 04 : 20에 제10중대 선임장교로부터 최초로 적과 조우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 때 제10중대는, 중대장이 지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된 관계로 선임장교인 이정훈(李正勳) 소위가 중대를 지휘하여 395 고지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바로 그 북쪽 200 m 지점에서 제30연대 제 1 대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자, 이들은 당황하여 화랑고지 동쪽 계곡으로 분산 후퇴하고 있으므로 그 후미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대장은 이 소위에게 적의 추격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당초의 계획대로 능선 우측에서 진격하되, 능선 좌측으로 진출한 제11중대와 보조를 같이 하여 목표 A의 탈취에 주력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 명령을 받은 이 소위는 즉각 추격을 중지하고 395 고지 북쪽 300 m 지점(CT 381402)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공격대형으로 병력을 전개시켰다.

바로 이 무렵 제11중대도 395 고지 북서쪽 계곡에 다다라 공격

대형을 갖추게 되자 이로부터 양 중대는 목표 A를 향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목표를 탈취한 시간은 제 9 중대가 더 빨랐다.

제 9 중대는, 중대장 황원외(黃元外) 중위의 지휘하에 목표 D를 향하여 진출하는 동안, 적정이 경미하여 일거에 약산동 개활지를 횡단한 다음, 장송고지의 와지선에서 제 2 소대와 제 3 소대를 좌우로 전개하여 계속 진출하던 중, 그 9부 능선에서 소대 규모의 적이 저항하자 10여 분 동안의 공격으로 이를 격퇴하고 05:10에 목표를 탈취하였다. 그 뒤로 중대는 현지에서 사주경계태세를 취하고 화랑고지 제 2 봉(목표 B)으로 후퇴중인 적에게 계속 타격을 가하며 목표 A 지대의 전황이 진척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목표 A 전방 300 m 지점의 무명고지에서 중대 규모의 적과 대치하여 계속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곳은 능선이 가파른 데다 그 동안 아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한 포기의 초목도 남아 있지 않고 보니 접근하기가 어려워 좀처럼 이를 돌파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현지에서 교전이 계속될 때, 07:15에 출격한 F9F 함재기 2개 편대가 화랑고지 일대 적진을 베이팜탄과 기총소사로 맹공격을 가하자, 이를 계기로 제10중대가 돌격을 가하여 무명고지의 적을 격멸하고, 이어 제11중대가 계속 진격한 끝에 마침내 07:50을 기하여 목표 A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듯 제 3 대대가 목표를 탈취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우군 전폭격기들의 근접지원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적극적으로 이어졌으며, 이 날은 총 37 회나 출격함으로써 사단 작전에

230 제 6 장 사단의 결전

크게 기여하였다. 그 당시 공군 지원의 전체적인 출격기록은 다음과 같다.

10월 13일 공군의 지원 사항

출격시간 : 07 : 15 ~ 17 : 00

출격회수 : 37회

출격기종 및 대수 : F9F—14 대, F-80—40 대, F-84—58 대, AD—9 대, AU—17 대

공격목표 : 화랑고지, 396 고지, CT 390430 적 집결지, CT 339 427 적 탄약고, CT 344438 적 포진지 등

폭탄종류 및 수량 : 1,000 파운드—30 개, 500 파운드—131 개, 250 파운드—96 개, 네이팜탄—70 개, 로켓탄—145 발

이상과 같이 목표 A와 D를 탈취한 제 3 대대는 다시 목표 B를 공격하기 위해 제 2 단계 공격작전을 준비하던 중, 돌연 대규모의 적이 반격을 가해 옴으로써 일시에 전황이 급변하게 되었다.

중공 제 38 군은 아군이 전초진지로 진출하자 그들 제 335 연대로 하여금 아군의 공격을 극력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다시 제 112 사단 소속의 제 336 연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유신(李有信)이 지휘하는 중공 제 336 연대는 이 날 새벽에 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화랑고지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 제 3 대대가 목표 A를 탈취한 40분 후인 08 : 30을 기하여 반격을 개시함으로써 이제 공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격돌을 벌이게 되었다.

(2) 장송고지의 격돌

적의 선두부대가 먼저 노린 곳은 제9중대가 확보하고 있는 장송고지(목표 D였던 고지)였다. 이 고지는 화랑고지 제3봉(목표 A였던 고지)보다도 남서쪽으로 800m쯤 남쪽에 위치한 독립 고지로서, 만일 이 고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다면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고립되는 것은 물론 당장 주저항선까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아군은 이를 극력 확보하려 하고, 적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노려 집중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교전 직후부터 의외의 상황이 연발하였다.

즉, 08:30에 장송동 북쪽 개활지에서 적이 출현하였을 때, 이미 장송고지의 제9중대는 적의 포격과 함께 주변 일대의 적 진지에서 날아드는 직사화기에 의하여 1/3에 가까운 병력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 까닭은, 우일선 중대가 목표 A를 탈취하면 함께 목표 B를 공격하기 위하여 진지도 변변히 구축하지 않고 사주경계태세만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적의 집중포격을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지휘체계가 마비되면서 신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일격을 받은 중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각개병사들이 다투어 진지를 이탈하자, 중대장 황원의 중위는 절규에 가까운 함성을 지르며 진지를 고수하라고 외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 때 마침 미 제73전차대대 A중대가 1,500m 후방 중세리(中細里)에서 포격과 사격으로 중대를 엄호하자, 황 중위는

200 m 후방의 남동쪽 계곡으로 내려와 가까스로 60여 명의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 이주일 대령은 사단장과 함께 연대 관측소에서 전황을 지켜보다가 이렇듯 들연한 상태에 직면하자, 즉각 제 1 대대장 김삼증(金三曾) 대위에게 역습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을 받은 제 1 대대장은 09:00에 약산동 집결지를 출발, 장송고지로 직행하였다.

그리하여 09:40부터 제 1 중대와 제 3 중대는 장송고지 남쪽 능선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제 9 중대는 남동쪽 계곡에서 적의 동측 방으로 밀고 올라갔다.

아군의 포병과 전차 및 전폭기들이 적의 기세를 제압하는 가운데, 계속 진출한 3개 중대는 포 사정의 연신과 더불어 일단 목표의 8부 능선으로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마다 선혈을 뿌려 가며 집념어린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제 1 중대는 지난 7일의 전투에서 중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교들이 전상, 후송된 판계로 선임장교인 권요섭(權堯燮) 소위가 중대를 지휘하고, 제 1 소대장에는 연대 연락장교이던 이병모(李炳模) 소위가 11일부로 전입되었으며, 제 2 소대와 제 3 소대는 선임하사관들이 소대를 지휘하는 상태에서 이 공격에 임하였다. 목표의 직남방에서 세 차례에 걸친 돌격을 감행하는 동안, 다시 제 1 소대장 이 소위가 부상을 입고 제 3 소대 선임하사관이 전사하였으며, 중대장 직무를 대리하던 권요섭 소위마저 부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등 충동적인 사태가 연발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결코 물

러서지 않고 연속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우측의 제 3 중대도 동일한 공격을 실시하는 동안, 6월 28일부로 부임한 제 2 소대장 윤승학(尹承學) 소위가 전사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제 2 소대 분대장 정익두(鄭益斗) 하사의 과감한 수류탄 공격으로 적의 특화점을 분쇄한 데 힘입어 그 9부 능선까지 육박하였다.

그러나 적측에서는 계속 병력을 증강하는 듯, 아무리 타격을 가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방망이 수류탄을 투척할 뿐 아니라 기관총사격으로 산허리를 메우니 전황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채 유착상태가 되었다.

더구나 고지에서 물러섰던 제 9 중대는 남동쪽 계곡에서 수습한 60여 명의 잔여병력으로 공격에 가담할 때,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실탄마저 모자라 병사들이 주춤거리자 중대장이 선두에 나서 이들을 이끌고 동쪽 능선으로 진격하였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투가 치열하여 제 3 소대장 김철수(金哲秀) 소위가 전사, 후송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악순환이 거듭되었으며, 마침내는 중대장까지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단념하지 않고 다시 제 2 소대장 신현경(申鉉慶) 소위의 지휘하에 재공격을 개시하였을 때, 중대 전령인 유상운(劉相允) 일병이 단독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의 체코식 기관총을 도수로써 뒤엎어 버리자, 이 순간을 계기로 하여 중대 전 장병들이 거의 동시에 무아지경으로 돌격을 감행하였다.

기필코 이 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휘관들의 집념과 죽음을 무릅쓰고 탈취하려는 장병들의 감투 정신이 이 같은 투혼으로 승

화되어, 장장 4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13:45을 기하여 이옥고 목표를 탈환하게 되었으며, 이 날의 그 혈전장에서 공을 세운 장병들에게는 전투 후 을지무공훈장을 비롯한 화랑무공훈장과 미은성훈장 등이 각각 수여되었다. 그리고 제 1 대대와 제 9 중대에는 지휘관 개인훈장 이외에도 부대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격전이 전개되는 동안 제 1 대대장 김삼증 대위는, 1,000 m 후방의 대대 관측소(약산동 뒷산)에서 부대를 지휘하다가 목표탈취 신호가 오르자, 각 중대 선임자에게, “대대장이 곧 갈터이니 우선 적의 역습에 대비하라. 그리고 대공포탄 사용에 유의하라.”고 지시한 다음 현지로 나가려고 하던 차에 사단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정보참모와 전속부관만을 대동하고 대대 관측소를 방문하여 간단한 상황을 보고받고, 대대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곧 아군의 반격이 있을 것이니 장송고지를 계속 확보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 전투가 끝난 지 30 년이 지난 후에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 대대장은 그 때를 증언하기를, “나는 사단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적의 포격이 심하여 참모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사단장은 태연히 보고를 받고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잘해 보라고 당부하였다.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사단장이 떠난 지 5 분도 못 되어, 보고를 받던 바로 그 자리에 포격이 떨어져 무전병이 전사하고 나는 10 m쯤 밖에 있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참으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

사단장이 떠난 후 대대장은 곧 장송고지로 올라가 진지를 재조

정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한편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제 9 중대를 원대로 복귀시켰다.

이 무렵 제 3 대대는 화랑고지 제 3 봉을 방어중에 있었으므로, 제 9 중대는 신현경 소위의 인솔하에 원대복귀와 동시, 대대 예비로 무명고지(CT 379403) 북쪽에서 재편, 대기하게 되었다.

그 후 장송고지에 위치한 제 1 대대는, 17:20에 2개 소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또 한 차례 총격전을 벌인 바 있었으나, 교전 30분 만에 이를 격퇴한 다음 연대 수색중대를 증원받아 진지를 더욱 보강한 가운데, 이 전투의 종료일인 15일 07:00까지 장송고지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3) 제 3 대대의 철수

중공 제336연대는 장송고지의 공격에 실패하자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청명한 날씨에 우군 전폭기들이 연이어 138 대나 출격하여 계곡과 야지를 누비며 연속적인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제53전차중대 제 1 소대와 제 4 소대가 하진명동 개활지를 제압하고, 미 제73전차대대 A 중대가 또한 장송동 통로를 봉쇄하는 동시에 아군 포병들의 제압사격이 간단없이 계속됨에 따라 저들은 주간공격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적의 공격 징후가 다시 나타난 것은 17:00를 지난 직후였다. 일몰이 가까와지면서 우군 전폭기들의 출격이 끊기자 이들은 돌연 연막을 펴기 시작하였다. 화랑고지와 장송동 개활지 및 상진명동 계곡 일대에 연막차장을 실시한 적은, 다시 포격을

개시하여 화랑고지 제 3 봉의 제 3 대대 진지를 집중적으로 강타하였다.

이 무렵 제 3 대대는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격심한 포격으로 말미암아 급조 진지가 대부분 무너져 우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00를 전후하여 적의 포격이 멈추는 듯하더니, 화랑고지 제 2 봉에서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으며 이어 18:20부터 제 11 중대 진지 정면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제 11 중대는 이미 병력을 재배치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곧 사격과 포격으로 이를 저지하던 중, 18:40에 돌연 남동쪽 능선의 측방에서 다시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여 제 10 중대 진지 정면으로 밀려들었다. 이로부터 1시간이 지난 19:20에는 또 다시 수 미상의 적이 고지 남서쪽 능선으로 침투하여 제 11 중대 진지를 측방에서 공격하여, 이 양 중대는 적으로부터 3번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양 중대는 일부 진지를 전면방어태세로 조정해 가며 이들과 계속 타격전을 전개하던 중, 20:30에 이르자 후방의 제 9 중대 진지(CT 378403)에서 교전이 개시되고 적의 포격이 격렬하게 335 고지로 지향하면서 일대 격전이 야기되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이영조(李永朝) 중위가 지휘하는 연대 수색중대를 20:40부로 제 1 대대에 배속, 동 대대로 하여금 장송고지를 끝까지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 3 대대 제 10 중대와 제 11 중대를 제 9 중대 지역으로 긴급 철수시켰다.

이는 지난 전투 초기에 제 30 연대 제 11 중대가 적중에 고립되어

지리멸렬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일단 양 중대를 철수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 중대의 병력이 무명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자, 연대장은 부상중에도 계속 대대를 지휘하던 대대장을 치료하도록 조치한 후, 부대대장 권돈(權墩) 대위에게 제3대대를 지휘하여 반격을 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22:20에 반격을 개시한 제3대대는, 14일 00:30까지 395 고지 북쪽 계곡의 적을 모두 격퇴하고 그 전방 무명고지(CT 378403)에서 저항하는 적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끝내 이들을 격퇴하지 못하고 대치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후 현지에서 계속 대치상태로 있다가 제29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대대지역에 다다른 14일 06:00부로 임무를 인계하고, 명에 의하여 395 고지 남쪽 계곡으로 철수, 재편 대기하였다.

이로써 제28연대의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전은, 예상과는 달리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장송고지만을 확보한 가운데 제29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5. 391 고지의 상황

이상과 같이 제28연대가 중공 제336연대와 격돌을 벌이고 있을 때, 언제나 마음 속으로 경계하던 제51연대 지역에서 또 다른 전초진지에 대해 적의 공격이 밀어닥쳤다.

이 전초진지는 사단 주저항선의 우 제일선을 담당한 제51연대 제2대대의 391 고지 전초로서, 우 인접 미 제7사단 제17연대의 358 고지 전초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었다.

철원에서 3번 도로를 따라 평강(平康)으로 올라가노라면 도로 우측에 학당리(鶴堂里)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 뒤에 남북으로 뻗어 내린 독립 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391 고지(현 군사지도상 388 고지 : CT 477443)이며, 제51연대 제 2 대대의 주진지로부터 2 km쯤 북쪽에 위치한 전초진지였다. 일명 철마고지(鐵馬高地)라고도 불리는 이 고지는 그 북쪽의 낙타 능선(일명, 발리봉)과 함께 철원 평야로 돌출하여 사면을 감제하는 유리한 이점이 있으므로, 제 2 대대에서는 제 8 중대를 이 곳에 배치하여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 일대는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표고가 391 m인 데 비하여, 산의 형체는 백마산의 전초진지인 화랑고지의 1/2밖에 안 되는 작은 고지이며, 더구나 적진과는 철원 평야를 사이에 끼고 있으므로 그 동안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곳이다.

그런데, 백마산의 공방전이 전초진지 공격단계로 접어든 13일 새벽에 적측에서 돌연 이 전초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제51연대는 물론 사단에서도 긴장하게 되었다.

당시 제51연대는 경보병연대로서, 아직 중화기 장비도 갖추지 못한 처지에 있었으나 백마고지 전투가 가열됨에 따라 제 9 사단 주저항선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예비대도 없이 3 개 대대를 모두 일선에 배치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1) 391 고지의 상실

이 때 391 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제 8 중대는 아직 기본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3 개 소총소대로 편성하여 중대장 이상문(李相

汶) 중위의 지휘하에 대대 전초진지를 맡아 거점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일 18:25에 수 미상의 적이 돌연 진지 전방에 나타나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자 중대는 일제사격으로 이를 가볍게 격퇴한 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전초임무를 수행하던 중, 13일 24:00를 전후하여 또다시 적은 대대적인 포격을 가한 다음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강력한 공격을 가해 왔다.

이로부터 중대는 고립된 상태에서 03:00까지 진지를 지탱하며 사력을 다하여 그들을 저지하였으나, 교전 직후부터 대대와의 교신이 끊어지고 증원마저 뒤따르지 못한 가운데, 고군 분투하던 중 대장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고, 제 3 소대장 김재현(金在賢) 소위가 중상을 입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다가 역부족으로 분산되고 말았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제 2 대대장 박철원(朴哲遠) 소령은 우선 분산병력의 수습에 나서고, 제 51 연대장 전부일(全富一) 대령은 사단에 병력과 화력을 긴급요청하는 한편, 연대 수색중대 1개 소대를 급파하여 역습을 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단장 또한 당면한 백마고지 전투를 고려한 끝에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하고 포병 제 51 대대로 하여금 391 교지 역습에 화력지원을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우인접 미 제 7 사단장 스미드 소장에게 전투 지경선 부근의 전초진지가 유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화력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제 2 대대에서 수습한 제 8 중대의 병력으로 1개 소대를 편성하고 연대 수색중대 1개 소대를 통합하여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때, 뜻밖에 미 제 17 연대 C 중대가 증원차 대대지역에 도

240 제 6 장 사단의 결전

착하자 함께 07 : 00를 기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대대의 2개 소대는 391 고지 정면으로 공격하고, C 중대는 목표의 동측방을 공격, 진지 선단의 적을 물리친 끝에 08 : 30에 391 고지 남쪽 능선의 무명 고지(CT 476435)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12 : 00 이후까지 사격전을 반복하다가 대치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무렵 사단장은 제 2 대대가 역습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전황을 검토한 끝에, 391 고지의 적을 격퇴하고 제 51 연대 지역을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1개 대대를 운용하기로 한 사단 작전지시 제 77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 77호

참조 : 지도 대한 1 : 25,000 4285. 10. 13. 15 : 20

1. 사단은 제 29 연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1개 중대를 제 51 연대에 배속, 전투임무를 수행케 하려 함.

2. 가. 제 29 연대

(1) 예하 제 2 대대를 4285. 10. 13. 15 : 30에 행동개시하여 CT 405374(255 고지)로부터 CT 432376(254 고지) 부근으로 이동 집결하라.

(2) 4285. 10. 13. 18 : 00부로 예하 제 2 대대 제 7 중대를 제 51

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하라.

나. 제51연대

4285. 10. 13. 18:00부로 배속받은 제29연대 제7중대 병력을 391 고지 전초진지 전투임무를 수행케 하라.

다. 협조지시

이동은 주간에 실시하고 일몰 전에 391 고지 전초진지 임무를 교대시켜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 배포

이 작전지시에 명시된 254 고지(CT 432376)는 종래 사단 관측소가 위치한 곳으로서, 사단장은 제29연대 제2대대를 이 곳으로 이동시켜 제51연대 지역에서 예상되는 적의 공격에 대한 역습부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고, 그 중 제7중대를 18:00부로 제51연대에 배속하여 391 고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9연대 제2대대는 255 고지에 집결중인 병력을 18:00까지 254 고지로 이동완료하여 대기하고, 그 중 제7중대는 동시부로 제51연대에 배속되어 391 고지 남쪽의 무명고지에서 21:10까지 제51연대 제8중대 1개 소대 및 연대 수색중대 1개 소대와 임무를 교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임무 교대 후 22:40에 수 미상의 적이 포격지원하에 제7중대를 공격해 와 한 차례 교전이 있었으나 이를 격퇴한 다음, 제51연대 작전지시 제5호에 의거, 다음날 전개될 391 고지 탈환전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2) 제29연대 제 7 중대의 역습 좌절

백마고지 전투가 마지막 결전 단계로 접어든 10월 14일 오전에 391 고지에서도 제 7 중대의 탈환전이 전개되었다.

제51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9:00에 공격을 개시한 제 7 중대는, 중대장 김용진(金容振) 중위의 지휘하에 무명고지(CT 476435)를 떠나 391 고지 정상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적의 포격과 사격이 난무하는 화망을 뚫고 약진과 포복으로 계속 진출한 중대는, 10:00에 전진 100m 전방에 이르러 다시 낮은 포복으로 침투한 후 예정된 돌격선상에서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1차공격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백마산에서 사선을 넘었던 중대답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장장 4시간 반 동안의 연속적인 공격과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14:35을 기하여 391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측에서는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20:00에 중대 진지를 강습함으로써 22:50까지 3시간 가까이 혈전을 벌였으나, 병력 부족과 실탄 고갈로 끝내 이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명고지로 후퇴하여 저지진지를 급편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전을 끝으로 제 9 사단은, 391 고지 탈환전을 일단 중지하고 현지에서 계속 적을 견제하는 가운데 백마고지 전투를 속행하게 되었다.

참고로 391 고지 전투에 대한 국내의 주요 신문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10월 15일(水)자 부산 일보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마고지 동방서 신전투(동경 14일발 UPI 통양)

백마고지 동방에서 새로운 전투가 전개되었다.

즉, 300 내지 700 명의 중공군은 제 9 사단의 전초진지를 그들 수중에 넣어 버렸다.

제 9 사단은 이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초진지는 주요 보급선을 부감하는 백마고지에 비하여 아무 가치도 없는 곳이며 소규모 전투로써 계속 주인공을 바꾸어 온 일개 전망초 진지에 불과하다.

6. 대통령의 부대 방문

제 9 사단이 전초진지 탈환전을 전개중인 13일 오후에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미 제 8 군 사령관 벤 플리트 대장을 대동하고 사단을 방문하였다.

대통령은 호전되고 있는 전황 설명을 듣고 일어서서 사단장의 손을 잡으며, “자네들이 막강한 미군 사단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승리해 주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 국정을 보살피고 있다.”고 격려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몸소 부상 장병들의 후송 현황을 돌아보다가 노안에 눈물을 적시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새겨 두어야지……”라고 채 말끝도 맺지 못하면서 장병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 날의 감격어린 장면을 회고한 사단장은, “노 대통령이 내 손



〈이승만 대통령의 부대 방문〉

을 꼭 잡고 눈물을 적실 때 가슴이 매었으며, 기필코 이 전투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되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어서 사단장은 증언하기를, “전투가 끝난 직후 두 번째로 대통령이 방문하였을 때, 부슬비가 오는 데도 L-19기를 타고 일선까지 몸소 오신 것을 보고 그분의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육사 교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후방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밴 플리트 장군도 제9사단이 이렇게 잘 싸워 줄 줄은 몰랐다고 하며, 마이 디비전(My Division)이라고 찬양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 주었다.”라고 술회하였다.

7. 마지막 결전

이상과 같이 13일 하루 동안에 제28연대의 전초진지 탈환전에
서 진퇴가 무상하고, 391 고지에서 새로운 접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통령이 사단을 방문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다가 마침내 중공
제336연대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결전
을 단행하기로 결심하고 255 고지에 집결중인 제29연대 2개 대대
를 축차로 투입하여 목표 A, B, C를 조속히 탈환토록 명령하였다.

사단 작전지시 제78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78호

참조 : 지도대한 1 : 50,000 4285. 10. 13. 18 : 00

1.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395 고지의 전초
진지를 공격 확보하려 함.

공격개시 일시 : 4285. 10. 14. 06 : 00

공격목표 : 별지 투명도 참조

공격방향 : 별지 투명도 참조

2. 가. 제29연대

(1) 예하 제1대대 병력으로써 4285. 10. 14. 06 : 00를 기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A, B, C를 순차적으로 공격 확보

하라.

(2) 각 목표를 중대별로 배당하여 중심으로 공격하라.

나. 제28연대

(1) 예하 제 1 대대 병력으로써 별지 투명도와 같이 목표 D를 계속 확보케 하고 제29연대의 공격 제대와 협조하여 목표 B로 진출 공격하라.

다. 협조지시

(1) 진지를 확보하면 신속히 진지 구축 작업을 실시하라.

(2) 최초 목표를 점령하면 새로운 제대로써 다음 목표로 초월진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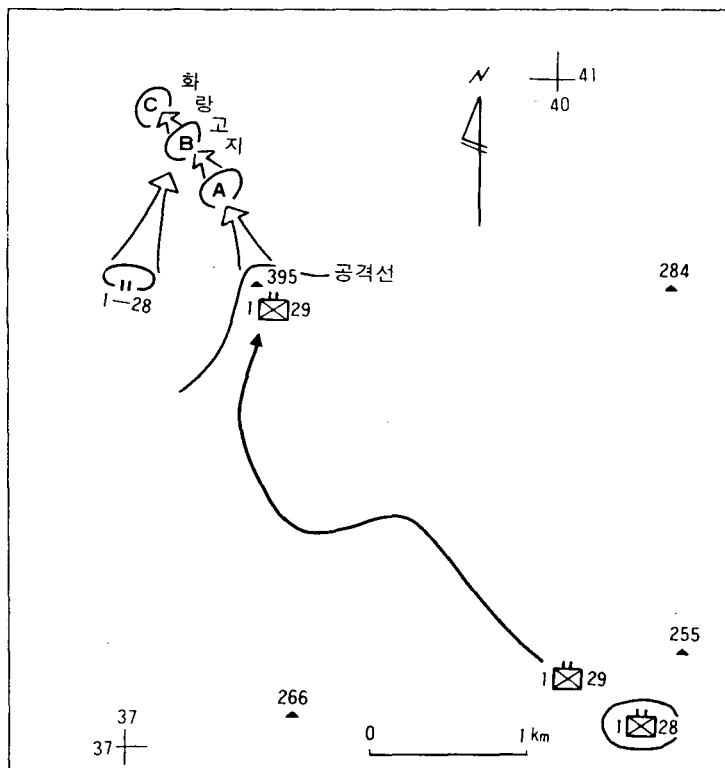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종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 배포

이 작전지시에 의거하여 이제 제29연대가 마지막 결전장에 나아가 제2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목표 A, B, C를 공격하게 되었다. 공격명령을 받은 제29연대는 13일 밤, 사기 양양 대회를 열었다. 이 명칭은 누군가가 멋대로 붙인 이름이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일종의 회식이었기 때문이다.

후방 국민들이 보내 온 위문품과 천연읍에서 준비해 날라 온 음식물 그리고 소주와 오징어 등을 소대단위로 나누어 놓고 회식을 할 때, 중대장과 대대장이 두루 돌아다니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해 보자.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전초진지만 탈취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는 등 생사를 같이하자고 다짐하였다. 이 때 술잔을 주고받던 병사들은 자기 소대장과 중대장을

작전지시 제78호 별지 투명도



등에 업고 야지를 돌면서, 소대 만세! 중대 만세!를 외쳤다. 이미 죽음과 삶의 고비를 몇 차례씩 넘겨 온 병사들은 이제 생사를 초월하여 이렇게 단결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을 이름 붙여 사기 양양 대회라고 불렀다. 그리고 갓 전입 온 신병들도 여기에 동화되었다. 이 부대의 전통인 필승 통일이라는 글자를 써 넣은 머리

떠를 지급받고 새 소총을 수령하여 기름을 닦아내릴 때만 하여도 실감하지 못하다가, 선배들이 보여 주는 고조된 분위기와 수류탄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권고에 무엇인가를 터득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회식이 끝나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 14일 새벽 02:00에 제 1 대대가 먼저 255 고지를 출발하였다.

이 무렵 제28연대 제 3 대대는 화랑고지 제 3 봉에서 철수하여 그 남쪽 무명고지에서 중대 규모의 적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동 연대 제 1 대대는 여전히 장송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제29연대 제 1 대대가 395 고지 남쪽 계곡 공격대기지점에 도착하여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아군 포병들은 05:00부터 공격준비사격을 개시, 목표 A, B, C 일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이 포격의 사정이 연신되면서 제 1 대대는 06:00 정각에 공격개시선을 통과, 최후의 결전장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1) 제29연대 제 1 대대의 고전

공격에 앞서 대대장이 구두로 하달한 공격명령은 간단하였다.

대대장李大哲 소령은, “대대의 임무는 목표 A를 탈취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남쪽의 무명고지(CT 378403)를 중간 목표로 설정하여 제 1 중대가 최초 공격, 중간 목표를 탈취하고, 이 목표를 탈취하면 제 3 중대가 초월공격하여 목표 A를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협조 지시로 공격간에 반드시 교통호를 파 가며 돌격선으로 전진할 것과 부상자 후송은 노무자

나 위생병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전투병의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고 지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용감해야 산다.”고 강조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최초 공격부대가 된 제 1 중대는 중대장 김석구(金錫具) 대위의 지휘하에 395 고지 북쪽 계곡을 넘어선 다음 무명 고지 전방 150 m 지점으로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제 28 연대 제 11 중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제 1 소대와 제 2 소대를 진출시켜 무명고지를 목표로 진격해 갔다.

마치 팽이를 엮어 놓은 것과 같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이 고지는 나무 한 그루도 없이 바위와 흙만 남은 고지인데다 중대 규모의 적이 유리한 위치에서 연속 방망이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공격하던 병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제 1 소대장에게 바위 뒤에 숨어서 수류탄을 던지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제압토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제 1 소대장 이수송(李秀松) 소위가 소대원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70 m 전방으로 침투한 후, 소대에 보유하고 있던 총류탄 2 상자를 모두 발사하여 대부분의 적을 제압한 다음, 2 명의 분대장과 함께 바위 밑 사각지대로 더욱 육박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있을 때 소대 향도가 소대원과 함께 그 뒤를 따르자 일제히 돌격을 감행, 2 개 소대 규모의 적을 섬멸하고 각종 소총 70 여정을 노획하는 큰 전과까지 거두면서 08 : 00를 기해 무명고지를 완전 탈취하였다.

이로써 제 1 중대는 중간 목표를 확보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게 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 소위는 전투 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중간 목표를 탈취한 제 1 대대는, 이제 제 3 중대가 중대장 이효성(李曉星) 대위의 지휘하에 초월공격을 단행하여 목표 A 로 진격하였다.

화랑고지 제 3 봉으로 더 알려진 이 목표 A(CT 378405)는 무명고지 북쪽 300 m 거리에 위치한 돌출 고지로서 이 곳에는 1 개 대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09 : 15부터 개시된 제 3 중대의 목표 A 에 대한 공격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그 200 m 전방의 7부 능선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한 채로 사상자만 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다시 제 2 중대를 진출시켜 그 서측방에서 공격토록 조치하고, 양 중대장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독려했으나 제 2 중대 역시 마의 7부 능선을 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때부터 적은 포격을 증강하여, 공격 제대뿐 아니라 무명고지에 이르기까지 제 1 대대 장병들의 활동지역을 두루 강타하는 동시에, 화랑고지 제 1 봉에 위치한 2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제 3 봉의 양측방으로 추진하여 병력을 더욱 증강하고, 또한 396 고지(CT 386423)에서도 적의 직사화기가 출현하여 연속사격을 가하는 등 맹렬히 저항함에 따라 제 1 대대는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렇듯 적의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자 아군 지원부대들도 맹활동을 전개하여 포병의 제압사격은 물론, 동측방의 제 53 전차중대와 서측방의 미 제 73 전차대대 A 중대가 계속 엄호사격을 가하고, 우군 전폭기들은 거의 30분 간격으로 연속 출격하여 적진을 강타하였으며, 특히 10 : 15에 출격한 F9F 전폭기 1 개 편대는 하진명동 계곡에 출현한 또 다른 대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집중공격을

가하여 그 배반을 격멸해 버렸다.

10월 14일 공군의 지원 사항

출격시간 : 07 : 10~17 : 10

출격회수 : 15 회

출격기종 및 대수 : F-51—12 대, F-80—24 대, F-84—7 대, F9F—4 대, AD—4 대, AU—9 대

출격장소 : CT 376416, CT 375425, CT 398454, CT 436463 등
 폭탄 종류 및 수량 : 1000 파운드—70 개, 500 파운드—40 개, 250 파운드—43 개, 네이팜탄—30 개

그러나 제 1 대대의 전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중공 제 336 연대는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는 듯, 아군의 연속적인 포격, 폭격과 사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다. 제 1 대대의 손실이 너무 크게 늘어났다. 시간은 12 : 00를 지나 13 : 00가 되어도 손실만 가중될 뿐,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제 29연대장 김봉철 대령은 15 : 00를 기하여 제 3 대대를 다시 투입하였다.

이 때 제 3 대대는 이미 전방으로 진출하여 사단 수색중대 진지 남쪽의 집결지(CT 378390)에서 대기중에 있었으므로, 제 1 대대와 임무를 교대, 목표 A 를 탈취토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 명령에 따라 제 3 대대는 무명교지(CT 378403)로 진출한 후, 16 : 00에 제 1 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16 : 15을 기해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임무를 인계한 제 1 대대는 19 : 00까지 사단 수색중

252 제 6 장 사단의 결전

대 진지 후방에 집결,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2) 주저항선의 정비

한편 사단에서는 제29연대가 전초진지를 공격하는 동안 전반적인 전황을 검토한 결과, 비록 적의 저항이 완강하기는 하나 점차로 약화되고 있으므로 저항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서히 주저항선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즉, 백마산 남동쪽 능선의 역곡천변에 배치되어 있는 제28연대 제 2 대대를 철수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을 제30연대에 인계토록 하여 주저항선을 정비하도록 하고, 395 고지 남쪽에 대기중인 제28연대 제 3 대대도 255 고지로 철수시켜 재편성하도록 하는 사단 작전지시 제80호를 14일 13:00부로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보 병 제 9 사 단

(강원. 철원. 이장족)

취급구분 군사비밀

작전지시 제80호

참 : 조 지도 대한 1 : 25,000 4285. 10. 14. 13 : 00

1. 가. 사단은 395 고지 주저항선 임무를 교대시키려 함.

나. 교대개시 일시 : 4285. 10. 14. 17 : 00

2. 가. 제28연대

(1) 예하 제 3 대대를 4285. 10. 14. 17 : 00부터 행동개시하여 CT 405314(255 고지) 부근으로 이동 집결하여 재편성을 완료하고 별명에 대기하라.

- (2) 예하 제 2 대대 주진지 전투임무를 4285. 10. 14. 17 : 00부로 교대개시하여 제30연대에 인계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CT 405314(255 고지) 부근으로 이동 집결하라.

나. 제30연대

- (1) 예하 일부 병력으로써 4285. 10. 14. 17 : 00부로 제28연대 제 2 대대 주진지에 관한 전투임무를 일체 인수하라.
- (2) 395 고지 주저항선 방어 계획을 4285. 10. 14. 18 : 00까지 사단 G-3에 제출하라.

사 단 장 육군소장 김 중 오

하달법 : 구달 후 인쇄 배포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28연대 제 2 대대는 현 진지를 제30연대 제 3 대대에 인계하고 22 : 30까지 255 고지로 집결하였으며, 제 3 대대는 이보다 앞서 20 : 40에 역시 255 고지로 집결, 재편 대기하였다.

그리고 제30연대는 장차 사단 수색중대가 배속 해제될 것을 전제로 자체 방어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3) 제29연대 제 3 대대의 목표 A 탈환

사단의 주저항선 정비와는 관계 없이 제29연대 제 3 대대는 제 1 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16 : 15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번에는 공격에 앞서 제 1 포병단에서 강경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15 : 50부터 개시된 이 공격준비사격은 목표 A 지역, 은 물론 목표 B, C에 이르기까지 화랑고지의 전 지역을 일제사격

으로써 적이 발붙일 수 없을만큼 초토화시켰다.

포병의 사정 연신과 더불어 제 3 대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적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제 10 중대와 제 11 중대가 목표 A 를 향하여 측차로 진출하는 동안 적의 이 같은 포격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양 중대는 계속 진출하여 17 : 00에 목표의 7부 능선으로 접근한 다음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이 때는 중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아군의 포격에 의하여 대부분 피해를 입은 듯, 제 1 대대가 공격할 당시보다는 현저하게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양 중대가 사격전에 이어 두 차례나 돌격을 감행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로 21 : 00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자, 대대장은 다시 제 9 중대를 투입하여 돌격을 가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류탄전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적측에서는 21 : 30경 다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박격포사격을 연속적으로 가함에 따라 전황이 아군에게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 주저항선의 사단 수색중대 진지 좌전방에 또 다른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여 사격을 가해 오자, 중대 장병들은 일제 사격과 협조된 탄막사격에 의하여 23 : 00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제 3 대대는 아직도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뒤 자정을 지나 15일 02 : 00가 되어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포격으로 또 한 차례 적을 강타한 다음, 여명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제 3 대대로 하여금 300 m 후방으로 일단 철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 52 포병대대와 이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였다. 그리고 제 3 대대의 전투력이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목표 B, C에 대한 연속공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제 2 대대의 측차 투입을 사단에 건의하였다.

이 때 제 2 대대는 제 51 연대 지역의 254 고지(CT 434375)에서 사단 예비로 대기한 가운데, 제 7 중대는 391 고지(철마고지) 작전을 위하여 제 51 연대에 배속하고 있었으므로, 연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사단장은 제 7 중대를 제외한 대대의 주력을 연대장의 재량에 따라 운용하도록 승인하고, 이 지역에는 제 28 연대 제 1 대대를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제 연대장 휘하에 들어온 제 2 대대(-)는 15일 03:20에 254 고지를 출발하여 395 고지 북쪽 계곡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04:00에 공격대기지점에 도착한 제 2 대대(-)는 동시부로 연대 수색중대를 배속받아 대기하게 되고, 제 52 포병대대는 04:10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20분 동안 계속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4:30에 이윽고 제 3 대대의 재공격이 개시되었다. 공격에 앞서 대대장은 제 10 중대를 선공중대로 지정하고, 새로 전입 온 하사관 20 명을 집결시켜 특수소대로 편성, 제 10 중대에 보강하여 전투에서 진로를 타개하도록 지시한 다음, 돌격간에는 분대단위로 목표를 지정하여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제 10 중대의 공격은 비교적 용이하게 진척되었다. 적의 포격이

산발적으로 가해지고 있었으나 저항이 경미하여 큰 손실 없이 7부 능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돌격선으로 침투할 때에도 전날과 같이 저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류탄 투척거리 내로 접근하자 다시 방망이 수류탄이 연속 날아들어 06:05부터 격렬한 수류탄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제 1 소대와 특공소대가 어느덧 9부 능선으로 육박하여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가한 끝에, 증강된 소대 규모의 적을 격멸하고 06:20을 기하여 목표 A를 탈취하였다.

목표를 탈취한 직후 주변의 참호를 수색하던 중, 쇠사슬에 얽매인 중공군이 수류탄 상자에 얹드려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비인도성에 또 한 번 놀랐으며, 이것은 백마고지 전투 개시 이후 두 번째로 목격된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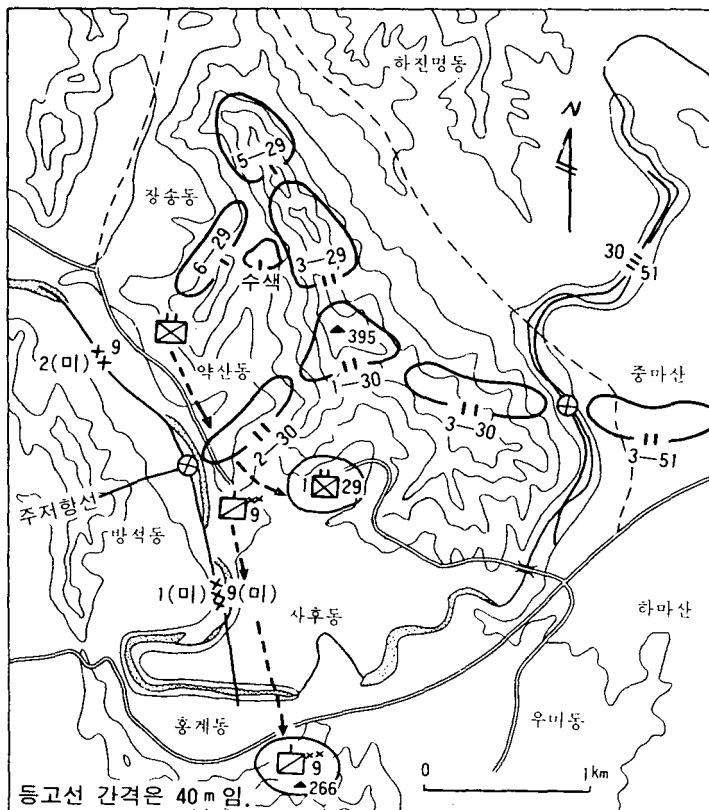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제 3 대대가 목표 A를 탈취하고 재편성을 실시하여 화랑고지 제 3 봉을 확보하기에 이르자, 연대에서는 다시 제 2 대대를 초월공격시켜 목표 B와 C를 연속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때 사단에서는 제 29 연대장에게 07:00부로 장송고지의 제 28 연대 제 1 대대 진지를 인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사단 수색중대 진지 남쪽 집결지에 대기중이던 제 29 연대 제 1 대대는 07:00부로 장송고지를 인수하여, 사단에서 파견한 2개 공병중대와 함께 장애물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제 29 연대 제 2 대대는 08:00를 기하여 목표 B, C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4) 제29연대 제2대대의 목표 B, C 탈환

제29연대 제2대대가 08:00에 395 고지 북쪽, 공격대기지점을 출발하여 화랑고지 제3 봉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목표 B와 C

요도 제23호 10월 15일 18:00 현재의 상황



일대에는 중대 규모의 적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으나, 아군의 집중 포격에 의하여 거의 궤멸 상태에 있었으며 더구나 이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강요에 의하여 진지를 지키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저항력도 미약하여 제 2 대대 제 5 중대가 단독으로 진격하여 10 : 40에 목표 B를 탈취하고, 계속 진출하여 11 : 00에 목표 C를 탈환함으로써 드디어 백마산의 전초진지를 모두 되찾게 되었다.

이로써 제 9 사단은 10일 동안의 혈전 끝에 중공 제 38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백마산을 확보하여 승리로 매듭지은 가운데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요도 제 23호 10월 15일 18 : 00 현재의 상황 참조).

8. 전투 후 피아의 상황

이 전투가 끝난 뒤, 중공 제 38군은 예하 사단을 축차로 철수시켜 전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일자와 장소는 불확실하나 제 112사단은 52년 11월 5일에 이천(伊川)에서 재편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53년 1월에는 중공 제 23군과 일선방어임무를 교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년 3월에는 제 38군의 주력이 평안남도 숙천(肅川)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이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후방으로 물러나 부대를 재건하다가, 휴전 협정이 체결되자 제일 먼저 53년 7월 말에 신의주를 경유,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제 9 사단은 백마고지 전투의 종결과 더불어 391 고지(철마고지) 탈환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 9 군단의 작전지시에 의하여 10월 26일 06:00부로 미 제 3 사단과 교대하고, 사창리(史倉里)로 이동하여 1개월 간의 부대 정비를 마친 다음, 다시 11월 23일에 금화(金化) 지구로 진출, 다음의 격전지인 저격능선전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동안 사단에 배속되었던 제 51 연대는 사창리로 철수하면서 미 제 1 군단으로 배속 전환되고, 다시 제 37 경장비 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제 9 사단은 여전히 4개 연대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 1 포병단도 백마고지 전투 지원으로부터 저격능선전투 지원으로 임무가 전환됨에 따라 여기에서 다시 제 9 사단과 손을 맞잡게 되었다.

백마고지 전투를 지휘한 제 8 대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52년 10월 26일부로 육사교장으로 전임하고, 김점곤(金點坤) 준장이 제 9 대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저격능선전투를 지휘하기에 이른다.

제 7 장 전승의 의의

백마고지 전투의 이해득실을 말할 때 흔히, “이 작은 고지 하나를 놓고 그렇게 많은 인명과 물자를 투입해 가며 혈전을 벌여야 할 가치가 있었느냐.”는 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격파하고 장쾌한 승리를 거둔 쾌거인 동시에 한국전쟁사상 “지상전의 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손실에 비해 전술적인 가치가 너무 적다.”고 회의적 견해를 보이는 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가는 전술적 중요성도 있지만 한국전쟁과 같이 특수한 여건하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기여한 점과, 그 승리 자체만으로도 다각적인 의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논평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백마고지 전투의 전승 의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첫째로, 이 지역의 전술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철의 3각 지대(철원~금화~평강을 연하는 지대)라고 불리는 이 일대의 지역은 피아간에 중시하는 요지요부로서, 동서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 서울로 연결되는 기계화부대의 기동로가 모두 이 곳에서 교차되고, 중부전선 일원에 걸친 병력의 이합집산이 용이한 공간 지대가 되어,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전술적 우

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곳이다.

여기에서 만일 백마고지를 상실한다면, 철원 평야와 주요 도로 즉, 3번, 463번, 464번 도로 등을 내놓고 4 km 후방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점을 모두 적에게 넘겨 주는 결과가 되며, 반면에 아군은 측방과의 연결이 어려워지고 작전상에도 크게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고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철원 평야에서 현재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선 후방의 철원~금화~화천에 이르는 측방 도로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52년 6월부터 전 전선에서 전개된 고지 쟁탈전 양상이 일반적으로 적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어 고지를 상실하면, 아군은 이를 탈환하는 형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아군은 고지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만을 탈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중공군 측에서 중부 전선의 요지라고 하는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공격하였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큰 것이었다.

적이 노리는 이 회심의 일전을 제 9사단 장병들이 격파함으로써 저들은 능력의 한계를 느낀 반면에, 아군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저격능선전투와 같은 선제공격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사실상 이 두 지역의 쟁탈전을 끝으로 전 전선에서 열기가 식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일부 소규모의 고지 쟁탈전이 전개된 바 있었으나 새로운 고지에 대한 공격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백마고지 전투를 고비로 하여 저들은 고지 쟁탈전을 단념한 것이 분명하였다.

세째로, 국군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였다.

당시 휴전 회담 기사 취재차 판문점에 상주하던 내외 기자들이 회담의 결렬과 더불어 개시된 백마고지 전투의 교전 현장으로 물려와, 제 9 사단 장병들의 용전상과 사단장의 부대 지휘 능력을 지켜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기사를 타전하여 우방국의 주요 일간지에 보도함으로써 국군의 발전 내용과 전투역량을 찬탄해 마지 않았다.

이 무렵 미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군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으면서도, 지난 51년 4월에 전개된 적의 춘계공세에서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지휘 능력의 부족과 훈련 미숙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점진적인 육성 방안 즉, 250,000 명에서 360,000 명으로 증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차에 이와 같이 제 9 사단이 국군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인해 우방국에 신뢰감을 안겨 주어 전투가 끝난 직후인 10월 25일, 463,000 명으로 확장 증편한다는 10개 사단 증편안을 확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책적인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은 사실이나 UN 군 사령관과 미 제 8 군 사령관, 특히 맨 플리트 대장은 한국군이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력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보여 주었다고 찬양하면서 이 증편안을 뒷받침해 주었다.

결국 국군은 이 때부터 장족의 발전을 기약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국민의 군대로서 성장해 왔다.

네째로, 휴전 협상에 임하는 UN 측 대표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전선에서의 교전 상황과 정치 협상이 항상 직결되고 있던 때인 만큼, 백마고지 전투와 그 뒤에 있는 저격능선전투의 승리는 공산측으로 하여금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일방적인 승리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으며, 특히 351 고지와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등 중동부 전선에서 아군이 교전을 치르고 있던 시기의 대규모 작전이었던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전략적인 면에서도 큰 뜻이 있었다.

당시 회담 장소에서는 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극도로 대립하는 상태였으며, UN 측 대표의 입장은 반공 포로를 다시 사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전선의 상황을 아군측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놓음으로써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단 장병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 전투는 고지 쟁탈전의 반복과 더불어 전황 속보가 연일 지상에 보도됨에 따라 하나의 작전 차원을 넘어서 싸우는 나라의 국민적 긍지라는 심리적 작용까지 수반하여 땀스나 뺨앗기스나의 명예를 건 처절한 싸움이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UN 군의 화력 대결이라는 표제가 등장하는가 하면 국군의 역량을 시험한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실제로 미 제 8군에서는 미 제 3사단을 철원 남쪽에 대기시켜 놓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김종오 장군에게 자신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장병들은 지난 현리 전투에서의 오욕을 씻

기 위하여 더욱 단결되었고, 이 정신력이 곧 투혼으로 승화되어 적의 인해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으며, 이 때부터 중공군도 별것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사기와 국군의 명예를 드높인 동시에 제 9 사단의 전투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다음 격전지인 저격능선전투에 다시 투입되게 되었다.

여섯째, 전술교리면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

예비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역습에 성공한 점이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대 교대를 실시한 점, 그리고 지원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감없는 화력 지원을 받은 점과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투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한 점 등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신병의 무리한 투입에서 오는 병력손실과 야간전투 능력의 부족, 그리고 전사자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 등은 반성해야 할 교훈을 남겨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는 3,416 명이라는 사상자와 함께 포병, 전차, 항공지원 등의 막대한 물량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얻은 전승의 값진 의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 지휘관의 명예 위하여 !
- 국군의 명예를 위하여 !
-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
- 몸으로써 백마산을 지키신 님들의 충혼은 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 비문

천지를 뒤흔들던 포성은 잠들고 비 오듯 쏟아지던 총탄은 사라졌다. 이 능선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용사들이 흘리고 간 거룩한 피는 송이송이 꽃이 되어 조국의 이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단기 4285년 10월 6일 19:00, 중공 제38군의 전 주력이 빗발치는 포열의 지원 밑에 어둠을 타서 공격해 오던 열흘 동안, 피아 폭탄 낙하는 30만 발을 헤아렸고, 고지의 임자가 바뀌지기 스물 네 번, 포탄 가루와 시체의 혼성, 진애는 사람의 무릎을 채우

266 제 7 장 전승의 의의

고 산용은 백마형으로 일변하여 시산혈하를 이루었으나, 총용한 제 9 사단 장병들은 솟구쳐오르는 분노와 함께 기어코 구천여 명의 적을 무찌르고 이 땅을 지켰노라.

일찌기 조국이 위난한 어떤 때에도 없었던 그대들의 영웅적 투지는 온 겨레의 거울이 될지니, 그들의 나라 위한 일편단심 여기에 새겨 백마고지와 더불어 먼 뒷날 우리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애국의 이름 외치면서 뒤를 이어 받도록 하리라.

단기 4290년 7월 15일

제 5 군단 세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소재)

부 록

1. 전투 일지
2. 피아 전투 서열
3. 각종 통계
4. 증언자 인명록
5. 색인
6. 상황도

부록 1

전 투 일 지

(1952. 10. 1~10. 31)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10. 1	수	맑음		• 보병 제 9 사단 현 주지항선을 확보중이며 적과 접촉 없음. • 금성(金城) 동방 2개 고지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함. • B-29중폭격기대 수풍(水豊) 부근 남산리(南山里) 적 화학공장을 폭격함. • 제주도 제 7 포로수용소 중공군 포로의 폭동으로 165명의 사상자 발생.
10. 2	목	맑음		• 보병 제 9 사단 수색중대 하진명동(下眞明洞) 부근에서 중공군 2개 분대와 조우, 45분간 교전 끝에 격퇴함. • 보병 제 3 사단 북한강 동방의 “와이어” 고지에서 중공군과 교전 후 약간 철수함. • UN군 F-86 세이버 제트기가 신의주 상공에서 적 미그기 1대를 격추함.
10. 3	금	맑음		• 보병 제 9 사단 각 연대대향 체육대회 개최. • 보병 제 9 사단 중공군 귀순자 “곡중교”로부터 중공 제 38군이 백마고지를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함. • UN군부대 연천(漣川) 북서쪽 “노리고지”를 탈환함. • UN군부대 중동부 전선에서 3개 전초진지를 상실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10. 4	토	맑음	08 : 00 22 : 30	• 보병 제 9 사단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작전명령 제85호를 하달, 진지를 강화함. • B-29중폭격기가 야간출격하여 백마산 북쪽의 적진을 폭격함. • 전 전선의 지상군부대는 비교적 평온함. • UN군 세이버 제트기대가 북한 상공에서 미그 제트기 2대를 격추함. • 공산군 미그 제트기 4대가 원산(元山)북방 25마일 지점 상공에서 미합 재기를 공격, 1대를 격추함. • 밴 플리트 사령관은 국군 제2751부대에 평강(平康)작전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문을 전달함.
10. 5	일	흐림		• 보병 제 9 사단 백마산 진지를 강화하고 장애물을 설치함. • B-26경폭격기대 백마산 북쪽의 중공군 진지를 폭격함. • 보병 제 3 사단, 북한강 동방 3개 전초진지에 대한 적의 공격을 격퇴함. • UN군 보병부대 판문점 동쪽 외곽지대 고지상의 적 진지에 대하여 공격함. • UN해군 함재기대가 제 5 공군과 합동으로 회령(會寧) 유류저장소를 폭격함. • UN군 포로수용소 당국은 종래 포로로 오인, 수용된 11,000명의 한국인 민간 억류자를 6일부터 마산수용소에서 석방한다고 발표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10. 6	월	맑은후 한때비	15 : 00 19 : 00	• 보병 제 9 사단 백마산 진지에 적의 대대적인 포격이 개시됨. • 중공 제 340 연대 백마고지를 공격, 국군 제 30 연대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함. • 공산군은 전 전선의 3분지 2에 걸친 지역에서 주요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 • 판문점으로부터 문등리 계곡에 이르는 각처에서 전차와 중포의 지원을 받는 중대 또는 대대규모의 공방전을 전개함. • 미 합재기대는 제 5 공군과 함께 회양(淮陽) 적 보급 및 병력 집결지를 폭격함. • 마산 수용소에서 민간인 억류자 석방 개시, 제 1 일에 경북 출신 500 명을 석방함.
10. 7	화	흐리다 맑음	05 : 00 19 : 20 23 : 00	• 보병 제 9 사단 적의 제 1 차 공격을 격퇴함. • 적의 재공격으로 395 고지를 상실함. • 보병 제 28 연대 제 30 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395 고지 탈환전을 전개함. • 공산군이 기록적인 포격하에 전 전선에서 고지 쟁탈전을 전개하여 UN군은 7 개의 전초진지를 상실함. • 철원 북쪽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에서 가장 치열한 교전이 전개됨. • 공산군은 7 일 18 : 00 까지 전 전선에서 93,000 발의 포탄을 발사, 종전 포격 기록의 2 배를 능가함. • UN군 전폭기대가 우군 지상군 부대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 를 엄호하고 적의 진지를 맹공격함. - 거제도에서 공산군 포로의 명령불복종으로 16명의 포로부상자가 발생함.
10. 8	수	맑음	02 : 40 08 : 10 23 : 05 22 : 00 ~ 24 : 00	- 보병 제28연대의 역습 성공으로 395 고지를 탈환함. - 우군 함재기대의 오폭으로 인하여 다시 395 고지를 상실함. - 보병 제28연대 제3대대의 역습 성공으로 395 고지를 재탈환함. - 보병 제29연대 제51연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266 고지로 집결하고 있음. - 전 전선 도처에서 백병전을 전개, 고지 갱탈전이 최고조에 달함. - 미 제77기동함대 소속 함재기대가 고원(高原) 부근의 철로를 집중폭격함. - UN 공군 전폭기대는 중부 및 서부전선의 지상군 작전을 계속 엄호함. - B-29 및 B-26폭격기대는 동해안 적 보급로를 강타함. - 휴전회담 제122차 본회의에서 공산측은 포로 교환문제에 관한 UN측의 제의를 전면 거부, 해리슨 수석대표 공산측의 성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고 회담을 중단함. - 클라크 사령관 공산측의 휴전회담에 관한 무성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
10. 9	목	맑음	03 : 00 10 : 00	- 보병 제28연대 백마산에서 격렬한 백병전 끝에 395 고지를 상실함. - 보병 제30연대 제3대대 395 고지 탈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14 : 00	환전 개시.
			24 : 00	• 보병 제 9 사단 제29연대를 백마고지 작전에 투입함. • 제29연대의 역습 성공으로 395 고지를 탈환함. • 화살머리고지의 프랑스대대 3 시간 30 분 동안의 격전 끝에 적을 격퇴함. • B-29중폭격기대 평양과 원산 지구의 보급기지를 폭격함.
10. 10	금	맑은후비	03 : 00	• 제29연대(一) 395 고지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200 m 후방으로 철수함.
			06 : 00	• 제29연대 제 2 대대의 역습 성공으로 395 고지를 다시 탈환함.
			08 : 00	• 중공 제335연대의 반격으로 395 고지에서 철수함.
			13 : 20	• 제29연대 특공대의 역습 성공으로 395 고지 탈환함.
			19 : 30	• 중공 제335연대의 재공격으로 말미암아 395 고지에서 연속적인 혈투가 전개됨. • 백마고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고지쟁탈전이 약간 완화됨. • 미 제 5 공군소속 전폭기대는 연일 중서부 전선의 적 진지를 계속 강타함. • UN군 세이버 제트기대가 신의주 상공에서 미그기 2 대를 격추, 3 대를 격파함. • 미 제 8 군 사령부는 1일부터 7일까지의 전과를, 사상 4,781명, 적 부상 2,692명, 포로 52명, 계 7,525명이라고 발표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10. 11	토	흐리고 한때비	15 : 30 20 : 00 23 : 00	• 중공 제38군의 재공격으로 다시 395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됨. • 제29연대의 진지가 크게 돌파되고 395 고지가 다시 적의 수중에 넘어감. • 제29연대의 역습이 부진함. • UN군 F-86전폭기대가 북한 서북상공에서 3 회의 공중전을 전개하여 미그기 5 대를 격추함. •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10일까지 1 주일 간의 공중전에서 F-86전폭기 1 대를 포함하여 아군기 6 대를 상실하고 적기 13 대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함. • 휴전회담 공산측 대표는 UN 대표측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고 정식 항의문서를 전달함.
10. 12	일	맑음	08 : 00 13 : 20 17 : 00 24 : 00	• 제30연대가 목표 A, B, C, D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 • 제30연대 제 1 대대의 과감한 돌격으로 395 고지를 탈환함. • 제30연대 적의 주간공격을 격퇴함. • 제30연대 395고지에서 야간방어에 성공함. • 기타 전 전선은 탐색전 정도로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UN군 F-86전폭기대가 북한 상공에서 미그기 15 대와 공중전을 전개, 3 대를 격추하고 2 대를 격파함. • 미 해군당국은 항공모함 로스앤젤레스 호가 한국전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UN공군기들은 여전히 지상군의 작전을 적극 지원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10. 13	월	맑음	03 : 00	• 제28연대 제 1 대대와 제 3 대대 초월 공격을 단행하여 목표 A, B, C, D를 공격함.
			05 : 00	• 제28연대 제 9 중대 목표 D를 탈환함.
			08 : 00	• 제28연대 제 3 대대(一) 목표 A를 탈환함.
			17 : 00	• 적의 반격으로 장송고지에서 혈전이 전개되었으나 제28연대 제 1 대대의 용전으로 장송고지를 끝까지 확보함.
			19 : 00	• 중공 제336연대의 반격으로 목표 A를 다시 상실함. • 제51연대 지역의 391 고지(철마고지)에서 또 다른 고지쟁탈전을 전개한 끝에 동 고지를 상실함. • 금성(金城) 남동쪽 지형능선에서 한국군 부대가 8일 전에 상실한 1개 전초진지를 탈환함. • B-29중폭격기대가 아침 일찍 해주(海州) 반도를 폭격함. •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밴 플리트 대장을 대동하고 제 9 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함. • 밴 플리트 장군은 전선시찰 후 “백마고지 전투는 1년 기간 중 가장 격렬한 고지 쟁탈전이었으며 한국군 제 9 사단은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명함.
10. 14	화	흐린후 맑음	06 : 00	• 제29연대 2개 대대 목표 A, B, C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
			20 : 00	• 제29연대 2개 대대가 축차로 목표 A를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아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직도 교전이 반복되고 있음. • 국군 제 2 사단 금화(金化) 북쪽의 저격능선을 공격 개시함. • 미 제 7 사단은 저격능선 서쪽의 삼각고지를 공격함. • B-29중폭격기대가 원산지구 적 보급시설을 폭격함. • 거제도에서 공산 포로가 경비병의 명령에 불복, 반항사태가 발생하여 포로 15 명이 부상함.
10. 15	수	흐림	06 : 20 10 : 40 11 : 00 18 : 00	• 제29연대 제 3 대대 목표 A를 탈환함. • 제29연대 제 2 대대 목표 B를 탈환함. • 제29연대 제 5 중대 목표 C를 탈환함. • 보병 제 9 사단은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매듭짓고 주저항선을 정비함. • 금화 북쪽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서 백마고지 전투와 비슷한 양상의 고지쟁탈전이 전개됨. •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지난 16 개월 간 지상군 작전의 지원 출격횟수가 32, 300 회에 달한다고 발표함. • 미 국방성은 한국 전선에서 희생된 미군의 총수는 131, 154 명이라고 발표함. • 휴전회담 공산측 대표부는 선전전을 되풀이하며 회담 재개의 막후 교섭을 시도함.
10. 16	목	맑음		• 중공군 부대가 북한강 서쪽의 지형능선에 대하여 3회에 걸친 탐색공격을 가함. • 국군 제 2 사단과 미 제 7 사단은 저격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능선과 삼각고지에서 연일 격전을 전개함. • 미 공군 소속 C-46수송기 1대가 강릉 비행장 이륙 후 행방불명됨. • 미 해군당국은 지난 13일, 구축함 및 소해정 각 1척이 동해안에서 작전중, 적의 해안포격에 피격되어 승무원 1명이 전사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함. • 해리스 UN측 수석대표는 남일에게 “UN측의 견해를 수락하거나 독자적이고 건설적인 새로운 안을 제안할 때는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서한을 통고함. • 김일성과 땡덕회는 공동 명의로 클라크 UN군 사령관에게, “모든 포로를 쌍방이 송환하여 조속히 휴전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 회담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함.
10. 17	금	맑음	03 : 00	• 제28연대 제 2 대대가 391고지 탈환전을 전개하여 07 : 05에 목표를 탈취함. • 저격능선 및 삼각고지 전투는 날로 치열화함. • 금화 북서쪽 “제인 랫셀”고지에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나 미 제 7 사단이 적을 격퇴하고 계속 확보함. • 공산군이 금일 하루 동안에 야포와 박격포 등 23,400발을 발사함. • B-29중폭격기대는 평양 지역 적 보급기와 신안주 지역 군사 시설을 폭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격함.
10. 18	토	맑음	06 : 30	• 제28연대 제 2 대대 391 고지에서 대대 규모의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퇴함. • 제 2 사단은 저격능선의 3분지 2를 장악하고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함. • 미 육군 고사포부대가 부산에 상륙함. • 신성모 국방장관 제 9 사단을 방문하여, 수훈 24장병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장병들의 전공을 치하함. • 하지 미 지상군사령관은 미 제 9 군단장을 대동하고 제 9 사단을 방문, 장병들의 전공을 찬양함.
10. 19	일	맑음		• 제 9 사단 제28연대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계속 391 고지를 확보함. • 중공군은 1개 연대 병력을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로 투입하여 야간공격을 강행, 치열한 교전이 반복됨. • 미 지상군 사령관 하지 대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 중공군 전술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과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군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함.
10. 20	월	맑음		• 제28연대 제 2 대대 391 고지에서 적의 집중포격을 받아 200 m 남쪽으로 철수함. • 저격능선에서 제 2 사단 장병들이 맹렬한 백병전을 전개함. • 미 제 7 사단 삼각고지를 상실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 이승만 대통령은 미 제 5 공군을 방문하고 6개 비행대대에 부대표창장을 각각 수여함.
10. 21	화	비		• 제 9 사단은 다시 391 고지(철마고지) 탈환전을 전개, 3차에 걸친 육박전을 감행함. • 제 2 사단은 저격능선에서 혈투를 전개한 끝에 적의 야간공격을 격퇴함. • 삼각고지 전투는 점차로 약화됨. • 기타 전 전선에서는 접적이 경미함. • 이승만 대통령은 중부전선을 시찰하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용맹을 날린 제 9 사단 장병들의 전공을 치하함.
10. 22	수	흐림		• 제 9 사단은 계속 391 고지 탈환전을 전개함. • 제 2 사단은 중공군 2개 대대의 공격으로 상실한 저격능선을 9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재탈환함. • UN군 세이버 제트기대가 압록강 부근 공중전에서 미그기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손상시킴. • 판문점에서 쌍방 연락장교 간에 막후 교섭을 시도함.
10. 23	목	맑음		• 제 9 사단은 수차에 걸친 돌격 끝에 철마고지를 탈환함. • 제 2 사단은 저격능선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함. • 대대규모의 중공군부대가 연천 서쪽 “지브랄탈” 고지를 야간공격함. • UN군 세이버 제트기대 북한 서북 상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공에서 공중전을 전개 미그기 1대를 격추하고 1대에 손상을 가함. • 미 국방성은 지난 주 한국전선에서 손실한 미군 사상자 수는 963명으로 지난 7월 이래의 주간 최고 손실이라고 발표함.
10. 24	금	맑음		• 제28연대의 391 고지 전초중대는 다시 적의 공격을 받아 고지 정상에서 100 m 후방으로 철수함. • 제 2 사단은 항공 근접지원하에 저격능선을 공격, Y고지까지 장악함. • 영연방사단 예하부대가 연천 서쪽 리틀—지브랄탈 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함. • 미 함재기들은 국경의 해산진을 폭격함. • UN군 포로수용소 당국은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명령에 불복한 23명의 부상포로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10. 25	토	흐림		• 보병 제 9 사단은 10월 26일 06 : 00를 기하여 현 작전지역을 미 제 3 사단에 인계하고 사창리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접수함. • 보병 제 2 사단은 저격능선에서 4시간 동안의 공방전 끝에 A고지를 확보함. • 미 제 7 사단은 삼각고지 북서쪽의 “파이크”봉을 2차에 걸쳐서 공격하였으나 실패함. • 판문점 부근 병커고지에 대한 적의 탐색공격을 격퇴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 미 전함 미조리호가 단천지구 공산군 진지 및 보급시설을 포격함. • 미 제77기동함대 소속 함재기대는 원산 서쪽 탄광지대 및 양덕지구 공산군 보급시설을 공격함. • UN공군 세이버 제트기대가 신의주 상공에서 공중전을 전개, 적의 미그기 2대를 격추함. • 미 제8군 사령부는 현재 한국전선에 있는 UN군 부대의 명칭을 일체 공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10. 26	일	맑음		• 보병 제9사단은 군단 작명에 의거하여 현 진지를 미 제3사단에 인계하고 사창리로 철수 개시함. • 제9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10월 26일부로 육본으로 전출하고 김점곤 준장이 제9대 사단장으로 부임함. • UN군 부대는 동부전선 단장의 능선에 대한 1개 대대 규모의 적의 공격을 격퇴함. • 금화 지구의 저격능선, 삼각고지, 제인 랫셀 고지에서는 전날과 다름없이 계속 공방전을 전개함. • 2개 대대규모의 중공군 부대가 판문점 북서쪽 3마일 전선에서 UN군 외곽진지를 야간공격함. • B-29중폭격기대는 평양 부근의 공산군 보급기지과 양덕 부근의 군사시설을 폭격함.
10. 27	월	흐림		• 제9사단은 사창리의 제5 FTC에서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부대정비에 들어감. • 제 2 사단은 저격능선에서 적의 탐색 공격을 격퇴함. • UN군 부대가 판문점 동방 벙커고지를 포기하고 주저항선으로 철수함. • 미 해병대는 서부전선 후크능선을 공격, 이를 탈환함. • UN공군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적 미그기 1대를 격추함. 이 공중전에서 적기를 격추시킨 웨브스레 중위는 낙하산으로 하강한 적의 조종사가 동양인같이 보였다고 증언함.
10. 28	화	맑음		• 제 9 사단 사창리로 집결 완료. • 국군 및 UN군은 중동부 전선의 저격능선, 지형능선, 피의 능선에서 적의 공격을 모두 격퇴함. • 미 해병대가 판문점 동방 UN군 진지 외곽지대로 침투한 중공군을 격퇴함. • 적군측은 금일 18:00 까지 24 시간 동안에 22,900발의 포격을 가함. • 미 제 5 공군 사령부는 제 8전폭기대가 27일로서 합계 50,000 회의 출격기록을 수립했다고 발표함.
10. 29	수	맑음		• 제 2 사단 소속 저격능선 방어부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A고지에서 철수함. • 제 2 사단 소속 보전협동부대는 역습을 감행하여 치열한 교전 끝에 A고지를 탈환함.

월 일	요일	날 씨	시 간	내 용
				• 삼각고지에 대한 적의 2차에 걸친 야간공격을 격퇴함. • UN군 부대가 전일 상실한 철마고지를 탈환함. • 미 국방성은 한국전쟁에 있어서 주간 미군 사상자 수가 1,278명에 달하여 지난 1년 동안의 기록 중 초유의 피해라고 발표함. • UN군 당국자는 UN군에 고용된 일본인 기술자 2,000명의 즉각 해고는 미정이며 이 문제를 놓고 한국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발표함.
10. 30	목	맑음		• 저격능선 A고지에서 격전이 계속됨. • 2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야간에 삼각고지를 공격하여 격전이 전개됨. • B-29중폭격기대는 원산지구의 적 보급기지를 폭격함. • 광주 포로 수용소에서 소요, 탈출을 기도하던 포로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함.
10. 31	금	흐린후 맑음		• 제 9사단 제30연대는 군단 작전지시에 의거, 10월 31일부로 제 2사단에 배속과 동시에 삼각고지 탈환작전에 임함. • 제 2사단은 저격능선상 A고지를 격전 끝에 확보함. • 미 제 7사단은 적의 압력을 받아 삼각고지에서 철수한 후, 군단 작전지시에 의거 동 전투지역을 국군 제 2사단에 인계함.

부록 2

피아 전투 서열

(1) 아 군

제 9	사 단 장	소 장	金	鐘	五
제 28	연 대 장	대 령	李	周	一
제 1	대 대 장	대 위	金	三	曾
제 1	중 대 장	중 위	李	昇	洙
제 4	중 대 장	대 위	朴	漢	英
제 2	대 대 장	소 령	尹	永	模
제 5	중 대 장	중 위	李	世	根
제 6	중 대 장	중 위	金	雲	璣
제 7	중 대 장	중 위	張	炳	雲
제 3	대 대 장	중 령	崔	昌	龍
제 9	중 대 장	중 위	黃	元	外
제 10	중대장대리	소 위	林	必	勲
제 11	중대장대리	소 위	鄭	洛	龜
제 12	중대장대리	소 위	李	良	雨
수 색	중 대 장	중 위	李	永	朝
제 29	연 대 장	대 령	金	鳳	喆
제 1	대 대 장	소 령	李	大	哲
제 1	중 대 장	대 위	金	大	具
제 2	중 대 장	대 위	文	錫	潤
제 3	중 대 장	대 위	李	榮	星
제 4	중 대 장	대 위	金	曉	昌
제 2	대 대 장	소 령	金	印	珍
제 5	중 대 장	중 위	朴	慶	塚
제 6	중 대 장	중 위	元	敦	鳳
제 7	중 대 장	중 위	金	貞	振
제 8	중 대 장	대 위	具	容	燮
제 3	대 대 장	중 령	朴	淳	燦
				燦	剛

	제 9	증	대	장	증	위	徐	慶	善
	제 10	증	대	장	증	위	楊	正	鎭
	제 11	증	대	장	대	위	崔	秉	瓚
	제 12	증	대	장대리	대	소	金	錫	南
	수색	증	대	장	대	위	李	圭	大
제	30	연	대	장	대	령	林	益	淳
	제 1	대	대	장	대	령	金	永	先
	제 1	증	대	장	대	위	具	本	源
	제 2	증	대	장	증	위	徐	斗	守
	제 3	증	대	장	대	위	金	晶	植
	제 4	증	대	장	대	위	金	吉	龍
	제 2	대	대	장	대	령	金	祥	玉
	제 5	증	대	장	대	위	方	鍾	燮
	제 6	증	대	장	대	위	曹	德	偉
	제 7	증	대	장	대	위	李	春	奇
	제 8	증	대	장	대	위	金	在	奉
	제 3	대	대	장	대	령	金	趙	國
	제 9	증	대	장	대	위	朴	南	遠
	제 10	증	대	장	대	위	方	碩	鎬
	제 11	증	대	장	대	위	孫	月	用
	제 12	증	대	장	대	위	李	祚	英
제	51	연	대	장	대	령	全	富	一
	제 1	대	대	장	대	령	李	基	煥
	제 2	대	대	장	대	령	朴	哲	遠
	제 3	대	대	장	대	령	金	白	泳
제	1	포	병	단	장	증	령	朴	乘
	제 30	포	병	대	대	위	權	五	明
	제 51	포	병	대	대	령	孫	善	陽
	제 52	포	병	대	대	령	河	永	燮
	제 9	증	박격포	증	대	위	文	逸	秀
	제 53	전	차	증	대	위	趙	七	星

화 력 증 원

제 50 포 병 대 대

미 제 49 포 병 대 대

미 제 213 포 병 대 대

미 제 955 포 병 대 대

전 차 지 원

미 제 73 전 차 대 대

조 명 지 원

미 제 86 공병대 조명중대

(2) 적 군

중공 제 38	군 장	강	응	휘
제 112 사 단	장	양	대	이
제 334 연 대	장	리	창	핑
제 335 연 대	장	창	인	동
제 336 연 대	장	이	유	신
제 113 사 단	장	당	청	산
제 337 연 대	장	미		상
제 338 연 대	장	미		상
제 339 연 대	장	미		상
제 114 사 단	장	책	중	유
제 340 연 대	장	관	구	명
제 341 연 대	장	미		상
제 342 연 대	장	선	호	태

부록 3

각 종 통 계

(1) 전과(10. 6. 19:00~10. 15. 13:00)

구 분 \ 대 별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계
사 살		2,790	3,836	1,608	8,234
포 로		17	21	19	57
추 정 살 상		3,408	1,150	1,540	6,098
노 획	소 총	121	524	176	821
	자 동 소 총	3	11	13	27
	기 관 단 총		19	2	21
	기 관 총	14	15	12	41
	3.5" 로 켓 포	3	11	8	22
	57 mm 무반동총	2	2	7	11
	60 mm 박 격 포	2	16	5	23
	82 mm 박 격 포		2		2
	무 전 기	1	3		4
	방 독 면	56	4	13	73

자료 : 제 9 사단 전투상보

(2) 손실(10. 6. 19:00~10. 15. 18:00)

대 별 구 분		제 28 연대	제 29 연대	제 30 연대	공병 대대	수색 중대	제 9 중포대 제 9 중 박격 중대	계
전 사	장 교	9	6	7				22
	사 병	150	168	160	2		2	482
부 상	장 교	37	18	37			1	93
	사 병	965	646	795	10	8	4	2,428
실 중	장 교		1	1				2
	사 병	154	54	181				389
계	장 교	46	25	45			1	117
	사 병	1,269	868	1,136	12	8	6	3,299

자료: 제 9 사단 전투상보

(3) 병기 망실 통계표(10. 6. 17:00~10. 15. 17:00)

종 류 \ 대 별	제 28 연대	제 29 연대	제 30 연대	공병 대대	수색 중대	계
카빈 소총	60	42	143	7	2	254
M-1 소총	190	75	339			604
자동 소총	12	3	25			40
기관총	3	2	7			12
3.5" 로켓포	4	2	4			10
57 mm 무반동총	1					1
60 mm 박격포	2					2

자료: 제 9 사단 전투상보

(4) 실탄 소모량(10. 6. 15 : 00 ~ 10. 15. 15 : 00)

사단종합

탄 종	수 량	탄 종	수 량
카 빈 소 총	642,165	60 mm 박 격 포	1,563
M-1 소 총	2,743,616	81 mm 박 격 포	36,080
자 동 소 총	130,805	81 mm 조 명 탄	3,469
기 관 총	1,212,104	수 류 탄	86,872
기 관 단 총	80,375	총 류 탄	3,802
중 기 관 총(Car 50)	33,209	57 mm 무 반 동 총	1,428

자료: 제 9 사단 전투상보

(5) 포탄 소모량(10. 6. 18 : 00 ~ 10. 15. 18 : 00)

대 별 \ 종 류	105 mm	155 mm	4.2"	계
제 30 포 병 대 대	48,661			48,661
제 50 포 병 대 대	17,343			17,343
제 51 포 병 대 대	21,689			21,689
제 52 포 병 대 대	58,056			58,056
미 제 213 포 병 대 대		36,326		36,326
미 제 955 포 병 대 대		22,011		22,011
제 9 중 박 격 포 중 대			15,868	15,868
계	145,749	58,337	15,868	219,954

자료: 제 9 사단 전투상보

(6) 병력보충 통계표

범례 : 장교 / 사병

대 별 일 자	제 28연대	제 29연대	제 30연대	사단직할	계
10월 7일	1 /				1 /
10월 8일	1 /		1 /		2 /
10월 9일		/ 1			/ 1
10월 10일	/ 438	1 / 96	/ 355		1 / 889
10월 11일	3 / 98		11 / 200		14 / 298
10월 12일		/ 100	17 / 249		17 / 349
10월 15일	/ 135	/ 97	/ 61	/ 7	/ 300
계	5 / 671	1 / 294	29 / 865	/ 7	35 / 1,837

자료 : 제 9 사단 전투상보

부록 4

증언자 인명록

(참전 당시)

소 속	직 책	계급	성 명	증언일자
제 9 사 단 사 령 부	사 단 장	소장	金 鐘 五	65. 3. 4
제 9 사 단 사 령 부	부 사 단 장	대령	金 東 斌	67. 5. 18
제 9 사 단 사 령 부	작 전 참 모	중령	尹 泰 皓	66. 8. 7
제 9 사 단 사 령 부	군 수 참 모	중령	金 在 春	67. 2. 14
제 9 사 단 사 령 부	통 신 참 모	소령	劉 漢 鍾	66. 2. 29
제 9 사 단 사 령 부	작 전 처 교 육 과 장	대위	裴 聖 淳	65. 8. 9
제 9 사 단 사 령 부	상 황 장 교	대위	沈 明 浚	66. 4. 9
제 9 사 단 사 령 부	항 공 작 전 장 교	소위	李 靈 揆	65. 8. 9
제 9 사 단 사 령 부	사 단 통 신 중 대 장	대위	金 德 壽	65. 11. 25
제 9 사 단 사 령 부	통 신 장 교	중위	金 鍾 圭	66. 8. 18
제 9 사 단 사 령 부	병 기 중 대 장	대위	金 鍾 烈	65. 8. 4
제 9 사 단 사 령 부	현 병 소 대 장	소위	崔 東 奎	66. 4. 2
제 9 사 단 사 령 부	경 리 장 교	소위	鄭 正 基	66. 8. 17
제 9 사 단 사 령 부	사 단 수 색 중 대 장	대위	姜 章 憲	65. 7. 18
제 9 사 단 사 령 부	수 색 중 대 제 2 소 대 장	소위	李 武 宰	65. 8. 12
제 9 사 단 사 령 부	공 병 제 1 중 대 장	대위	崔 燦 在	66. 4. 9
제 9 사 단 사 령 부	보급과 선임 하사관	상사	朴 鍾 九	66. 9. 7
제 9 증 박 격 포 중 대	중 대 장	대위	文 逸 秀	84. 10. 24
제 9 증 박 격 포 중 대	작 전 장 교	중위	張 漢 基	80. 3. 25

소 속	직 책	계급	성 명	증언일자
제 1 포 병 단	단 장	중령	朴 秉 柱	65. 11. 19
제 1 포 병 단	작 전 과 장	대위	李 廷 浩	66. 10. 20
제 30 포 병 대 대	대 대 장	대위	權 五 明	80. 5. 3
제 30 포 병 대 대	작 전 장 교	중위	全 珠 植	66. 3. 3
제 30 포 병 대 대	관 측 장 교	소위	高 成 桂	66. 3. 22
제 30 포 병 대 대	관 측 장 교	소위	尹 珍	66. 4. 22
제 30 포 병 대 대	관 측 장 교	소위	兪 鉉 澤	66. 2. 23
제 30 포 병 대 대	관 측 장 교	소위	許 賢 康	65. 11. 26
제 51 포 병 대 대	대 대 장	소령	孫 陽 善	65. 2. 7
제 52 포 병 대 대	대 대 장	소령	河 永 燮	65. 3. 6
제 52 포 병 대 대	전 포 대 장	소위	金 潤 星	66. 8. 5
제 28 연 대	연 대 장	대령	李 周 一	67. 2. 24
제 28 연 대	군 수 주 임	대위	金 相 根	67. 5. 24
제28연대 제 1 대대	대 대 장	대위	金 三 曾	66. 7. 8
제 1 중대	중 대 장	중위	李 昇 洙	74. 2. 12
제 1 중대	소 대 장	소위	權 堯 燮	66. 5. 5
제 1 중대	57 mm 사 수	일병	朱 庚 碩	65. 8. 18
제 2 중대	소 대 장	소위	金 永 俊	66. 5. 6
제28연대 제 2 대대	탄 약 장 교	소위	具 駟 書	66. 8. 20
제 7 중대	소 대 장	"	嚴 夏 永	65. 8. 10
제28연대 제 3 대대	부 대 대 장	대위	權 燾	67. 2. 3
제 9 중대	중 대 장	중위	黃 元 外	65. 8. 19

소	속	직	책	제급	성명	증언일자
제28연대	제9중대	소	대	장	소위 申 鉉 慶	66. 3. 31
	제10중대	소	대	장	소위 李 正 勲	66. 8. 3
	제12중대	소	대	장	소위 李 良 雨	66. 4. 28
제 29 연 대		연	대	장	대령 金 鳳 喆	67. 2. 25
제 29 연 대		작	전	주 임	대위 孫 孝 辰	65. 4. 16
제 1 대대	제 1 중대	소	대	장	소위 李 秀 松	66. 4. 19
	제 3 중대	소	대	장	소위 李 大 煥	67. 10. 18
	제 3 중대	부	분	대 장	병장 李 廣 烈	66. 8. 3
제 2 대대	제 5 중대	소	대	장	소위 徐 鍾 律	66. 8. 3
	제 6 중대	소	대	장	소위 李 完 宰	66. 4. 6
	제 7 중대	소	대	장	소위 金 容 振	65. 4. 16
제29연대	제 3 대대	작	전	장 교	중위 朴 元 洵	66. 7. 15
	제10중대	중	대	장	중위 楊 正 鎭	65. 11. 29
	제10중대	소	대	장	소위 李 男 錫	66. 9. 8
	제10중대	소	대	선임 하사관	상사 王 鳳 碩	66. 8. 4
제 30 연 대		연	대	장	대령 林 益 淳	80. 4. 3
제 30 연 대		부	연	대 장	중령 趙 淵 表	80. 4. 3
제 30 연 대		정	보	주 임	대위 朴 用 詮	80. 5. 8
제 30 연 대		군	수	주 임	대위 李 聖 培	67. 5. 17
제30연대	제 1 대대	대	대	장	소령 金 永 先	73. 8. 4
	제 1 대대	부		관	소위 高 炳 台	80. 4. 1
	제 1 대대	정	보	관	소위 韓 炳 燮	66. 7. 14

소	속	직	책	계급	성 명	증언일자
제30연대	제 1 중대	소	대	장	소위 許 萬 位	80. 2. 16
	제 2 중대	소	대	장	소위 林 翼 龍	80. 3. 31
	제 2 중대	소	총	수	일병 金 鉉 泰	65. 8. 19
	제 2 중대	소	총	수	일병 金 鎭 福	66. 8. 3
	제 3 중대	중	대	장	대위 金 晶 植	65. 11. 18
제 2 대대	제 6 중대	소	대	장	소위 徐 正 東	66. 1. 27
	제 7 중대	소	대	향 도	하사 金 鍾 淳	66. 7. 14
제30연대	제 3 대대	대	대	장	소령 趙 南 國	80. 4. 3
	제 3 대대	정	보	관	소위 李 載 熙	66. 1. 24
	제 3 대대	통	신	장 교	소위 曹 永 厚	66. 5. 12
제51연대	제 1 대대	대	대	장	소령 李 基 煥	73. 11. 28
제 51 연 대		작	전	주 임	대위 金 漢 龍	66. 5. 20

부록 5.

색 인

인 명 색 인

【ㄱ】

康 鳳 宇 : 86, 212
 江 擁 輝 : 29
 姜 章 憲 : 188
 曷 仲 교 : 34
 郭 孝 再 : 81
 寬 具 明 : 53
 光 海 君 : 10
 具 本 源 : 86, 211
 具 淳 燮 : 198
 權 燾 : 237
 權 五 明 : 140
 權 堯 燮 : 232
 金 慶 珍 : 171, 188
 金 奎 燮 : 111
 金 東 斌 : 76, 147
 金 斗 植 : 82
 金 鳳 喆 : 27, 153, 251
 金 三 曾 : 77, 232
 金 相 根 : 134
 金 祥 玉 : 195

金 錫 具 : 162, 249
 金 善 柱 : 140
 金 永 先 : 89, 98
 金 寧 章 : 124
 金 永 俊 : 80
 金 容 振 : 242
 金 雲 璣 : 111
 金 章 河 : 140
 金 在 賢 : 239
 金 點 坤 : 259
 金 晶 植 : 65, 85, 211
 金 鐘 五 : 27, 40, 74, 121, 131, 168,
 205, 224, 250, 259
 金 哲 秀 : 233
 金 學 哲 : 186

【ㄴ】

文 榮 潤 : 198
 文 逸 秀 : 74, 147

【ㄷ】

朴 吉 遠 : 70, 221

朴敦塚：188
朴炳權：23
朴秉柱：187
朴燦剛：159
朴哲遠：239
方碩鎬：67

【人】

徐慶善：160
徐虎潤：66
孫月用：63
宋容吉：175
申一道：95
申鉉慶：233
沈昌燮：108

【○】

安永權：212
楊正鎮：159
吳貴鳳：212
吳瑞林：24
王鳳錫：159
禹亨鎭：161
元貞鳳：193
劉相允：233
尹公洙：186
尹承學：233
尹永模：107
尹珍：56

李南錫：159, 161
李大哲：161, 248
李大煥：166
李炳模：232
李炳文：192
李相汶：238
李成德：211
李承晚：243
李秀松：249
李靈揆：143
李永朝：110, 236
李有信：230
李正勲：124, 228
李周一：27, 105, 232
李昌禎：27
李春成：161
李曉星：166, 250
林慶業：10
林翼龍：99
林益淳：23, 76, 98, 196, 209
林必勲：124

【ㄸ】

張炳雲：192
張漢基：72
全富一：202, 239
全珠植：140
鄭錫吉：159
鄭益斗：233
趙南國：69, 93, 196

趙淵表 : 28
趙原英 : 28
趙七星 : 146

【元】

崔東奎 : 147
崔秉鏞 : 228
崔秉瓚 : 199
崔順榮 : 68
崔昌龍 : 117, 143, 227

【ㅎ】

河吉龍 : 85
河永燮 : 187

許萬位 : 48, 60
黃元外 : 229, 231
黃正洙 : 193
黃震遐 : 29

【외국인】

Clark, Mark W. : 15
Fry, James C. : 76
Jenkins, Reuben E. : 75, 168
Malik, Jakov A. : 12
Ridgway, Matthew B. : 14
Smith, Wayne C. : 76, 239
Van Fleet, James A. : 14, 168, 203
243, 262

지 명 색 인

【ㄱ】

가 단 골 : 92
 가 단 동 : 9, 21, 120
 가 칠 봉 : 23
 간 성 : 15
 강 계 : 28
 강 동 : 28
 강 산 리 : 169
 거 계 도 : 15
 계 웅 산 : 23
 고 대 산 : 22
 교 압 산 : 8
 교지
 245 교지 : 192
 254 교지 : 241, 255
 255 교지 : 41, 71, 77, 106, 121, 132
 153, 199, 214, 227, 248
 250
 266 교지 : 77, 132, 153, 213
 281 교지 : 24
 284 교지 : 41
 300 교지 : 132
 323 교지 : 21
 351 교지 : 14, 32, 263
 358 교지 : 237

362 교지 : 50
 391 교지 : 198, 237, 240, 245, 255
 395 교지 : 7, 9, 20, 37, 42, 61, 105,
 118, 123, 149, 156, 190,
 199, 207, 213, 221, 250,
 256
 396 교지 : 18, 157, 210, 230, 250
 459 교지 : 18
 500 교지 : 25
 596 교지 : 18
 관 우 리 : 43, 133
 군 우 리 : 29
 금 계 곡 : 31
 금 곡 리 : 50
 금 성 : 12, 27
 금 화 : 23, 32, 259, 261
 길 림 성 : 29

【ㄴ】

낙타능선 : 238
 남 강 : 23

【ㄷ】

단장의 능선 : 14
 덕 천 : 28

도 피 동 : 133
 독 김 리 : 31
 독서당리 : 105, 132, 150
 동 해 : 113

【口】

만 포 진 : 28
 묘 장 면 : 8
 문 산 : 15

【日】

발 리 봉 : 238
 백마교지 : 7, 14, 58, 61, 110, 160, 212
 239, 260
 백 마 산 : 19, 59, 75, 99, 127, 140,
 156, 242, 252, 258
 백 학 산 : 50
 보 개 산 : 22
 봉 래 호 : 35, 41
 봉 의 산 : 52
 부 전 : 16
 부 명 리 : 23
 불모교지 : 14, 16
 비 호 산 : 29

【人】

사 리 원 : 28
 사 요 리 : 52

사 창 리 : 259
 사 후 동 : 59, 99, 195, 210
 산 론 리 : 36
 산 명 리 : 8, 20, 50, 62, 218
 삼 봉 동 : 20, 75, 104
 상 마 산 : 9
 상진명동 : 51, 210, 235
 서 울 : 169, 260
 소 이 산 : 43, 52
 수도교지 : 32, 263
 수 풍 : 16
 숙 천 : 258
 신 회 산 : 26

【〇】

압 록 강 : 12
 약 산 동 : 9, 83, 94, 149, 157, 211,
 227, 234
 양 촌 : 74
 역 곡 천 : 20, 35, 45, 143, 153
 연 천 : 28
 외 촌 리 : 57, 173, 180
 외 풍 동 : 31
 외 학 리 : 50
 용 담 : 117
 우 미 동 : 94, 133, 153
 원 산 : 16
 의 주 군 : 10
 이 천 : 258

【ㄱ】

장송고지 : 88, 94, 153, 169, 177, 190,
227, 231, 248, 256
장송동 : 54, 124, 148, 217, 231
장진호 : 16
저격능선 : 14, 259, 261
중강리 : 54
중마산 : 9, 67, 94, 157, 181
중세리 : 59, 231
지형능선 : 32, 263
진남포 : 16

【ㄴ】

철마고지 : 238, 259
철원 : 7, 32
철원평야 : 18, 45, 238, 261
철의 3 각지대 : 15, 260
청천강 : 29
초산 : 28
추가령 지구대 : 8
충성교 : 21, 41, 46, 93, 107, 143

【ㄷ】

켄리고지 : 16

【ㄹ】

관교리 : 44, 77
평강 : 238
평양 : 28
포크참고지 : 8, 14, 32

【ㅎ】

하마산 : 9, 71
하진명동 : 67, 120, 159, 192
학당리 : 238
학저수지 : 43
한강 : 29
한계령 : 22
현리 : 22, 263
홍계동 : 157
화랑고지 : 42, 51, 61, 98, 148, 177,
190, 207, 229, 236, 248
화살머리고지 : 29
화전리 : 43, 133, 150
효성동 : 50, 118
효성산 : 7, 18, 94, 158, 261
호를내 : 36
홍남 : 16
회천 : 28

韓國戰爭 戰鬪史 目錄

多 富 洞 戰 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 年 刊
長 津 湖 戰 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 年 刊
38도선初期戰鬪 (中東部戰線篇)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2 年 刊
仁 川 上 陸 作 戰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 年 刊
龍 門 山 戰 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 年 刊
新寧・永川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 年 刊
白 馬 高 地 戰 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 年 刊

執筆委員：姜 聲 湖

白馬高地戰鬪

韓國戰爭戰鬪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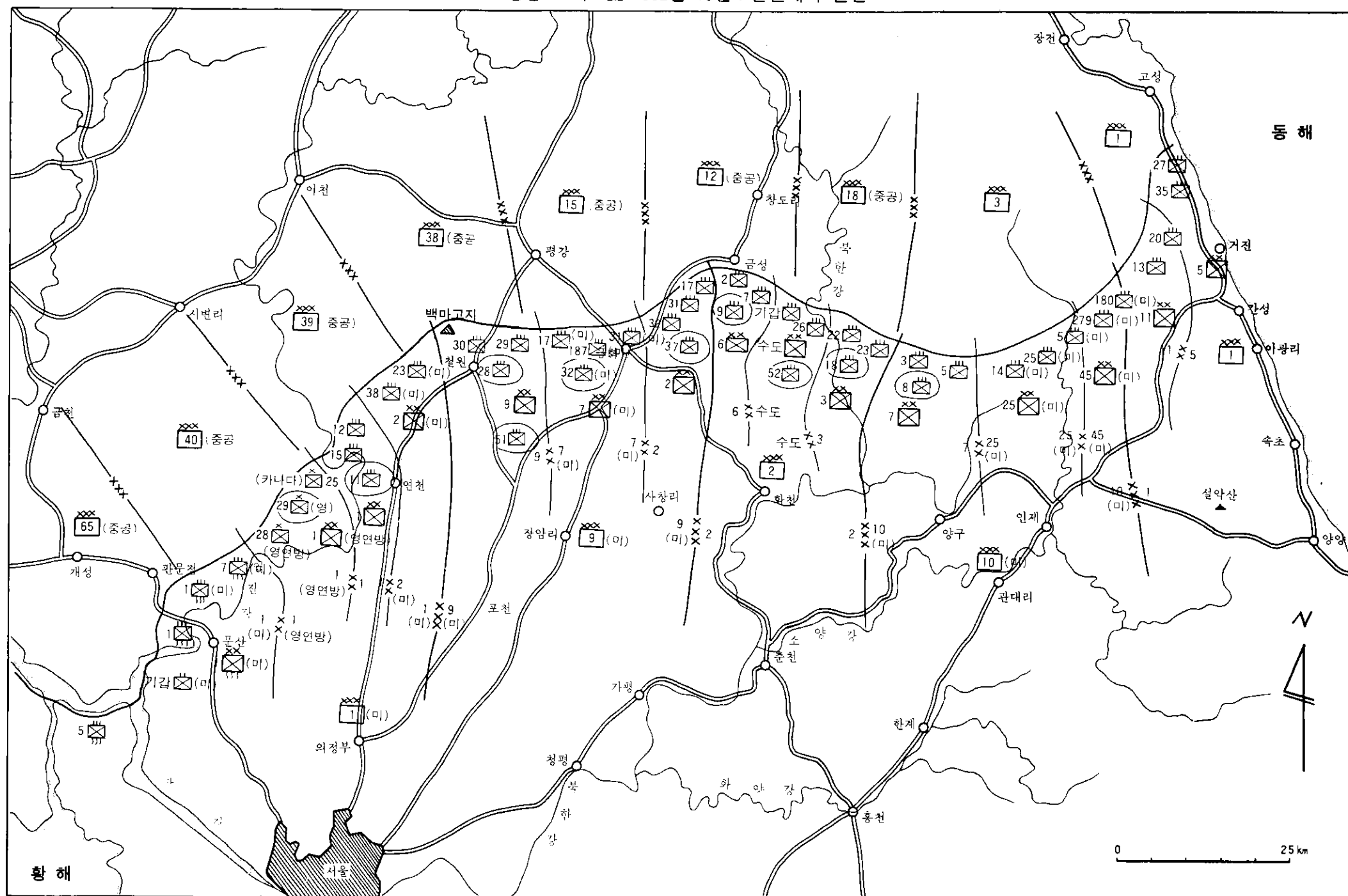
1984 年 12 月 1 日 印刷

1984 年 12 月 20 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洞 山 5-7
	國 防 部 戰 史 編 纂 委 員 會
發行人	尹 錫 宇
印刷處	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105-67
	教 學 社
印刷人	楊 澈 愚

〈非賣品〉

상황도 제 1 호 1952년 10월 1 일현재의 전선



상황도 제 2 호 전투전 피아의 대치상황

